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 비약의 나래

리 동 구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년

# 제 1 장

## 1

머리를 추켜들고 빠른 속도로 솟구쳐오르던 대형려객기가 수평으로 날며 자기 항로에 들어섰다. 베이징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오는 우리 나라 고려항공회사의 비행기였다. 비행기밑으로는 이따금 엷은 구름장들이 흘러갔다. 구름이 사라지면 아득히 내려다보이는 도시와 마을들이 희미하게 륜곽을 드러냈다.

기창들로 찬란한 해빛이 따스하게 흘러들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손님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가볍게 울리는 발동기의 은은한 동음은 음악의 반주처럼 오고가는 대화에 활기를 더해주었다. 비행기소리가 은연중에 자유로이 창공을 날고있다는 유쾌한 기분을 깨우쳐주기때문일것이다. 구석구석에서 조선어와 중어, 영어와 로어로 주고받는 말소리들이 들리였다.

그러나 왼쪽의 세번째 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들은 일본을 다녀오는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금속공학자인 양영복박사와 그의 조수인 박치영연구사였다. 성긴 백발에 몸집이 체소한 양영복박사는 리륙할 때 매였던 안전띠를 아직 풀지 않은채 조는듯 눈을 감고있었다. 지그시 감은 눈까풀이 이따금 떨리는것으로 보아 그 무슨 아픔을 느끼는것 같았다. 강마른 얼굴에 병색이 돌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박치영은 생기와 활력에 넘친 모습이였다. 얼굴에는 윤택이 흘렀고 기창을 겨눈 두눈은 영채롭게 빛났다. 처음으로 외국려행을 해본 그였다. 려행기간에 이웃나라들에서 보고 느낀 모든것은 그에게 이런저런 인상을 남기였다. 그는 양영복박사와 무슨 이야기이든 나누고싶었으나 잠이 든듯 한 로인에게 말을 걸수

가 없었다. 그래서 기창밖으로 흐르는 광막한 우주공간과 아찔하게 내려다보이는 눈덮인 대지에 번갈아 시선을 주었다. 이제 얼마후이면 비행기려행이 끝나버린다. 8 000메터의 고공에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특이한 광경을 머리속에 깊이 새겨두려는듯 박치영은 기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음—》

느닷없이 옆좌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박치영은 머리를 돌리였다.

양영복박사가 얼굴을 찌프리며 눈을 감은채 앙상한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었다.

《선생님…》

박치영은 당황한 기색으로 로인의 팔굽을 잡았다.

《선생님, 심장이 또 발작하는게 아닙니까?》

한껏 근심어린 목소리였다.

《리륙을 할 때부터… 가슴이 활랑거리더니… 끝내 띠끔거리누만.》

양영복은 힘겹게 눈시울을 벌려뜨며 다시 가슴을 쓰다듬었다.

박치영은 난색을 지으며 한숨을 삼켰다. 듣고보니 양영복선생은 여적 평온히 잠에 든것이 아니였다.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눈을 감고있었을뿐이다.

《안내원동무!》

박치영은 복도를 지나가는 안내원을 불러세웠다.

《우리 선생님이 불편해하시는데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왜 소동을 일으키오? 내 병이야 아는 병인데…》

양영복이 박치영을 가볍게 꾸짖었다.

날씬한 몸매에 진곤색제복을 단정히 입은 안내원처녀는 앞의자의 뒤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들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멀미가 나시면 여기다 토하십시오.》

비행기안에서 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대체로 멀미를 하기때문이다. 그래서 안내원처녀는 양영복도 멀미를 하는줄로 안 모양이다.

《아니, 나는 멀미를 하는게 아니요. 심장이 좀 나빠서…》

양영복은 처녀에게 안심을 하라는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랬으나 처녀는 더욱 표정이 긴장해졌다. 멀미라면 례사롭다고 할수 있겠지만 심장탈이라니 가볍게 대할수가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심장이 어떻게 아프십니까?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처녀는 거듭 친절히 물었다.

《걱정하지 마오. 나한텐 비상약도 있소.》

양영복은 넥타이가 흘러내린 옷깃사이로 손을 넣어 자그마한 수지통을 꺼내 열더니 흰약 한알을 혀밑에 넣었다.

《몸을 편히 등받이에 눕히십시오.》

안내원처녀는 의자에 붙은 자동단추를 눌렀다. 등받이가 뒤로 비스듬히 젖혀졌다.

《고맙소. 처녀동무, 이젠 됐으니 돌아가보시오.》

안내원처녀는 얼마후에야 자리를 떴다.

뒤로 젖혀진 의자등받이에 몸을 눕히고 두다리를 길게 뻗친 양영복은 다시 눈을 감았다.

박치영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를 지켜보았다. 고령의 나이에 심장발작이 거듭되면 위험할수 있었다. 동통이 가셔지고 평온한 잠에 들기를 바라며 가슴을 조이였다. 로인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청진기를 대고 귀를 강구는것처럼 그의 숨결소리를 듣고있었다. 점차 숨결이 고르로와지기 시작했다. 얼굴에도 평온한 빛이 되살아났다. 박치영은 안도의 숨을 내불며 머리를 들었다. 그 순간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양영복의 목소리가 들리였다.

《실패한 려행에 심장탈만 도졌으니…》

말끝을 채 맺지 못하는 그 목소리는 절통하게 울리였다.

박치영은 로인을 돌아보았다. 여전히 눈은 감고있었으나 얼굴에는 고뇌가 비껴있었다. 심장의 아픔이 숙어들면서 또 다른 마음의 아픔이 로인을 괴롭히고있는것이 분명했다.

박치영은 무엇때문에 양영복박사가 그처럼 마음속으로 괴로와하는지를 알고있었다. 조국에 도착할 시간이 가까와올수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난감한 처지를 두고 한스러워하는

것이다.

지난해말에 양영복박사가 이끄는 연구집단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티탄합금생산기술을 개발했다. 20년간의 고심어린 탐구의 노력끝에 이루어진 성공이였다. 작년 12월에는 그 기술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9월제련소에서 본격적으로 티탄합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금속공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그러나 생산된 티탄합금을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수 있는 가공기술의 개발이 다음과제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손을 대보지 못한 전혀 생소한 과제였다.

양영복조차도 가공기술개발이 자기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실토했다.

과학원과 정무원에서는 여러차례의 토론끝에 가공설비만은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중 현대적이고 능률적인것이 최근년간에 일본에서 개발되였다고 하였다.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일본의 어느 한 회사와 구입계약을 맺았다.

가공설비를 접수하기 위해 양영복은 박치영을 데리고 일본으로 갔다. 박치영은 젊은 나이였지만 과학기술적판단과 추리가 누구보다 명민하고 예리했다. 현지에서 설비의 기술적성능과 작업공정을 환히 꿰뚫어보는데는 그의 총명한 머리와 밝은 눈이 필요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에 온지는 몇년밖에 안되지만 티탄합금생산기술을 완성하는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양영복은 박치영과 같이 똑똑한 조수를 두고있는것을 다행으로 여기였고 그만큼 그를 사랑하기도 하였다.

첫 며칠간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듯싶었다. 거래를 이어준 일군을 따라 회사에 가보니 듣던바대로 팔겠다는 티탄합금가공설비는 마음에 들었다. 소재가열로며 압착가공공정들이 고도기술로 완비되였다. 쌍방간의 면담이 계속되던 끝에 설비의 가격이 흥정되였다.

마침 그무렵에 니이가다항에 정박하고있던 우리 나라의 《만경봉》호가 나흘후에 떠나기로 되여있었다. 우리측에서는 그 배편으로 설비를 실어오려고 서둘렀다. 우리의 요구대로 회사측은 설비를 니이가다항으로 날라갔다.

그런데 다음날 천만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여적 상대를 하여오던 회사의 전무라는 사나이가 난색을 지으며 나타났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생겨서 부득불 판매계약을 취소해야 하겠습니다.》

판매계약을 취소하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변덕인가? 양영복은 한순간 억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다. 한껏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비비고있는 전무를 뚫어지게 바라볼뿐이였다.

《무슨 까닭입니까?》 박치영이 물었다.

《당국에서 세관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리유인즉 코콤에 저촉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통산성과 법무성에까지 제기했는데 끝내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콤?!》

양영복은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흥분한탓으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국주의나라들이 조직한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략칭 코콤)에는 나토성원국들과 일본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전략물자와 고도기술봉쇄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구를 내오고 일련의 수출금지항목을 제정했던것이다.

《저희들은 국가간의 무역이 아니라 민간급의 거래인것만큼 고도기술제품이라 하더라도 무사할줄 알았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코콤의 적용한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래에 응하였던 우리 측의 불찰로 공연한 걸음을 하게 하였습니다. 참말로 미안합니다.》

상대는 머리를 가볍게 숙여보이며 량해를 구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와 거래를 하는 회사의 판매업무를 맡아보는 전무는 멀쑥한 용모에 사리와 례절도 밝은 사람이였다.

양영복은 가슴 한귀가 꺼지는듯 한 좌절감을 느끼며 무겁게 침묵했다. 듣고보니 회사측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였다. 정치적 고려보다 리윤추구를 앞세우는 회사는 설비를 한대라도 더 팔려고 했을것이다.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전무도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있는것이 분명했다.

《당신의 딱한 립장을 리해합니다. 그런 정황이 조성되였다면 계약을 취소합시다.》

하는수없이 수긍했으나 가슴속에서는 참을수 없는 의분이 끓어올랐다. 만일 일본통산성이나 법무성의 관리가 곁에 있었다면 멱살을 거머쥐고 따지고싶었다. 이놈들아, 수십년간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반성할 대신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적대감을 고약스럽게 품고있는 네놈들을 력사는 용서치 않을것이다!

《양선생!》

숨을 몰아쉬며 창쪽을 응시하던 양영복은 상대의 친절한 부름소리에 머리를 돌리였다. 상대는 어느새 미안스러운 기색을 가시고 그 무엇을 기대하는듯 한 낯빛이였다.

《이번 일은 유감스럽게 되였지만 우리는 앞으로 코콤에 저촉되지 않는 한계내에서 거래를 계속하고싶습니다.》

《그것은 어떤것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양영복은 무심히 물었다.

《북조선에서 생산되는 티탄합금을 우리에게 팔아주십시오. 북조선의 공업이 아직 티탄합금으로 가공한 제품을 대량 요구할만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필요한 제품들은 우리 회사에서 가공해드리겠습니다. 귀측에서는 가공설비까지 도입하지 말고 원자재그대로 우리에게 파는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

《그러니 고도기술제품은 당신네가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를 팔아달라는겁니까?》

양영복은 참을수 없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점잖고 례절바른 사람으로 여겨지던 상대가 갑자기 딴사람으로 변신된듯싶었다. 마주앉은 그의 웃음기어린 해말쑥한 얼굴이 부릅뜬 눈앞에서 흔들리며 또 다른 한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와이샤쯔소매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팔에 토시같은 덧소매를 끼고 주산을 튀기던 일본사람, 눈앞에 현실적으로 앉아있는 일본인과 얼핏 환영속에서 떠오르는 일본인은 생김새와 차림이 전혀 비슷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이 순간에 두사람의 얼굴이 눈앞에서 겹치는것인가? 불현듯 청춘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해방전 도꾜의 어느 리공과대학 금속물리학과에 다니던 때의 일이였다. 어느날 대학의 게시판에는 경리계의 공시가 나붙었다. 여

러 학기 공납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의 이름을 렬거한 공시였다.
네번째 순서에 양영복의 이름도 있었다. 참을수 없는 치욕의 눈물속에 바라보았던 글발이여서 그 순서는 물론 그 무슨 역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이름자들을 휘갈겨쓴듯 한 필체까지도 아직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공시의 마감에는 제 기한내에 밀린 공납금을 전부 바치지 못하면 출학처분을 한다는 경고가 덧붙여있었다. 무거운 걸음으로 경리계를 찾아간 양영복은 절박한 사정을 저저이 이야기하며 기한을 좀 더 연기해달라고 간청했다. 주산을 튀기던 경리계의 한 작자는 이렇게 응대했다.
《학생의 사정이 어렵다는것을 아오. 나는 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 철도역에서 짐군노릇도 하고 남의 집 변소도 쳐내는것을 여러번 보았소. 그런데 그처럼 힘겹게 공부를 해서는 뭘하겠소? 나는 일본에 와서 고학을 하는 조선학도들을 보면 가긍한 생각이 드오. 조선이나 만주를 포함한 대일본제국의 번영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는 우리 내지의 선발된 학도들만으로도 충분하오. 그런데 학생은 공연히 고학을 하면서 본인이 고생을 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학비미달로 우리 대학의 경영에까지 지장을 주고있단 말이요!》
그자의 길쭉한 얼굴에는 안타까운 동정의 빛이 흘렀다. 제 푼수를 모르는 바보의 불쌍한 정상을 바라보는듯 한 표정이였다.
양영복의 눈에는 총칼을 휘두르는 왜놈경찰이나 헌병보다도 그자의 몰골이 몇배로 더 가증스럽게 비끼였다. 폭력으로 가해지는 육체적아픔은 참을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의 인격과 민족의 존엄에 가해지는 정신적모욕은 참을수 없었다. 분별을 잃을만큼 의분이 치밀었다.
《이놈아, 무엇이 어째? 네놈들의 두뇌가 우리한테 필요한 과학기술을 해결해준다고?》
양영복은 무섭게 달려들며 그자의 면상을 후려쳤다.
그 다음날 그는 대학에서 쫓겨났다. …
그때 골수에 사무쳤던 기억이 현실과 교차되고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어쩌면 아득한 옛시절 대학의 경리계원과 지금 마주앉은자의 뇌까림이 신통히도 그 의미가

같을가? 선심이나 동정을 보내는듯 한 표정까지도…

《왜 그리 놀라십니까? 조선의 현 공업실태를 볼 때 티탄합금을 원자재 그대로 우리에게 파는것이…》

일본회사의 전무는 갑자기 이상해지는 이쪽의 낯빛을 의아스레 살피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순간 양영복은 자제력을 잃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며 주먹이 부서지도록 앞탁을 내리쳤다.

《똑똑히 알아두시오! 우리는 어제날의 조선사람이 아니요!》

그리고는 심장발작으로 졸도해버렸다.

양영복의 돌발적인 행동에 일본사람은 그만 어리둥절했다. 면담의 흐름으로 보나 외교관례로 보면 양영복의 행동은 리해할수 없는 상식밖의 무례한것이였다.

해쓱하니 질린 얼굴로 양영복을 부축하던 박치영조차도 그가 어찌하여 그토록 격분에 몸부림쳤는지 알지 못했다.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간 양영복이 의식을 차리고 그 사연을 들려주었을 때에야 리해가 되였다.

그후 며칠간 총련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안정치료를 받은 후 양영복은 박치영과 함께 귀국의 길에 올랐다.

어느새 비행기는 발해만상공을 날고있었다.

양영복은 여전히 두눈을 깊이 감고 뒤로 젖혀진 의자등받이에 편안히 몸을 눕힌채 움직이지 않았다. 리륙할 때의 충격으로 쑤시던 심장의 아픔이 점차 가셔지는것을 느끼며 안정에 잠겨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다. 조국이 가까와올수록 일본에서 받은 충격과 빈손으로 돌아가는 허전함이 더욱 마음을 괴롭혔다.

안내원처녀가 우리 나라의 화보와 신문들을 날라왔다.

《선생님, 아직 몸이 불편하십니까?》

오른손에 신문을 받쳐든 안내원이 양영복에게 묻는 말이였다.

양영복은 흔연해지려고 애쓰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그리였다.

《아니, 어지간히 진정되였소.》

《신문을 보시렵니까?》

《물론.》

양영복은 의자등받이에 젖혔던 몸을 바로세우고 신문을 받았다. 안내원은 곁에 앉은 박치영에게도 같은 신문을 주었다. 여기저기서 화보와 신문을 번지는 소리가 들리였다. 그대신 기실안에는 정숙이 깃들었다. 누구나 화보와 신문을 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신문을 펼쳐든 양영복은 돋보기를 찾아서 코등에 걸었다. 신문의 활자들이 시야에 안겨들었다. 그 내용을 읽기에 앞서 그 무슨 반가운 상봉이라도 하는듯 한 감정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조국을 떠난 후로 처음 보게 되는 우리의 당보였다. 그동안 조국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가?

어제호의 하루신문에서 지난 20여일간의 소식을 다는 알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는것을 알면서도 조국의 소식에 궁금하던 심정을 모두 풀어버릴듯 한 기대를 가지고 글줄을 더듬었다. 신문에는 새해(1988년)벽두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떨쳐가는 각지 근로자들의 로력투쟁소식이 실려있었다. 특별히 눈에 띄우는것은 광복거리, 릉라도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 국제영화관건설소식이였다. 평양에서는 명년에 있게 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전례없는 건설이 벌어졌다. 그 많은 건설대상들이 인제는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었다.

《이처럼 힘찬 투쟁이 벌어지는데 그동안 우리는 려비만 쓰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냈구만. …》

양영복은 신문에 눈길을 준채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선생님, 이번 려행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득도 없는것은 아니였습니다.》

박치영은 들고있던 신문을 무릎우에 내려놓고 이쪽으로 머리를 돌리였다.

양영복은 놀라운 눈길로 박치영을 쳐다보았다. 불쾌한 일만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그 무슨 소득이 있단 말인가?

박치영은 의아해하는 양영복의 시선을 느끼며 헌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이번에 많은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외국려행을 해본 인상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설비를 보고 과학기술적인 지식도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동무라도 소득이 좀 있다니 반가운 일일세.》

양영복은 박치영을 미덥게 바라보며 대견한 미소를 그리였다.

《손님여러분, 곧 평양비행장에 착륙하게 됩니다. 착륙준비를 갖추어주십시오.》

고성기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박치영은 서둘러 양영복의 허리에 안전띠를 둘러주고 의자를 뒤로 젖혀주었다.

×

《양선생일행을 고중환부부장동지가 만나겠답니다. 이제 곧 당중앙위원회로 갑시다.》

비행장에 마중을 나온 일군의 말이였다.

고중환은 당중앙위원회에서 과학사업을 맡아보는 책임일군이였다. 그가 다른 나라에 갔던 대표단을 돌아오는 즉시로 만나는 일이란 흔치 않았다.

티탄합금가공설비의 구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며 양영복과 박치영은 차에 올랐다.

반시간후에 그들은 고중환과 마주앉았다. 고중환은 환갑을 바라보는 지숙한 나이에 키가 후리후리하고 얼굴이 길쑴한데 그의 사려깊은 눈매와 세련된 언행은 어딘가 모르게 학자풍의 인상을 짙게 풍기였다. 하긴 젊은시절의 한때를 대학교단에서 보낸 그였다.

양영복의 경과보고를 주의깊게 듣고난 고중환은 시선을 앞상에 떨어뜨리며 상심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쪼프린 눈가장자리에 어두운 그늘이 비끼였다. 좀해서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였지만 지금은 내심의 실망감을 어찌할수 없는 모양이다.

《일이 그렇게 되였군요. 티탄합금가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처럼 큰 관심을 돌리시는 문제인데…》

잠시 숙였던 머리를 들며 고중환은 양영복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채 끝내지 못한 그의 말이 안타까운 눈빛에 실려있었다.

양영복은 응대를 못하고 얼굴을 가볍게 붉히였다. 티탄합금가공설비를 사오지 못한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여태껏 생각해왔다. 그러나 고중환의 시선에 부딪치고보니 면담석상에서 폭발적으로 격분을 터뜨렸던 자기의 불찰로 일이 틘것만 같은 자책감이 머리속을 짓눌렀다.

## 2

집무실에는 정숙이 흘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들을 보고계시였다. 넓다란 책상 한귀에는 여러 부문에서 올려보낸 문건들이 쌓여있었다. 년초의 이즈막에는 제기되는 문건들이 특별히 많았다. 당과 국가, 군대의 모든 부문사업이 년간의 계획과 방향에 대한 그이의 가르치심을 기다렸다. 새해벽두부터 국제적으로 정치파동이 심하였던 대외정세의 복잡한 흐름이 또한 그이의 결론을 기다렸다.

빠른 시선으로 문건들을 읽으신 그이께서는 활달한 필치로 수표를 하시고 여백에 자신의 견해를 쓰기도 하시였다. 긴장한 사색속에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와 관련한 문건까지 보시고나서는 잠시 휴식을 하시려고 고개를 드시였다.

이때 전화종이 울리였다. 고중환부부장이 걸어온 전화였다.

《일본에 갔던 양영복선생일행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티탄합금가공설비를 사왔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바꾸어잡으며 물으시였다.

《사오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통하여 울리여오는 고중환의 목소리는 실망감에 젖어있었다.

《어떻게 된겁니까?》

《일본당국이 코콤에 저촉된다면서…》

고중환은 뒤를 잇지 못했다. 마음을 다잡으며 숨을 몰아쉬는듯 하더니 사연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지막까지 주의깊게 들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벽의 한곳을 응시하시였다. 그이의 시선에는 우리 민족의 존엄을 건드리는 그 어떤자도 용서치 않을상싶은 서리찬 광채가 빛발쳤다. 우리의 재능있는 로학자가 인생의 청춘기와 말년기에 일본에서 당한 두차례의 모욕은 서로 다른 력사적시기에 일본이 우리 인민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말해주고있었다. 지난날의 일제는 조선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식민지노예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슬기와 지식이 아니라 마소와 같은 육신의 로동력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저주로운 그 시기는 력사의 과거로 멀리 흘러가버렸다.

그러나 최신기술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는 거만스러운 태도는 그대로 남아있다.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던 어제날의 총칼대신 우세한 과학기술을 무기로 오늘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착취를 꾀하고있다. 이것은 일제만이 아니다. 오늘에 이른 제국주의자들 일반이 추구하는 하나의 전략이다. 놈들은 저들만이 《두뇌국가》로 군림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영원히 《몸체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하고있다. 이른바 코콤이라는것도 그러한 의도에서 꾸며진것이다.

《코콤!》

**김정일**동지께서는 격분에 떨리는 음성으로 조용히 뇌이시였다. 저주와 규탄의 감정으로만 외울수 있는 단어이다. 코콤의 규정은 사회주의나라 일반에 적용되여왔다.

그러나 최근년간에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코콤의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있다. 사회주의리념을 배신하는 대가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의 기술봉쇄에 기울이던 힘을 깡그리 모아 우리에게 겨누고있다. 우리가 사회주의위업의 보루이기때문이다. 오늘에 이르러 코콤은 우리에 대한 놈들의 《봉쇄》와 《압살》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격분을 자아내는 또 하나의 다른 사실을 상기하시였다. 며칠전 미국무성은 우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무성의 《제재》선언과 일본당국의 이번 처사는 하나로 련결되였을것이다. 일본당국은 코콤을 걸고 우리에게 티탄합금가공설비를 팔아주지 않았지만 미제의 강력한 《제재》선언에 걸음을 맞추려는 속심도 있었을것이다. 력사적으로 일제는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에서 언제나 미제의 립장을 따랐다.

두개의 사건이 안고있는 의미를 새겨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번쩍 고개를 드시였다. 가슴속깊이에서 결연한 부르짖음이 터져오르시였다.

(놈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그 어떤 《제재》와 《봉쇄》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것이다. 원쑤들이 발악할수록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세여질것이다. 그 신념과 의지의 힘으로 그 어떤 시련도 헤쳐나갈것이다. 우리는 보란듯이 자체의 힘으로 첨단과학의 요새도 점령해갈것이다. 놈들은 《제재》의 장벽으로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막을수는 있어도 우리 인민자체의 창조적지혜는 막을수 없을것이다.우리는 반드시 과학기술분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릴것이다!)

×

금수산의사당 후원에 잇달린 숲속은 고요한 정적에 잠겼다. 아침안개가 갖가지 나무들을 가려볼수 없게 뿌유스름한 하나의 빛으로 싸고돌았다. 안개의 부드러운 자락에 포근히 덮인 숲은 아직 꿈속에 잠긴듯 하였다.

숲속의 도로에서 발자국소리가 무겁게 울리였다. 고요한 정적속에 울리는 발자국소리는 유난히 뚜렷했다.

《…미국이 〈제재〉선언으로 우리를 어째보려고 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망상이지. 놈들은 반세기 가까운 우리와의 대결에서 교훈도 찾으리만큼 찾았겠는데 여전히 그런 잔꾀를 부리거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음성이 울리였다.

《외교부성명을 발표해서 놈들에게 우리의 강경한 립장을 보여주

어야 할것 같습니다.》

나란히 걸으시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이였다.

《옳소. 이번 기회를 빌어 미제가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죄악을 세계면전에 폭로하고 단죄합시다!》

력사의 선언처럼 엄숙히 울리는 두분의 음성에 길가의 나무들도 숨을 죽인듯 숙연히 서있었다. 그 나무들은 이러한 순간들을 수없이 목격하여왔다. 두분께서는 지금처럼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시며 종종 이 숲속길을 거니셨던것이다. 잠시 침묵속에 걸음을 옮기시던 **김정일**동지께서 화제를 돌리시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소동에 장단을 맞추면서 일본도 우리에게 더욱 못되게 나오고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던 양영복선생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없이 뒤를 재촉하는 시선으로 **김정일**동지를 바라보시였다. 양영복박사는 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잘 아시는 학자였다. 그가 티탄합금가공설비때문에 일본에 간 사실도 알고 계시였다.

《지금까지 민간급거래에서는 일본이 별로 그래본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코콤을 코에 걸고 우리와 맺았던 사전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같이 서두를 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양영복이 일본에서 당했던 일을 말씀하시였다.

이야기가 깊어갈수록 수령님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짙어가시였다.

《왜놈들이 과학기술적우세를 등대고 오늘까지도 감히 우리 인민을 모독하다니!》

다 듣고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뇌이시며 안개덮인 공간에 서리찬 시선을 날리시였다.

《수령님.》

**김정일**동지의 조용한 부름소리에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저는 어제 양영복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잠을 이룰수가 없

었습니다. 민족의 존엄을 걸고 과학기술대결장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을 반드시 압도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금 다지였습니다.

이미 수령님께서 구상하신대로 과학기술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당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취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발전문제를 토론하게 될 6기 13차전원회의를 앞당겼으면 합니다.》

《그런데 전원회의를 준비하자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가?》

《수령님께서 지난해 과학원을 다녀오신 다음부터 그 준비사업을 내적으로 추진시켜왔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확신있게 대답하시였다.

지난해 11월에 전국적으로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있었다.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거하실 장소로 평양시의 어느 선거구를 예견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과학지구에서 과학자립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뜻을 진작 알고계시였다.

이무렵에 두분께서는 과학기술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실 구상을 품으시고 자주 의견을 나누셨던것이다. 종래와 구별되는 결정적전환은 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로 불리우리만큼 그 발전속도가 눈부시였고 사회생활의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다. 세계과학기술은 미소전자공학과 생물공학, 핵공학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시대를 바야흐로 펼치면서 다음세기 정보산업시대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있었다. 이 거세찬 흐름에 뒤짐이 없이 우리도 걸음을 맞추어야 했다. 거기에 우리로서는 또 하나의 남다른 사정이 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자본주의복귀에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한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의 배신행위가 날을 따라 로골화되였다. 그리하여 이전에 체결하였던 계약에 따라 수입하던 일부 자재와 연료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수입자재와 연료를 쓰던 공장, 기업소들에만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였다. 생산규모가 커지면서 부문간의 련관이 깊어진 우리 경제의 전반에 련쇄반응을 일으켰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자력갱생의 기

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했다. 우리가 선택할 다른 길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의 자력갱생은 과학기술로 안받침되여야 했다. 경제의 기술장비도가 낮았던 과거에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만으로도 생산을 높일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달라졌다. 선진과학기술이 없이는 생산에서 부딪치는 난관의 어느 한 고리도 풀어나갈수 없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주의운명과 직접 련결되여있었다.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뒤흔들리게 된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서방과의 과학기술경쟁에서 뒤떨어졌기때문이였다.

시대와 현실의 이러한 요구를 깊이 분석하신 두분께서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결심을 품으셨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거당일 위대한 수령님보다 한시간 먼저 이른아침에 과학원으로 나가시였다.

과학지구는 명절기분으로 들끓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선거를 한다는 소식에 접한 과학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더없이 감격했다.

그이를 모시게 된 영광과 행복도 이를데 없지만 그 사실이 시사하는 정치적의의가 컸던것이다.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도래하고있음을 누구나 예감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거장을 돌아보신 후 여러 연구소의 학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그들에게 당의 결심을 알려주고 과학발전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현실에 대한 깊은 리해에 토대해서만 정확한 대책을 세우실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전 10시에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선거장에 도착하시였다.

과학지구는 터져오르는 만세의 환호성으로 떠나갈듯 하였다. 대의원 립후보자인 열공학연구소의 연구사가 그이께 꽃다발을 드리였다. 곁에 서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연구사가 이룩한 과학적공적을 수령님께 말씀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만족하신 표정으로 연구사를 축하해주시고 그

에게 찬성투표를 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과학원회의실에서 동행한 일군들과 협의회를 가지시였다.

《여기 모인 동무들은 방금전에 나와 함께 과학자립후보자에게 찬성투표를 하였습니다. 선거장에서 동무들도 생각이 깊었을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과학의 발전을 위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질 결심을 다지며 투표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할 까닭을 설명하시고 전자공학, 열공학, 생물공학을 비롯한 주요과학분야의 발전방향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과학자들은 열의도 높고 재능도 있습니다. 조건을 잘 보장해주면 못해낼것이 없습니다.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경제부문 일군들은 현행생산만 생각하면서 과학연구사업에 관심을 적게 돌리고있습니다. 연구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지도 않고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사상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해야 하겠습니다. 전당, 전국이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날 저녁 전화로 **김정일**동지를 찾으시였다.

《오늘 책임일군협의회를 가졌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발전문제를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해야 할것 같소.》

깊은 생각끝에 하시는 말씀이였다. 과학원에서 돌아오신 후에도 수령님께서는 하루종일 과학기술발전문제를 두고 줄곧 심려하신게 분명했다.

그때부터 지난 석달동안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과학기술발전의 총적인 전략과 방도를 구상하시면서 전원회의 준비를 하여오셨던것이다.

《그동안 **김정일**동무가 준비를 하여왔다니 지체없이 정치국회의를 열고 전원회의에 내놓을 과학기술방침을 토론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를 돌아보며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언제나 자신의 의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실천에 옮기시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신뢰감이 새삼스레 가슴에 차오르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과학기술문제와 더불어 교육문제도 토론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지난 시기 전원회의들에서 토론된바가 있지만 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는 현시점에서 다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옳은 말이요. 과학과 교육은 뗄수없이 련관되여있소.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하오!》

점점 엷어지던 안개는 어느새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서리꽃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수림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공간에 날리는 성에가루는 쏟아지는 해빛에 눈부시게 반짝였다.

우뚝 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설경을 잠시 바라보시던 두분께서는 의사당쪽을 향해 돌아서시였다. 의사당의 지붕에도 하얗게 서리꽃이 피였다.

## 3

《오늘 정치국회의에서는 앞으로 열리게 될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 상정할 의정들을 토론하려고 합니다.》

사회석에 앉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좌중을 둘러보며 말씀하시였다.

소회의실에는 정치국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앉아있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당시) 위원장이 방청으로 자리를 함께 하였다.

《첫째 의정으로는 과학교육사업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상정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참가자들은 전적인 찬동을 표시했다. 누구나 과학교육사업의 근본적인 전환이 오늘의 우리 나라에서 무엇보다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있었다.

《그러면 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발전을 위한 어떤 목표와 방도를

제기할것인가를 토론합시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동무들은 지난해 11월에 과학지구 선거구에서 나와 함께 과학자립후보자에게 찬성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날 협의회에도 참가하였으니 그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깊이 생각하여왔을것입니다. 기탄없이 의견들을 이야기합시다.》

참가자들의 얼굴에 심중한 표정이 떠올랐다. 누구도 먼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과학교육사업은 정무원 총리동무의 사업범위에 속하는것만큼 총리동무가 먼저 생각했던바를 이야기하시오.》

수령님의 말씀에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과학교육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최근년간 정무원에서는 이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과학교육사업에서는 많은 부족점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가만!》

수령님께서는 총리의 토론을 중단시키시였다.

《동무가 자기비판을 할 기회는 앞으로도 많습니다. 자기비판은 전원회의와 정무원회의들에서 하시오. 이 자리에서는 전원회의 결정에 어떤 목표와 방도를 제기하겠는가를 토론하시오.》

총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인차 자신을 수습하고 다시 말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목표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로 과학기술발전을 지향시켜야 할것입니다.

당면해서는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계획에 포함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행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로서는 반드시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과학홀시사상을 뿌리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실천을 보다 효률적으로 결합시키는것입니다. 지금은 연구성과가 제때에 생산에 도입되지 못하는 현상

도 나타나고있으며 반면에 우리 현실에서 생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없는 연구과제들이 설정되는 현상도 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극복되고 과학연구와 생산실천이 합리적으로 결합될 때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교육사업에서는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높은 단계에서 원만히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교육사업에 대한 물질적 조건을 보다 원만히 보장해주고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토론을 마친 총리에게 어서 앉으라고 손짓하시였다.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총리의 토론은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다. 과학교육사업의 근본적인 전환을 지향하는 당의 의도를 아직 잘 모르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근본적인 전환은 과거와 구별되는 새로운 비약을 의미했다. 총리의 견해는 정당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기존의 관념에 머무르고있었다.

《이번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뒤전에 앉은 일군에게 시선을 보내시였다. 그 일군은 기다렸다는듯이 성큼 일어섰다.

《저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오자면 과학기술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에서부터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총리동지도 지적했지만 지금 우리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과학기술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이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독단을 부리는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

그는 그러한 일군들의 처사로 빚어진 생동한 실례들을 렬거했다. 그의 목소리에 절절한 심정이 울리였다. 평소에 품고있던 안타까움을 이 장소에서 터놓지 않으면 다른 기회를 얻을수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그는 자기의 견해에 결론을 짓듯이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군들의 사상관점부터 바로잡고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투자와 보장사업을 원만히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대우를 높이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무의 토론에도 수긍되는바가 있소.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동무가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합시다. 그런데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 과학을 선진수준으로 이끌어올릴수 있겠소?》

수령님께서 물으시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방금전과 달리 머리를 수긋하고 침묵했다.

《동무야 세계과학발전추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할수 있겠소?》

수령님께서 다시 물으시자 그는 소심한 어조로 대답을 올렸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수준을 따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앞탁에 시선을 떨구었다. 세계과학의 발전정형과 우리 과학의 현실태를 잘 알고있는 그는 그 거리감에 위압되여있는것 같았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했다. 그는 비교적 자기나름대로 실감있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기했다. 자기 사업에 대해 깊이 연구한 흔적이 엿보였다. 그러나 그 역시 교육사업의 근본적전환이 아니라 개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고에 머무르고있었다.

《다른 동무들도 의견을 말하시오.》

그러나 누구도 일어서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침내 **김정일**동지께 시선을 옮기시였다.

《그럼 **김정일**동무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을 계속합시다.》

**김정일**동지께서 일어서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원회의의정의 뜻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정은 문자그대로 지난 시기와 다른 과학교육사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동무가 토론했기때문에 교육사업에 대한 저의 견해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세워졌고 누구나 마음껏 배울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져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은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급한것은 교육내용의 개선입니다. 대학들에서는 세계과학의 최신성과들을 민감하게 반영하며 중학교들에서는 콤퓨터와 프로그람과목을 지체없이 내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세기에 다가올 정보산업시대를 예견하면서 전망성있게 후대들을 키워야 할것입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실력을 높이는 동시에 과학부문의 수재양성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할것입니다. 과학후비육성의 강력한 기지인 1중학교들의 교육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수준에 끌어올려야 할것입니다. 대학들에서는 유능한 과학자로 촉망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10대, 20대의 박사가 많이 나오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과학인재를 믿음직하게 키워내며 모든 학생들을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키워낸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가장 문명한 인민으로 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좌중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열띤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전원회의에서 과학중시를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수준으로 이끌어올릴 높은 목표를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 력사적위업을 다음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고있으며 정치와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의 앞장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며 그로부터 우리 경제의 기술장비도는 아직까지 앞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선진수준에로 이끌어올리는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흥시키기 위한 결정적고리로 됩니다. 그런것만큼 이제부터 우리 당은 과학기술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과학중시를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학기술을 선진수준에로 이끌어올릴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주어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키워오신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걸고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휘한다면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앞길에는 애로와 난관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볼 때 모든 과학분야를 단꺼번에 세계적수준으로 이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공학, 열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등 몇개의 중요한 과학을 먼저 비약시키고 다른 과학을 이에 따라세우는 방도를 선택해야 할것입니다.

과학기술발전의 근본적전환을 위해서는 계획작성부터 종전과는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포함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원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채택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3차 7개년계획에 포함된 과학기술발전계획에는 근본적인 전환이 예견되여있지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인민경제계획에 과학기술계획을 포함시키다보니 경제일군들속에서 경제계획만을 중요시하고 과학기술계획을 뒤전으로 밀어놓는 페단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의 독자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인것만큼 이번에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의 기간을 3년쯤으로 설정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에는 앞에서 렬거한 과학분야들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선진수준에로 이끌어올리는것을 중심과업으로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3년동안에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에 다 도달시킬수는 없습니다. 3개년계획은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진군로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것입니다. 앞으로 다년간을 포괄하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련이어 세우고 실행하면서 그 리정표들을 거쳐 최후의 목표에 도달할것입니다!》

일군들은 놀라움에 휩싸였다. 갑자기 세찬 광선에 부딪친것

처럼 눈을 슴벅이며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그이의 안광에서 강렬한 지향과 확고한 의지가 빛발쳤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군들은 이미 여러 기회에 패기와 정열에 넘쳐 말씀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이의 온몸에서 소용돌이치며 뿜겨지는 열정과 기백에 현혹되여보기는 처음인듯싶었다. 아마도 오래동안 온몸으로 지향하고 탐색하신 포부와 방도를 력설하시기때문일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 자리에 앉으시였다.

장내에는 숙연한 침묵이 한동안 흘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보는 일군들의 얼굴마다에 격동된 표정이 떠올랐다.

**김일성**동지께서 그들을 향해 물으시였다.

《방금 **김정일**동무가 과학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는데 다른 동무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침내 정신을 차린 일군들은 우렁찬 박수로 화답했다. 열렬한 공감의 심정을 달리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정치국회의는 계속되였다. 전원회의에 제출할 두번째 안건을 련이어 토론해야 하였다.

## 4

대지를 포근히 싸고도는 봄볕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스했다. 아침녘에는 이따금 산들거리는 바람끝에 서늘한 기운이 감겨도는가싶더니 해발이 비쳐오기 시작하자 어느새 가셔져버렸다. 포장한 도로우에 피여오르는 아지랑이는 눈이 시도록 아물거렸다. 마치도 봄볕에 소생한 미세한 생명체들이 무수히 떼를 지어 신비로운 원무를 펼치는듯싶었다. 길옆의 공지에는 해묵은 풀잎사이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았다. 그 연연한 잎새들은 가닥가닥이 흘러내리는 해살에 생기롭게 나붓기며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였다.

봄볕이 짙게 어린 도로를 달려오던 여러대의 승용차가 9월제

련소 정문앞에서 멎었다.
맨 앞차의 문이 열리였다.
그 순간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제련소구내길의 량옆에 서있던 군중들이 꽃다발을 흔들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차에서 내리셨던것이다. 뒤따라 수행원들도 차에서 내리였다.
나이탓으로 허리가 굽을사 한 공훈로장이 그이께로 다가가 꽃다발을 드리였다.
만세의 함성이 더욱 고조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환호하는 군중에게 반가운 미소를 보내시였다.
지배인 류명식과 당비서 황석태가 그이께 인사를 올리였다. 두 일군은 50대의 중반기에 이른 비슷한 나이였다. 그러나 체모와 외양은 대조적이였다. 류명식은 유순해보이는 너부죽한 얼굴에 키가 작은 편이였으나 황석태는 틀진 체구에 열정이 넘치는 두리두리한 얼굴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시였다.
《제련소에서 티탄합금직장이 조업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인차 내려와보고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련이어 회의들이 있었고 다른 급한 일들이 겹치다보니 오늘에야 왔습니다.》
《저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황석태는 얼굴에 절절한 빛을 담고 이렇게 말씀올렸다. 지난 몇달동안 매일같이 기다려오던 간절한 마음을 저도 모르게 헤쳐보이였다.
《나도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날부터 늘 동무들을 생각했습니다.
9월제련소 로동계급과 금속공학연구소 과학자들이 참으로 큰 일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연구소 과학자들도 참가했습니까?》
《저기 맨 앞줄에 선 동무들이 연구사들입니다.》
황석태가 손을 들어 환호하는 군중의 앞대렬을 가리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손을 들어보이시였다. 귀밑

머리가 희슥한 손관식소장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낯익은 얼굴들이였다. 티탄연구가 시작되던 초시기부터 여러차례 자리를 함께 하셨던 학자들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반가움에 넘치는 눈인사를 보내시였다. 그러시다가 황석태를 돌아보며 물으시였다.

《그런데 왜 양영복선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에 다녀온 후 몸이 불편해서 요사이 집에서 안정을 하고있습니다.》

내처 웃으시던 **김정일**동지의 얼굴에 얼핏 심려의 빛이 떠올랐다. 이미 고중환을 통해 일본에서 받은 충격때문에 양영복의 심장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 기억을 되새기며 황석태에게 다시 물으시였다.

《그 선생의 병세가 어떻습니까?》

《점차 나아가고있습니다. 며칠전부터는 바깥출입도 하고 산보도 한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돌아가실적에 양영복의 집에 들려서 문안을 하실 생각이시였다.

제련소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그이께서는 제련소구내에 들어서시였다. 구내길 초입에는 두개의 강철기둥에 떠받들린 대형구호판이 머리우로 건너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전원회의는 지난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과학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를 결속하시면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력사적인 그 전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두주일밖에 안되였다. 그러나 제련소에서는 벌써 그런 구호를 내걸었다.

얼핏 구호에 시선을 주셨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넓은 길 량옆에 늘어선 군중의 환영에 답례를 보내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럴수만 있다면 그들 매 사람의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치하와 고무를 해주고싶으시였다. 구내길이 깊어지면서 이곳 로동계급의 열정의 분출인양 전로와 가열로들의 동음이 더욱 거세차게 울리였다.

티탄합금직장에 이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위를 둘러보시였다. 새로 지은 건물의 벽체는 은은한 회색벽인데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칠감을 발랐다.

《저 칠감이 티탄백으로 만든게 아닙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류명식이 대답올렸다.

《이 직장은 간판을 보지 않고 건물의 외양만 보고도 티탄직장이라는것을 알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수행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수행원들은 누구도 《티탄백》으로 불리우는 티탄분말이 다른 그 무엇도 따를수 없는 미적가치를 가진 칠감이라는것을 아직은 모르고있었다. 그이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수행원들은 새로운 눈으로 유심히 벽체를 바라보았다.

이때 느닷없이 부름소리가 들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거듭 울리는 그 부름소리는 잠긴 목에서 울려나오는듯 높지 못했으나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것처럼 사무치도록 절절한 여운이 있었다.

일행은 일제히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였다.

그런데 어느새 벌써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부름소리를 향해 다급히 걸어가시였다. 한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양영복박사였다. 그는 먼발치에서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띄여보자 저도 모르게 부름소리를 터쳤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는 로인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반달음을 놓으시였다.

《양선생, 서십시오.》

그랬으나 로인은 지팡이조차 던져버리고 위태롭게 허둥거리며 다가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시 쓰러질듯 한 로인을 두팔 벌려 그러안으시였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이마에 땀발이 내돋은 로인의 얼굴을 바라보시자 이리로 달려온 그의 심정이 헤아려지면서 가슴이 뭉클해오시였다.

《몸이 불편하시다는데 누워계시지 않고 왜 이리로 오셨습니까? 아무렴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양선생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는 걸음에 댁으로 가자고 했댔는데…》

그이께서는 화끈해오는 눈시울을 슴벅이며 격하게 말씀하시였다.

《저는 때늦게야… 소식을 알고…》

숨이 차올라서 간신히 말을 번지며 그이를 우러르는 로인의 얼굴에는 반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뒤늦게 곁에 나타난 황석태를 보자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원망을 터뜨렸다.

《노상 몸져누워있는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황석태는 빙긋이 웃을뿐 응대가 없었다.

여태껏 양영복을 부축하고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타이르듯 그에게 말씀하시였다.

《양선생, 우리가 티탄합금직장을 비롯해서 제련소 여러 직장을 돌아보자면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그동안 내 차에 가서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제가 직접 모시고…》

양영복은 티탄합금직장을 향해 걸음을 떼려고 했다. 그러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제서야 놓쳐버린 지팽이에 생각이 미치여서 사위를 두릿거렸다. 누구인가가 지팽이를 찾아주었다. 요사이 건강이 나빠졌으니 그렇지 전에는 지팽이신세를 져본 일이 없었다. 갑자기 만들다보니 손에 잡히는대로 곧지도 못한 막대기를 대충 다듬은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양박사의 손에서 지팽이를 앗아들며 곡진히 말씀하시였다.

《양선생, 내 말대로 차에 가계십시오.》

이때 황석태가 조심히 말씀드렸다.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양선생과 함께 돌아보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설명도 들으시고…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께서도 양영복박사와 함께 티탄생산의 여러 공정을 돌아보고싶으시였다. 하지만 자욱을 옮기기 어려워하는 그에게 과로한 부담을 줄수 없다고 여기시였다. 3층건물의 여러 계단을 오르내리며 생산공정을 돌아보는것은 병약한 로인의 몸에 무리한 일이다. 로인은 물론 필사적인 힘을 기울여 따라설것이다.

《안됩니다. 티탄에 대해서는 내 이미 양선생의 개별강의를 여러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이께서 미소를 그리며 이렇게 말씀하시자 양영복도 따라웃으며 응대했다.

《제가 설명이야 뭐… 티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데…》

《양선생, 이제 제련소를 돌아본 다음에 연구소로 가겠습니다. 워낙 그렇게 일정을 잡고 왔습니다. 기다리셨다가 저와 함께 차를 타고 연구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양선생을 차에까지 모셔가라고 이르신 다음 직장안으로 들어가시였다. 황석태와 류명식이 안내해드렸다. 산화티탄으로부터 여러가지 환원반응을 거쳐 순수한 티탄을 얻어내는것이 생산의 첫공정이였다.

첫공정부터 주의깊게 돌아보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견하기가 이를데 없으시였다. 류달리 까다롭고 복잡한 기술과 설비를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혜로 해결했다. 그도 그렇지만 오래동안 품어오시던 숙원이 마침내 풀리였다는 만족감이 가슴에 넘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해전에 나라의 방위력과 우리 과학의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별빛》으로 불리우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내세우시였다. 그 과제수행에는 수학과 물리, 전자공학과 기계공학, 로케트공학과 우주공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분야의 선발된 학자들

이 망라되여있었다. 우수한 인재들로 무어진 강력한 연구집단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기간에 《별빛》계획의 결정적인 비약도 예견하시였다. 첨단과학과 고도기술의 종합체인 그 계획의 실현으로 세계적수준에로 도약하는 전반적인 우리 과학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실 구상을 품고계시였다. 티탄은 거기에 절실히 필요한 재료였다. 그렇기때문에 티탄에 대한 관심이 크시였고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지식도 깊이 쌓으시였다.

티탄은 세계적으로 그 생산력사가 짧았다.

금이나 은, 동이나 철은 인류가 문명기의 기슭에 나선 태고적부터 생산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쓰이였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찌르꼬니움과 같은 새로운 금속이 수없이 발견되였다. 그러나 티탄은 그때까지도 자기의 정체를 인류의 지혜앞에 드러내지 않았다.

자연계에서 티탄은 어디에나 흔한 비금속모래알갱이처럼 보이였다. 그랬기때문에 수만년동안 끊임없이 자연을 정복해온 인간의 눈에 뜨이지 않고 자기의 비밀을 깊숙이 감출수 있었다. 20세기초에 이르러서야 인류는 여러가지 화학반응을 거쳐오던 끝에 실험실에서 순수한 티탄을 얻어냈으며 그후에 연구를 거듭하여 티탄이 리상적인 금속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티탄은 강철에 비해 그 무게가 절반밖에 안되였지만 강도는 대비할수없이 셌다. 열견딤성, 내한성, 삭음견딜성에 있어서 티탄과 견줄 다른 금속은 없었다. 구조재료로 리상적인 성질을 빠짐없이 갖추고있었다. 티탄은 절대령도에서 초전도체로 변하는 대신 자기마당에서 자화되지 않기때문에 전자재료로도 그 사용가치가 높았다.

20세기 중엽부터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우주공학과 로케트공학, 열공학과 같은 첨단과학의 발전에는 티탄의 생산이 일정한 의의를 가지였다. 티탄의 개발로 초음속비행기와 깊은 수심속을 헤가르는 잠수함을 만들수 있었고 인공지구위성을 우주공간으로 날릴수 있었다. 최근년간에 개발된 초정밀기계와 고도기술전자제품들에는 례외없이 티탄재료가 리용되였다.

인류는 자기가 엮어온 문명발달사를 구획지으면서 로동도구에 쓰인 대표적인 재료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돌을 사용한 시대를 석기시대, 청동을 사용한 시대를 청동기시대, 철을 사용한 시대를 철기시대로 부르고있다. 그만큼 인류의 문명발전에서 재료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자연계에는 수다한 금속이 있으나 구조재료로 철을 대신할만 한것이 여태껏 없었기때문에 오늘까지도 철기시대가 지속되고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티탄의 위력이 커지면서 티탄시대가 도래할수 있다는 견해까지 나타나고있다.

세계적으로 티탄공업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아직 몇개밖에 안되였다. 티탄공업은 20세기 40년대말부터 첫걸음마를 뗀 청소한 분야였다.

티탄은 월등한 자기의 몸값에 어울리게 그 생산과 가공이 다른 금속에는 비할바없이 복잡한 고도기술을 요구하였다. 활성이 강하여서 여차하면 생산과 가공과정에 폭발을 일으킬수 있고 사소한 불순물이 섞이여도 자기의 성질을 상실했다.

양영복박사의 연구집단이 그 생산공정을 자체의 지혜로 개발한것은 커다란 과학적공적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에게 티탄에 대해 친히 설명도 해주시고 로동자들에게 작업을 할 때 류의할 점들을 깨우쳐도 주시면서 마지막압연공정까지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티탄직장을 떠나시다말고 문밖에 쌓인 압연품을 들어 해빛에 비쳐보시였다. 보기와는 달리 갑삭한 무게와 눈부시게 현란한 광채를 가늠해보는듯 하시였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였다. 이 순간 그이께서는 이 압연품이 《별빛》계획의 훌륭한 재료가 되여 조국의 위용을 떨치게 될 그날을 그려보시였다.

그이의 이러한 심중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련이어 다른 제련직장들을 돌아보시고 금, 은, 동과 같은 유색금속생산에서 나서는 강령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밝혀주시였다.

## 5

금속공학연구소는 9월제련소의 구내옆에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60년대말에 연구소를 처음 내올 때부터 그곳에 자리를 잡도록 하시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실천을 결합시키고 연구사들과 생산자들의 지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생산현지에 두는것이 합리적이였다. 지나온 생활은 이 조치가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보여주었다. 연구소의 무수한 실험이 제련소에서 거듭되였고 거기에 현장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가 안받침되였다. 실상 티탄합금은 연구소와 제련소의 공동의 창조물이라고 할수 있었다. 비록 연구소가 행정적으로 과학원에 소속되여있지만 우리 나라 티탄공업의 창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연구소와 제련소는 하나의 뉴대로 이어져있었다. 그러한 뉴대를 상징하듯 연구소는 제련소와 울타리를 접하고 서쪽의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잡고있었다.

제련소를 떠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양영복을 차에 태우고 연구소로 오시였다.

다른 수행원들은 제련소에 남고 고중환만이 뒤따랐다.

제련소의 책임일군들중에는 당비서 황석태가 동행했다.

연구소마당에 들어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사위를 둘러보시였다.

울타리옆으로는 키높이 자란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있었다. 한창 물이 오르는 줄기와 가지들이 조잡하지 않고 껍질이 미끈한것으로 보아 감나무인것 같았다. 현관을 사이에 두고 청사곁을 따라 량옆으로 뻗은 화단에는 며칠전에 꽃씨를 심은듯 아직 흙밥이 생생했다.

갑자기 허공에서 선풍이 이는듯 한 소리가 들리여서 무심결에 머리를 드시였다. 청사의 처마밑에 매단 비둘기장들에서 수십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비둘기들은 재빛나래를 퍼덕이며 지붕우

에서 원무를 그리였다.

《우리 과학자들이 생활을 매우 정서적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고중환을 돌아보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자연과학자들을 연구사업에만 몰두하는 정서가 메마른 사람들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곳 소장동무가 생활을 정서적으로 깨끗이 꾸리는 사람입니다.》

고중환은 빙긋이 웃으며 뒤에 선 소장을 눈길로 가리켰다. 손관식소장은 륜곽이 부드럽게 둘러맺힌 얼굴에 어줍은 미소를 그리였다.

이윽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손관식의 안내를 받으시며 그의 방으로 들어가시였다. 채광은 좋지만 크지는 않은 방이였다. 비품들이 소박하고 아담하게 꾸려졌다. 방안에 류달리 운치를 돋구는것은 창턱에 놓인 두개의 청자기화분과 그와 조금 떨어진 원탁우의 어항이였다. 화분에는 소담스레 자란 제라늄이 꽃을 활짝 피웠다. 유리어항에 반사되는 타는듯 한 그 꽃송이의 빛갈이 유유히 헤염치는 금붕어의 감빛색갈과 현란한 조화를 이루었다. 마치도 어항속에 붉은빛을 부드럽게 발산하는 특수한 조명장치라도 있는듯싶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앞상을 마주하고 복판의자에 앉으시였다.

그 맞은편에 고중환과 황석태, 양영복과 손관식이 나란히 앉았다. 매일 아침 손관식소장이 실장들을 불러 사업을 토의하던 때를 련상시켜주는 단출하고 허물없는 좌석이였다.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 누우셔야 하는걸 괜히 오신게 아닙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양영복에게 다정히 물으시였다.

《아닙니다. 걷기가 좀 말쨉뿐이지 다른데는 별로 아픈데가 없습니다.》

《로쇠는 다리에서부터 오지요. … 티탄합금직장을 돌아보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양선생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온 연구집단이 수고를 해서…》

양영복은 잠시 무엇인가 주밋거리던 눈치더니 웃주머니에서 정성스레 만든 마분지곽을 꺼내들고 움쭉 일어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변변치 않지만 성의로 알고 이걸 받아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티탄합금으로 만든 사무용가위와 칼입니다.》

《양선생,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정히 그것을 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시였다.

손관식은 놀라운 눈길로 양영복을 바라보았다. 양영복박사가 그런 선물을 마련한다는것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곽을 열고 가위와 칼을 집어드시였다.

외형은 그닥 정교하지 못했다. 하지만 로박사의 성의가 깃든것이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티탄합금으로 만든것이여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고 귀중하게 여겨지셨다. 칼날에 손끝도 대여보고 가위다리를 벌려도 보시였다. 강철제품보다 어방없이 가볍고 손맛이 부드러웠다. 금속제품이 아니라 수지제품을 다루어보시는듯 한 느낌이였다. 색갈도 고려청자기를 바라볼 때처럼 보면 볼수록 은은한게 깊이가 느껴지셨다.

《오늘은 선생이 나에게 칼과 가위를 선물로 주었지만 래일은 우리 과학자들이 티탄합금으로 만든 초음속비행기나 전자제품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것을 우리 인민에게 선물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자면 가공설비가 있어야겠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거운 어조로 응대하시였다.

오늘 티탄합금직장을 돌아보시고 다음공정인 가공설비가 없는 아쉬움을 더욱 금치 못하시였다. 만일 가공설비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티탄공업이 첫걸음은 성과적으로 내짚었다 하더라도 최후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채 도중에서 주저앉는다는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의논해보시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신것이다.

《저는 이번에 참을수 없는 의분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양영복은 머리를 수그린채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느꼈던 의분이 되살아나는듯 로인의 가는 목에서 피줄이 두드러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깊은 시선으로 양영복을 바라보며 말씀하시였다.

《양선생은 일본려행이 헛걸음이였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귀중한것을 안고왔다고 봅니다.》

양영복은 말씀의 뜻을 얼른 새길수가 없어서 황석태와 손관식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들도 의아한 낯빛으로 **김정일**동지를 바라보았다.

《양선생이 민족적의분을 안고 돌아왔는데 나는 그것이 최신설비를 사온것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양영복에게 기대어린 시선을 보내며 물으시였다.

《양선생, 어떻습니까? 왜놈들것보다 더 월등한 설비를 우리 자체로 만들수는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양영복에게 시선을 모았다. 양영복은 눈시울을 내려뜨고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저으기 상기된 주름진 량볼로 보일듯말듯 한 떨림이 몇번 스칠뿐이다. 그는 잠시후에 머리를 숙인채 입을 열었다.

《참말이지 마음같아서는 놈들것보다 월등한 티탄합금가공설비를 당장 만들고싶습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뚜렷한 구상이 없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고백을 리해하시였다.

양영복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티탄합금생산에 대한 연구만을 해왔을뿐이지 다음단계의 가공기술개발에는 관심을 돌려보지 못했다.

세해전에 그는 웃으면서 티탄합금생산에 대한 연구가 자기의 최종연구목표이며 그것의 성공과 함께 과학자로서의 일생도 끝날것이라고 말한바가 있었다. 70고령의 그로서는 그럴수 있었다.

《년세가 높으신 양선생에게 무리한 요구인줄 압니다. 선생은 이

미 한 과학자가 조국을 위해 할수 있는 그 이상의것을 이룩해놓았습니다.

꽃방석에 앉혀서 여생을 편히 쉬시게 하고싶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절박한것만큼 티탄합금가공설비제작문제도 마저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의 지혜가 닿는껏 숨이 지는 날까지 당의 뜻을 따라서 연구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공설비개발은 너무도 힘에 부치는 과제입니다.》

양영복은 힘겹게 말씀올렸다.

《기계공업전문가를 비롯해서 필요한 여러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들로 연구집단을 무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저에게 일정한 구상이나 착상이 있다면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티탄합금가공설비가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가는 누구보다 양선생이 잘 알것입니다.

양선생, 자체로 만들어낼 신심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안타까운 호소가 절절하게 울리는 말씀이시였다.

그러나 양영복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떨구었다.

곁에서 그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민망스러워하는 빛이 떠올랐다.

황석태는 양영복의 덜미에 노기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처럼 간곡한 말씀에도 침묵을 지키는 양영복의 태도에 분이 치밀었던것이다.

《왜 기어이 해내겠다고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합니까?…》

그는 좀더 말하고싶었으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앞이여서 입을 꾹 다물었다. 양영복박사가 숙였던 머리를 황석태에게 획 돌리였다.

《비서동무의 앞이라면 혹 과학적인 확신이 없으면서도 해내겠다고 다짐할수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로인의 목소리는 걷잡을수없이 떨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말로 채 번지지 못한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시였다. 빈말을 모르는 결곡하고 량심적인 로학자의 솔직성에 오히려 믿음이 가시였다. 확신이 부족하여 서뿔리 단언하지 않지만

그는 앞으로 가공기술연구에 전심을 다할것이다. 물론 그 성공여부는 기약할수 없을것이다.

《양선생, 건강에 류의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한껏 죄스러운 낯빛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로인의 꾹 다문 입술가장자리에 경련이 스치면서 주름살이 깊이 잡히였다.

《다른 일도 아니고 고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인데 어떻게 쉽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순 생각에 잠기시였다. 티탄합금가공기술개발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설사 우리의 과학자들이 개발한다고 하여도 그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걸린다. 티탄합금생산기술을 자체로 개발하는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가공기술개발에 다시 그만한 기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는 지름길은 선진기술을 하루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에 토대하여 새것을 창조하는데 있다. 근대와 현대의 과학발전사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문예부흥의 말기에 이딸리아가 세계과학기술의 절정에 오를수 있었던것은 종교암흑시대가 끝장나게 된 사회력사적조건도 있었지만 동방의 발전된 문명과 남먼저 접촉하고 섭취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동방에로의 배길을 일찌기 개척한 이딸리아는 동방에서 이미 발명한 화약과 라침판, 인쇄기술을 받아들일수 있었다. 맑스는 이딸리아가 재빨리 도입한 이 3대발명이 부르죠아계급의 출현을 예고해주었다고 하였다. 분명히 그것은 그 나라 과학부흥과 정신문화발전의 힘있는 전제로 되였다. 그후 세계과학의 중심은 영국으로 옮겨지고 다시 그 순위가 뒤바뀌였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과학기술경쟁의 출발선에 나섰던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이 앞선 나라를 따라잡고 더 전진할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는 당시의 인류가 축적한 과학기술지식을 효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한단계 더 올라섰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정책으로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있다. 이것은 전례없이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최첨단과학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력사적진군

길에 나섰다는것을 의미했다. 남들이 개척한 비약의 길이 아무리 순탄하고 효률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서리였다.

그 침묵에 압도된 황석태는 불만의 눈길로 양영복을 돌아보았다. 선뜻 그가 신심에 넘친 대답을 올리지 못했기때문에 **김정일**동지께서 저렇듯 마음쓰신다고 제나름대로 생각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선 황석태는 확고한 결심과 완강한 의지가 번뜩이는 얼굴로 말씀드리였다.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제련소의 기술자들이 지혜를 합쳐서 기어이 티탄합금가공설비를 만들도록 호소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던 티탄합금생산기술도 우리자체의 힘으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황석태의 흥분된 얼굴을 미더웁게 지켜보시였다.

《그럼 비서동무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해서 성공에로 이끌어주시오.》

번듯한 이마와 우뚝 솟은 코날, 두툼한 입술과 수염터가 푸릇한 턱… 황석태는 인상만으로도 진취적인 판단과 완강한 전개력이 엿보이는 당일군이였다. 실상 그는 당에서 주는 과업이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줄 알았다. 70년대 중엽과 80년대초에 대건설전투가 벌어질 때 당정치일군으로 유감없이 자기의 충실성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가 여기 당비서로 파견되여온 그때부터 제련소는 생산이 부쩍 올라가고 로동자들의 생활도 적지 않게 개선되였다. 그러한 그가 이번에도 지체없이 대책을 세우겠다니 저으기 마음이 놓이시였다.

《연구에서 애로되는거나 제기할것이 없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양영복과 손관식을 번갈아보며 물으시였다.

손관식이 일어섰다.

《지방의 과학자들은 인민대학습당에 자주 다녀야 하는데 중앙에서 큰 대회라도 있으면 려관사정이 긴장해서 숙식조건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려관건설이 중단되였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허락되면 려관건설을 다그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뭇 놀라시였다. 평양에 출장을 오는 과학자들을 위한 전용려관을 건설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해당 일군들에게 친히 과업을 주셨는데 려관건설이 중단되였다니 너무도 뜻밖이시였다.

《부부장동무는 이 사실을 알고있었습니까?》

고중환에게 물으시였다.

《알고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지난해에 비생산건설을 줄일데 대한 국가적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자 해당 부문 일군들은 과학자려관건설을 국가계획에서 삭제했습니다. 올해에는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한 건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자 과학자려관건설은 아예 뒤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평양시건설총국에 여러번 제기도 하였는데 아직 건설력량을 돌릴수 없다고 합니다.》

과학자려관건설을 비생산건물이라고 계획에서 빼여버리다니… 그들은 과학발전이 한걸음 늦어지면 생산이 열걸음 늦어진다는것을 모른단 말인가? 생산력과 과학기술의 호상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단 말인가? 과학자들을 우대하고 그들에게 최상의 연구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이 곧 우리 민족의 재능을 꽃피우고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것임을 모른단 말인가? 과학자려관은 생산을 추동하는 결정적고리와 련관된 건설대상이다. 생산건설에 힘을 넣어야 한다는 국가적조치가 취해졌다면 그에 따라 무엇보다 과학자려관건설을 다그쳐야 했다. 우리 민족이 과학기술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도록 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봉쇄를 추구해오는데 우리 일군들속에 과학을 홀시하는 관점이 남아있으니 가슴속에 치미는 분격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돌아가면 당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격분에 떨리는 음성으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손관식은 자기의 제기로 그이께 괴로움을 드린것만 같아서 그 자리에 선채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앉으시오. 일군들은 내버려둔 과학자려관건설실태를 제때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장동무가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거운 상념을 안고 연구소를 떠나시였다. 경쾌하게 달리는 승용차의 차실안은 선선한편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더위를 느끼시였다. 심각한 사색을 불러내는 내부적인 번열때문이였다.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의 앞길에는 얼마나 많은 난관이 놓여있는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봉쇄, 종래에 맺어진 과학기술협정을 외면해버리는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배신행위, 나날이 어려워지는 경제적난관, 우리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과학홀시사상, 세계적인 수준을 지향한 높은 목표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는 과학자, 기술자들…

자신의 어깨우에 보이지 않는 중하가 차례차례 덧쌓이는듯 한 중압감에 숨결이 높아지시였다. 웃옷의 목깃을 조금 터치고 두팔을 가슴우에 포개여얹으시였다. 그러시자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기대에 넘치신 음성이 머리속에 되새겨지시였다.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하신 교시였다.

《과학기술발전을 옳게 이끌어가자면 정치적령도력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깊은 파악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일**동지는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지닌 남다른 슬기와 재능을 무엇보다 귀중한 재부로 여기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꽃피울데 대한 구상을 오래전부터 무르익혀왔습니다.

인간의 슬기와 재능의 창조물인 문학예술과 과학기술은 정신문화의 2대부문을 이루고있습니다.

동무들도 잘 아는것처럼 **김정일**동지는 지난 70년대에 문학예술부문을 지도하면서 세계가 20세기 문예부흥으로 칭송하는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학기술도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세계의 최절정에로 나래쳐오를것입니다.

명실공히 **김정일**시대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활짝 꽃피는 과학문명의 전성기로 될것이며 우리 민족은 가장 문명한 민족으로 될것입니다.》

장내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올랐다.

주석단의 앞줄에 묵묵히 앉아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수소리가 높아질수록 경건하고 엄숙한 감정에 휩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빈터에서 시작하여 오늘에로 가꾸어오신 과학기술발전의 계주봉을 넘겨받는 력사적순간을 체험하는듯 한 심정이시였다. …

그 심정이 되살아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기대에 기어이 보답하시려는 각오와 결의가 더욱 굳어지시였다. 수령님의 기대는 그대로 우리 혁명의 요구였고 찬란한 미래에로 향한 민족사의 요청이였다.

해방후 우리의 과학기술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하지만 남들보다 수백년 뒤떨어져 그 출발선에 나섰던것만큼 아직은 선두대렬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있다. 게다가 우리의 앞길에는 어느 선행자도 헤쳐보지 못한 애로가 겹쌓여있다. 그것을 뚫고 비상한 속도로 우리 나라를 과학문명의 강국으로 이끌어가야 할 자신의 사명감을 무겁게 의식하시였다.

어느새 그이의 얼굴에는 심뇌의 그늘이 가셔지고 단호하고 결연한 빛이 떠오르시였다.

승용차는 평양을 가까이하고있었다.

## 6

밤 2시.

저녁에는 그리도 불빛이 휘황하던 아빠트의 창가들에 지금은 서켠의 쪼각달빛이 희미하게 흘렀다. 모두가 평온한 잠에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였다.

하지만 이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에 드시지 못하고 밤거리로 차를 몰아가시였다. 과학자려관건설장으로 가시는길이였다. 려관

건설을 몇해째 버려두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뜻밖이였고 그만큼 격분이 크셨던것이다.

영림에서 돌아오시자 그길로 현장에 가보고싶으셨지만 무력부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셔야 하는 절박한 일이 기다리고있었다.

오진우무력부장은 지난 3월 21일에 하달된 최고사령관명령집행정형을 가지고 찾아왔다.

적들이 전례없이 큰 규모로 벌리는 《팀 스피리트—88》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출데 대한 명령이 떨어졌던것이다.

오진우로부터 명령집행정형을 들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나서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 오늘 9월제련소에서 새로 조업한 티탄합금직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공설비까지 갖추게 되면 우리의 무장장비를 적지 않게 현대화할수 있습니다.》그이께서는 가까운 앞날에 인민군대에 공급하게 될 새로운 무장장비의 몇가지를 꼽으시였다. 그 속도와 타격력에 있어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무기들이였다.

오진우는 너무도 놀랍고 황홀하여서 주먹으로 앞탁을 울리였다.

《그렇게만 되면야!》

부지중 부르짖으며 웃고있는 로투사의 얼굴에는 평생의 소원을 푸는듯 한 기쁨이 확 번지였다. 항일전의 그 시절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라고 웨치며 한자루의 총을 위해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전우들의 마지막 그 부탁을 안고 총과 함께 한생을 살아오는 그였다. 보다 훌륭한 무기를!

그의 한생은 충족을 모르는 이 념원속에 흘러왔다. 우리 군대의 장비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져왔지만 보다 성능높은 무기에 대한 욕망은 숙어들줄 몰랐다. 그러나 방금 그이께서 꼽아주신 무기들은 세계가 아직은 그 이상의것을 알지 못하는것들이였다.

오진우는 커다란 흥분을 안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때가 밤 12시경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후에도 두시간가까이 책상우에 놓인 여러 부문의 문건들을 보시고서야 과학자려관건설장으로 떠나실수 있었다.

건설장은 새로 지은 고층살림집들이 숲을 이룬 문수거리의 복판에 있었다. 건설장을 복판에 끼고 가로세로 뻗은 도로의 가로등들이 주위를 밝혀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네거리를 조금 벗어난 길옆에 차를 세우고 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가슴아픈 건설장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건설장입구에 서있는 《과학자려관건설전투장》이라는 키높은 표식판이 보초병마냥 외로이 서있었다. 그나마 무슨 칠감을 썼는지 표식판글자들이 퇴색해버렸다.

그이께서는 손전지로 앞을 밝히며 건설장안으로 좀더 들어가보시였다.

기초를 하다말고 버려둔 건설장주변에는 모래와 자갈이 여기저기에 널려져있다. 일부 구간의 기초콩크리트우로 비죽비죽 솟은 철근들은 녹이 쓸었다. 어떤 구간에는 물이 차있었다. 탑식기중기를 세웠던 자리라고 짐작되는 곳의 레루는 그대로였지만 침목은 어째선지 여러개 뽑아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흙무지우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비생산건설이라고 려관건설을 계획에서 빼여버린 일군들의 처사에 더욱 참을수없이 의분이 끓어오르시였다. 과학홀시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려관건설을 여태껏 뒤로 미루어온 그 부문 일군들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들에서 교훈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잃어진 몇해를 보충하리만큼 려관건설을 빠른 시일에 끝내자면?… 사상투쟁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수는 없다. 완공기일을 앞당기자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불현듯 《과학자려관건설전투장》이라는 표식판이 머리에 떠오르시였다. 그 표식판은 《전투장》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모독하고있다. 진정한 그 의미를 되살리는 전격전의 마당으로 되게 하자면… 그렇다.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과학자려관건설을 벌려야 한다. 평화적건설을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진행한 전례는 없다. 그러나 과학자려관만은 그렇게 해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우리 인민의 운명이 좌우되고 우리 조국의 국

방력도 담보된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의분이 숙어들줄 모르는 가슴에 그러한 결심을 품으시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계시였다.

## 7

《저기 동무의 할아버지가!…》

박치영은 우뚝 걸음을 멈추고 나란히 걷고있는 처녀에게 당황한 어조로 속삭였다. 양영복박사가 연회색봄가을외투자락을 봄바람에 날리며 맞은켠에서 보도를 천천히 걸어오고있었다. 누가 새로 만들어주었는지 맵시있는 단장을 조심스레 내짚으며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였다. 얼른 다가가서 부축해주고싶었으나 산보길에 나선 자기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뜨일가봐 두려웠다. 처녀는 더욱 당황했다. 삽시에 얼굴이 빨갛게 물들고 눈동자가 올롱해졌다. 그는 박치영의 줌안에 잡혔던 손을 뿌리치듯 뽑으며 가로수뒤로 몸을 숨기였다. 그리고는 박치영의 옷자락을 자기쪽으로 끄당기며 눈을 할기였다. 그냥 선자리에 굳어져있지 말고 자기처럼 몸을 숨기라는 뜻이였다. 박치영은 양영복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채 모재비걸음으로 처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방울나무줄기가 어지간히 통개가 굵기는 하였지만 그들 두사람의 형체를 가리워줄수는 없었다. 차라리 선자리에서 양영복의 눈에 들통이 나는것보다 지금처럼 숨는 놀음을 하다가 들키는것이 더욱 난처하고 부끄러울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다같이 그처럼 단순한 분별을 잃었다. 학술적인 판단은 남달리 예민한 그들이였으나 첫사랑의 열렬한 감정에 도취된 이 순간에는 어린애들처럼 순진하고 어리석었다.

다행히도 양영복박사는 줄곧 발치에 시선을 떨군채 지나가버렸다. 머리를 깊이 숙인탓으로 그의 표정을 볼수 없었지만 강마른 칼칼한 얼굴에 짙은 그늘이 덮인듯 하였다.

두 청춘은 멀어져가는 양영복박사의 뒤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동무도 사흘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연구소와 제련

소를 다녀가신 소식을 들었소?》

박치영은 언제까지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걸음을 뗄상싶지 않은 양명심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들었어요.》

양명심은 할아버지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것만큼 지금 퇴근길에 오른 할아버지가 무엇때문에 고뇌에 휩싸여있는지를 알고있었다. 할아버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처럼 바라시는 티탄합금가공기술개발문제에 확답을 올리지 못한 괴로움에서 내처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양선생은 그날 처신을 잘못했소.》

할아버지의 등뒤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던 양명심은 그렇게 말하는 박치영을 마주보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티탄합금가공기술을 우리자체로 개발할수 없느냐고 거듭 물으시는데 마지막까지 시원한 대답을 올리지 못했으니 말이요.》

《아직은 그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구상도 없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확답을 올릴수 있겠어요?》

《설사 지금은 과학적구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이께서 주시는 과업이라면 기어이 수행하고야말겠다는 불같은 결의야 있어야 할게 아니요? 양선생을 곁에서 지켜보다못해 당비서동지가 연구소와 제련소가 지혜를 합쳐서 티탄합금가공기술을 개발해내겠다고 말씀드렸다오.》

《…》

《만일 그날 접견석상에 우리 연구소를 대표해서 내가 참가했다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앞에 우리가 할수 있다고 확신있게 말씀드렸을거요.》

《동무에게 무슨 학술적인 타산이라도 있는가요?》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양선생과 함께 일본에 가서 티탄합금가공설비를 구경했는데 압착가공의 기본원리가 리해되였거던. 물론 일본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술적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소. 그러나 우리도 그들이 개발한 기

술적원리에 토대해서 가공설비를 만들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요. 나는 귀국하는 로정에서 줄곧 머리속에 떠오르는 그 구상을 무르익혔소.》

박치영은 석양이 비낀 아득한 공간을 바라보며 신심에 넘쳐 말했다.

처녀는 선망어린 눈으로 새삼스레 그를 바라보았다. 학구적인 구상과 새로운 포부로 박치영의 얼굴은 그윽히 빛나고있었다. 동그란 눈동자, 칼날같은 코날, 뾰족한 턱… 박치영은 그 외양부터가 남다른 재기와 영민한 판단력을 말해준다고 처녀는 생각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동무의 구상을 얘기해봤어요?》

《아직은 토론하지 못했소. 양선생은 귀국도중에도 일본놈에게서 받은 모욕감을 삭이지 못하고 내처 의분에 사로잡혀있었소.》

명심은 비분으로 떨리는 할아버지의 음성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양영복은 손녀에게 일본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 나라가 과학기술적으로 제국주의자들보다 앞서게 되는 그날을 보기 전에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속이 살아서 뜻만 남았을뿐이지 로쇠하고 병약한 나는 이제 그 무엇을 새롭게 연구할것 같지 못하다. 우리 세대가 못다한것을 너희들 새 세대 과학자들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유언과도 같이 사무치도록 곡진한 당부였다. 그 순간 명심은 할아버지의 푹 꺼져든 눈굽에 비분의 눈물이 고이는것을 보았다. 그 눈물에는 풀길없는 여한으로 옹이진 감정이 끓고있었다.

명심은 할아버지의 그 심정이 그대로 자기의 가슴에 세차게 울려오는것을 의식했다. 이 손녀에 대한 할아버지의 기대는 남다른것이다. 할아버지는 두 아들을 과학계에 내세워 뒤를 잇게 하고싶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두 아들의 운명은 다른 길을 걸었다. 맏아들인 명심의 아버지는 전연군부대에서 참모장으로 군무하였고 공부하기를 정 싫어하던 둘째아들은 제련소운수직장에서 일하고있었다.

할아버지는 한대를 건너 손녀인 명심에게 기대를 걸고 어려서부

터 자기 슬하에서 키웠다.
명심은 할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라났다. 여기 영림에서 소학교와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리과대학을 나오고 장래가 촉망되는 녀성과학자로 되였다. 금속재료학이 아니라 기초과학인 수학을 전공하기때문에 할아버지의 연구분야를 직접 넘겨받을수는 없었다. 하지만 과학전선에 함께 서있다는 의미에서는 대를 이어간다고 할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당부를 들으면서 명심은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심정에 공감해서만이 아니였다. 또 다른 하나의 감정, 과학자로서 할아버지의 생애가 끝났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서운한 감정이 북받쳤던것이다. 일본에서 심장발작까지 일으켰다더니 할아버지는 넓은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이 패이고 가뜩이나 강마른 얼굴에서 살이 쏙 내린듯싶었다. 과학을 떠난 할아버지의 여생을 생각할수 있을가?…
그런데 사흘전 오전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접견을 받고 점심시간에 집에 들어선 할아버지는 격동된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이께서는 고목이 다된 나에게 오늘 또다시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주시였다.
내가 일본을 다녀오면서 참을수 없는 민족적의분을 안고온것은 설비를 구입해온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귀중하다고 하셨을 때 실로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새겨볼수록 의미가 심장한 말씀이였다.
그이께서는 내가 그 민족적의분을 안고 새롭게 연구사업에 투신한다면 놈들의것보다 월등한것을 만들어내리라고 기대하신것이 분명하다.
명심아, 나는 어제까지만 하여도 이제 내 나이에 무엇을 더 할수 있으랴 하고 자포자기에 빠져있었다. 인생의 마지막연구과제로 내세웠던 티탄합금생산기술까지 완성하고보니 일종의 만족감도 있었고 자기 능력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못다한것을 너희 세대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이의 간곡한 말씀을 듣고보니 숨이 지는 순간까지 탐구하고 또 탐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의무이기 전에 량심이고 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14년전에 년로보장을 받을 나이가 지났으니 공민적인 의무감을 놓고 말한다면 이제 과학일선에서 물러선다고 하여도 조금도 부끄러울것이 없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토록 큰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버린다면 나는 량심도 의리도 없는 인간일것이다. 헌데 티탄합금가공기술개발에 아무런 구상도 없다보니 그이께 대답을 드리지 못했구나. 티탄합금생산기술을 완성한 다음부터라도 다음단계의 기술을 연구하는데 진작 착수했더라면 사정이 달리 되였을지도 모른다. 과학자로서 자기를 서둘러 마무리해버리려고 작정을 했던 지난날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구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티탄합금가공기술을 완성하겠는지는 기약할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성공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이의 뜻을 따라 자기의 지혜와 힘을 마지막순간까지 깡그리 바쳐왔다고 자부하며 눈을 감는다면 한됨이 없을것이다. 스스로 끝장이 났다고 인정했던 그 계선에서 오늘을 계기로 과학자로서의 나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사무치는 후회와 비장한 각오가 담긴 할아버지의 고백이였다.
명심은 과학계의 로장으로 또다시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차지하게 될 할아버지를 보게 된것이 너무도 기뻐서 앙상한 그의 손을 더듬어잡고 눈물을 머금었다. 생각할수록 꺼져가던 할아버지의 탐구욕과 정열에 활력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이 고마왔다. …
양명심은 한동안 자기 생각을 더듬던 끝에 끊어졌던 대화를 다시 이었다.
《할아버지도 이제부터는 가공기술연구에 전심을 다할거예요. 동무한테 좋은 구상이 떠올랐다면 인차 토론해보세요.》
《그런데 그 구상이 아직은 남들과 토론을 할만큼 무르익지 못했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 할아버지한테야 미숙한 구상이라도 터놓고 조언을 받을수 있지 않아요?》

《양선생이야말로 학술적인 고집이 세고 요구성이 높아서 젊은 사람들이 서뿔리 자기 견해를 터놓기가 어렵단 말이요.》

박치영은 싱긋이 웃었다.

명심이도 따라웃었다.

박치영의 말대로 할아버지는 학술적인 주장이 남달리 센 학자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 박치영의 명민한 착상과 기지가 합쳐지게 된다면 기어이 성공할것이다. 박치영은 티탄합금생산기술연구에서 할아버지의 재능있는 조수로 이미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 치영동무와 같은 실력있는 젊은 조수를 가지고있는것은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의 행운이 아닐가? 명심은 믿음과 사랑이 흐르는 시선으로 박치영을 쳐다보았다.

낮동안 따스한 봄별을 대지에 쏟아붓던 태양이 어느새 지평선너머로 사라졌다. 어느덧 서켠하늘에 저녁노을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서쪽을 향한 창문들에 분홍색광채가 어리였다.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시창들에도 노을빛이 번쩍거렸다.

그들은 제련소에서 서쪽으로 초간히 떨어진 공원으로 들어갔다. 하루일을 마친 로동자들을 위해 아담하게 꾸려진 크지 않은 공원이였다. 복판에는 물보라를 기폭처럼 날리는 분수터가 있고 그 왼쪽에는 절묘한 바위들이 비죽비죽 솟은 인공동산이 있었다. 동화속의 화폭같은 그 동산에는 바위짬들에 뿌리를 박은 진달래가 만발했다.

박치영과 양명심은 그 주위를 한바퀴 돌아서 소나무밑의 장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겨울동안은 한적하던 공원이 지금은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남녀들로 활기를 띠였다. 공원구내는 쌍을 지어 거닐기도 하고 의자에 나란히 앉기도 한 청춘들로 한벌 덮이였다.

해가 지자 대기는 선선해졌다.

《춥지 않소?》

박치영은 처녀의 곁에 바투 붙어앉으며 나직이 물었다.

《괜찮아요.》

명심은 발치에서 땅우에 뾰족이 내민 이름모를 풀싹을 뜯어 코끝에 가져가며 싱그러운 봄의 정취를 호흡했다.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하자 군데군데 서있는 등주에 전등이 켜졌

다. 푸른빛을 띤 전등빛은 상혈된 청춘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쳐주었다.

박치영의 눈에는 그 빛발속에 드러나는 명심의 얼굴이 전에없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조심히 팔을 뻗쳐서 처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처녀의 따스한 체온에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며 더듬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명심동무,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리움에 시달리며 결혼을 미루어야 하오?》

명심은 달아오르는 볼을 쓰다듬을뿐 침묵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사무치는 그리움에 애를 태우기는 자기도 마찬가지이다. 1년에 한두번 주어지는 상봉만으로 그리운 회포를 나누어야 하는 자기들의 사랑이 그지없이 애달팠다. 그러나 어찌하랴. 버릴수 없는 연구과제가 결혼의 그날을 미루게 하고있었다. 박치영은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리움이 곧 사랑의 행복이 아닐가요?》

명심은 한참만에야 박치영의 얼굴을 정겨운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며 반문했다.

《우리처럼 멀리 떨어져서 여러해를 두고 서로 그리워하며 청춘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거요.》

박치영은 고개를 들어 어덴가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명심이도 그 눈길을 따랐다. 분수터너머에는 수많은 가지들을 실실이 드리운 수양버들 한그루가 숙연히 서있었다.

말없는 두 청춘의 표정이 그윽해졌다. 어느 달밝은 여름밤에 그들은 저 수양버들밑에서 사랑을 약속했었다. 그것이 몇해전이였던가?…

박치영이 양명심을 알게 된것은 청진광산금속대학을 졸업하고 금속공학연구소에 갓 배치되여왔을 때부터였다. 그는 양영복박사의 연구실에 오게 된것이 다행으로 여겨졌다. 누구의 지도밑에서 연구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발전이 크게 좌우될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양영복박사가 쓴 전공교과서를 배우기도 하였고 그가 학계에 널리 알려진 학자라는것도 알고있었다. 양영복은 다른 사

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괴벽한 성미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무엇을 물어오는 후배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히 가르쳐주었다. 박치영은 때로 휴식일이나 저녁시간에 양영복의 집을 찾아가 학술론담을 나누군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낯모를 녀대학생이 집에 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리과대학에 다니는 양영복의 손녀인데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왔다고 하였다. 아름답다고는 할수 없으나 생신한 성숙미가 흐르는 처녀의 자태는 박치영의 시선을 끌었다.

양영복이 집에 없을 때에는 명심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우들과 멀리 떨어져 말벗이 그립던 때여서인지 명심이도 즐겨 응하였다. 티탄으로부터 꼭지를 뗀 화제는 세계과학의 추세에로 번져지기도 하고 새로 나온 영화나 소설에 대한 이야기로 뒤바뀌기도 하면서 여러갈래로 펼쳐졌다. 과학에 대한 공통된 지향이 그들을 접근시켰다.

어깨나란히 밤거리를 거닐며 집에서 끝내지 못한 화제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밤하늘에는 전기로의 화광이 노을처럼 비끼였다.

박치영은 점점 세차게 고동치는 자기 심장의 박동을 의식하며 생각했다. 앞으로 명심이와 결혼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가? 리상적인 과학자부부… 명심은 과학을 사랑하는 교양높은 처녀이다.

공원에 이른 박치영은 수양버들밑에서 양명심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처녀의 마음을 공감시킬수 있는 말마디들을 고르고골라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만큼 어음이 조금 떨렸을뿐이지 순조롭게 자기의 심정을 헤쳐보일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심정을 강조하듯 처녀의 손을 덥석 잡고 지그시 힘을 주었다. 처녀는 줌안에서 손을 빼며 숨가쁜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사랑이나 결혼은 졸업을 한 다음의 일이예요. 량해하세요.》

입밖으로 새여나오는 그 말마디들과는 달리 마주보는 양명심의 눈에는 억제된 사랑의 감정이 불타고있었다.

어깨우에 드리운 수양버들가지들이 밤바람에 설레이며 부드러운 잎새로 한껏 달아오른 두 청춘의 얼굴을 스치였다.

《동무가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겠소.》

박치영은 명심이가 졸업을 할 때까지 1년을 기다렸다. 그동안 하루가 멀다하게 편지를 썼다. 이따금 양명심에게서도 회답이 왔다. 학습에 기울여야 할 정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드물게 보내오는 회답이였지만 글줄마다에는 처녀의 순결하고 열렬한 감정이 깔려있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명심은 영림이 아니라 평성의 기계공학연구소에 배치를 받았다. 결혼을 하자면 어느 한쪽이 직장을 옮겨야 했다. 기계공학연구소에서는 명심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었다.

태반이 기계공학부문의 전문가들뿐인 연구소에서 수학전문가는 이채로운 존재였고 그만큼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였다. 명심은 연구소에 배치를 받은 이듬해에 초고압유압프레스연구집단에 망라되였다. 연구사업의 시작과 더불어 받아안은 첫 과제를 저버릴수 없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 프레스기술연구에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꽃피우려는 열렬한 희망도 있었다. 결혼을 해도 초고압유압프레스를 해놓은 다음에 할 결심이였다. 그래서 몇해동안 결혼을 미루면서 한해 한두번 휴가를 받거나 다른 일로 영림에 오게 되는 기회를 빌어 박치영과 그립던 정을 나눌수 있었다. 이번에도 며칠간 휴가를 얻어 영림으로 왔던것이다.

《언제 평성으로 떠나겠소?》

수양버들을 바라보며 추억을 더듬던 박치영이 먼저 침묵을 깨치였다.

《래일…》

명심은 나무정수리에 시선을 멈춘채 말끝을 삼켰다. 래일 떠나겠다는 말이 쉽게 입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았다. 그 역시 헤여지고싶지 않았다. 애인과 함께 다정히 속삭이는 이러한 저녁을 여러날 더 즐기고싶었다.

《그렇게 빨리?》

박치영은 처녀를 원망스레 쳐다보았다.

양명심은 한숨을 앞세우며 량해를 구하듯 응대했다.

《우리 연구집단의 문헌조사결과에 대한 과학평의회가 모레 있어요.》

《내 전에도 말했지만 수학자인 동무는 우리 연구소에도 필요하오. 동무가 이리로 오겠다고 주동적으로 제기를 하면 과학원에서 승인을 할거요.》

《초고압유압프레스연구사업에서 물러설수가 없어요. 내 립장을 리해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리해하오, 리해해.》

박치영은 안타까운 빛을 담고 똑바로 겨누어보는 양명심의 눈길에 부딪치자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는 헌헌한 표정을 짓고 별빛이 총총한 밤하늘에 시선을 보내며 시를 읊는듯이 덧붙였다.

《청년과학자들의 류다른 사랑!》

《우리 서로가 연구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성공의 기쁨을 안고 결혼을 한다면 그야말로 뜻깊은것으로 될거예요.》

저 멀리 제련소의 상공을 엇비스듬히 가로지르며 류성이 날았다. 눈부신 백광으로 포물선을 긋던 류성은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두 청춘과학자의 시야에는 황홀한 그 빛줄기의 잔광이 그대로 남아있는듯 하였다.

## 8

양명심이 망라된 연구집단은 모두가 청년과학자들이였다. 연구집단을 책임지고 이끄는 석홍범도 젊은 과학자였다. 석홍범이 처음 초고압유압프레스개발을 발기하고 나섰을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나이많은 학자들은 연구집단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연구과제에 대한 확신도 적었지만 보다는 석홍범이 몇해전에 기계공업위원회(당시)에서 갓 넘어온 연구사였기때문이였다.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능력과 자질은 아직 연구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과제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 책임자의 실력에 크게 좌우되는것이다. 석홍범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의 제기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젊은 연구사들로 연구집단을 무어주었다.

석홍범의 생각은 옳았다. 양명심은 말할것 없고 다른 젊은 연구

사들도 이번의 연구과제수행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보려는 공통된 반발심이 있었다. 기계공학, 유압공학, 전기공학, 수학, 물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신심에 넘쳐 문헌조사를 다그쳐왔다. 연구사들은 각기 자기 전공에 따라 이미 초고압유압프레스를 만든 여러 나라의 서적과 잡지들을 빠짐없이 읽었다.

그런데 문헌조사가 깊어질수록 일부 연구사들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원리와 표상을 가졌을 때에는 몰랐으나 정작 깊이 파헤쳐보니 우리의 실정에서는 해결할수 없는 난점들이 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하지만 수학적인 모형화와 력학계산을 담당하였던 양명심은 연구가 심화될수록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기쁨도 컸고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굳어져갔다.

과학평의회는 예견했던대로 그가 연구소로 돌아온 그 이튿날에 열리였다. 흔히 기계공학연구소범위내에서 열리던 평의회에 이날은 다른 연구소의 권위있는 학자들과 과학원 림수봉부원장이 참가했다. 여러가지 과학기술문제들이 론의되고 연구과제에 운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모임이였다.

먼저 석홍범이 종합적인 견해를 말하고 양명심을 비롯한 연구사들이 각기 자기 분야의 문헌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뒤이어 그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중간휴식을 하여가면서 여러시간 론의가 거듭되던 끝에 림수봉이 연단에 나섰다. 후보원사이고 기계공학박사인 그는 나라의 책임적인 과학지도일군인 동시에 이름높은 학자이기도 하였다. 다부진 체격과 혈색좋은 둥실한 얼굴은 환갑을 지난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보이였다.

양명심은 한껏 기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

젊은 연구사들이 찾지 못한 방도를 그가 찾아주거나 시사해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뜻밖의 말이 튀여나왔다.

《토론과정에 충분히 론증된것처럼 초고압유압프레스개발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연구집단의 문헌조사결과는 그 제작에 필요한 고질, 고강도재료들의 기술지표가 예상했던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업은 그

러한 재료들을 생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할수 있는 다른 재료들을 탐구하여 연구를 계속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무모한 시도입니다. 보통의 기계라면 대용재료를 리용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아다싶이 초고압유압프레스는 2 000기압이상의 초고압으로 동작합니다. 해당한 기술지표에 이르지 못하는 재료들을 리용하여 제작을 시도하다가는 무서운 폭발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는 연구집단성원들을 둘러보더니 무거운 어조로 계속했다.

《이미 초고압유압프레스제작조건을 두고 과학지도부서들에서 론의가 많았습니다. 제작재료가 걸린다는것은 몇달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바킹재료나 특수한 강철띠를 해결할수 없는 조건에서 연구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을 거듭해오던 끝에 오늘의 과학평의회를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해결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득불 연구집단을 해산하고 그 력량을 유압공학분야에서 제기되는 다른 긴급한 과제수행에 돌려야 하겠습니다.》

양명심은 머리우에 세찬 타격이 내려지는듯 한 아찔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로써 우리 연구집단은 끝장이란 말인가?! 눈앞이 캄캄해오면서 자신의 존재가 헤여날길 없는 나락속으로 떨어지는듯 했다. 과학자에게는 연구과제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지는 법이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황홀하게 머리속에 그려지던 꿈이 이렇게 쉽사리 사라져야 한단 말인가? 얼핏 옆을 돌아보았다. 저켠에 앉은 석홍범의 얼굴은 해쓱하니 피기가 가셔져버렸다. 명심은 자기의 심정을 미루어 지금 그가 얼마나 괴로와하겠는가를 짐작했다. 명심은 1년나마 문헌조사를 한데 불과하지만 석홍범은 오래전부터 고심참담한 탐구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른 연구사들이 당하는것보다 그는 몇갑절 더 큰 실망과 절망을 느낄것이다. 석홍범의 볼편이 떨리더니 울대뼈를 깎는듯 한 아츠러운 신음이 입밖으로 새여나왔다.

긴장이 흐르는 정숙한 분위기속에서 울리는 그 신음소리는 여러사람의 귀에 들리였다. 뭇시선들이 그에게 쏠리였다.

연단을 내려서던 림수봉도 그 모습을 보았는지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연구과제를 철회하고 연구집단이 해산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방대한 량의 문헌조사를 하는 과정에 연구사들의 자질이 한계단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탐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석홍범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고도기술을 자랑하는 나라들에서 만든 초고압유압프레스의 기술공학지식을 충분히 터득하였습니다. 이번에 동무들이 쌓은 그 지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들을 연구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실망에 잠기는 연구집단성원들에게 분명 위안과 고무를 주려고 그렇게 말할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고무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반발심을 자아내는 역설로 들리였다. 책임적인 과학지도일군인 림수봉으로서야 이 마당에서 어떻게 하나 연구과제를 성사시킬수 있는 그 무슨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 값눅은 위로나 상식적인 고무는 누구나 할수 있을것이다.

양명심은 오늘의 모임을 이상으로 끝낸다는 기계공학연구소 소장의 석쉼한 목소리를 꿈결에서처럼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술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그는 일어설줄 몰랐다. 전신의 맥이 탁 풀리여서 꼼짝하고싶지 않았다. 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되였을 때 희망과 포부는 얼마나 컸던가? 연구사업의 첫걸음을 떼면서부터 고도기술에 속하는 연구과제에 망라된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긍지로왔다. 남들이 밟아야 했던 성장의 로정을 훨씬 뛰여넘은 앞선 계선에서 과학자로서의 첫출발이 시작된다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불타는 정열을 여기에 다 바쳐왔다. 사랑하는 박치영에게 회답을 쓰는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때가 있었다. 그렇게도 심혈을 기울여왔으나 연구사업은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해보지도 못하고 좌절되였다. 가슴속에서 설음이 북받쳤다. 이제 어쩌면 좋을가? 불현듯 박치영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금속공학연구소로 옮겨와서 가정을 이루자던 그의 곡진한 말마디들이 귀가에 쟁쟁했다. 일이 이렇게 된바치고는 그의 말대로 영림으로 옮겨갈 결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가?

어쩐지 그렇게 되면 사랑과 가정의 행복은 누릴수 있겠지만 과학적 포부와 희망은 잃어버릴것 같았다. 금속공학연구소에도 수학전문가의 몫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기계공학분야에서처럼 자기의 존재가 절실할것 같지는 않았다. 기계공학연구소에서 이미 터를 잡은 자기의 위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크기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지도 모른다. 명심은 자기 생활의 앞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갈림길이 가로놓여있다는것을 애달픔속에서 의식하였다.

갑자기 땅이 꺼질듯 한 한숨소리가 들리였다. 버쩍 정신이 들어서 머리를 들어보니 장내에는 자기 말고 또 한사람이 그대로 앉아있었다. 석홍범이였다. 흰 살결과 부드러운 선으로 륜곽을 그린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덮이였다. 숱진 눈섭밑에서 언제나 청춘의 열정으로 불타던 두눈이 지금은 한껏 생기를 잃었다. 이마전에는 론쟁속에 흘리던 땀발의 흔적이 력연했다.

명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다같이 좌절감과 실망에 사로잡혔지만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가. 명심은 자기보다 몇갑절 더 상심해버린 그를 위로하고싶었다.

《책임연구사동무.》

잠긴 목소리로 조용히 불렀다. 그랬으나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석홍범은 그 무엇에도 반응할 경황이 없는지 그린듯이 그대로 앉아있었다. 침묵끝에 그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명심동무, 미안하오.》

무엇을 미안하다고 하는것일가? 석홍범은 마치도 자기의 불찰로 연구집단의 노력을 헛되게 하였다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차마 마주볼 면목이 없는듯 머리를 창쪽으로 돌리였다. 다음순간 명심의 가슴이 섬찍하도록 그의 눈에 빛이 가해졌다. 하더니만 갑자기 높아지는 숨결과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나는 우리 연구집단의 해산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소!》

《그럼 어쩌자는건가요?》

《부원장을 찾아가겠소!》

석홍범은 찬바람을 일으키며 문밖으로 나갔다. 불같은 충동에 떠밀리운 석홍범은 총총히 기계공학연구소를 나와 반달음을 놓았다. 림수봉의 사무실은 과학원청사 2층에 있었다.

부원장실에 들어선 석홍범은 그 무슨 문건을 읽고있는 림수봉을 보자 불끈 화가 치밀었다. 절망적인 선언을 내리고도 벌써 평온한 마음으로 다른 일에 전심하는 그가 매몰스럽게 여겨졌다. 그닥 미덥지 않던 풋내기연구사들로 무어진 한개 연구집단을 해산해버리는 것쯤은 지극히 범상한 일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자기가 겪은 괴로움의 몇십분의 일이라도 느낀다면 저렇게 쉽사리 다른 일감을 손에 잡지 못할것이다.

《부원장동지!》

저도 모르게 거친 목소리가 터졌다.

림수봉은 가볍게 놀라며 머리를 들었다. 얼른 돋보기를 벗고 흥분한 기색으로 서있는 석홍범의 낯빛을 살피더니 조용히 눈시울을 내리깔며 가늘게 한숨을 쉬였다. 무엇때문에 찾아왔는가고 묻지도 않았다. 성난 표정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나타난것을 꾸짖지도 않았다. 한찰나의 침묵끝에 앞상밑에 놓인 의자를 가리키며 퉁명스레 한마디 던졌을뿐이다.

《저기 앉소.》

석홍범은 한걸음 다가서며 선채로 입을 열었다.

《제가 찾아온것은…》

《알고있소.》하고 림수봉은 석홍범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허리를 잘랐다. 하더니만 자리를 고쳐앉으며 천천히 뒤를 이었다.

《거듭 말하지만 연구집단을 해산하려는것은 내 혼자의 결심이 아니요. 동무네 연구소 책임일군들과도 이미 충분한 토론이 있었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동무자신도 그 연구과제에 그냥 매달려있을 필요가 없지 않소?》

《초고압유압프레스는 현시기 절실히 필요한 기계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기계를 개발하지 못했기때문에 련관된 많은 생산이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기계를 개발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것을 연구개발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우리의 공업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무엇을 만든다고 하여 당장 우리도 그런것을 만들자고 접어드는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만일 기밀장치에 쓰일 바킹재료를 비롯해서 몇가지 재료들을 수입해준다면 우리도 유압공학기술이 앞섰다고 하는 나라의 초고압유압프레스와 짝지지 않는 기계를 만들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수입해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안되오. 재료들을 수입해다가 시제품이나 한대 만들어서는 뭘하겠소. 대량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을 계속 수입할수는 없소. 바킹재료만 하여도 특수유기합성제품인것만큼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오. 그렇기도 하지만 고작해서 그 수명이 수개월밖에 안된다니 한대를 돌리자고 해도 계속 수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오.》

석홍범은 침묵했다. 뜻을 두었던 연구과제를 쉽사리 저버릴수가 없어서 재료수입을 제기했을뿐이지 그것이 경제적타산에 맞지 않는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림수봉이 다시 말했다.

《지금 우리 실정에서는 실험조건이나 제작조건이 결려서 최신과학기술개발과제들이 적지 않게 애를 먹고있소. 그러나 나라사정이 그런걸 어찌겠소.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유압기계들, 례하면 유압동발이나 유압기중기, 유압굴착기와 같이 중간압력상태에서 동작하는 기계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자기의 지식을 지향시키시오.

그러면 동무의 능력을 가지고 쉽게 성과를 거둘수 있소.》

괴로운 상념속에 림수봉의 말을 잠자코 듣고있던 석홍범은 서서히 머리를 들었다. 어느 정도 진정과 타당성이 느껴지는 권고였으나 그대로 수긍할수 없는 점이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물론 인민경제의 현행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푸는데 연구사업을 지향시키는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실험조건이나 제작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첨단기술개발을 외면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이 언제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도달하겠습니까?》

림수봉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질문을 받은듯 했다. 저으기 긴장

한 표정으로 마주보더니 한개 연구사와 나라의 과학지도방향에 대한 원칙적문제를 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으로 화제를 돌리였다.

《그래 동무는 초고압유압프레스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할 생각이라는데 걸린 문제를 풀수 있는 자기딴의 착상이나 구상을 가지고있는게 있소?》

석홍범은 가장 아픈 곳을 찔리운듯 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문헌조사를 해온 집단의 지혜를 모아 연구를 계속하면 무슨 방도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승산의 실머리도 없이 연구사업을 계속하겠다는거야 허망한 일이 아니겠소. 동무네 집단에서 물리학분야를 담당했던 동무는 며칠전에 8축전기기관차개발에 파견되는 과학자돌격대에 보내달라고 제기해왔소. 몇몇 다른 동무들과도 담화를 해보니 지금껏 탐구를 해온것이 아쉽지만 다른 과제에 망라되기를 원하고있소.》

석홍범은 뜻밖의 타격을 받았다. 이즈막에 이르러 동료들속에서 실망의 그늘이 떠도는것을 감촉하기는 했으나 자기의 면전에서 연구집단을 뜨겠다고 말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아무리 애로와 난관이 겹치여도 끝까지 자기와 함께 연구사업을 계속할 결심만은 확고하리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지도일군들앞에서 드러내보인 일부 연구사들의 내심은 달랐다. 엄청난 배신을 당한듯 한 모멸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석동무.》

림수봉의 조용한 부름소리에 석홍범은 짓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인민경제의 현행생산에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 동시에 전망적인 목표를 점령하는것은 지난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세운 방침이요. 그런데 첨단과학기술지표들을 정작 수행하자고보니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오. 부득불 최첨단과제의 일부 계획은 정무원에 제기해서 조절하는 수밖에 없소. 그러니 동무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은 지지 않게 될것이요.》

《저는 결코 책임이 두려워서 상심을 하는게 아닙니다. 어떤 추

궁과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연구사업을 성공할수만 있다면…》
격하게 부르짖던 석홍범은 억이 막혀서 뒤를 잇지 못하고 원망의 눈길로 부원장을 바라보았다.
림수봉은 느닷없는 큰소리와 항변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였다. 했으나 석홍범의 눈굽에서 핑하니 어리는 눈물을 보고는 타이르는 어조로 말했다.
《동무의 심정은 알만 하오. 그러나 어쩌는 수가 없지 않소?》
과연 어쩌는 수가 없단 말인가?… 석홍범은 막 몸부림을 치고싶었다.

## 9

석양의 빛발이 눈앞으로 짙게 던져주는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석홍범은 꿈길을 가듯이 걷고있었다. 줄곧 머리를 깊이 숙이고 기진한 걸음으로 자국을 옮기는 그가 어떻게 자기 집 방향으로 가는 길을 헛갈리지 않는지 알수 없었다. 곁을 스치는 사람도, 길을 비켜달라는 자전거의 종소리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주위세계를 망각해버린 머리속에는 형언 못할 상실의 괴로움만이 꽉 차있었다. 그리도 온넋을 다해 희망을 걸었던 가장 소중한것을 졸지에 잃어버린것이다. 자신의 지혜와 정열의 산아로 이 세상에 자랑스러이 태여나리라고 확신했던 초고압유압프레스는 여태껏 하나의 뚜렷한 형상으로 항시 머리속에 그려지면서 탐구의 기쁨과 희망,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오늘로써 그것을 잃었다.
마치도 첫사랑을 상실한것처럼 그렇게도 모질게 가슴이 아팠다. 하기는 청춘시절에 처음으로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련모하기 시작한 애인처럼 과학에 뜻을 두기 시작한 때로부터 머리속에 그리며 탐구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초고압유압프레스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공학부를 다니던 시절 유압공학의 첫 강의를 받을 때였다. 백발의 로교수는 현대기계제작공업에서 날로 확대되는 유압공학의 의의를 설명하던끝에 이렇게 말했었다.

《…현대유압공학이 도달한 첨단기술은 2 000기압이상의 압력에서 동작하는 유압증압기로 초고압유압프레스를 산생시켰습니다. 이 기계의 발명으로 인류는 초고압상태에서만 물리화학적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생산분야를 개척했으며 금강석과 같은 매우 값지고 유용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우리의 유압공학은 아직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초고압유압프레스와 같은 유압공학의 첨단기술제품들을 훌륭히 제작해내리라고 믿습니다.》

교수의 기대어린 이 당부를 석홍범은 가슴깊이 새기였다. 유압공학에 대한 호기심과 커다란 과학적포부를 안고 대학에서 전공학문의 첫 강의를 받던 때에 받아안은 그 충격은 일생을 두고도 잊혀지지 않을것이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미래의 과학자로 자신이 이루어야 할 첫 목표를 초고압유압프레스에 두었다. 대학의 전과정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는 과학원에 배치되기를 열렬히 희망했다. 그랬으나 예상밖으로 기계공업위원회 부원으로 배치를 받았다.

그해 겨울에 학창시절부터 사랑해오던 동창생처녀와 결혼을 하고 처가에서 살았다. 처가에는 아들이 없었다. 자식이라고는 뒤늦게 본 딸 하나뿐이였다. 처부모들은 사위를 아들맞잡이로 극진히 사랑했다.

신혼생활이 꿈같이 흘렀고 맡겨진 직책에도 점차 정을 붙이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그처럼 사랑하면서도 포옹해보지 못한 련인처럼 초고압유압프레스가 지워지지 않는 동경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책임일군들에게 과학원으로 보내줄것을 여러번 제기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1985년 8월 3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로작을 발표하시였다. 석홍범은 로작을 읽으면서 얼마나 흥분하였는지 모른다.

석홍범은 자기의 지향이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할 운명적인 계기가 도래하였음을 확신했다. 그는 기계공업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찾아갔다. 과학에 대한 자기의 열렬한 희망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오래동안 유압공학을 공부한 자료들을 가지고 갔다. 한배낭 잘되는 학습장들을 보고는 위원장도 놀라와하였다. 그러면서 아쉬운 표정으로 미타한 대답을 하였다.

《동무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인재요. … 아무튼 동무의 문제를 토론해보겠소.》

《위원장동지, 저를 기계공학연구소에 보내준다면 몇해안으로 초고압유압프레스를 기어이 만들겠습니다.》

석홍범은 열띤 어조로 장담했다. 사흘후에 그의 결심이 승인되였다.

석홍범은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된 기쁨을 걷잡을수 없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사연을 말했을 때 세사람은 아연한 기색이였다. 그들에게 어느 정도 실망을 주리라는것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마치도 초상난 집처럼 누구나 서글픈 기색을 보이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장인인 강서원은 덤덤히 담배만 피우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을뿐 아무 말도 없었지만 울상이 된 장모는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고 거침없이 탓했다. 안해인 민옥은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한껏 원망을 안고 쏘아보더니 이렇게 따지였다.

《당신은 나를 더 사랑하는가요? 아니면 과학을 더 사랑하는가요?》

석홍범은 어리석은 그 물음에 분기가 치밀었다.

《그러니 당신은 평성에 있는 과학원으로 나가는 나를 따라가기 싫다 그 말이겠소?》

날카롭게 따지고는 얼른 장인의 눈치를 살피였다. 무엄하게 그앞에서 큰소리를 친것이 미안했다. 금속공업부(당시) 부부장인 그만은 섭섭한 심정이 없지 않더라도 자기의 립장을 긍정해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앉은채로 《조용들 해라.》 하고 한마디 부르짖었다. 어느쪽도 긍정하지 않았다. 다만 내의를 입은 둥실한 어깨가 급하게 오르내리고 군살이 덮인 덜미에 벌겋게 울기가 올랐을뿐이다.

석홍범은 그의 노기가 실은 자기에게 향한것이라는것을 알았다. 참기 어려운 침묵이 오래동안 흘렀다. 상심한 표정으로 이쪽저쪽의

눈치를 살피던 장모가 움쭉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앞을 나서서 옆방으로 건너가며 혼자소리로 서글피 뇌이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였다.

《저래서 사위란 남의 자식이라고들 하겠지…》

감각이 예민해진 사람만이 들을수 있는 가는 목소리였으나 석홍범에게는 자극적으로 크게 들리였다. 자신의 생활과 뗄수없이 가깝던 세사람이 아득한 곳으로 멀어져가는듯 한 환영을 느끼였다. 단란하고 화목하던 집안에 돌연히 불신과 불화가 생기였다. 수나롭게 흐르던 생활에 혼란이 일어났다. 옳고그른것은 그만두고라도 자기의 목적만을 추구한 나머지 그들 세사람을 괴롭힌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저리였다.

(가까운 앞날에 과학적성공을 이루는것으로 보답하겠으니 제발 오늘의 나를 리해해주시오.)

석홍범은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며 기계공학연구소로 왔다.

강민옥은 친정에서 2년이나 뻗치더니 지난해 가을에 마지못해 평성으로 따라나왔다.

작금년간에 새로운 연구소들이 창설되면서 과학지구는 주택사정이 긴장했다. 젊은 연구사들에게는 단칸짜리 단층주택밖에 차례지지 않았다. 가뜩이나 평양을 떠나기 싫어하던 안해는 위생시설과 상하수도시설이 지금껏 살아온 집보다 못한 단층집살림을 참기 어려워했다. 솜씨가 서툴러서 탄불을 죽이고는 다시 피울 엄두를 못내고 부엌에 우두커니 서서 한숨만 지었다. 그러다보니 새살림을 시작할 때부터 다툼이 빈번했다. 안해는 불편스러운 살림과 집안일에 모르쇠를 하는 남편을 두고 빈번히 원망을 터뜨렸다. 그때마다 남편은 그 귀공주같은 생활태도를 언제면 버리겠느냐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때는 서로 상대를 설득시키거나 교양해보려는 희망이 있었다. 여러달 지속되여온 다툼에 인제는 어지간히 맥이 진하였다. 상대의 뜻을 자기의 지향에 일치시킬수 있다는 희망마저 잃었다. 서로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별로 말을 건네지 않았다.

한집에서 부부생활을 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온넋을 기울이는 탐구의 고민이 있었고 안해는 안해대로 두고온 옛 생활에 대한 그리

움이 있었다.
천정이 낮게 드리운 크지 않은 그들의 살림방에는 신혼생활의 행복이 넘칠 대신에 서로 다른 고민이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그러나 석홍범은 초고압유압프레스가 성공하는 날이면 안해의 불평도 가셔질것이고 자기들의 생활에도 밝은 서광이 비껴올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상 안해도 그날을 위하여 모든것을 묵묵히 참아오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순탄치 않은 과정을 밟으며 생활상의 헐치 않은 대가를 초고압유압프레스개발을 위한 길에 치르어왔다.
그런데 그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석홍범은 절통한 심정에 막태질을 하고싶었다. 갑자기 쇠가 갈리는 아츠러운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피끗 돌아보니 달려오던 화물자동차가 제동이 걸린 바퀴를 끌며 코앞에서 멈춰섰다. 그제서야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건늠길 복판에 들어선 자신을 깨달았다. 눈앞이 아찔한 느낌과 함께 등골로 식은땀이 쭉 흘렀다.
《여보, 죽자고 그래!》
허우대좋은 중년의 운전사가 차문을 벌컥 열고 급히 땅우에 내려섰다. 금시 달려들어 따귀라도 칠듯 한 기세였다.
《미안합니다, 운전사동무!》
석홍범은 흙빛이 된 얼굴로 공손히 사과했다.
《멀쩡한 사람이…》
운전사는 부릅뜬 눈을 껌벅거렸다. 실신을 했거나 술에 취한 사람으로 알고있었던 모양이다. 멀쩡한 사람이 어찌하여 차가 달려오는줄도 몰랐는가? 성난 눈길로 석홍범을 올리훑고 내리훑고 하더니 아무래도 영문을 알수 없는지 한걸음 다가서며 따지고들었다.
《동문 도대체 어데서 뭘하는 사람이요?》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사로 일합니다.》
《아, 그렇소?!》
대뜸 운전사의 표정과 말투가 달라졌다. 그 급격한 변화에 석홍범은 의아해했다. 혹시 기계공학연구소와 그 무슨 인연을 가진 운전사가 아닌지?…

《학자선생이 과학적사색에 깊이 빠진걸 보니 성공을 하겠소. 앞으로 좋은 기계를 만들어내시오.》

운전사는 빙긋 웃어보이고 차를 몰아갔다.

석홍범은 눈굽이 화끈 달아올랐다. 따귀를 맞아도 할말이 없는 자기였다. 그런데 운전사는 이쪽의 미친듯 한 행동을 제나름으로 좋게 풀이하고 고무적인 인사까지 보내여왔다. 그를 통하여 학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기대와 믿음의 크기가 헤아려졌다. 그 헤아림의 감정이 충격적으로 안겨올수록 좌절당한 연구사업이 절통하고 부끄러웠다. 아, 나는 과연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슴속에서 저도 모르게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터져나왔다. 대답을 기다리듯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르게 열린 공간으로 무심히 흘러가는 흰구름장만이 시야에 안겨올뿐이다.

그는 어느덧 집에 이르렀다.

《여보, 오늘은 탄불이 죽지 않았소?》

민옥은 부엌에서 감자를 깎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전에 없던 살틀한 물음이 이상스레 여겨졌을것이다. 제시간에 퇴근을 하는것도 이상스러웠을것이다. 그는 놀라운 눈길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쪽을 유심히 내다보았다.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석홍범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웃음을 거두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부엌아궁이에 눈길을 주었다. 열어놓은 공기구멍으로 벌거우리하게 불빛이 내비치는것으로 보아 오늘은 탄불이 제대로 피는것 같았다. 허황한 욕망을 앞세우던 나머지 부질없이 여태껏 안해를 고생시켜온듯 한 죄스럼이 가슴에 밀려들었다. 그래서 되도록 헌헌한 기색을 지어보이려고 하였다.

《탄불 때는 묘득을 드디여 얻은게로군. 그게 다 생활의 귀중한 지식이요.》

속빈 소리로 쓸쓸히 한마디 던지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석홍범이 새살림을 펴면서 구해놓은 책상과 나무의자가 놓여있었다. 안해는 이사를 올 때 부엌세간 몇가지와 이불 한채만을 가져왔다. 그밖의 가구는 아무것도 날라오지 않았다. 앞으로 새로 짓

기 시작한 아빠트가 완공되여 거기서 살게 될 때 친정에서 마련해 준 가구들을 가져오겠다고 하였다. 일리가 있는 소견이여서 그것을 두고는 조금도 달리 생각하지 않았다.

실내옷을 갈아입고 돌아서는데 책상우에 놓인 외국의 유압기술문헌들과 그것을 발취한 학습장이 눈에 뜨이였다. 그러자 방금 안해에게 꾸며보이던 기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짜릿한 아픔이 가슴을 훑었다. 숨진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였다. 얼른 외면을 하였으나 몇번이고 새겨보며 밑줄을 그어가던 페지들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그 무슨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서 잠시나마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싶었다.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고뇌에 시달리다가는 미칠것 같았다. 일감을 찾아서 방안을 두리번거리는데 문득 안해의 부탁이 생각났다. 안해는 며칠전에 고장난 다리미를 고쳐달라고 했었다.

《여보, 고쳐달라던 다리미가 어데 있소?》

부엌으로 통한 문쪽에 머리를 돌리고 물었다.

《왜 그러세요?》

의혹이 짙은 안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탁을 할 때에는 귀등으로 스치던 남편이 그것을 찾는게 이상스레 여겨졌을것이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소?》

방안에 올라온 안해가 벽장에서 다리미를 꺼내주며 두눈을 깜박거렸다.

《오늘은 어찌된 일이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게 아니예요?》

《나도 이제부터는 세대주구실을 해보자는거요.》

석홍범은 반가와하는 안해의 얼굴을 마주보며 비죽이 웃었다.

《이거 아무래도 오늘 저녁엔 내가 한턱 내야 할가보군요.》

《그럴 생각이라면 식료상점에 가서 술이나 한병 사오지.》

안해는 이상한 기미를 감촉한것 같았으나 내색하지 않고 정겹게 웃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오가는 다정한 웃음이 소중하여서 서뿔리 이쪽의 내심을 헤치며 그것을 지워버리고싶지 않은 모양이다.

안해는 행주치마를 벗어놓고 상점으로 갔다.

석홍범은 책상뽑이에서 나사틀개를 찾아들고 다리미를 고치기 시작했다. 다리미뚜껑을 열고 가열판에서 구슬같은 사기애자속에 들

어있는 전열선을 들어보니 끊어진 곳이 제꺽 나타났다. 그것을 이어서 제자리에 끼운 다음 뚜껑을 조립하고 전기를 넣어보았다. 다리미에 제대로 열이 왔다. 이렇게도 손쉽게 고칠수 있는것을 미루어온것이 자못 후회되였다. 지금에 와서는 안해의 모든 불만과 불평이 자기의 잘못처럼 여겨졌다. 연구사업의 실패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자기 반성의 감정을 불러왔다.

얼마후에 술병을 사들고 안해가 돌아왔다.

《과학평의회가 있었다더군요.》

조심히 말을 건늬는 안해의 얼굴에 그늘이 비꼈다.

《어디서 들었소?》

《식료상점에서 양명심동무를 만났댔어요.》

안해는 그 처녀에게서 저간의 사연을 들었을것이다.

석홍범은 안해를 마주보기가 거북하여서 창쪽으로 머리를 돌리였다. 금시 안해의 입에서 쌓였던 원망이 터져나올것이다. 참담한 실패로 끝나버리는 남편의 과학적열망때문에 여태껏 그로서는 비싼 대가를 치르어왔다고 할수 있다.

(온 집안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뿌리치고 과학원에 나오더니 당신 꼴좋게 되였구려! 내 뭐랬어요, 과학탐구의 길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한 길이 아니기때문에 함부로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몇번이나 말했어요? 오늘의 결과는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말해주고있어요!)

거침없이 이런 말이 쏟아질줄 알았는데 련민의 정이 느껴지는 가는 한숨소리가 들릴뿐이다. 이런 순간에 자기 감정을 앞세우며 가뜩이나 괴로와하는 남편의 마음을 들쑤셔놓을만큼 교양없는 녀자는 아니였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해가 조용히 물었다.

석홍범은 서서히 고개를 돌렸으나 입을 열지 못했다. 자기에게는 지금 아무런 출로도 없는것처럼 생각되였다. 숨막히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제 연구집단 연구사들이 우리 집으로 온대요. 명심동무도 뭘

사들고 오려고 식료상점에 들렸다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더군요.》

《그들이 뭘하러 우리 집에 온단 말이요?》

그 물음에 화답하듯이 문밖에서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와 여럿의 발자국소리가 들리였다.

《계십니까?》

귀에 익은 물리학연구사의 목소리였다.

석홍범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문밖을 내다보았다. 말대로 연구집단에 망라되였던 연구사들이 모여왔다.

《왜들 이렇게?…》

석홍범은 어정쩡한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았다.

《왜들 이렇게라니? 지금껏 얼굴을 맞대고 지혜를 모아오던 우리 집단이 해산되는 슬픈 날인데 맨숭맨숭하게 그저 지낼수야 없지 않습니까. 회포도 나누고 새로운 결의도 나누어야 할것 아닙니까.》

키가 꺽두룩하고 눈꼬리가 쳐들린 물리학연구사가 흔연한 표정으로 너스레를 놓았다. 연구집단의 해산이 범상히 여겨지기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눅쳐볼셈으로 그러는지 그 흔연스러운 표정과 헌헌한 목소리의 진속은 알수가 없었다.

《어서 들어들 오시오.》

석홍범은 아무튼 손님들을 반가이 맞이했다. 지금껏 연구사업을 함께 하여온 동료들과 오늘의 괴로움을 나누고싶기도 하였다.

저마끔 들고온것을 부엌에 내려놓던 연구사들중에서 누구인가가 주부에게 한마디 건늬였다.

《아주머니, 과학자의 안해들이란 성공의 기쁨보다 실패의 괴로움때문에 술상을 차려야 하는 때가 더 많지요. 제꺽 안주를 좀 끓여주시오.》

연구사들이 방안에 들어와앉았다. 연구집단의 성원들중에서 가정부인 두명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 시간에 저녁을 지어야 할것이다. 양명심은 녀성들을 대표하기라도 하듯이 혼자 참가했다. 그는 과학자합숙에서 독신생활을 하고있었다.

부엌에서 기름냄새가 고소하게 풍겨왔으나 방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누구나 그늘진 표정들이였다.

석홍범이 푹 가라앉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렇게 찾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연구집단이 무어진 그날부터 동무들은 모두 초고압유압프레스개발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바쳐왔습니다. 연구사업분담이나 조직사업에서 서툰것이 많았지만 동무들은 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중에는 처음부터 가능성여부에 의혹을 가졌지만 나의 장담에 이끌려서 연구집단에 들어온 동무들도 있습니다. 그런 동무들도 그후에는 희망을 가지고 맡겨진 전공분야의 문헌들을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연구집단이 해산된 오늘에 와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나는 진심으로 동무들에게 사의를 표하고싶습니다. 동시에 동무들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나때문에… 나때문에…》

석홍범은 갑자기 목이 메여와서 머리를 떨구었다.

《책임연구사동무,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오. 이럴것 같아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곁에 앉은 물리학연구사가 석홍범의 무릎을 두드리며 하는 말이였다. 석홍범은 마음을 진정하려고 눈을 슴벅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쩐지 특별히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에 위선적인것이 깔려있는듯싶어서 불쾌한 감정이 치밀었다. 림수봉부원장을 찾아갔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느꼈던 배신감이 되살아났다.

《오늘부터 나는 책임연구사가 아닙니다. …동무는 이미전에 부원장을 찾아가 우리 연구집단에서 나가겠다고 했더군요. 진작 그런 생각이였다면 부원장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말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석홍범은 때와 장소를 가리며 자기 감정을 숨길줄 몰랐다. 언제나 직선적으로 자기의 의사와 주장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성미였다. 다른 사람들도 물리학연구사에게 의혹과 격분의 시선을 보냈다. 여태껏 한마음한뜻으로 연구사업을 하여왔다고 생각했던 자기네 연구집단안에 이런 배신적인 일이 있다니?! 그를 뚫어지게 쏘아보던 재료학연구사가 따져물었다.

《박동무, 그게 사실이요?》

물리학연구사는 여기가 질린듯 일순 굳어지더니 용케도 본래의 웃음진 표정을 살리며 변명조로 대답했다.

《문헌조사가 깊어지자 불가능하다는것이 뻔했지만 성공의 기대를 버리지 않는 동무들앞에서 차마 그런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노엽다면 나를 용서하시오.》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나 부지런히 피워대는 여럿의 담배연기가 방안에 자욱했다. 방금전에 켜놓은 백열등은 뿌옇게 빛을 잃었다. 밖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멀리에서 개구리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주택지구의 길건너에 벌판의 한끝이 잇닿아있었다. 파학지구에 농촌의 밤정서를 날라오던 유정한 개구리울음소리가 지금은 방안에 서린 괴로운 정적의 의미를 더욱 강조해주었다.

석홍범을 동정의 눈길로 이윽히 바라보던 양명심이 조심히 침묵을 깨쳤다.

《석동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 나라에서도 고질금속재료나 특수합성수지재료들을 생산하게 될 날이 올거예요. 그때에 우리모두 연구집단을 다시 무어서 훌륭한 초고압유압프레스를 개발하자요.》

석홍범은 그를 마주보았다. 막연한 소리를 한다는 생각에 앞서 순간적인 희망에 귀가 번쩍 열리였다.

《언제면 그날이 옵니까?》

얼결에 급히 묻고나서야 어리석은 질문이였다는것을 깨달았다.

《나는 우리 나라 공업의 발전전망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날은 멀지 않아 올거예요.》

멀지 않다는것이 도대체 몇년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5년?… 아니면 10년?…

《명심동무는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요?》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있어요.》

《내가 동무의 자리에 섰다면 이제라도 애인이 기다리는 금속공학연구소로 옮겨가겠습니다.》

양명심은 가볍게 얼굴을 붉힐뿐 응대가 없었다.
부엌에서 찾는 안해의 목소리에 석홍범은 일어섰다. 얼른 눈치채고 뒤따라 일어선 양명심이 그를 제지시켰다.
《앉아있으라요.》
손님이라 하더라도 부엌심부름은 녀성인 자기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양명심은 부지런히 음식을 날라들였다. 두리반에 오를것이 다 오르자 민옥이가 나타났다.
《변변치 않지만 즐겁게 나누세요.》
그는 상냥히 웃으며 말했다. 부엌일에 돌아치며 흠뻑 땀을 흘린 얼굴이였으나 전등에 비낀 그의 자태는 숨길수없이 우아했다. 처음 와보는 사람들은 주부의 아름다운 용모에 황홀해하였으며 어쩐지 불편스러운 단층집살림에는 그 용모가 어울리지 않는것처럼 생각되였다.
《이곳 살림에 고생스러운 점이 많겠습니다.》
물리학연구사가 측은히 건늬는 말이였다.
《괜찮아요, 점차 익숙되여갑니다. 그런데…》
흔연히 응대하던 민옥의 말꼬리가 흐려지더니 목밑에서 잦아들었다.
석홍범은 피끗 그를 쳐다보았다. 뒤를 잇지 못하는 안해의 심정이 가슴에 안겨왔다. 불편스러운 생활보다도 이 저녁에 여지없이 실패한 남편과 그 동료들을 위하여 술상을 차려야 하는 마음의 고통이 클것이다. 기어이 성공을 한다던 남편의 장담을 확고히 믿으며 모든것을 참으려고 했던 그도 오늘 격심한 타격을 받았을것이다. 어쩌면 부엌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머금고 음식을 끓였을것이다.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는 안해를 추연히 지켜보던 석홍범은 두리반우의 잔들에 넘치도록 술을 따랐다.
《자, 듭시다.》
그는 목을 젖히고 단숨에 마셨다. 독한 술이 짜릿하게 식도를 자극하며 답답하던 가슴속으로 시원히 흘러들었다. 두어순배 연거퍼 잔이 돌았다. 그러자 전신에 퍼지기 시작한 취기와 더불어 억눌렸던 울분이 끓어올랐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리도 고심참담한 노력과 아낌없는 열정을 바쳐왔건만 무엇때문에 연구집단이 중도에서 해산되고 이 순간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가?

《동무들, 실컷 마십시다.

우리는 부끄러울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가 모자라서 성공하지 못한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제작재료가 없기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런 재료를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의 뒤떨어진 공업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설비와 재료가 보장된다면 남들이 뽐내는 그 어떤 최첨단기술도 쉽게 개발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머리를 높이 들고 마십시다!》

연구사들은 들었던 잔을 허공에 멈춘채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석홍범의 돌발적인 부르짖음에 어리둥절했다.

물리학연구사가 주격턱을 번쩍 들더니 정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업수준이 뒤떨어졌다고 해서 자기 조국을 원망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것이 아니지요. 발전된 다른 나라의 연구조건을 동정하는것은 더구나 옳지 않습니다.》

석홍범은 지금껏 좌석의 분위기를 흥겹게 하려고 애쓰던 그가 이처럼 자기 말에 예리한 분석을 가할줄은 몰랐다. 연구집단에서 남먼저 몸을 빼려고 선손을 쓴 사실을 비난했더니 마침 반격을 가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는가? 말꼬리를 잡고 걸고드는것은 두번다시 없는 비렬한 일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였다. 자기에게 쏠린 다른 시선들에도 불만의 빛이 어린듯싶었다.

석홍범은 갑자기 긴장해진 좌중의 낯빛에서 엄중히 분석될수 있는 잡소리를 자기가 꺼리낌없이 줴쳤다는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안타까운 나머지 얼결에 그런 말을 했으니 달리 생각지 말라고 너그러운 리해를 구하고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의 량심을 속이는 비굴한짓이다. 평소의 생각이 취기의 흥분속에 표현되였을뿐이다. 그는 그러한 자신에게 도전하듯 떳떳이 말했다.

《나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겠습니다. 동무들은 이에 대해서…》

《석동무!》

녀성의 날카로운 부름소리에 말을 끊었다. 처음은 안해의 목소리로 착각했다. 그런데 안해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엌에 있었다. 석홍범은 목소리의 임자를 찾으려고 놀란 눈길로 사위를 둘러보았다.

《석동무, 진정하세요. 동무는 자신을 자제할줄도 반성할줄도 몰라요!》

양명심이 상기된 낯빛으로 부르짖고있었다.

석홍범은 좀처럼 자기 존재를 드러낼줄 모르던 저 처녀가 많은 남자들이 둘러앉은 좌석에서 이렇게 나올줄 몰랐다. 참말이지 예상할수 없는 일이였다. 뚫어질듯 마주보는 처녀의 눈에는 석홍범에 대한 의분과 함께 사태가 더 크게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비껴흘렀다. 뜻하지 않은 일에 굳어졌던 석홍범은 눈길을 떨구었다.

《동무들, 미안합니다. … 자, 마십시다.》

그는 앞에 놓인 잔을 들어 성급히 마시였다.

어색해진 방안의 공기는 가셔질줄 몰랐다.

《난 몸이 불편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잠시후에 물리학연구사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뒤따라 다른 사람들도 일어섰다.

석홍범은 굳이 만류하지 않았다. 손님들을 문밖까지 바래우고 돌아온 안해가 어수선해진 방안에 홀로 앉아있는 석홍범에게 안타까이 원망을 터뜨렸다.

《당신은 왜 그렇게 분별없이 처신을 하나요? 부엌에서 다 들었어요. 세상 령리한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리석은 바보가 당신이예요.》

《이러나저러나 나를 정확히 리해하는 사람은 역시 당신이구려. 옳게 말했소, 나는 바보요.》

석홍범은 안해를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절통한 기색으로 중얼거렸다. 겹쌓인 자기 환멸의 고통속에서 새여나오는 그 목소리는 민옥에게 눈물이 날만큼 애절하게 들리였다.

# 10

고중환은 문건을 받아서 책상우에 놓고 마주서있는 림수봉에게 시선을 들었다. 혈색이 좋던 림수봉의 얼굴이 지쳐보이였다. 전원회의이후 그가 얼마나 머리를 쓰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지 알고있었다. 산하 연구소들의 궐기모임들과 중요한 과학평의회들에 참가해야 했고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처리해야 했을것이다. 날마다 밤을 새우며 그가 기울인 노력과 사색이 바로 이 문건에 깃들어있다. 전원회의결정관철에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종합한 실태자료였다.

《수고했습니다.》

고중환은 두툼한 문건을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언제쯤 의견을 주겠습니까?》

돌아갈 기미를 보이며 림수봉이 물었다. 문건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언제 주겠느냐는 뜻이였다.

《이제 곧 보고 토론합시다. 좀 기다리시오.》

《이러다간 오늘 부부장동무네 집에서 점심밥을 또 축내야 할것 같습니다.》

림수봉은 쏘파로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이 사무실에서 사업을 토론하다가 고중환의 집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때가 많았다. 토론에 열이 오르면 점심전에 평성으로 돌아갈 시간을 놓치군 하였다.

고중환은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며 문건을 읽기 시작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올려야 할 문건의 초안인것만큼 특별히 깐깐히 보아야 했다. 그이께서 전원회의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과학원의 실태자료를 요구하셨던것이다.

글줄을 더듬어가는 고중환의 얼굴에 만족한 빛이 떠올랐다. 앞페지들에는 과학자들의 새로운 결의목표들이 들어있었다.

전원회의가 있은지 한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에는 한해를 두고도 불가능했던 창발적인 발기들이 수없이 제기되였다. 새로운

출발선에 나선 과학자들의 기세와 열의가 실감되였다. 그러나 문건의 다음페지들을 번지면서 점차 얼굴에 그늘이 덮이였다. 일부 첨단과학과 고도기술지표들은 현실적가능성이 없기때문에 계획에서 조절해줄것을 제기했다. 어떤것은 학술적전망이 묘연했고 어떤것은 실험조건과 제작조건이 걸리였다.

고중환은 길게 한숨을 쉬며 머리를 들었다. 줄곧 긴장한 낯빛으로 이쪽을 지켜보던 림수봉과 시선이 마주쳤다.

《여기에 조절해줄것을 제기한 과제들은 현실적가능성을 그렇게도 찾을수 없었습니까?》

안타까운 어조였다.

림수봉은 이 대목에서 고중환이 응당 그렇게 나오리라고 예견했던지 즉시 응대했다.

《과학평의회들에서 심중히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방도가 없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과학을 선진수준으로 이끌어올릴데 대한 새로운 과업을 제시했는데 다른 과제도 아닌 첨단과학연구과제들을 뺀다는것은…》

고중환은 생각만 해도 억이 막힌듯 말끝을 삼켰다.

《우리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획에 그냥 포함시킬수야 없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불가능한 지표들은 조절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그 기간이 다가오는 올해 7월 1일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였다. 그러니 아직은 그 준비단계라고 할수 있었다.

《앞으로 연구집단들에서 좀더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토론하면 가능성을 찾을수 있지 않습니까?》

《해당 단위들에서 토론을 하리만큼 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고중환은 문건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상에서 물러난 그는 림수봉과 앞상에 나란히 앉았다. 불가능하다는 지표들을 하나씩 짚

어가며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림수봉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보니 자기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욕망은 욕망이고 현실은 현실이였다. 그 불일치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괴롭게 침묵했다. 결심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고중환을 이윽히 지켜보던 림수봉이 말했다.

《부부장동무, 실현할수 없는 지표들을 그냥 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만일 그것을 수행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문제 말입니까?… 책임이 두려워서라면 그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고중환은 분이 치밀었다. 참말이지 후날 그 어떤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면 서슴지 않을것이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선진수준에로 도약시키는 성스러운 위업에 한목숨바친다 하여도 한됨이 없을것 같다. 순간적으로 그런 반발심이 북받쳤다.

놀란 시선으로 바라보던 림수봉이 얼굴을 붉혔다.

《우리도 일부 계획의 조절안을 내놓으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할것을 하겠다고 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신을 속이고 당을 속이는 처사일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는 할말이 없었다. 림수봉을 외면하고 방안의 어딘가에 시선을 주었다. 자신도 방도를 찾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무작정 요구할수는 없다. 최근에 고중환자신도 전자, 자동화연구소들과 생물분원에 나갔었다. 그곳 학자들과 함께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대책들을 의논했다. 그때 창발적인 의견들도 많았지만 몇개 지표들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들이 없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림수봉이 종합하여 제기한 조절안은 결코 예상밖의 일이 아니였다. 그동안 고중환자신도 현실적가능성과 방도를 여러가지로 모색해왔다. 그는 깊은 생각끝에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그대로 보고드리고 결론을 받읍시다.》

그렇게 결심을 가지였으나 죄스럽고 괴로운 심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뒤에는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을 받아야 할 설비, 자재와 자

금명세가 첨부되여있습니다.》
림수봉이 문건의 다음장을 번지며 깨우쳤다.
고중환은 다시 문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분야에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보장사업을 잘할데 대한 전원회의결정내용에 따라 제기되는 명세였다. 세심히 훑어보고 따져보았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페지를 보던 그는 표정이 굳어졌다. 시선을 멈춘 글줄들은 학자들에게 승용차를 배정해줄것을 바라는 내용이였다.
《부원장동무, 우리가 일부 첨단과학지표들을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청원을 드릴수야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량심이 허락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승용차가 없어서 과학연구사업을 못합니까?》
《여러해전에 오랜 과학자들이 받은 승용차는 낡았습니다. 최근년간에 학위학직을 받은 교수와 박사들은 아직 승용차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전원회의결정에는 과학자들의 사회적대우를 높일데 대한 문제도 포함되여있지 않습니까?》
《사회적대우는 그야말로 사회가 우리 부문에 관심할 문제입니다. 우리로서는 전원회의결정에 제시된 과학기술과제수행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할바를 못하면서 이런 제기를 하는것은 너무도 렴치없는 일입니다. 승용차를 사오는 돈이면 그것으로 실험설비나 책들을 하나라도 더 많이 사와야 합니다!》
고중환의 얼굴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림수봉은 도저히 그를 설복시킬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듯 한 아쉬움이 치밀었다. 하지만 어쩌는수가 없었다. 량심과 도덕적감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중환의 견해가 백번 옳았다. 모든 사고와 행동이 량심에 지배되는 그의 결곡한 성미를 잘 알고있다.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난해 림수봉은 고중환과 함께 전자공학연구소의 실습공장에 나간 일이 있었다. 그 공장에서 에프. 엠립체록음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성과를 고무하고 떠나올 때 공장지배인은 기념으로 록음기를 한대씩 두 일군에게 주었다. 본

인들은 모르게 운전사들에게 전해줄것을 부탁하며 주었던것이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운전사는 고중환에게 록음기를 꺼내보이며 사연을 말했다. 고중환은 펄쩍 놀라더니 운전사더러 가까운 군부대로 가자고 하였다. 즉시에 공장으로 되돌아가서 록음기를 돌려주고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지배인의 립장이 딱해질수 있었다. 군부대에 들린 고중환은 전자공학연구소의 실습공장에서 처음 만든것이니 중대교양실에 두고 음악을 들으라고 하였다. 군인들은 공장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공장에서는 난데없는 그런 편지가 어떻게 오게 되였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먼 후일에야 고중환의 운전사를 통해서 그 까닭을 알게 되였다. 그때까지 록음기를 그냥 집에 두고 있던 림수봉은 심한 가책을 받았다.

만일 고중환이 아직 한사람의 과학자로 그냥 남아있다면 승용차는 고사하고 사소한 사회적대우도 바라지 않을것이다. 큰 과학적공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무엇을 바라기에 앞서 더하지 못한 연구사업을 두고 죄스러움에 휩싸여있을것이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가?… 부원장동무, 식사하러 갑시다.》

시계를 보고난 고중환이 그냥 생각에 잠겨 앉아있는 림수봉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미 점심시간은 반나마 흘렀다. 그들은 서둘러 청사를 나섰다. 구내에는 한낮의 봄볕이 쏟아져내렸다.

《다음번 올적에는 아무래도 내 먹을 쌀을 좀 가져와야 할것 같습니다.》

림수봉이 싱긋이 웃으며 말했다. 고중환의 집에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것이 미안스러워 하는 말이다.

《왜 쌀만 가져오겠습니까, 부식물도 가져와야지.》

《아닌게아니라 부부장동무의 홀애비살림에 뭘 좀 보태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한 성미에 뭘 들고오면 오히려 노여움을 살가봐 번번이 빈손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심중한 론쟁으로 서로 얼굴을 붉혔으나 지금은 다정한 벗처럼 얘기를 나누며 나란히 걸었다.

# 11

오후에 고중환은 부분적으로 수정한 과학원의 실태자료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올리였다. 그리고나니 자료를 마주하고 앉았을 때보다도 몇갑절 더 괴롭고 죄스러웠다.

(그이께서 첨단과학과 고도기술지표들의 조절안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가?)

내처 그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우리 과학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수준에로 비약시키시려는것은 그이의 드팀없는 구상이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조절안을 제기했다. 그이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처사를 무엇으로 변명할수 있으랴. 우리 과학이 선진수준을 향해 새로운 진군길에 오른 현시점에서 나같은 사람은 과학전선의 지휘관이 될수 없지 않을가?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의 무능이 몸부림치고싶도록 한스러웠다.

전원회의결정을 처음 접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과학교육이 새로운 전환의 길에 들어섰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흥분하였는지 모른다.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 어떤 커다란 전변이 다가오는듯 한 예감으로 마냥 가슴이 설레였다. 이제야말로 나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시기가 펼쳐질것이다. 지금까지는 나를 오늘에로 키워준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은혜에 너무도 보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과학이 세계적수준에로 나래쳐오르는 력사적전변의 길에서는 한몸바쳐 보답하자! 자기 성장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불같은 결의를 몇번이고 다지였다.

고중환은 일찌기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라났다. 제련소에서 반일지하활동을 하던 아버지는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로속에서 타죽었다. 놈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아버지를 산채로 이글거리는 로속에 던져버렸다. 이듬해에 어머니는 어린 두 아들을 시어머니품에 맡겨버리고 재가를 했다. 자기들 몰래 어데론가 사라져버린 어머니를 두고 내처 서럽게 울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했다. 소학교졸업을 몇달

앞두고 퇴학을 당한 어린 중환은 형님과 함께 할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 늙은 할머니와 어린 두 손자가 여린 손포로 진펄을 개간한 몇뙈기의 밭에서 거두어들이는 피쌀은 세 생명을 유지할수 있는 식량의 절반도 안되였다. 배고픔과 힘든 일에 시달리면서도 중환은 배움의 열망을 버릴수 없었다. 머리가 총명했던것만큼 남달리 향학열이 높았다. 중학교강의록을 빌려다가 틈틈이 공부를 했다.

해방을 맞은것은 열일곱살때였다. 고향에 파견되였던 항일투사 김경석동지가 하루는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집안의 기막힌 정상을 둘러보던 그는 지방의 반일애국투사후원회에서 돌봐주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생활이 좀 펴이였다. 이듬해 봄에 다시 찾아온 김경석동지는 그들형제를 자기 차에 타라고 하였다. 무슨 까닭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형제는 어리둥절하여 차에 올랐다. 중환의 손에는 밭으로 나가기 전에 한자라도 더 읽어보려고 펼쳐들었던 중학교강의록이 그대로 쥐여져있었다. 승용차는 평양학원이 자리잡은 곳에 이르렀다.

학원마당에서 맞아주신분은 천만뜻밖에도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김경석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형제를 친히 부르셨던것이다.

람루한 차림으로 서있는 형제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갈린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너희들끼리 늙은 할머니를 모시고 그 험악했던 세상을 살아오자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해방은 되였지만 지금도 어렵게 살겠지. 옷주제가 말이 아니로구나.》

형제의 잠뱅이와 적삼은 성한 곳없이 기운것이였다.

중환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장군님의 얼굴에는 련민의 정이 어리였다.

중환은 가슴이 뭉클했다.

《장군님, 저희들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젠 일없습니다.》

웃어보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웃음이 애처롭게 이그러지면서 울먹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장군님의 표정이 격하게 돌변하시였다.
《이녀석아, 아버지는 불에 타죽고 어머니마저 달아나버렸는데 네녀석들을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하겠느냐!》
참을수없이 성나신듯 한 음성이 머리우에서 울렸다. 흠칫 놀라며 중환은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장군님께서는 땅우에 떨어진 책을 집어드시였다. 방금전에 중환이가 떨어뜨린 중학교강의록이였다.
《이녀석이 그 고생속에서도 중학교강의록을 거의다 뗐습니다. 얘기를 나누어보니 똑똑합니다.》
중환을 두고 김경석이 말씀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감심하신 표정으로 중환에게 머리를 돌리시였다.
《그렇단 말이지. 나는 너희들을 이 학원에 넣어서 군사간부로 키울가 했더니 학자로 키워야 하겠구나. 류학생대상자를 고르던중인데 마침 잘되였다. 내 류학을 보내줄테니 마음껏 배워라.》
중환은 흑흑 느껴가며 어망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나이도 지났건만 왜서인지 어린시절에 아버지앞에서 말을 대신하여 고개를 끄덕이던 행동이 저도 모르게 튀여나왔다.
장군님께서는 중환의 형에게 물으시였다.
《너도 동생처럼 중학교강의록을 뗐느냐?》
《못 뗐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이악스레 공부를 했는데 너는 왜 못했느냐?》
《…》
《너는 이 학원에서 군사를 배워라.》
응대없이 한참이나 망설이던 형은 딱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저까지 집을 떠나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할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긴 그렇구나. 형제가 다 집을 떠나면 너희들을 눈물겹게 키운 할머니가 몹시 섭섭해하겠지.》
이리하여 형제는 서로 다른 생활의 길을 걸었다.
중환은 몇달동안의 강습을 마치고 류학의 길을 떠났다. …
최근에 고중환은 해방직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그날이 자

주 머리속에 떠올랐다. 꿈속에서도 종종 현실처럼 재생되였다.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각오가 전에없이 불타오르기때문일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기억도 되새겨졌다.

조국해방전쟁이 터지자 고중환은 조국으로 달려나와 총을 잡고 원쑤와 싸웠다. 51년 여름이였다. 최고사령관명령으로 대학생들과 류학생들이 다시 소환되던 때였다. 함께 피흘려 싸우던 전우들을 두고 류학의 길에 오르자니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미 소환장을 받았지만 중대의 야간돌격전투에 참가했다. 지휘관이나 전우들이 알면 한사코 만류할것이 뻔했다. 어둠을 틈타서 누구도 몰래 결전장으로 나아가는 대오의 뒤를 따랐다. 마지막전투에서 용감히 싸우고 떠날 결심이였다. 돌격출발진지에서 고중환은 곁의 전우에게 발견되였다. 하지만 돌려보낼수 없는 정황이였다. 이미 돌격개시의 신호탄이 올랐던것이다. 고지를 향해 돌격하는 아군대오에 적들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사적으로 내닫던 고중환은 갑자기 덮쳐들며 쓰러뜨리는 전우의 몸에 깔리였다. 그 순간 지척에서 포탄이 터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몸을 덮쳐눌렀던 전우는 희생되였다. 류학의 길을 떠나는 고중환의 희생을 대신했던것이다. 전우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였는지는 너무도 명백했다. 그의 념원은 그가 흘린 피로 격전터에 새겨졌다.

생명의 은인, 잊지 못할 그 전우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과학발전구상을 제대로 받들어드리지 못하는 나를 본다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격전터에 더운 피로 새겨진 전사의 념원을 나는 저버리고있지 않는가. …

×

이튿날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고중환은 그이의 집무실로 향하였다. 분명 과학부문 실태자료를 보시고 무슨

말씀이 계실것만 같았다. 현지실무지도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사이 없으신 그이께 죄스럽고 송구한 마음뿐이였다.

이 무더위속에서 그이께서는 머나먼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1 500만톤의 철정광을 생산하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철광석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더니 뒤이어 새로 건설되여 부하시험단계에 들어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기업소건설을 완공하고 조업을 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현대산업건설에서 시범공장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이 이 기업소의 모범을 따라 기술혁명과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참으로 그이의 현지지도의 길은 낮에 밤을 이어 쉬임이 없으시였다.

고중환은 한껏 가슴을 조이며 낯익은 방안에 들어섰다. 인사를 올리고 조심히 시선을 들어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그이의 앞에는 과학원의 실태자료가 놓여있었다.

《과학원의 자료가 아주 구체적이였습니다. 이걸 보니 첨단과학과 고도기술점령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깊이 료해할수 있었고 또 과학지도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사상상태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이의 안색에는 짙은 심뇌의 빛이 흘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첨단과학과제앞에서 저자신부터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고중환은 잠긴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그만큼이라도 자기의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을 터놓고보니 가슴이 후련했다.

《그럴수 있습니다. 우리 과학지도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높이 세운 과학연구과제앞에서 일시 당황하거나 우려하는것은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기존의 상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까운 앞날에 과학기술을 선진수준에로 이끌어올린다는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처럼 너그럽게 리해해주시는 그이의 말씀에 접하고보니 죄스러운 감정이 곱절로 더해졌다. 고중환은 머리를 깊이 떨구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계속하시였다.

《과학원동무들은 언제나 당앞에 솔직합니다. 현실적으로 부닥친 난관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 자기들의 견해를 그대로 보고한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들의 견해대로 고도기술개발에 필요한 재료들을 원만히 보장하기에는 우리의 공업수준이 아직 거리가 먼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계획에서 빼겠다고 하는 초고압유압프레스를 책임진 연구사가 혹시 기계공업위원회에서 일하던 동무가 아닙니까?》

고중환은 한걸음 다가서며 고개를 기웃했다.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럴수 있었다. 고중환은 과학사업뿐아니라 지난해부터는 교육을 담당한 부부장이 결원중이여서 그 사업까지 맡아보고있었다. 사업범위가 넓은 그로서는 수많은 연구지표의 책임자들을 다 알수가 없을것이다.

《내 지난해에 기계공업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 참가했던 일이 있습니다. 휴식시간에 그곳 당비서가 하는 말이 자기네 젊은 동무 하나가 초고압유압프레스를 만들 포부를 안고 과학원으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그 청년이 더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필경 그 동무일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을 중단하고 생각에 잠기시였다. … 그런데 남달리 과학적지향과 포부가 크다고 할수 있는 그 연구사조차 제작재료가 걸려서 연구과제를 포기했다면 참으로 서운한 일이였다. 금속공학연구소에 가셨을 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기술봉쇄에 부닥친 난관을 실감하셨다면 지금은 고도기술개발에 따르지 못하는 나라의 공업수준을 실감하시였다. 자신의 어깨에 겹겹이 실리는 난관과 애로의 중하를 의식하실수록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장구한 세월 만난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의 크기가 헤아려지시였다.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결

심을 하셨을 때에는 주어진 조건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령으로부터 출발해야 했다.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해방직후 전국을 샅샅이 뒤지며 과학기술인재를 한사람, 한사람 찾아내시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들을 찾기 위해 북반부에서는 당, 정권기관들에 특별과업을 주시였고 남반부에는 친히 사람들을 파견하시였다. 나라의 분렬은 지식인들에게 마음의 동요를 가져오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서도 보내주시고 직접 만나 솔직한 담화도 나누시면서 새 민주조선건설에 함께 손잡고 나서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그렇게 자신의 두리에 모여놓은 자연과학전문가는 도합 열두명밖에 안되였다고 하시였다.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후과로 민족인테리는 그 수효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 대부분은 인문계통의 전문가들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열두명을 데리고 일제가 파괴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고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도 시작해야 하셨으니 인재부족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는가!

그이께서 첫 종합대학을 세우기로 결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의혹을 가지였다. 교수진영도 교사도 교구비품과 실험설비도 거의나 없는 빈터우에서 어떻게 대학을 세우느냐고 했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대학을 세우자면 현재형편에서 없는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없는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된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와 향학열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대학을 세우려고 결심했습니다!》

그이의 이 심정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였다. 돈있는 사람은 돈을, 책이 있는 사람은 책을 대학창립에 기부했다. 로동자들은 자원하여 대학건설장으로 달려왔고 농민들은 지성어린 애국미를 바쳤다.

당시 수령님께서는 참으로 하셔야 할 일이 많았다. 건당, 건국, 건군의 모든 중하와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력사적사변들이 모조리 그이의 어깨우에 실리였다. 그 모든 일을 돌보시면서도 대학창립을 위해 100여차례나 일군들과 학자들을 만나시여 허심히 의

논도 하시고 열렬히 호소도 하시였으니 그 놀라운 수자가 그이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의 크기를 말해주고있다.

전쟁의 포연이 이 땅을 휩쓸던 그 엄혹한 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변함없는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그이의 작전실에서는 원쑤격멸의 작전적구상과 더불어 승리한 래일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구상이 동시에 펼쳐지군 하였다.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에 놓였던 그 준엄한 나날에도 불타는 고지에서 대학생들을 소환하시였고 폭음이 울리는 모란봉지하극장에서 과학원창립대회를 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에도 과학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항상 견지해오시면서 이 사업에 최대의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은 130만의 지식인대군이 자라났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지중에 12명과 오늘의 과학기술인재수자를 머리에 떠올리시였다. 얼마나 엄청난 대조인가! 그 엄청난 대조속에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거기에 바치신 로고가 함축되여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선진수준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이 헤쳐가야 할 난관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수령님께서 과거에 헤쳐오신 난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그 튼튼한 터전우에서 우리 과학의 새로운 비약을 반드시 이룩하리라!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부부장동무, 며칠후에 나와 함께 과학원에 나가봅시다. 내 그들에게 호소하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전원회의가 있은 후 인차 과학원에 나가보자고 했는데 그동안 틈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전원회의결정관철에서 주공전선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담당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높이 세운 목표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한다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의 구상과 방도를 알려주고 진지하게 의논해보겠습니다. 과학지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연구소들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을 불러옵시다.》

《알겠습니다.》

고중환은 깊은 사색이 흐르는 그이의 존안을 우러르며 활기있게 대답올렸다. 그이께서 호소하고싶으신것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그 호소에 현실적으로 부닥친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갈 현명한 방도가 있으리라는것은 명백했다. 자신과 과학지도일군들이 그처럼 모색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그것이 자기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낼것이다. 한껏 옹송그렸던 가슴이 금시 열리는듯 하였다.

## 12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번 다녀가신 곳이여서 눈에 보이는 건물마다 낯이 익으시였다. 전자공학, 기계공학, 열공학, 수학, 물리학…

과학지구에 집결된 그 많은 연구소들 하나하나가 어느 건물들에 자리잡고있는지도 알고계시였다. 건물의 창문마다에 해빛이 눈부시였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안에서 책상과 실험대를 마주하고 탐구의 사색을 펼쳐가는 과학자들의 모습이 방불히 보이는듯싶으셨다. 과학지구를 찾을 때마다 번번이 느끼게 되시는 경건한 감정이 다시금 그이를 휩싸기 시작했다. 나라의 귀중한 두뇌진이 집결되여 미지의 과학세계를 개척하여가는 곳, 조국의 강성번영의 기초가 마련되는 곳… 그이의 가슴속에 과학지구는 나라의 운명과 관련되고 민족의 존엄과 련결된 성스러운 곳으로 자리잡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을 데리고 림수봉과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과학원 원장은 심장병으로 입원을 하고 림수봉이 과학원의 전반사업을 책임지고있었다.

《과학원에서 올려보낸 실태자료를 보고 나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락의자에 편히 앉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림수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저희들도 많은 토론끝에 그 자료를 올렸습니다. 불손스러운 일

인줄 알면서도 현실태와 저희들의 소견을 보고드리고 결론을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무들의 그 솔직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솔직하게 실토하기때문에 과학자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진정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간의 성품에서 가장 귀중한것을 정직성으로 간주하시였으며 가장 저렬하고 비렬한것을 거짓으로 여기시였다. 정직한 사람의 엄중한 과오는 너그럽게 리해하셨지만 위선적인 사람의 사소한 과오는 준절히 타매하시였다.

《오늘모임에 참가할 다른 지방의 동무들도 다 왔습니까?》

《어제 저녁에 모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생물분원의 세포공학자 한 동무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생물분원이야 가까운 평양에 있는데 왜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까?》

《그 동무도 아침 일찍 떠났는데 승용차가 낡은것이다보니 도중에서 고장났답니다. 그렇다고 얼마전에 동북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동무의 나이가 몇이나 됩니까?》

《환갑이 넘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로학자가 초조감에 휩싸여서 경황없이 고개를 넘어 달려오는 모습이 얼핏 그려지시였다.

《공로있는 학자들에게 승용차를 준것이 언제이던가요?》

《10여년이 됩니다. 인제는 그 차들이 모두 낡았습니다.》

림수봉은 고중환의 낯빛을 살피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나마 최근년간에 학위학직을 받은 교수와 박사들에게는 아직 승용차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올려보낸 실태자료에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림수봉은 입을 열지 못하고 눈길을 떨구었다.

《과학원에서는 승용차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제가 빼도록 했습니다.》

고중환이 대답올렸다.

《왜 뺐습니까?》

따져물으시는 **김정일**동지의 얼굴에 노여운 기색이 비끼였다.

고중환은 낯을 붉히며 침묵했다. 림수봉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부부장동무는 일부 첨단과학연구과제앞에서 주저하는 우리 과학계가 무슨 면목으로 그런 요구까지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심정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굳이 림수봉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고중환의 심정을 잘 알고계시였다. 그의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과 청렴한 생활의식을 값높이 여기셨으며 바로 그때문에 남달리 그를 믿고 사랑하시였다. 그러나 승용차문제는 그자신의 생활과 관련되는것이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사회적대우와 관련된 문제였다.

《부부장동무의 심정은 리해가 갑니다. 그러나 심히 잘못되였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사회적대우를 높이는것은 전원회의결정입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속에서 과학연구부문에 진출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이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과학자들에 대한 물질적대우와도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과학자, 기술자들을 꽃방석에 앉히려고 합니다! 부부장동무는 아직 당의 뜻을 잘 모르고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고중환은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동무의 사업에는 빈틈이 없는 대신 쪼물짝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무원에서 해결해줄것을 바라며 제기한 외화량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 따져보니 그것을 가지고서는 현재 우리 과학계에 필요한 설비와 실험기구들을 다 사올수 없습니다. 하긴 정무원에서는 추가지출을 해야 하는것만큼 그 량도 당장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대담하게 투자를 더 하자고 했더니 총리동무도 쾌히 찬성을 했습니다.》

그이께서 그 액수를 말씀하시자 림수봉은 눈을 벌려뜨며 큰숨을 훅 들이그었다. 상상할수 없으리만큼 많은 량의 외화였다. 고중환

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학부문에 대한 그이의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가를 새삼스레 느꼈다. 그럴수록 방금 비판하신 말씀의 의미가 사무쳐오면서 심각한 반성이 온몸을 사로잡았다.

《앉으시오. 동무는 나와 같이 일하는지도 여러해가 되는데 쪼물짝한 성미만은 여적 고치지 못했거던.》

그이의 얼굴에 신뢰어린 따뜻한 미소가 흘렀다.

예정했던 모임시간까지는 아직 반시간정도 남아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곧 전화로 정무원총리를 찾으시였다.

《정무원에서 최근에 승용차들을 들여온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에 쓸겁니까?》

《정무원 부장, 부부장들과 도행정위원회 위원장들의 낡은 승용차들을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행사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총리동무, 그 승용차들을 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과학자들입니다.》

《예?》

《왜 그리 놀랍니까? 과학자들이야 누구도 대신할수 없지 않습니까? 공로있고 재능있는 교수, 박사들중에도 아직 승용차가 없는 동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승용차들을 모두 과학자들에게 돌립시다.》

《…》

《그렇게 딱해하지 말고 과학자들에게 한번 선심을 써보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눈웃음을 지으시며 뒤를 이으시였다.

《하긴 선심도 아닙니다.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걸 여태까지 못했으니 정무원에서 때늦게 자기 책임을 수행하는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의의도 매우 큰일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일군들보다 좋은 승용차를 타고다니는걸 보면 인민들의 반향도 좋을것입니다. 승용차를 배정받았던 일군들은 좀 아쉬워하겠지만 그들도 리해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동무, 내 마음을 리해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전화를 통하여 오가는 대화는 증폭되여 방안에 울리였다.

그 전화대화를 듣고있던 고중환과 림수봉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을 슴벅이였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 전화대화를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할가? 이 자리에 자기들 두사람만이 있는것이 아쉬웠다.

《이렇게 고급승용차에 태워주어도 고도기술과제를 못해내는 학자들이야 볼기를 쳐야지.》

그이께서는 커다란 소원을 푸신듯 기쁨어린 안색으로 롱담을 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표정을 바꾸시였다.

《계획에서 빼겠다고 제기한 초고압유압프레스과제책임자가 기계공업위원회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옳습니다. 재작년에 기계공업위원회에서 왔습니다.》

림수봉이 대답올렸다.

《그 동무였구만!》

어떻게 석홍범을 아실가? 림수봉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이의 얼굴에는 기다리던 사람의 소식을 마침내 알게 되신듯 반가운 기색이 떠올랐다.

《그 동무가 어째 연구과제를 포기했습니까? 과학적열망이 높은 동무인데…》

《본인이 포기한것이 아니라 제작조건이 걸리기때문에 과학평의회에서 하는수없이 기각시켰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존안에 안타까운 빛이 떠오르시였다.

《부원장동무, 우리 공업수준을 고려할 때 유압기계분야에서 세계적수준을 따라가자면 몇해나 걸려야 할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20년은 걸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엄청나게 늦잡는 그의 대답을 조금도 탓하는 기색이 없이 진지하게 물으시였다. 림수봉의 견해와 판단은 언

제나 제나름의 과학적근거를 가지고있었다. 그래서 그와는 허심히 이야기를 나누고싶으시였다.

《말이 났던김에 초고압유압프레스를 실례로 든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석홍범동무네가 문헌조사를 한 프레스는 스웨리예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서 10여년전에 개발한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만든다면 10년 뒤떨어진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후에야 제작할수 있습니다.》

《왜 10년후에야 가능합니까?》

《제일 걸린것이 바킹재료입니다. 함흥분원 고분자연구소에서 고강도바킹재료로 흔히 쓰이는 사불화에찔렌수지연구에 착수했는데 그것이 성공해서 공업화하자면 10년쯤 걸릴것입니다.》

《뒤로 10년, 앞으로 10년 그래서 20년이라…》 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그리시였다.

《부원장동무의 계산대로 한다면 우리는 20년이 아니라 반세기정도 뒤떨어졌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사불화에찔렌수지가 생산될 때까지 10년을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멀리 전진해서 새로운 유압프레스를 개발할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있지 않습니까.》

림수봉은 너부죽한 얼굴에 어줍은 웃음을 그릴뿐 응대를 못했다.

《석홍범동무는 연구집단이 해산된 후 뭘하고있습니까?》

《요사이 당위원회 선전부에 와서 교양을 받고있습니다.》

《무슨 과오라도 저질렀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놀라운 시선으로 림수봉을 바라보시였다.

난색을 지어보이던 림수봉은 주밋거리며 입을 열었다.

《연구집단이 해산되던 날 저녁 술좌석에서 좋지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나머지 나라에서 필요한 재료를 보장해주지 못하기때문에 과학적포부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떨어진 나라의 공업수준을 원망했습니다. 후에 본인이 당조직을 찾아와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선전부에서 사회주

의애국주의에 대한 교양을 하고있습니다.》

《그 동무를 나에게 불러주시오. 그리고 동무는 학자들의 모임정형을 알아보시오. 그사이 나는 석홍범동무를 만나보겠습니다.》

림수봉이 밖으로 나간지 10분도 채 못되여 석홍범이 들어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앓고난 사람처럼 창백해진 그의 얼굴에서 이며칠사이에 그가 겪었을 고민의 깊이를 가늠하시였다. 무엇보다도 연구집단의 해산이 그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을것이다.

《여기 와 앉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그에게 쏘파의 옆자리를 가리키시였다. 아껴주고싶은 마음과 노여움이 엇갈리는 모순된 감정때문에 부지중 목소리가 높아지시였다. 석홍범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자라난 재능있는 새 세대 과학자이다. 태여나자부터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와 중학교, 대학을 거치는 과정에 은혜로운 조국이 베풀어주는 모든것을 향유하며 성장했다. 그 이전에는 그러한 조국을 두고 어떤 불손한 감정도 품고있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나라에서 연구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보장해주지 못하자 불만을 터뜨렸다. 사람은 리해관계가 첨예하게 제기될 때, 절망적인 어려움에 부딪칠 때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법이다. 그는 조국이 베풀어주는 행복속에서 재능을 키웠지만 그 재능을 조국을 위해 바치려는 각오는 굳건히 키우지 못했다. 그의 발언보다도 지난날의 빛나간 연구자세가 그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동무가 생각하는것처럼 우리의 공업수준은 고도기술개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리만큼 발전하지 못했소. 그것을 두고 안타까와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오. 그것은 애국적감정이요. 그러나 그것이 원망으로 이어질 때는 문제가 다르오.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다고 해서 자기 조국을 원망하는것은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요. 조국이란 뭐겠소? 우리자신들이요. 실상 알고보니 동무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을 했소. 동무에겐 과학자로서의 자존심과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소. 동무의 그릇된 사상상태가 연구사업의 좌절

을 가져왔고 연구집단이 해산되는 결과를 빚어냈소!》

석홍범의 이지러진 얼굴에 순간적으로 의혹의 빛이 떠올랐다. 이번 일로 해서 자존심이 지내 높다는 비판도 받았고 그것을 자인하기도 했다. 연구사업이 좌절된것은 전적으로 객관적조건때문이라고 누구나 공인해왔다. 그랬던것만큼 그로서는 그이의 말씀이 너무도 뜻밖이였다. 만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것으로 연구사업을 다시 할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을것이다. 초조한 기대를 가지고 그이의 깨우치심을 기다렸다.

《나는 부원장동무한테서 동무의 연구과정이야기를 들었소. 남들이 한것을 본따서 초고압유압프레스를 개발하려는것자체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소. 남의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는것은 과학자의 자존심이 없는 졸장부나 할 일이요. 동무는 자기딴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볼 결심을 가졌다는데 조국의 명예를 떨치려는 지향과 결합되지 못하였기때문에 그것은 비좁은 가슴속에 간직된 졸장부의 야심에 불과했소. 조국의 명예를 떨쳐볼 숭고한 목적을 가졌다면 남들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눈아래로 굽어보면서 그들이 도달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려고 했을거요. 숭고한 목적은 무비의 담력과 용기를 가져오는 법이요. 동무도 홍역예방주사약을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한 미생물학연구소의 녀성과학자를 알고있겠지?… 그는 조국애와 민족적자존심이 높은 동무요. 이미전에 발전된 몇개 나라에서 원숭이혈청을 사용해서 홍역균을 배양했소. 그는 연구에 착수하면서 우리 나라에 원숭이가 없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원숭이를 수입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소. 우리 조국의 현실에서 가능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남들보다 값눅게 대량생산을 해서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을 홍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할 대담한 목표를 세웠소. 그래서 우리 나라에 흔한 소의 혈청으로 홍역균을 배양하는데 성공했소. 그는 국제새기술발명축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우리 과학자들의 재능을 온 세상에 과시했소. 동무가 만일 그 동무처럼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주체적립장을 가졌다면 우리로서 가능할뿐더러 남들이 지금껏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의 발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거요. 나는 유

압공학이나 기계공학과 관련한 전문가적인 조언은 주지 못하겠소. 그러나 우리 과학자들이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과 방법론, 다시말해서 주체적인 립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그것만은 명백히 말해줄수 있소.》

말씀을 마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석홍범의 반응을 주의깊이 살피시였다. 석홍범은 무슨 말인가를 할듯이 입술을 실룩이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과학을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빗나간 립각점에 선 재능있는 청년을 보는것이 안타까우시였다. 과연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진작 좋은 인상과 커다란 기대를 품어오셨기때문인지 그의 재능을 한껏 아끼고 키워주고싶으신 간절한 심정을 누를길 없으시였다. 재능처럼 귀중하고 값진것은 없는것이다. 그에게 깨우쳐주고싶은것이 아직 많은듯 하여서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려는데 부원장이 들어왔다.

《과학자회관에 책임일군들과 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생물분원의 세포공학자도 왔습니까?》

《왔습니다. 다른 승용차를 마중보냈댔습니다.》

《그럼 어서 회관으로 갑시다.》

먼저 일어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뒤따라 일어서는 고중환에게 머리를 돌리시였다.

《부부장동무, 이미 당에서 제시한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각급 학교들에서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으시였다.

지금껏 곁에서 신중히 듣고있던 고중환이 모든것을 리해하리라고 생각하시였다.

《알았습니다.》

고중환은 경건한 눈빛으로 그이를 우러르며 대답을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입문을 나서다말고 석홍범을 되돌아보시였다.

《저 동무도 오늘 모임에 참가시킵시다.》

림수봉은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선발된 학자들만이 참가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석홍범을 참가시킨다는것을 생각할수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다시 말씀하시였다.

《저 동무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자들과 함께 듣도록 합시다.》

## 13

장내에는 수백명의 과학자들이 빼곡이 들어앉았다. 각이한 분야의 과학을 연구하는 여러 연구소의 이름있는 학자들이였다. 앞줄에는 리승기와 양영복을 비롯한 우리 과학의 1세대들이 앉았다. 머리에 백발이 성성한 그들은 모두 과학원의 원사와 후보원사들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내를 둘러보시였다. 태반의 학자들은 낯이 익으시였다. 개별적으로 혹은 집체적으로 만나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반가움과 친근감을 느끼며 앞탁에 놓인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끄당겨놓으시였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보내신 그이께서는 공식적인 회합이 아니라 개별적학자들과 소탈하게 담화를 나누시는듯 한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나는 우리의 과학기술앞에 겹쌓인 난관앞에서 일시 주저하고 동요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두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동무들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싶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안팎에 조성된 어려운 정세와 우리 과학이 도달한 오늘의 수준을 볼 때 그것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높이에로 이끌어올린다는 것은 기존의 관념이나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낱낱이 렬거하시고 처음과는 달리 열기띤 음성으로 계속하시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과연 우리가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할수

있는가?

나는 자신에게 그 물음을 수없이 제기하였댔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면서 참말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시기 주객관적인 조건이 어렵다고 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속도를 늦춘다면 우리는 영원히 뒤떨어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동무들도 아다싶이 날이 갈수록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지고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독점하고 그것을 무기로 발전도상나라들의 원료와 로동력을 착취하며 그 나라 인민들을 지배하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략입니다. 때문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민족의 부흥과 강성을 도모하는 문제일뿐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에로 이어지는 일종의 계급투쟁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청중은 숨을 죽이였다. 말씀의 마디마디에 흐르는 절절한 심정이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민족의 존엄도 지킬수 없고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과학기술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수준에로 이끌어올릴 확고한 결심을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고 이러한 결심을 가졌는가? 나는 동무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높은 사상적각오와 뛰여난 재능을 믿었습니다. 과학기술발전은 객관적조건에도 크게 좌우되지만 결정적인것은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도달한 과학기술의 성과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 거리감에 위압되거나 그 나라들처럼 보장조건이 주어지지 않기때문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조건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남들이 걸어간 탐구의 길을 답습하면서 남의것을 모방하는데 머무를것입니다. 답습과 모방으로써는 어느때든지 남들을 따라갈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습하고 모방하는 사이에 남들은 또 새로운것을 창조하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진수준에 오르자면 반드시 과학기술발전에서 과거의 력사가 알고있는 순차와 단계를 뛰여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약만이 가까운 앞날에 우리 과학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울수 있습니다.

가령 초고압유압프레스를 례로 든다면 남들이 개발한것을 모방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월등하고 앞선것을 개발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10여년전에 개발한것을 본딴다고 하여도 우리 수준에서는 대단한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순차와 단계를 도약하는데는 자신에 대한 존엄과 긍지, 담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에는 뒤떨어진 거리감에 위축되여 남들이 걸어간 순차를 밟을 생각밖에 못할것입니다.

동무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고있으며 주체사상이 꽃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런것만큼 응당한 자존심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떨쳐나가겠다는 높은 각오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감정에 추동될 때 동무들은 순차와 단계를 뛰여넘어 세계적인 발명을 하게 될것입니다.

숭고한 사상과 지향에 지혜와 실력이 안받침되면 못해낼것이 없습니다. 뛰여난 실력은 순차와 단계를 뛰여넘을수 있는 또 하나의 전제입니다. 나는 우리 과학자들의 두뇌와 실력이 결코 남만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다른 나라에서 류학을 한 동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류학시절에 그 나라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과학기술경쟁은 일종의 두뇌경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경쟁에서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을수 있는 우수한 지적잠재력을 가지고있습니다. 다른 나라 과학자들보다 총명한 두뇌를 가진 백만이 훨씬 넘는 과학자, 기술자대오가 있으며 그 후비가 또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시선에 담아 청중을 둘러보시며 힘주어 계속하시였다.

《나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고심의 낮과 밤들에서 무엇보다먼저 동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동무들을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라고 간주하고있습니다. 경제와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나는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을 머리속에 그려보군 합니다. 인민들 역시 안팎으로 나라의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동무들에게 더욱 큰 기대를 보내고있습니다. 모든것이 과학기술발전에 달려있기때문입니다.

과학중시를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운 우리 당은 동무들의 연구사업과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동무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있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당과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두다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의 세계과학을 굽어보면서 주체적인 탐구의 방법론을 따라 최첨단의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찬 박수로 화답하는 청중을 바라보시였다. 격동된 과학자들의 얼굴마다에 열렬한 공감의 빛이 떠올랐다.

이 순간 그이께서는 자신과 그들의 심장이 하나로 고동치는듯 한 느낌을 받으시였다. 학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시다가 손을 높이 들어 힘껏 저어주시였다. 무엇때문인지 그들에게 하고싶은 호소, 터놓고싶은 감정이 심중에 그대로 남아있는것 같기도 하시였다. 그래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미더운 얼굴들을 몇번이고 둘러보면서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였다.

우뢰같은 환호의 함성과 박수소리가 더욱 높아지면서 과학자회관을 진감시켰다.

## 14

과학지구는 불도가니마냥 들끓었다. 연구사들과 실험조수들, 중간공장의 로동자들모두가 떨쳐나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직접 받은 학자들을 에워쌌다. 지어는 려관과 상점, 편의사업소와 탁아소의 직원들까지 때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이 지구는 봉사시설들까지 과학자려관, 과학자상점, 이런 식으로 과학자라는 신성한 이름을 앞머리에 달았다. 그래서 과학연구사업과 아무런 련관도 없다고 할수 있는 접대원, 판매원, 신발수리공, 리발사들까지 과학전선의 한대오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고있었다.

과학자회관앞에는 군중집회를 할 때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회관에서 나온 학자들은 여기저기서 팔굽을 끄당기며 그이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고 묻는 여러 사람의 질문에 흥분한 어조로 대답을 하였다. 웅성거리는 소음속에 《조선민족제일주의!》, 《주체적인 방법론!》과 같은 말들이 두드러지게 긍지높이 울리였다.

제일 마감에 회관에서 나온 석홍범에게는 달려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영광스러운 그 좌석에 참가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군중으로부터 멀리 물러난 자기를 뒤돌아보았다. 선발된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기는 했으나 그들과는 다른 처지에서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들었다. 자기를 그 장소에까지 불러주신 그이의 심정이 참으로 고마왔다. 그는 전날의 연구집단성원들을 만나서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격동된 마음을 전하고싶었고 처음부터 연구사업을 다시 시작하자고 호소하고싶었다. 사위를 둘러보았다. 기계공학연구소 소장을 중심으로 모여선 사람들의 뒤전에 서있는 양명심이 눈에 뜨이였다. 하늘색샤쯔를 입은 명심은 키돋움을 하며 귀를 강구다가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지 실망한 기색으로 누구인가를 찾고있었다.

그에게 다가간 석홍범은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다.

《명심동무!》

《우리 할아버지를 못 봤어요?》

양명심은 석홍범을 마주보자 제 먼저 물었다. 그는 회관에서 나온 학자들중에서 여태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를 초조히 찾고있었다. 누구보다도 할아버지를 찾으면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을수 있다고 생각한것이다.

《양영복선생은 회관의 응접실에 남아있소.》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회관에서 담화를 끝내신 다음 로학자들을 따로 만나주고계시오. 모처럼 과학지구에 왔는데 선뜻 떠나고싶지 않다면서 로학자들과 의견을 더 나누고싶다고 하시였소.》

《동무도 참가했댔어요?》

양명심은 사뭇 의아해하는 낯색이였다.

《그렇소.》

석홍범은 놀라움에 사로잡힌 명심의 눈동자가 올롱해지는것을 보았다.

《그럼 그이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양명심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꼴깍 마른침을 삼켰다. 똑바로 마주보는 눈에서 처음의 의혹이 부러움으로 뒤바뀌였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하신 말씀내용은 이렇소.》하고 석홍범은 그 내용을 명심에게 들려주었다. 말씀의 구절구절을 심장에 새기듯하였기때문에 거의나 그대로 전달해줄수 있었다. 그리고는 열정적으로 자기 심정을 말했다.

《초고압유압프레스개발이 지금처럼 장벽에 부닥친것도 실은 우리의 출발자세부터가 잘못되였기때문이였소.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지도 못했고 전혀 새로운 발견으로 다른 나라 기술을 압도해보려는 대담한 야심도 없었소. 우리 한번 또다시 지혜를 모아 시도해보지 않겠소?》

《프레스의 본체제작과 기밀장치가 제일 걸렸댔는데 그것을 새롭게 해결할 무슨 착상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런 착상도 없소. 그러나 남들과는 전혀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내리라는 야심에 불타고있소.》

《이제 와서 연구집단을 다시 뭇기는 어려울거예요.》

《그것이 승인되지도 않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소. 과학적담보가 내다보이는 착상이 있은 다음에야 연구집단의 재조직이 필요한거요. 내가 기밀장치연구를 맡을테니 동무는 본체제작연구를 맡아주

지 않겠소?》
석홍범은 절절히 호소했다. 불같은 열정이 새로운 깨달음의 환희속에 폭발했던것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비상한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하더라도 아직 아무런 착상도 없이 이렇게 즉석에서 호소하지는 못할것이다. 하지만 명심은 그의 심정에 공감했다.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전해듣고보니 자기도 의욕이 북받쳤다. 자기 역시 지금까지는 방향각이 헛갈린 시각으로 연구사업을 하여왔다고 인정했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모색을 하면 초고압유압프레스개발에 부닥쳤던 장벽을 허물어버릴수 있는 방도를 찾아낼것 같았다. 아직은 그것이 막연하고 또 어렵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눈앞이 확 열리는듯 한 느낌속에 자신심이 생기였다.
《좋아요. 연구해보겠어요!》
명심은 깊은 생각끝에 선선히 대답했다.
《고맙소, 명심동무!》
석홍범은 얼결에 명심의 손을 덥석 잡을번 했다. 상대가 처녀가 아니라면 얼싸안아주고싶었다. 연구집단이 해산된 날 저녁에 그더러 금속공학연구소로 옮겨가라고 권고하던 일이며 그의 날카로운 비판에 노여움과 반발심을 느꼈던 일들이 아득한 옛일처럼 생각되였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아무런 의미도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멀리로 사라져버리고 참으로 이제부터 모든것이 새롭게 시작되는것 같았다.
석홍범은 흥분된 마음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민옥은 저녁밥도 짓지 않고 우두커니 방안에 앉아있었다. 불안과 경계심이 어린 눈길로 남편의 거동을 의아쩍게 바라보던 그가 조심히 물었다.
《당신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심각한 비판의 말씀을 들었다는게 사실이예요?》
석홍범은 어찌하여 안해가 경황없이 앉아있는가를 깨달았다.
그이께서 과학지구를 다녀가신 소식은 어느새 가두의 아낙네들속에도 퍼진 모양이다. 석홍범은 그이로부터 비판의 말씀을 받은 자기가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꼈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다. 과학적성과

로 기쁨을 드릴 대신에 그이께 심각한 사상적과오를 드러내보이였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아 마땅할것이다.

《그게 사실이예요?》

안해가 다시 물었다.

《사실이요.》

《그런데도 전에없이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니 도대체 제정신이예요?》

석홍범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과연 내가 자기의 처지를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정신없이 들뜨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심장을 속일수는 없었다. 그이의 면전에서 비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병들었던 한 부분을 도려내는듯이 그리도 아프던 심장이 지금은 소생의 활기로 세차게 고동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 까닭은 무엇으로도 설명할수 없었다. 오직 그이의 면전에서 그런 경우를 당해본 사람의 심장만이 체험할수 있는 그런것이였다. 석홍범은 안해를 어떻게 설득시켰으면 좋을지 몰랐다.

《당신말대로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지도 모르겠소.》

싱긋이 웃으며 그렇게 응대를 하는수밖에 없었다.

《야참 여보, 수도가에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얼굴을 들수가 없어서 빨래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어디 보통일이예요?》

민옥은 남편의 태도에 그만 아연해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당신말이 옳소. 보통일이 아니요. 과학자로서 나의 인생이 지난날과 구별되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게 된 뜻깊은 일이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이의 말씀을 잊지 않겠소.》

석홍범의 얼굴에 나타난 활기롭고 결연한 표정이 민옥을 또다시 놀라게 했다.

《아무래도 당신은 지금 얼이 빠져버린것 같애요. 과학원 당조직이나 개별적일군한테서 비판을 받았대도 모르겠는데 그이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니 이렇게 심중한 일이 또 어데 있어요?》

《여보, 어서 부엌에 내려가 저녁이나 짓소!》

석홍범은 안해를 지켜보며 소리쳤다. 안해는 오늘일로 해서 그 어

떤 엄중한 처분이 다가올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석홍범은 자기의  감정과 너무도 상반되는 생각에 사로잡힌 안해와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설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마음쓰시게 한 잘못으로 하여 안해의 생각처럼 대중과 조직으로부터 이제 그 어떤 가혹한 비판이나 처분을 받는다 해도 조금도 두려움없이 감수할것이다. 하지만 그이께서 바로잡아주신 궤도를 따라 탐구의 한생을 이어갈것이다. 그는 상심한 기색을 거두지 못한채 비실비실 부엌으로 내려가는 안해를 흘겨보고 성큼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구집단이 해산된 후에 벽장속에 깊숙이 처박아넣었던 연구자료들을 꺼냈다. 그리고는 자료묶음의 굽도리에 묻은 먼지를 털고 책상우에 펼쳐놓았다. 불현듯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면서 정열을 쏟아붓던 나날들과 다시 상봉을 하는듯 한 감개가 떠올랐다. 그것은 자기의 어리석은 처사로 곡절의 리별을 하였던 첫사랑의 련인과 다시 상봉을 하는듯 한 감정이였다. 그는 애무하듯 책장들을 쓰다듬었다. 앞으로 이 자료들을 새로운 눈으로 검토하면서 또다시 탐구의 열정을 경주한다면 반드시 고질합성수지를 쓰지 않는 독특한 유압기밀장치를 발견해낼것 같았다. 연구의 방향각을 돌린 자기의 눈앞에는 금시 성공의 실머리가 보일듯싶었다.

# 제 2 장

## 1

창으로 흘러드는 아침해살이 넓다란 집무실에 비껴들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한여름의 해빛은 아침부터 열기를 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방안을 거니시였다. 오른손에는 방금 보시던 통신자료가 그대로 들려있었다. 집무탁으로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전화로 고중환을 찾으시였다. 교환수는 그의 사무실이 아니라 집으로 전화를 련결했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여느날과 달라 아직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던것이다.

《부부장동무, 휴식일이지만 나와 좀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차 나가겠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울려오는 고중환의 목소리는 감기를 앓는 사람처럼 석쉼하게 갈리였다.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고중환은 흔연히 대답하려는듯 했으나 여전히 목청이 맑지 못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것이 과로한탓이라고 짐작하시였다. 최근에 고중환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낮에는 여러 연구기관과 교육기관들을 찾아다니며 당에서 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했고 밤에는 밤대로 사무를 처리하고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여야 했다.

《아직 침대에서 푹 쉬여야 하는걸 내가 찾은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딸애와 함께 집안청소를…》

고중환은 얼결에 가정의 사말사를 비쳤다고 생각하는지 말끝을 감추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있을 그를 그려보시며 련민의 정을 느끼시였다. 고중환은 재작년에 상처를 하고 지금은 중학교에 다니는 딸애와 단둘이 살고있었다. 교육사업을 보는 부부장이 결원된 후로 그는 두사람의 몫을 담당하고있는데 가정적으로도 안해가 해야 할 일을 돌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에게 오늘만이라도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마련해주고싶으시였다.

《마저 청소를 하고 한시간쯤 지나서 천천히 초대소로 오시오.》

한시간후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초대소정원에서 등나무그늘밑에 놓인 원탁을 사이에 두고 고중환과 마주앉으시였다. 짐작하셨던대로 사업에 다몰린 고중환의 얼굴은 눈에 띄우게 수척해보였다.

《너무 과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과학원을 다녀가신 후에 과학계가 들끓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어쩔수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고중환은 어줍게 미소했다.

《우리가 과학원을 다녀온 후에 석홍범동무는 어떻게 지내고있습니까?》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고 새롭게 분발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과학원에 나가 만나보았는데 결의가 대단합니다. 자기는 과학자로서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난 심정이라고 하면서 기어이 다른 나라것보다 월등한 초고압유압프레스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나는 과학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동무를 두고 종종 생각했습니다. 새 세대 과학자들을 키워내는 우리 교육에서는 그들의 가슴속에 세계과학을 굽어보는 담력과 포부를 깊이 심어주지 못하는 부족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학이 현실적으로 남들보다 뒤떨어진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따라잡을 힘이 있기때문에 후진성을 인정하는데 린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세대들의 머리속에 그러한 후진의식이 응당한것으로 남아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시지 못한채 자라서 과학계에 진출하면 고작 앞선 나라들의것을 모방할 목표나 세우는데 머무를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신대로 각급 학교들에서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의 사상을 해설하는 교양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리고

있습니다.》
그 구호에는 단순한 애국이 아니라 세계에 조선을 떨칠 웅대한 포부를 배움의 목적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있었다.
《학생들에게 그 구호의 사상을 깊이 심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과학분야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조선을 떨칠수 있는 재능과 슬기가 자신들에게 있다는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것이 필요합니다. 내 오늘 아침 여러 나라에서 국제수학올림픽준비를 다그친다는 통신자료를 보았는데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경연인지 알고있습니까?》
《알고있습니다.》
국제올림픽은 대학에 가기 전 학생들의 수학실력을 겨루는 세계적인 경연무대였다. 1956년에 로므니아의 저명한 수학자 로만이 발기하였는데 여러 나라 교육계가 이에 호응하여 57년부터 해마다 열리였다. 처음에는 수학교육이 앞섰다고 하는 유럽의 7개 나라만이 참가하였다. 그후 해마다 불어나서 80년대부터는 50여개 나라가 참가했다. 그런데 아직 절대다수의 발전도상나라들은 참가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중학생들의 경연이였지만 그것은 나라의 교육수준뿐아니라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시험장이였다.
《알고있다니 좋습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을 국제수학올림픽에 내보내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장동무의 생각엔 어떻습니까?》
고중환은 볼을 쓰다듬으며 침묵했다. 선뜻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듯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않더니 소심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는 여태껏 우리 학생들을 국제수학올림픽에 참가시켜보려는 생각을 하여본 일이 없었습니다. 교육과 과학이 비교적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도 처음 참가해서는 례외없이 마지막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례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여러번 방청으로 참가해서 경험을 얻은 다음에 정식 경연에 참가했습니다. 그런것만큼 우리도 한두번 방청으로 참가해서 경험을 얻은 다음에 정식 참가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들의 본을 꼭 따라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꼴찌를 하면 나라의 위신에도 손상을 주고 그 소

식을 듣게 될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실망을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원탁우로 시선을 떨구시였다. 그의 말대로 꼴찌를 한다면 의도와는 달리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그런데 경험이 필요하다면 왜 진작 우리 학생들을 경연에 참가시켜서 필요한 경험을 얻도록 하지 못했는가? 교육일군들은 어찌하여 수십년전부터 열리는 국제수학올림픽에 우리 학생들을 진출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었는가?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엄청나게 뒤떨어졌기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을것이다. 우리의 교육수준은 상당한 높이에 이르렀고 학생들의 머리도 총명하다. 우리 학생들의 수학실력은 결코 남만 못지 않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일군들이 국제경연에 참가시킬 용기를 가지지 못한것은 오랜 타성으로 은연중에 남보다 아직 뒤떨어졌다는 자기 비하의 의식이 남아있기때문일것이다.

일순 침묵에 잠기셨던 그이께서는 번쩍 고개를 드시였다.

《교육일군들이 우리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두뇌경쟁에서 세계를 압도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때문에 여태 우리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술과 체육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과학지식분야에서도 조선민족의 우수한 능력을 반드시 세계에 과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학생들을 국제올림픽에 참가시켜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정식 경연에 참가시켰으면 좋겠는데 승산이 없다면 방청으로라도 참가시킵시다.》

가볍게 낯을 붉히던 고중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들이 소심했기때문에 지금껏 우리 학생들을 국제수학올림픽에 내보내지 못했댔습니다. … 올해에 정식 경연에 참가하는가, 방청으로 참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1중학교에 나가보고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제출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로 풀수 있겠는지 한번 검열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후에 다시 토론합시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사업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함께 휴식을 좀 합시다.》

그이께서는 정원을 한바퀴 둘러보고나서 의자에서 일어서시였다. 고중환도 따라 일어섰다. 해볕은 뜨겁게 내려쪼였지만 나무가 무성한 정원속은 서늘했다. 저쪽에서 뿜어올리는 분수는 눈부신 해빛에 무지개빛포말을 날리며 청신한 촉감을 실어왔다. 그옆에 펼쳐진 화단에서는 망울을 터친 갖가지 꽃들이 취할듯 한 향기를 풍기였다.

꽃향기를 즐기며 분수터옆을 에도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잣나무와 소나무가 키높이 자라오른 숲속을 가리키시였다.

《우리 저리로 갑시다. 내 부부장동무가 입이 무겁다는걸 알기때문에 오늘 단둘이서 은밀한 놀음을 벌려보자고 합니다.》

눈웃음을 지으시며 은근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영문을 알수 없는 고중환은 말없이 의아한 표정이였다.

《풋강냉이구이를 하잔 말입니다.》

고중환은 너무도 놀라와서 입술을 반쯤 벌리고 눈을 슴벅이였다. 다정한 벗과 즐거운 약속을 하던 동심의 세계에로 되돌아가신듯 그이의 얼굴에 비낀 순결한 미소를 보고서야 그도 훈훈한 감정에 휩싸여 싱긋이 웃었다.

《자강도의 어느 협동농장 관리위원장동무가 제 손으로 육종을 해서 가꾼 올강냉이를 맛을 보라고 몇이삭 올려보냈습니다. 어린시절에 나와 인연이 깊었던 동무였습니다. 그 얘기는 차차로 하고… 기온이 낮은 산간지대에서 재배를 했는데도 벌써 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풋강냉이야 삶은것보다 구운것이 더 맛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덧 그이의 기분에 공감된 고중환은 즐겨 대답했다.

《우리가 강냉이구이를 했다는 소문이 나면 웃음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둘만이 아는 비밀로 붙여둡시다.》

《알겠습니다.》

정원변두리의 숲속에 이미 삭정이무지와 황록색껍질끝에 말라버린 수염이 소담스러운 풋강냉이가 놓여있었다. 깨끗한 풀밭우에 편히 앉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휴지를 불쏘시개로 삭정이밑에

넣은 다음 성냥을 그어대시였다. 휴지에 당긴 불길이 마른 삭정이에 쉽게 번지였다.

《부부장동무는 강냉이구이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어려서는 해보았지만 철들어서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마주앉은 고중환은 지나온 시절을 기억에 떠올리며 웃음진 얼굴로 대답올렸다. 해방된 이듬해에 외국류학의 길을 떠났고 귀국후에 대학교단을 거쳐 책임적인 직위에서 일하게 되였던 그에게는 강냉이구이를 하여볼 기회가 없었다. 간혹 농촌에 나갔다가 농민들이 휴식참에 강냉이구이를 하는것을 보고 구미가 당겼지만 제 먼저 맛을 보자고 청을 드릴 용기가 없었다. 농민들은 천한 음식으로 치부되는 구운 강냉이를 대접하는것이 실례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권하지 않았다.

《나는 어린시절은 물론 그후에도 해마다 철이 되면 풋강냉이구이를 즐겨합니다. 내가 풋강냉이에 맛을 들인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전쟁시기 평양교외의 농촌마을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을아이들과 함께 풋강냉이구이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구운 강냉이는 정말 별맛이였습니다. 어린시절에 인상을 남긴 구운 풋강냉이맛은 잊을수 없습니다.》

《이 풋강냉이를 보내준 사람도 혹시 그 시절에 아시게 된 사람이 아닙니까?》

고중환은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덮쳐잡으며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함치복이라는 동무입니다. 얼마 같이 있지 않았지만 서로 정이 들었댔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추억에 잠기시는 그이의 안광에 그윽한 빛이 어리였다. 고중환은 초조히 다음말씀을 기다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소년시절의 다정한 벗들을 그려보는듯 하시였다.

《그 동무는 걸음마를 탈 때 걸렸던 소아마비로 소학교를 다니던

그때에도 왼쪽다리를 조금씩 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름대신 〈다리뱅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또래 아이들의 철없는 소행이였지만 그냥둘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치복이의 편역을 들어서 다른 애들이 별명을 부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동무가 나를 따르게 되고 둘이 각별히 친하게 된것은 그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치복이는 공부가 시원치 못했습니다. 불구의 몸에 공부까지 잘하지 못하다보니 늘 주접이 들어서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한번은 교원이 마을단위로 조직된 학습반에 나와서 산수시험을 쳤는데 곁에 앉은 그는 내가 쓰는 답안을 훔쳐보고 그대로 답을 써서 시험지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나 다른 애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며칠후에 선생님이 나를 찾아서 치복이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가고 물었습니다. 치복이가 시험을 잘 친것이 의심스럽던 모양입니다. 나는 대답을 하기가 난감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하기도 어려웠고 치복이의 당부를 어기기도 어려웠습니다. 생각끝에 치복이는 제 실력으로 시험지를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가볍지 못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때 당하셨던 난감했던 처지와 괴로왔던 마음조차 오늘에는 동요시절의 즐거운 추억으로 되새겨지는것이여서 내처 웃으시는 얼굴로 말씀하시였다.

《선생님을 속이고 뒤가 켕겼던 나는 치복이의 공부를 도와서 다음번에는 그가 제힘으로 시험을 잘 치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앞에 떳떳할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공부가 끝나고 점심을 먹은 후에 산수공부를 도와주려고 집으로 돌아간 치복이를 찾아갔습니다. 치복의 아버지는 전선에 나가고 젊은 어머니가 혼자 치복이를 데리고 사는데 그때 앓고있었습니다. 치복이가 보이지 않길래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는 뒤동산기슭에 강냉이를 따러 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와 퇴지에 딩구는 모지랑낫을 찾아들고 치복이를 도와주려고 밭으로 갔습니다. 치복이는 나를 보고 펄쩍 뛰면서 낫을 뺏으려고 했지만 나는 그와 함께 강냉이대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몇고랑씩 베고는 밭

기슭 참나무그늘밑에 앉아 산수공부를 하였습니다. 뒤따라 치복이 어머니도 밭으로 나왔습니다. 앓는 몸으로 왜 나왔느냐고 물었으나 시뭇이 웃을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단물이 잡혀서 알이 말랑말랑한 이삭들을 따로 골라 광주리에 담더니 나와 치복이에게 구워먹으라고 했습니다. 구워먹기에 알맞춤한 이삭들을 골라주려고 뒤따라 나왔던것입니다. 인정깊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나와 치복이, 그의 어머니 셋이서 참나무그늘밑에 오붓이 둘러앉아 구워먹던 강냉이맛은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을 끊고 여전히 입가에 애틋한 미소를 머금으신채 널름거리며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시였다. 움직이지 않는 시선은 눈앞의 그 불길이 아니라 옛시절 참나무그늘밑에서 강냉이구이를 하시던 그날의 전경을 그려보시는듯 하였다.

고중환은 이야기에 심취되여 숙연히 앉아있었다. 따스하고 훈훈한 감정이 가슴에 젖어들었다.

《자, 불길이 좋아졌는데 강냉이를 구워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새 현실로 돌아섰는지 표정을 바꾸며 강냉이를 불길속에 던져넣으시였다.

《풋강냉이는 이렇게 껍질채로 구워야 제맛입니다.》

고중환도 말없이 몇이삭 던져넣었다. 아직 심취된 감정에서 깨여나지 못하다보니 면바로 던져지지 못한 한 이삭이 불길이 사위여버린 모닥불변두리에 떨어졌다. 뽀얗게 재티가 날리였다. 그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재티를 피해 한걸음 물러앉았다.

《강냉이구이를 하자면 재티세례쯤이야 받을 각오가 되여있어야지요.》

**김정일**동지께서는 헌헌하게 웃으시며 막대기로 강냉이이삭들을 뒤번지시였다. 그이의 어깨와 머리우에도 재티가 내려앉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시였다.

《그후에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제자리에 도로 앉은 고중환은 채 끝나지 않은 그이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생생한 연록색껍질이 불에 그슬리면서 강냉이알속이 익자면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했다.

《그후 치복이네는 자강도로 갔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수 없었습니다. 영 소식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수십년이 지난 재작년에 자강도에 나갔다가 도당청사 마당에서 그 동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장년기에 이른 그는 어릴 때의 모습이 적지 않게 변했지만 나는 대뜸 알아보았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알고보니 그는 지금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을 하고있는데 도당에 회의를 왔다가 나를 만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시절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는 자기네 협동농장에서 10여년전부터 강냉이올종자를 얻기 위한 육종시험을 계속해온다고 했습니다. 어릴적부터 그는 농사물계에 눈이 텄습니다. 엉뚱한 재배시험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자강도의 산간지대는 가을철에 일찍 서리가 내리기때문에 조숙종을 육종하는것이 절실했습니다. 아무튼 육종시험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쩐지 그가 헛수고를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책들을 구하는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일찍 알이 드는 강냉이품종을 얻어냈습니다. 그 동무가 보내온 풋강냉이를 받아놓고 우리 나라에는 전문연구기관뿐아니라 처처에 이런 연구사들, 애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질고 근면하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민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아직 세계적높이에 이끌어올리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으나 그이의 얼굴에는 엷은 미소속에 숭고한 사명감이 비껴흘렀다. 그이를 바라보던 고중환은 가슴에 마쳐오는 경건한 느낌에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숙연히 시선을 떨구었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일찌기 가장 정확한 과학지도사상을 제시하시고 최근년간에 이 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눈부신 비약에로 이끌고계신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자족을 모르고 늘 자신을 돌아보시는것이다. 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조국애의 높이와 시대적사명감의 중량을 재여보이고있다. 숭고한 목적과 열렬한 지향은 남다른 고민과 탐구를 가

져오기마련이다. 그이의 선택과 결심이 언제나 정확한것도 천재적인 예지와 더불어 이러한 랭철한 분석력에서 오는것이 아닐가?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그이의 사색과 정신적부담의 크기를 고중환은 이 순간에 비로소 엿보는듯 하였다. 동시에 그 부담에서 몇순간만이라도 그이를 풀려나게 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설사 지금처럼 즐거운 휴식의 한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보고 느끼시는 모든것, 기억에 떠오르고 생각이 미치는 모든것에서 나라의 부강을 위해 모색하시였다.

《우리가 130만의 지식인대군을 길러냈고 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중등교육을 받은 조건에서 과학기술축전을 대대적으로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축전은 전문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전민, 전군이 참가하는 하나의 거대한 과학기술사업으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축전요강을 잘 작성해서 후에 나와 함께 토론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강냉이껍질이 타들고있습니다. 알속이 타지 않게 손을 써야 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막대기로 강냉이이삭들을 뒤번지시였다. 고중환도 자기앞의것을 막대기로 끄당겨서 타다남은 껍질을 벗겨버리고 잉걸불우에 올려놓았다. 노랗게 익어가는 강냉이가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였다.

《자, 이젠 맛을 봅시다.》

잉걸불이 사위여가기 시작했다. 고중환도 손을 뻗쳐 한이삭 집어들었다. 데일듯이 손이 뜨거웠다. 얼결에 풀밭에 떨어뜨리고 식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김정일**동지께서는 벌써 방울나무잎에 강냉이이삭을 싸들고 맛을 보시였다.

《참 맛이 좋습니다. 언제 식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제야 고중환도 빙긋이 웃으며 강냉이를 먹기 시작했다. 아직 뜨거웠으나 달콤하기도 하고 풀기가 좋아서 감칠맛도 있었다.

얼마후에 손을 털고 수건으로 입술을 닦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남은 이삭들을 고중환에게 주시였다.

《가져다 딸애한테 주시오. 그 애가 언제 구운 강냉이를 먹어보았겠습니까. 참, 그 애 이름이 뭐라고 했던가요?》
《향미라고 부릅니다.》
《어린 딸애의 손에서 끼식을 대접받는 동무도 불편스럽겠지만 집살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그 애도 부담이 클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진 고중환은 별로 사양치도 않고 구운 강냉이이삭들을 종이에 싸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동정의 안색으로 곡진히 말씀하시였다.
《내 이미전부터 고동무에게 권고를 하자고 생각해왔는데 오늘은 터놓겠습니다. 더 미루지 말고 재취를 하시오. 언제까지나 독신으로 지낼수야 없지 않습니까?》
《환갑이 다된 나이에 재취를 한다는것이 좀 면구스럽게 생각됩니다. 딸애한테 가정부담이 가기는 하지만 생활에서 별로 불편이 없습니다.》
고중환은 어줍은 미소를 그리였다.
《나는 앞으로도 몇십년 동무와 함께 일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동무는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자신을 여기는군요.》
그이의 안색에 떠오르는 서운한 기색을 살핀 고중환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어떤 때는 나이지숙한 녀성을 데려와볼가 하는 생각이 노상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간 딸자식들과 향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고중환에게는 아들이 없고 향미의 우로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에 시집을 갔다.
《딸들과 의논해봤습니까?》
《제 자식들이지만 그런 말을 꺼내기가 헐치 않습니다.》
《딸들이 리해할겁니다. 돌아간 부인도 남편이 앞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을겁니다.》
고중환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숙연히 머리를 숙이였다.

# 2

평양제1중학교는 만수대언덕과 모란봉이 마주 바라보이는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여러해전에 현대적으로 새로 지은 건물이였다. 연한 록회색벽체는 방금 칠감을 바른것처럼 색조가 선명하고 산뜻한데 가무스름한 색유리창들은 비껴드는 해살에 찬란히 반짝였다.

어느날 학교에 나온 고중환은 교장실에 들리였다. 오랜 공훈교원인 리철국교장은 세계교육추세에도 밝았다. 몇해전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학교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그를 단장으로 여러명의 교육자대표단을 무어 유럽나라들을 돌아보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수재교육이 앞섰다고 하는 스웨리예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을 다녀왔다. 리철국교장과 의논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픽에 참가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지 대체로 가늠할수 있을것 같았다. 고중환은 찾아온 취지를 설명하고나서  그의 의향을 물었다.

교장은 반백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심중한 낯빛으로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에는 방청으로 참가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정식경연에 참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픽에 참가해본 경험이 없기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경험도 경험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아직은 세계적인 최강자들과 겨룰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나라들은 우리보다 수재교육을 오래전부터 하여왔습니다.》

《교장선생생각도 그렇단 말이지요. …》

고중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내심 공감되였으나 기왕 나왔던김에 수학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의 견해를 더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학교의 수학소조를 책임진 교원을 지금 만날수 있을가요?》
《지금 수업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장은 전화로 수학강좌를 찾았다.
《정금화선생이 지금 강좌실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방으로 곧 보내주시오.》
잠시후에 나이가 지숙해보이는 녀교원이 교장실에 들어섰다. 별로 특별한데가 없는 보통체구에 수수한 용모를 가진 녀자였다. 차림새 역시 수수한 연회색달린옷을 입었다. 그러나 흰 살결의 동실한 얼굴과 공손히 내려뜬 눈에는 어덴가 모르게 내면에 깊이 간직된 높은 지성과 현숙한 풍모가 내비치는것 같았다.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동지가 선생을 찾았습니다.》
교장이 녀교원에게 고중환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정금화가 머리숙여 인사를 하는데 다소 긴장감이 느껴지는 어조였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급 높은 낯선 일군앞에 나서고보니 어리둥절해진 모양이다. 정금화는 두손으로 옷자락을 쓸어내리며 의자에 단정히 앉았다.
고중환은 그에게 찾게 된 까닭을 말했다. 그러자 정금화는 낯색이 확 밝아졌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학올림픽에 참가하게 된단 말이지요?》
선뜻 믿어지지 않는듯 급히 반문했다. 너무도 기쁜김에 흥분하고 있었다. 고중환은 그 태도가 어느 정도 경솔하게 느껴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에 처음 참가하게 되다보니 정식성원으로 참가할것인가, 방청으로 참가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 선생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금화의 얼굴에서 흥분이 가셔지고 심중한 빛이 떠올랐다. 문제가 문제이니만치 그도 서뿔리 입을 열수가 없어서 주저하는듯싶었다. 잠시 생각을 굴리던 그는 드디여 결심을 세우고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기왕 참가하는바치고는 정식경연에 참가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선생은 지금까지 처음 경연에 참가한 나라들은 례외없이 마지막순위를 차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알고있습니다.》

못마땅한 눈으로 정금화를 바라보던 교장이 그를 힐책했다.

《정금화선생, 이건 길고짧은것은 대봐야 안다는 식으로 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줄타기를 하자는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결코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확신하기때문입니다.》

눈시울을 내리깔고 조심스레 번지는 말이였으나 거기에는 확신이 울리고있었다.

《수학올림픽은 다른 발전도상나라 학생들과 겨루는것이 아니라 앞선 나라들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과 실력을 겨루게 된단 말입니다.》

교장의 그 말에 정금화는 명백한 어조로 응대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세계최강자들과도 당당히 실력경쟁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고중환은 정금화가 보기와는 달리 누구앞에서나 자기의 견해를 떳떳이 주장하는 녀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있으면 그들사이에 격렬한 론쟁이라도 벌어질듯싶었다. 그는 두사람을 번갈아보며 말했다.

《더 론의할것없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쳐봅시다. 내가 국제수학올림픽에서 10년동안 제출되였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정금화가 찬성했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광채가 반짝였다. 자기의 주장을 움직일수 없는 시험성적으로 확증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그러자면 수업시간을 조절해야 하겠군요.》

교장은 자기의 책상우에 넓다란 유리로 눌러놓은 수업시간표를 내려다보았다.

정금화가 그에게 얼른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6학년 1반의 다음수업시간은 제가 맡

은 수학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일이 마침 잘되였습니다.》
교장은 유리판에서 시선을 들며 싱긋이 웃었다. 수업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복잡한 공정을 피할수 있게 된것이다.
고중환은 서류가방을 열고 타자를 친 시험문제를 꺼내놓았다.
《여기서 몇문제 고르십시오.》
정금화는 지난해에 출제되였던 문제들을 골라들었다.
《부부장동지도 시험장에 들어가보지 않겠습니까?》
교장이 정금화를 따라 일어설 기색을 보이며 물었다.
《시험감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나나 교장선생보다도 정금화선생이 더 잘 알겁니다. 우리는 그사이 학교사업이나 의논합시다.》
교장은 미심쩍어하는 눈치였다. 정금화 혼자서 시험감독을 하게 되면 그 성적을 믿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였다. 고중환도 그런 의심이 노상 없지 않았다. 정금화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문제풀이의 실머리를 귀띔해줄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교육자적량심을 믿을수밖에 없었다. 교장의 의견대로 두 사람이 곁따라 시험관으로 들어간다면 정금화에 대한 불신을 학생들앞에서 드러내는것으로 되는것이다. 정금화는 교장에게 무슨 말인가를 할듯 하더니 고중환을 돌아보고는 말없이 문밖으로 나갔다. 교장을 얼핏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교장선생, 나를 믿으시오!)
교장은 소리없는 그 항변을 느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홀로 사는 녀성이다보니 자존심도 높고 고집도 센편입니다.》
고중환은 교장에게서 학교실태를 알아보았다. 사업범위가 넓은 그는 1중학교에 나와보기도 쉽지 않았다. 어느새 한시간이 지나갔다.
학생들의 시험지를 든 정금화가 들어왔다.
고중환과 교장은 하던 말을 중단하고 그에게 머리를 돌리였다. 정금화는 그늘이 짙은 얼굴로 천천히 다가왔다.
《어떻게 되였습니까?》
고중환이 물었다.

《예상밖으로 성적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정금화는 락제를 한 학생이 교원앞에 섰을 때처럼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렇게도 신심에 넘쳤던 자신이 부끄러웠던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 문제중에서 한 문제도 풀지 못했습니다. 세 문제를 다 푼 학생은 한 학생뿐이였습니다.》

《그것 보시오.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아직은 세계적인 경연무대에 나설만 한 수준에 오르지 못했단 말입니다.》

턱을 들고 정금화를 민망스레 바라보던 교장이 퉁명스레 하는 말이였다.

《저는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이렇게 락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금화는 그 무슨 죄라도 지은듯이 머리를 깊이 숙이였다.

《선생은 국제수학올림픽을 학기말시험이나 학년말시험쯤으로 알고있었겠지요. 이따금 지나친 주장을 고집하군 하는데 오늘 시험을 쳐보길 잘했습니다.》

교장은 말마디에 힘을 주었다. 빈번히 자기앞에서 고집을 세우는 정금화에게 이번 기회를 빌어 오금을 박으려고 하는것 같았다.

고중환은 그들을 일별하며 생각했다. 지난날 그들사이의 관계는 알수 없었으나 이 순간 교장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여겨졌다. 가뜩이나 피로와하는 녀교원의 마음을 아프게 자극할 필요가 없었다. 설사 잘못된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금화로서는 그럴수 있었다. 교원이 자기가 배워준 학생들의 실력에 지나친 확신을 가지는것은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 눈이 무딘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믿음과 사랑도 그럴수 있었다. 학생들의 교육에 애를 태우며 자기의 지식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온 교원일수록 그러한 심정이 더할수 있었다.

그러나 정금화는 학생들의 성적에 공정한 평가를 내릴줄 알았다. 그는 혼자서 시험을 감독했으나 학생들의 성적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것은 그가 교육자적량심을 귀중히 여긴다는것을 말해주었다. 고중환은 위로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정금화선생,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이제 경험을 축적하면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는 정식경연무대에 당당히 진출할수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것만 같습니다.》

정금화는 애달픈 시선으로 고중환을 마주보았다.

《선생의 심정은 리해합니다.》

《국제수학올림픽시험문제들을 우리 학교에 두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교수사업에 참고할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중환은 요구대로 시험문제들을 정금화에게 넘겨주고 학교를 떠났다. 그는 정금화를 두고 모순된 감정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그 녀교원이 교육자다운 량심을 지니고있으면서도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지내 강해보였다.

×

《1중학교 학생들에게 정작 시험을 쳐보니까 실태가 그렇단 말이지요.》

고중환의 보고를 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중한 어조로 뇌이시였다. 가슴에 서려드는 실망감에 저절로 입밖으로 새여나오는 혼자말씀이시였다. 그이의 시선은 송구한 기색으로 앉아있는 고중환이 아니라 창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가를 응시하고있었다. 1중학교 교육수준이 아직 세계적인 높이에 비해 그렇게 뒤떨어져있단 말인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이 그 거리를 명백히 말해준다고 할수 있겠지만 왜서인지 잘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1중학교의 창설과 그 발전에 기울여오신 관심과 거기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도 크셨기때문인지도 몰랐다. 지나온 나날이 회고되시였다. 일찌기 문예부문을 지도하시면서 그 부문에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각 도마다 예술학원을 내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부문에서도 믿음직한 후비육성을 위해 수재학교를 내올 구상을 품으시였다. 그러나 굳어진 편견에 사로잡혀있던 교육부문의 적지

않은 일군들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을 생동한 사실로 설득시켜야 했다. 마침 서예에 뛰여난 재능을 가진 나어린 소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경탄시켰다. 하루는 당과 정부의 책임일군들과 교육부문 일군들이 그 소녀의 서예솜씨를 구경하게 되였다. 어린 소녀가 자기의 작은 손으로는 거머쥐기도 어려울만큼 큰 붓을 고누어들고 박력있는 활달한 필체를 보여줄 때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때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발전을 위해서도 뛰여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학교를 내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까닭을 설명하시였다. 조국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은 우수한 과학자를 얼마나 많이 키워내는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과학연구사업은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남다른 두뇌를 가진 선발된 인재들만이 할수 있다, 50년대 후반기부터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과학인재육성을 위한 수재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도 지체없이 수재교육을 하여야 한다, 재능은 후천적이지만 소질은 선천적이다, 주어진 소질은 동일한 교육조건에서도 뛰여난 판단과 추리를 낳게 하는 귀중한 바탕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재교육을 잘하여 우수한 과학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면 우리 시대에 반드시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다.

**김정일**동지의 절절한 호소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가 훌륭한 구상을 하고있다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적극 찬성하시였다. 그제서야 머리를 기웃거리던 다른 일군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재교육을 하루라도 늦잡을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였다. 땅속에 묻혀있는 자연부원은 설사 오늘 캐여내지 못한다 하여도 어느때든지 캐여낼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되여있다. 필요하다면 미래를 위하여 아껴둘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자원은 때를 놓치면 상실되고마는것이다. 인간의 한생은 제한되여있으며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훌륭한 재능으로 꽃피워주는 교육년령기도 한정되여있다.

그이께서는 절박감에 사로잡혀 수재학교의 창립사업을 힘있게 내

미시였다. 학교의 청사를 수도의 가장 경치좋은 곳에 훌륭히 건설해주실 결심을 품으신 그이께서는 평양시부감도를 놓고 여러곳을 탐문해보시였다. 어느날 이른새벽 지도에서 점찍어두셨던 여러곳을 가보시던 끝에 만수대언덕이 마주보이는 보통강변에 이르자 이곳에 터를 잡기로 하시였다. 그날 새벽에는 이른봄의 진눈까비가 지겹게 내리였다. 하지만 그것이 미구에 일떠설 이 학교를 축복하여 하늘이 보내는 꽃보라처럼 여겨져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맞으며 몇번이고 그 아근을 다시 돌아보시였다. 나무랄데없이 좋은 위치였다. 그후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하여 지체없이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시였다. 수재학교가 선다는 소식은 온 나라를 격동시켰다. 전국의 지원밑에 빠른 시일내에 웅장화려한 교사가 일떠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학교에 최신교육설비와 교구비품들을 갖춰주도록 하시였다. 준공의 그날 학교에 나가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교실들과 실험실들을 돌아보며 학생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였다. 훌륭한 교육설비들로 갖추어진 교실들과 실험실들을 돌아보시니 더없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시였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참으로 보람있는 일을 하였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높낮이를 자유로 조절할수 있는 학생용책상을 마주하고 폭신한 의자에 앉아보셨을 때에는 멀리 흘러가버린 청소년시절로 되돌아가 이 학교에서 한번 배우고싶기도 하시였다. 하지만 녀학생실습실에 들려보시니 약간 아쉬운것이 있었다. 다른 주방설비들은 어느것이나 최신설비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뒤떨어진것이라고 볼수 있는 가스곤로가 눈에 띄였던것이다. 그래서 전자렌지로 바꾸어주라고 일군들에게 이르시였다. 최신과학의 요새를 점령해야 할 사명을 안고 배우게 된 학생들인것만큼 그들이 다루고 리용하는것이 어느 하나라도 첨단수준에서 뒤떨어져서는 안되였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배운것에 토대하여 새것을 창조하기마련이다. 미래의 우리 과학계를 대표하게 될 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나라의 평균기준보다 멀리 앞선 생활조건과 학습조건을 갖추어주어야 했다. 나라의 부담이 크더라도 그것이 곧 조국의 미래를 앞당겨오는 길

이기때문이였다.

이날 학교를 다 돌아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수재는 더없이 귀중한 나라의 재부이고 보배입니다. 수재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재교육에 힘을 넣으면 래일에는 세계과학기술의 앞장에 설수 있고 우리의 두뇌진이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설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학교를 돌아보니 각 도들에도 이런 학교를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는 도당책임비서들이 책임지고 도소재지들에 시급히 수재학교를 세우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평양1중학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공장이나 광산을 건설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좀 미루더라도 수재학교부터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후 한두해사이에 1중학교가 10여개로 불어났다.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흘렀다. 이제는 그 학교들의 교육사업이 자기 궤도에 들어설 때가 지났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국제수학올림픽경연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쳐보니 태반의 학생들이 한문제도 풀지 못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걸려서 그렇게 되였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쏘파에 앉아있는 고중환에게 머리를 돌리시였다.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그렇게 낮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국제수학올림픽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교육부문 일군들과 더 토론도 해보고 그들을 동원해서 지방 1중학교들에도 나가 시험을 쳐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방청으로 참가하겠는가, 정식성원으로 참가하겠는가를 결정합시다.》

《알겠습니다.》

고중환은 그이께서 국제수학올림픽참가문제에 얼마나 심중히 대하시는가를 다시금 깊이 깨달았다. 그럴수록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정확한 견해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 3

황석태는 어떻게 세괃게 낫을 후려치는지 번쩍이는 낫날에서 휙휙 휘파람소리가 났다. 팔뚝같은 강냉이대들이 뭉청뭉청 잘리웠다. 방금 잘리운 강냉이대 밑둥에서는 금시 말간 즙액이 솟아올랐다.
오늘은 금요일이다. 제련소종업원들에게 풋강냉이를 공급하려고 사무원들과 함께 부업농장에서 강냉이가을을 하는 황석태는 신바람이 났다. 이 밭으로 말하면 재작년에 그가 앞장에 서서 개간을 한것이였다. 해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맬 때에도 이 밭에 아낌없이 땀을 뿌렸다. 제 손으로 얻어낸 밭에서 제 손으로 가꾼 강냉이를 수확하는것이여서 이다지도 즐거운것일가? 두고랑을 타고 베여나가지만 한고랑씩 맡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섰다. 런닝그는 줄지어흐르는 땀에 화락하니 젖어버렸다. 강냉이잎에 스치며 빨갛게 실금이 간 덜미와 팔굽의 피부로 땀이 배여들며 얼얼한 느낌을 주었다. 그 느낌은 아픔보다도 활기찬 로동의 열기를 피부에 자극해주는듯싶었다.

《비서동지, 이거 막 쓰러질 지경입니다. 좀 쉬고 합시다.》

뒤에서 애원과 웃음기가 겹쳐흐르는 녀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석태는 비로소 허리를 폈다. 갑자기 눈이 쓰리였다.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할 때에는 얼굴에 내돋는 땀이 그대로 땅우에 떨어졌으나 곧추 서고보니 눈으로 흘러들었다. 꽁무니에 찼던 수건을 얼른 뽑아서 얼굴을 문질렀다. 그리고나서 뒤를 돌아보았다. 종합식당책임자녀인이 낫을 들고 서있었다. 어지간히 거리가 멀어서 표정은 가늠되지 않았으나 기를 쓰고 따라오려다가 그만 힘이 진한 모양이다. 선자리에서 잠시 쉬고있는 다른 사람들도 보이였다. 시계를 보았다. 일손을 잡은지 두시간이 넘었다.

《자, 휴식합시다!》

그는 큰소리로 웨쳤다. 기다렸다는듯이 밭이랑마다에서 강냉이개꼬리우로 사람들이 머리를 들었다. 자기에게로 쏠리는 그들의 시

선을 의식한 황석태는 남먼저 밭머리의 버드나무밑으로 갔다. 혼자였다면 팔다리가 시도록 강냉이를 더 베여나갔을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일손을 놓지 않으면 누구도 휴식을 하려고 하지 않을것이 뻔했다.

오이랭국바께쯔를 들고나온 녀자들 셋이 버드나무그늘밑에서 기다리고있었다.

황석태는 한 녀자가 늪식기에 떠주는 오이랭국을 단숨에 쭉 들이켰다. 가슴이 시원히 열리는듯 했다. 로동이란 이래서 좋은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랭국을 마시며 즐겁게 떠들었다. 어떤 남자들은 랭국보다 먼저 담배부터 피워물었다.

황석태는 전이 넓은 밀짚모자로 슬슬 부채를 부치며 강냉이밭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로동자들과 함께 돌을 춰내고 나무뿌리를 뽑으며 그 밭을 일구던 낮과 밤들이 생각났다. 질통을 지고 달리다가 추켜든 홰불에서 불찌가 떨어지는통에 솜저고리를 태워먹은 곳이 저기가 분명하지. 주먹을 흔들며 부업지개간에 몸을 사리는 일군들을 눈알이 빠지게 지적하던 현지 당회의장소는 바로 여기 버드나무밑이고…

《비서동지!》

한순간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는데 다급히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부업농장 책임자 한석규였다. 눈이 우묵하고 코날이 성큼한 그는 물날은 군복차림의 젊은이였다. 군대에서 중대사관장을 하다가 작년에 제련소에 왔다. 황석태는 부업농장을 추켜세우려고 그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오늘 그는 금요로동을 나온 사람들의 후방사업을 위해서 밭에 나오지 않고 남아있었다.

《비서동지, 박치영동무한테서 농장에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헐썩거리며 달려온 책임자는 숨가쁘게 말했다. 황석태는 저으기 긴장했다. 박치영네가 실험을 하다가 사고라도 낸게 아닌가? 지금까지 그들의 실험은 거듭 실패만을 하여왔다.

《무슨 일로 전화를 걸어왔소?》

성급히 재촉했다.

《실험에서 드디여 성공했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비서동지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황석태는 걷잡을수 없는 기쁨에 허둥거리며 한석규의 어깨를 와락 부여잡았다. 저도 모르게 눈앞에는 박치영의 발기를 지지하게 된 때부터 오늘까지의 일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연구소를 다녀가신 그날부터 황석태는 그이께서 주신 과업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티탄합금가공문제가 얼마나 절박하였으면 그이께서 친히 연구소에 찾아오셨으랴! 생각할수록 피가 끓었다. 그는 지나온 나날에 그이께서 주신 과업을 놓고 언제 한번 주저하거나 타산을 앞세워본 일이 없었다. 불타는 충성심과 넘쳐나는 정력은 그를 언제나 자신심으로 충만시켰다. 그러한 자신심은 다년간 건설장과 제련소에서 당사업을 맡아하는 과정에 그 어떤 장애와 저항도 뚫고나가는 완강한 기질로 굳어졌다. 과학연구가 특수한 분야의 창조활동이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당조직이 대중을 어떻게 발동시키는가에 달려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 이튿날 연구소의 학자들과 제련소의 유능한 기술자들을 회관에 모아놓고 궐기모임을 조직했으며 그다음부터 그들과 여러번 자리를 같이하고 방도를 토론했다. 그러나 누구나 일반적인 결의들을 토론할뿐이지 과학기술적인 착상이나 방도를 내놓지 못했다. 황석태는 과학기술연구사업이야말로 지금껏 자기가 알고있는 다른 사업들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사업이라는것을 비로소 깨닫는듯싶었다. 그런데 하루는 박치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귀가 번쩍 열리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는 일본에 갔을 때 그들이 만든 가공설비를 보고 그 원리가 어떤것인지를 판단할수 있었습니다.》

박치영은 자기가 판단한 기술적원리의 내용들을 설명했다.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경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치영의 추리와 판단이 참으로 놀라왔던것이다. 자기에게 쏠리는 경탄과 선망의 시선을 느낀 박치영은 더욱 활기를 띠고 말했다.

《가공설비의 기술원리들을 알고있는 이상 그것을 만들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전자자동화공업수준을 고

려할 때 남들것처럼 고도로 자동화된 설비는 불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작업공정에 손로동이 가해지는 설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치영은 그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렬거하기 시작했다.

황석태는 흥분했다. 며칠을 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애를 태우던 가슴에 박치영의 말마디들이 단비가 되여 뿌려지듯 했다. 학술내용은 알수가 없지만 처음으로 해결방도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자체가 무등 반가왔던것이다.

박치영이 자리에 앉자 황석태는 기대어린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다.

《동무들, 어떻습니까? 이 동무의 발기가?》

좌중이 술렁거렸다. 박치영을 다시 쳐다보며 그의 과학적판단이 예민하고 놀랍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이 언제 저렇게 깊은 지식을 쌓았는가고 격찬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견해였다.

그런데 오래동안 침묵을 지키던 양영복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잦아들자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시는바와 같이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학자로서 이 장소에서 신통한 방도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렇다할 구상을 못 가지고있는 저로서는 그 무슨 의견을 말할 면목도 없습니다. 죄스러울뿐입니다. 치영동무의 발기를 듣고보니 그를 잘 알고있는 저로서도 놀람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영동무의 발기에는 모순점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설비에 갖추어진 수감부와 정밀측정계기에 의한 자동조종장치는 우리로서 불가능합니다. 치영동무는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여 작업공정을 맞물려줄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외국의것을 본따면서도 여러가지 특수한 부분품들의 제한으로 그보다 훨씬 성능이 못한 설비를 만든다는것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 개인으로 말하면 민족적의분을 풀기 위해서도 놈들의 거만스러운 코대를 꺾을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월등한 티탄합금가공기술을 탐구해볼 결심입니다.

현재 앞선 나라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착가공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인류가 티탄을 생산리용하기 시작한것은 금세기 중엽부터이기때문에 그 생산과 가공에서는 아직 연구의 여지가 많습니다. 압착가공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것입니다. 기왕 가공설비를 우리자체로 만들바치고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남들의것보다 합리적이고 효률적인 월등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합쳤으면 합니다.》

황석태는 양영복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남들것보다 월등한 기술을 개발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가지 조건의 제약으로 다른 나라것을 모방하기조차 어려운 조건에서 그것이 가능할것인가? 가능하다면 먼 후날의 일일것이다.

《양선생의 포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쯤이면 그에 대한 연구를 끝낼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한정할수 없는 먼 후날에 목표를 둔 연구과제를 토론하는 모임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생산으로 넘어가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며칠을 두고 토론이 더 계속되였다. 그랬으나 더이상 누구도 신통한 방도를 내놓지 못했다.

어느날 저녁에 조용한 기회를 타서 박치영이 황석태를 찾아왔다.

《비서동지, 저에게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준다면 몇달사이에 연구를 완성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보장해주겠소. 무엇이 필요하오?》

《저는 연구소안에서 연구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석태는 힘겹게 말을 번지는 박치영의 심정을 리해했다. 양영복 박사와 연구소소장이 반대를 하는 조건에서 그들의 학술적권위와 직권에 눌리워 마음대로 연구사업을 하기 힘들것이다.

《그래서?》

《저를 당분간만이라도 제련소공업시험소에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연구소와 공업시험소에서 제가 선발하는 사람들로 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무어주십시오.》

《알겠소, 토론해봅시다.》

부쩍 마음이 내켰지만 서뿔리 자기 혼자서 결론할 문제가 아니였다. 다른 문제라면 즉시에 결심을 가졌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깊이 알지 못하는 과학기술문제였다. 황석태는 제련소기술일군들과 여러차례 의논했고 연구소의 몇몇 학자들과도 토론했다. 박치영의 발기를 의심쩍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마침내 결심을 가지고 박치영의 요구대로 대책을 세워주었다. 전화로 과학원 림수봉부원장을 설득시켜서 박치영을 림시 공업시험소로 적을 옮기였다. 그리고는 능력있는 10여명의 사람들로 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무었다. 그들은 박치영의 주도하에 비상한 열의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벌리였다. 그 누구보다도 박치영은 분과 초를 쪼개가며 하루하루를 이어왔다.

황석태는 과학탐구에 쏟아붓는 젊은 학자의 열정에 못내 감탄했다. 의무감이나 자각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것이였다. 성공을 하였다는 오늘의 실험은 열두번째만이다. 거듭되는 그 실패에는 위험의 고비도 여러번 있었다. 그 고비들을 넘어 성공에 도달한 치영동무의 심정은 어떠할가? 한시바삐 달려가 그를 축하해주고 싶었다.

버드나무그늘밑에 퍼더앉았던 사람들도 모두 일어서서 기쁨에 넘쳐 웅성거렸다.

《내 이제 곧 제련소로 들어가겠소!》

황석태는 누구에게라없이 흥분하여 부르짖었다.

《비서동지, 조금만 기다리면 삶은 강냉이를 내올텐데 한이삭 잡숫고 가세요.》

오이랭국을 풀어온 녀인의 말이였다.

《지금 삶은 강냉이는 여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한가마 삶아서 제련소에 보내주시오. 나는 그걸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과 같이 먹겠소.》

흥겨운 어조로 그렇게 말한 황석태는 퍼끗 떠오르는 생각에 경리과장을 불렀다.

《오늘 수확한 풋강냉이를 제련소직원들만 주지 말고 연구소직원

들도 똑같이 주시오, 한두키로그람씩이라도.》
《비서동지, 그건 지나친 선심입니다.》
《어째서?》
《그들이 이 밭을 일쿨 때 흙을 한삽 떴습니까, 강냉이밭김을 한고랑 맸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그래 과학자들이 연구사업을 줴버리고 밭이나 일구고 밭김이나 매야 하겠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련소직원도 아닌데 뭐 우리가 가꾼 풋강냉이까지 주겠습니까?》
《경리과장동무!》
황석태의 입에서 격분한 목소리가 터졌다. 연구사들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경리과 일군들에 대해 쌓였던 불만이 터졌다. 시퍼런 정맥관이 목밑에서 풀떡풀떡 뛰였다.
《동무도 당원이요? 과학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것은 지난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이요! 나나 동무와 같은 사람은 수백명이 있어도 과학자 한사람이 하는 일을 못하오. 이자 돌이켜보니 나부터 생각을 잘못했소. 제련소직원들에게 한키로그람을 준다면 과학자들에게는 두키로그람씩 주시오, 알겠소?》
경리과장은 기가 질리여서 굳어져버렸다.
《알겠습니다.》
《늘 봐야 동무들은 연구사들을 남의 집식구처럼 여기거던. 옳지 않소! 다음번 경리과세포총회에 내가 나가보겠소. 동무들의 그릇된 사상관점을 뿌리빼야 하겠소!》
황석태는 단단히 오금을 박고 삑 돌아섰다. 농장사무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얼마쯤 노기가 가셔졌을 때 뒤를 따라오던 한석규가 입을 열었다.
《제련소에 가면 박치영동무에게 저의 축하의 인사도 전해주십시오. 정말 그 동무는 타고난 과학자입니다. 저는 꼭 성공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지!》
말하는양을 보니 그는 박치영과 잘 아는 사이인듯 했다. 여기서

제련소까지는 20여리, 거리도 멀거니와 그들사이에 사업상련계도 있을상싶지 않은데 가까운 사이라면 그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을것이다.

《동무는 어떻게 박치영동무를 알고있소?》

《그 연구사동무한테서 개별수업을 받고있습니다.》

《개별수업이라니?》

《그 동무가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저는 공부를 하다가 모를것이 있으면 그 동무를 찾아가군 했습니다.》

《그랬댔군.》

황석태는 짐작이 갔다. 농장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한석규는 마지못해 수긍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비서동지, 제대되면서 저는 대학에 갈 희망을 품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입니다.》

《농장에 나가서 일을 잘하면 내 2~3년안으로 동무를 인민경제대학에 추천해주겠소.》

황석태는 그때 그렇게 약속했었다. 한석규는 대학에 가려고 입학시험공부를 하면서 자기또래의 허물없는 지도교원을 물색하던 끝에 박치영을 알게 되였을것이다.

《그래 지금도 박치영동무의 개별수업을 받고있소?》

《부업농장에서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기회마다 치영동무한테서 배우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군. 내 박치영동무에게 동무의 축하를 꼭 전하겠소.》

농장사무실에 잠간 들렸던 황석태는 승용차를 타고 제련소로 향했다.

티탄합금직장 마당에는 먼저 소식을 듣고 모여선 사람들로 붐비였다. 박치영은 그들에게 어항과 비슷한 형태로 가공된 티탄합금을 들고 불활성가스속에서 프레스압착에 성공한 기술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황석태가 차에서 내리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였다. 뒤설레던 분위기가 일시에 잦아들었다.

황석태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의 사품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박치영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박치영의 눈에 대뜸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자기의 눈시울도 화끈해지면서 목이 메여왔다. 한참동안 말없이 꽉 거머쥔 손에 힘을 주다가 연구집단의 다른 사람들의 손을 차례로 잡아주었다.

《동무들, 수고했소. 성공을 축하하오!》

저으기 목이 열리여서 박치영에게 하지 못했던 치하와 축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였다.

《비서동지가 그동안 우리들의 사업을 끊임없이 고무해주었기때문에 성공할수 있었습니다.》

연구집단에 망라되였던 공업시험소 부소장이 일동의 심정을 대표하듯 그렇게 말했다. 그는 이 순간에 끓어오르는 진정을 말했으나 황석태는 듣기가 거북한듯 미간을 찌프리며 응대없이 머리를 돌려버렸다.

예술선동대대원들이 축하의 노래를 안고 달려와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원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박수와 환영곡이 구내가 떠나갈듯 울리였다.

## 4

《여보, 산보시간이 되였어요!》

박씨는 서재에 들어서며 명령조로 깨우쳤다. 그전이라면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였다. 비록 마누라라 하더라도 양영복은 자기의 사색을 깨뜨리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창 탐구에 골몰하는 때에는 누구도 서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몇달전부터는 한생을 엄격히 지켜오던 가정의 그 법도가 달라졌다.

언젠가 황석태가 제련소병원의 녀의사를 데리고 집을 찾아왔다. 그는 녀의사더러 양선생이 무리하지 않도록 몸조리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일과를 짜주라고 하였다. 양영복은 일본에서 도진 심장병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데다가 나날이 걷기도 힘들어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보약을 달여먹으며 연구사업을 하게 하였다.

그냥 두면 출퇴근에 소모하던 시간까지 연구사업에만 전념할것이 뻔했다. 건강을 념려하여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한노릇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었다. 황석태는 그것이 걱정되여 찾아왔던것이다.

《양선생, 앞으로는 이 의사선생이 짜주는 일과대로 꼭 생활해야하겠습니다.》

그 당부에 양영복은 싱긋이 웃을뿐이였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황석태는 곁에 앉은 박씨에게 부탁했다.

《부인님이 제정된 일과를 엄격히 지키도록 양선생을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아이구, 그 령감이 내 말을 들을게 뭡니까?》

박씨는 눈가에 주름이 깊이 패이도록 눈웃음을 지으며 령감에게 눈을 흘기였다.

《양선생이 집에서 그렇게 부인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령감 고집이야 세상이 다 알지 않수.》

《이거 안되겠구만. 그렇다고 내가 늘 이 집에 와서 양선생의 일과를 집행해줄수도 없고…》

그 무슨 중요한 문제의 해결방도라도 모색하듯이 심중한 표정을 지어보이던 황석태가 박씨에게 자못 엄숙히 말했다.

《당원 박혜정동지에게 당원 양영복동지의 일과를 책임지고 집행할데 대한 당적과업을 주겠습니다. 이 과업을 박혜정동지에게 주는 고정분공으로 결정하도록 가두당세포에도 의견을 주겠습니다.》

황석태의 표정과 어조가 하도 엄엄하여서 박씨는 느닷없이 마음이 긴장되였다. 얼른 령감의 눈치를 살피였다. 느슨한 웃음이 떠돌던 령감의 얼굴에도 숙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자기의 건강을 그토록 념려하는 당비서의 마음에 감심한 모양이다.

집을 떠나면서 황석태는 박씨에게 재삼 강조했다.

《과업집행정형을 당세포에는 물론 한달에 한번씩 나에게 직접 보고하십시오. 무슨 애로가 제기되면 아무때고 나를 찾아오십시오.》

가두당세포에서는 초급당비서의 의견대로 해당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그후부터 양영복의 집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부부간의 처지가 뒤바뀌였다. 무슨 일에서나 남편의 말에 공손히 순종해오던 안해가 자기의 의사에 남편이 복종할것을 당당히 요구해나섰다. 물론 그것은 일과집행에 국한되여있었다. 처음 며칠은 박씨가 애를 먹었다. 생활의 타성이란 검질긴것이다. 남편은 약을 먹는 시간이나 휴식시간, 산보시간을 여전히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서재에서 나가오!》

신경질을 부리며 소리쳤다.

박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당조직관념이 없는 당신을 초급당에 보고하겠어요!》

마음을 도사리고 큰소리로 맞받았다. 약을 달여놓고도 속을 태우며 몇시간씩 기다리던 어제날의 그가 아니였다.

양영복은 책에서 시선을 떼고 낯선 사람을 보듯이 놀라운 눈길로 안해를 바라보았다.

《당신 언제부터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소?》

《그걸 몰라서 물어요? 어서 일어서세요!》

《허참.》

양영복은 속빈 웃음을 터뜨리며 하는수없이 일어섰다.

박씨는 자기의 요구에 순응하는 남편을 지켜보며 일종의 흐뭇한 긍지감을 느끼였다. 동네에서는 어른, 아이 할것없이 자기의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박사집할머니》로 통했다. 영림바닥에서도 아무개박사의 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테지만 자기의 이름을 댄다면 아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오직 남편의 후광속에서만 자기의 존재가 있었다. 그러한 처지에 오래동안 습관되다보니 언제 한번 남편앞에서 자기를 주장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가정에서 비로소 동등한 위치를 차지한듯싶었다. 그러한 변화는 부부간의 사이를 버성기게 하는것이 아니라 더욱 살틀하게 하였다. 령감이 적당히 휴식도 하고 제때에 잠자리에 들다보니 자연히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어볼 기회가 많아졌다. 더구나 즐거운것은 산보시간이였다. 령감을 부축하고 어깨나란히 걸으면서 흘러간 시절의 추억도 나누었고 남들이 보지 않는 호젓한 숲

속에 이르러서는 조용조용히 목소리를 합쳐가며 옛시절의 노래도 함께 불렀다. 박씨는 인생말년에 이렇게도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에 잠겨보는것이 꿈만 같았다. 청춘시절에도 그들부부간에는 있어보지 못한 일이였다. 남편은 한생을 시간을 짓쪼개며 살아왔다. 과학자에게는 늘 시간이 부족했다. 만일 박씨가 같은 과학자였다면 과학문제를 두고 밤을 새우며 론담을 벌렸을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박씨는 과학을 몰랐다. 그들부부간에는 할말이 별로 없었다. 박씨쪽으로 보면 가정의 사말사를 두고라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싶었지만 남편은 젊어서부터 가정일을 전적으로 안해에게 맡겨버렸다.

박씨는 애타는 침묵속에 흘러간 과거를 벌충할 때가 마침내 왔다고 생각했다. 시간도 생기였고 인제는 화제도 생기였다. 여전히 과학문제나 사회정치문제 같은것은 화제에 올릴수 없지만 지난 시절의 추억담은 함께 나눌수 있었다. 과학밖에는 다른 잡생각을 모르던 령감도 나이탓인지 옛시절을 즐겨 돌이켜보았다.

저녁산보는 7시부터 8시까지였다.

박씨는 오늘도 그 시간을 기다리며 더디게 돌아가는 벽시계를 몇번이고 쳐다보다가 서재에 들어선것이다.

《여보, 들었어요? 산보시간이 다되였어요!》

박씨는 들은체도 않고 그 무엇을 쓰고있는 령감의 어깨를 흔들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되였나?》

양영복은 자기 생각에서 미처 풀려나지 못한 흐릿한 눈으로 로친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빨리 일어서시라요.》

박씨는 정색한 낯빛으로 령감의 팔굽을 잡고 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옷걸이에서 다림발이 생생한 연회색샤쯔와 흰 바지를 가져왔다.

《어서 이걸 갈아입어요.》

《뭐 직장에 가는것도 아니고 산보를 가는 걸음인데 입은대로 나가지.》

양영복은 자기의 차림을 돌아보며 귀찮게 응대했다. 방안에서 입

고있던 바지와 남방샤쯔는 오래된것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밖에 나서도 괜치 않을것 갈았다.
《어서 갈아입수다. 우리가 산보길에 나서면 숱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나요.》
양영복은 로친의 성화에 하는수없이 새옷을 갈아입었다. 박씨는 그의 옷깃을 펴주며 시뭇이 웃었다.
《그렇게 차리니 얼마나 좋수, 한결 젊어보이구…》
양영복은 새삼스레 로친의 차림을 살폈다. 하르르한 나이론천으로 지은 흰색치마와 미색적삼을 떨쳐입었다. 그에게 그런 옷이 있었던가싶게 전에는 입어본 일이 없는 나들이옷이였다.
품위있는 여름철옷으로 차림을 한 그들은 집을 나섰다. 양영복은 한손에 단장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박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부축이 없이는 쉬이 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다.
한창 퇴근길이여서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병치료를 위해 걷는 산보길이지만 남들의 눈에는 여생을 즐기는 다정하고 행복한 로인내외로 비끼였다. 오가는 사람마다 그들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저쯤 돼야 늘그막에도 사는 재미가 좋을텐데…》
홀로 걷던 로인이 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어느새 사람들의 왕래가 번화한 거리를 벗어났다. 그들은 물매가 완만한 나지막한 언덕을 넘어 산기슭의 숲속에 이르렀다. 내외는 늘 다리쉼을 하던 로송밑에 앉았다. 서느러운 그늘밑으로 저녁바람이 솔솔 불어왔지만 박씨는 큼직한 부들부채로 령감에게 부채질을 하여주었다. 힘겹게 걸어온 양영복은 흠뻑 땀을 흘리고있었다. 어지간히 땀을 들인 그는 로친의 지극한 마음에 가슴이 훈훈해오는것을 느끼며 한마디 롱담을 건늬였다.
《임자 최근에 나를 통제하는걸 보니 남을 다스리는 솜씨가 여간 아니야.》
《새삼스럽군요. 이래뵈두 내가 처녀시절에 제사공장 녀공들을 휘동해서 파업투쟁까지 벌렸댔다는걸 잊었어요? 여태껏 제 죽었수

다 하구있었으니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야 령감 하나쯤 통제 못하겠어요?》

박씨는 눈을 할기며 어깨를 으쓱해보이였다.

《참 그랬었지. 훌륭한 녀성정치가로 될수 있는 재목인데 나한테 와서 신세를 망쳤지.》

《신세를 망친게 아니라 신세를 고쳤지요. 당신같은 사람을 만났길래 무식한 내가 한뉘를 남편덕을 보며 살았지요.》

박씨는 불시로 눈빛이 그윽해졌다. 매미울음소리가 구성지게 들려왔다. 호젓한 숲속의 신선한 공기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송진내로 코안을 자극했다.

로인내외는 석양의 볕발을 바라보며 아득히 흘러간 청춘시절을 머리속에 그리였다.

처녀시절에 박혜정은 함흥제사공장에서 일했다. 비료공장에서 일하던 부모들이 가스폭발로 돌아가자 손우의 오빠와 함께 단 둘이 살았다. 오빠가 페병으로 몸져누운 그해 여름이였다. 사각모를 쓴 대학생이 집을 찾아왔다. 그가 양영복이였다. 가난이 쩌들어붙은 자기 집에 불쑥 나타난 대학생을 보고 혜정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알고보니 대학생은 오빠의 중학시절 학우였다.

양영복은 병이 깊어진 학우를 위해 의사를 불러오고 약을 사왔다. 페병에 감염될수 있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혜정이 밤일을 나가는 때이면 그를 대신하여 밤새워 오빠의 병시중을 들었다.

혜정은 그가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자기의 오빠에게 그처럼 인정깊은 벗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녀동생과 학우는 정성을 다했으나 이미 기울었던 환자의 병세는 걷잡을수 없었다. 오빠는 양영복이 나타난지 스무날만에 죽었다. 혜정은 오빠의 조촐한 장례를 양영복과 함께 치르었다. 양영복은 방학이 끝나자 일본으로 다시 류학의 길을 떠났다. 혜정은 함흥역두에서 그를 눈물속에 배웅했다. 오빠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마저 떠나고보니 사무쳐오는 외로움에 눈물이 쏟아졌다.

렬차의 승강대에 오른 양영복은 차실로 얼른 사라지지 못하고 측은히 이쪽을 바라보았다. 하더니만 트렁크에서 책 한권을 꺼내주었

다. 프랑스의 처녀영웅 쟌 다르크에 대한 책이였다. 부모들의 생존시에 소학교를 다닌 혜정은 그 책을 읽을수 있었다. 고된 일에 시달리면서도 며칠사이에 다 읽었다. 그 책을 주고간 양영복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벗의 녀동생이 쟌 다르크처럼 굳세고 용감한 처녀영웅이 되기를 원하였을것이다. 혜정은 그 심정을 생각할수록 양영복의 모습이 그리워졌다. 물론 후날에 그를 사랑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무렵에 제사공장에서는 왜놈직공장이 한 녀공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를 계기로 녀공들은 파업에 떨쳐나섰다. 혜정은 그 앞장에 섰다가 2년형을 받고 수감되였다. 겨울방학으로 다시 집에 왔던 양영복이 감옥으로 면회를 왔다. 그때 반갑던 심정은 죽어서도 잊을수가 없었다. 두 청춘의 세찬 눈빛이 철창을 사이에 두고 부딪쳤다. 양영복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싸웠다는 얘길 들었소.》

《이렇게 찾아와주어서 고마워요, 오빠!》

혜정의 눈에는 마주서있는 양영복이 죽은 오빠의 모습으로 뒤바뀌여보이였다. 철창을 부여잡은 혜정의 손을 양영복의 손이 감싸쥐였다. 혜정의 입에서 느닷없이 울린 《오빠》라는 부름에 그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혈육의 감정을 느꼈을것이다.

혜정은 이듬해 가을에 형기를 마치였다. 드디여 자유로운 몸이 되였으나 살길이 막막했다. 제사공장에서는 다시 일자리를 주려고 하지 않을것이 뻔했다. 절망에 휩싸여 며칠을 보낸 어느날에 양영복의 소식을 들었다. 일본에서 돌아온 양영복은 흥남제련소에 기술자로 입직했다고 하였다.

혜정은 그를 찾아갔다. 구원을 바라서가 아니라 친오빠처럼 보고싶었기때문이였다. 제련소의 기사들이 사는 합숙호실은 놀랄만큼 깨끗하고 화려했다. 방안에 들어선 혜정은 어리둥절했다. 양영복은 고학을 하던 어제날의 대학생이 아니라 조선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당당한 기술자였다. 달라진 그의 처지가 다소 서먹한 감정을 불러냈다. 하지만 양영복은 예나 다름없이 친절히 맞이했다.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양영복이 물었다.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소?》
《글쎄 어쨌으면 좋을런지…》
절망적인 처지를 되돌아보며 혜정은 한숨과 함께 말끝을 삼켰다.
《그쪽에서 반대없다면 혜정씨가 늘 내곁에 있어주었으면 하오.》
혜정은 의혹어린 시선을 들었다. 그의 말뜻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서로 마주보는 시선이 얽힌채 한동안 풀릴줄 몰랐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안되겠느냐 말이요.》
양영복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다. 그를 바라보던 혜정은 전신의 피가 흐름을 멈추는듯 했다. 사무쳐오는 그리움에 양영복을 무시로 그려보면서도 자기들사이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두 청춘이 결합되기에는 여러모로 격차가 심하였다. 그것을 날카롭게 의식하며 혜정은 당황했다.
《안돼요, 그럴수 없어요!》
얼결에 부르짖으며 고개를 푹 떨구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불로 지지듯이 눈굽이 화끈했다. 그러한 느낌에 눈물이 뒤따랐다. 양영복에 대한 감사의 정과 그것을 받아들일수 없는 애달픈 자각이 뒤엉키며 가슴을 들부셨다.
처녀의 격렬한 흥분에 양영복은 당황하였다. 자기의 고백이 눈물을 쏟도록 그를 노엽혔다고 생각했다. 처녀의 흥분과 눈물이 가지는 복잡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미안하오, 내가 그쪽의 마음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나보오. 난 혜정씨를 진심으로… 그러나 그쪽에서 싫다면… 용서하오.》
눈물로 흐려진 혜정의 시야에 한껏 죄스러운 낯빛으로 용서를 비는 양영복의 모습이 안겨왔다. 부끄러움과 괴로움에 휩싸인 그의 모습이 가슴을 찢었다. 그러자 자기의 전존재를 다 바쳐 그의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고싶었다. 한껏 거북스런 몸가짐으로 어쩔줄 몰라하는 양영복이 한없이 애모쁘게 여겨졌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보호해주어야 할 순진한 어린애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혜정은 분별을 잃었다. 오직 양영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싶은 강렬한 심정만이 전신을 불태웠다. 혜정은 무너지듯 몸을 기울이며 넋없이 중얼거렸다.

《용서는 무슨 용서… 내 마음을 거기선 몰라요. 거기서는 내가 어떻게…》

양영복은 자기에게로 쏠리는 처녀의 몸을 부여안았다.

《진정하오, 내가 공연히… 자기 감정을…》

양영복은 처녀의 몸에서 풍겨오는 뜨거운 열기에 취해버렸다. 어느쪽이나 목이 메여서 더는 아무 말도 못했다. 포옹한 두팔에 서로가 으스러지도록 힘을 줄뿐이였다. …

박씨는 석양의 하늘가에 몽롱한 시선을 보내며 물었다.

《령감이 나한테 청혼을 할 때 말이예요. 그것이 동정심에서였수?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있었수?》

《허, 왜 갑자기 그런 싱숭생숭한 소리를 꺼내는거요?》

양영복은 어처구니가 없는듯 퉁명스레 되물었다.

《아무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한 나한테 당신같은 사람이 마음을 둔게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아서 하는 말이우다.》

양영복은 덤덤히 먼산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전에 없이 다정히 보내주는 마누라의 속삭임소리가 싫지 않았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누긋한 정이 가슴에 서리는것을 의식했다. 맞장구를 친다면 세월없이 마누라가 이야기판을 벌릴것 같아서 응대를 하지 않을뿐이다.

《여보, 돌아갈 시간이 되였소.》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박씨에게는 돌아갈 시간이 너무도 빨리 다가오는듯 했다. 그러나 하는수가 없다. 일과를 엄격히 통제하는 자기쪽에서 산보시간을 늦잡을수는 없었다.

로인내외는 숲속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박씨는 령감을 부축하고 걸으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어찌된셈인지 이즈막에는 령감과 많은 말을 나누고싶어지는 마음이 앞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지금 하고있는 연구사업은 어떻게 돼가고있어요?》

《나중엔 하지 않던 버릇까지 생기나보군.》

양영복은 마누라를 돌아보며 허구프게 웃었다.

지나온 과거에는 연구사업을 두고 지금처럼 안해가 물어본적도 없었고 그에게 연구정형을 이야기해준적도 없었다. 과학을 전혀 모르는 안해와는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것이다.

《과학의 속내는 모르지만 지금 령감이 하는 연구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알고있어요. 또 령감이 어떤 결심으로 접어드는지도 알구요. 그저 일이 잘돼가는지, 못되여가는지만이라도 말해주구려.》

《잘 안되여간다면 로친이 무슨 뾰족한 수라도 써줄텐가?》

《왜 그리 빗나간 소리를 하시우. 무식한 내가 수야 무슨 수를 쓰겠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성공하기를 축원할뿐이지. 한뉘를 함께 살면서도 언제한번 당신의 연구사업을 도와드리지 못한게 한이 되여서 내 요사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있다오. 어떻게 하나 당신의 건강을 지성을 다해 돌볼 결심이예요. 당신이 그저 건강만 하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 연구사업을 꼭 해낼거예요. 당신은 그걸 해내지 못하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거우다. 내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양영복은 담담히 뇌이는 마누라의 목소리가 하도 곡진하여서 무심결에 낯색을 살피였다. 굳은 결심과 간절한 기대가 어린 마누라의 얼굴이 감빛저녁노을에 붉게 물들었다. 양영복은 마누라의 그러한 표정을 처음 보는듯싶었다.

《로친네, 고맙소.》

부지중에 터친 그 목소리는 과학사업을 두고 안해에게 보내는 평생의 첫 인사였다.

## 5

손관식은 묵직한 책보자기를 들고 전실에 들어섰다.

《양선생 계십니까?》

《네, 서재에 있습니다.》

박씨는 반겨맞으며 행주치마에 물기어린 손을 씻었다. 방금 위생

실에서 빨래를 하다가 주인을 찾는 소리에 나온듯싶었다.

손관식은 서재쪽에 시선을 주고나서 빙긋이 웃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듣자니까 그렇게 고집이 센 양선생이 최근에 부인님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더군요.》

《그 소문이 연구소까지 퍼졌나요?》

박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되물었다. 그러나 주름진 눈가에는 즐거운 웃음이 피여났다.

《휴식참에 모여앉으면 이 집 이야기들입니다. 연구사들중에는 량주가 산보하는걸 띄여본 사람들도 있답니다.》

《원, 저런… 당비서동지가 주고간 과업을 집행하느라고 하는노릇이 늘그막에 웃음거리가 되나보군요.》

《웃음거리라니요, 이 집에서 과학자가정생활의 본보기가 창조된다고 부러워들 하지요. 그래 요새 양선생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좀 나아지는것 같습니다.》

박씨와 몇마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손관식은 양영복의 서재로 들어갔다.

양영복은 베란다가 달린 벽쪽에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양선생.》

불러도 대답이 없다. 곁에 다가가서 다시 불렀다.

《양선생.》

그랬으나 도면에 열중해버린 그는 반응이 없었다. 학술적인 모색에 빠져버리면 헤여날줄 모르는 그였다. 곁에서 아무리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일단 사색에 빠져버리면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의 특수한 신경조직은 이여의것에는 일체 반응을 거부하고 온넋을 집요한 사색으로 몰아갔다. 그때문에 공식적인 모임이나 여럿이 모여앉은 사사로운 장소에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왕청같은 행동을 하여 오해를 사거나 웃음을 자아내는 일이 없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연구소의 젊은 학자들은 그를 《아르키메데스》라고 불렀다. 고대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와 양영복은 그 특이한 사색의 집중력으로 상통되는바가 있었던것이다. 열렬한 애국자이

고 뛰여난 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는 제2차 포에니전쟁때 투척기를 비롯한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는 로마군에게 점령당한 도시에서 과학연구를 계속했다. 정원의 의자에 앉아서 땅에 도형을 그리고 깊은 생각에 빠졌던 그는 자기의 곁에 로마병정이 다가온줄도 몰랐다. 병정의 거치른 발길에 자기의 도형이 밟혔을 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어망결에 호통을 쳤다.

《나의 도형을 밟지 말라!》

무지한 로마병정은 칼을 뽑아서 인류의 자랑이였던 그 학자의 목을 쳤다. 밟지 말라고 소리쳤던 땅우의 도형은 그자신의 피로 물들었다.

탐구에 심취된 양영복을 볼 때면 누구나 세상이 다 아는 이 일화를 련상하게 되였다.

손관식은 이 순간 아르키메데스의 그때 나이와 지금 양영복의 나이가 똑같이 75살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그리였다. 그리고보면 정원의 의자에서 땅우에 그린 도형을 내려다보던 아르키메데스의 마지막모습이 지금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수긋하고 사색에 잠긴 양영복의 모습과 신통히도 비슷하지 않았을가?

손관식은 잠시 그 자리에 서있었다. 양영복의 사색을 깨뜨리기가 서슴어졌다. 한창 탐구의 사색에 전념했을 때 그 누가 찾아오는것처럼 짜증스러운 일은 없는것이다. 그것은 자신도 체험하는 일이다. 그가 제풀에 골똘한 사색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며 방안을 무심히 둘러보았다. 두 벽에는 키높은 서가들이 서있다. 서가마다 여러 나라 어종으로 된 금속공학과 재료공학책들이 빼곡이 들어찼다. 양영복자신이 쓴 책들도 10여권이나 되였다. 그중에는 한때 쁘라하와 런던의 국제금속공학토론회에서 파문을 일으킨 찌르꼬니움과 자성체합금에 대한 책들도 들어있었다.

지금 양영복이 연구하고있는 티탄합금가공법이 성공하면 다시 세계금속학계를 놀래우는 또 하나의 책이 이 서가에 꽂히게 될것이다.

일본에 다녀온 후 좌절감에 빠졌던 양영복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연구소를 다녀가신 그날부터 새로운 결심을 품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 무슨 학술적구상을 내놓지는 못하였다. 과

학원에서 하신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은 양영복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젊은 학자들과 달리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민족적인 수모를 받을대로 받았다. 그랬기때문에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떨치며 그것을 세계적수준에로 비약시키려는 **김정일**동지의 철석같은 의지에 접했을 때 남달리 흥분했다. 그이께서 우리 과학자들의 창조적지혜를 굳게 믿으시고 기존관념을 초월하는 새로운 비약의 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주실 때에는 너무도 감동이 커서 곁에 앉았던 손관식과 시선을 마주치기도 하였다. 뜻깊은 그날에 양영복은 북받치는 흥분을 걷잡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소장선생, 나는 오늘 캄캄하던 눈앞이 확 열리는듯 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각오하고 새롭게 깨달은 그 모든것을 이 한마디에 담았다. 후날에도 그는 과학자로서 자기 인생의 근본적전환이 일어난 이날을 두고 자주 이야기하군 했다. 그때로부터 그는 전에 없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티탄합금가공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이 흘렀다.

그러던 끝에 마침내는 초소성방법으로 티탄합금을 가공할수 있다는 대담한 착상을 하게 되였다.

티탄은 녹음점에 접근하는 일정한 온도에서 자기 길이의 10배이상으로 늘어나는 특수한 성질, 초소성성질을 가지고있었다. 다른 금속들도 초소성성질을 가지고있지만 티탄은 그 성질이 특별히 좋은 편이였다. 그 성질을 리용하여 해당한 기구에 소재를 대고 불활성가스로 압력을 가하면 필요한 형태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치 유리용액을 공기로 불어서 임의의 형태를 만드는 리치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초소성을 띤 티탄합금의 가공은 유리용액을 다루는것과는 대비할수 없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립자구조의 미세성과 균일성, 가열온도에서 합리적인 조건을 보장해야 했으며 그들 호상간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방정식을 발견해야 했다. 하지만 초소성방법으로 가공할수 있다는 가능성만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 연구소에서는 양영복을 책임자로 하는 연구집단을 지체없이 조

직했다.

그것은 제련소에 조직된 박치영의 연구집단이 압착가공기술개발에서 상당한 전진을 이룩한 후의 일이였다.

하나의 과제를 놓고 두개의 연구집단이 존재한다는것은 두말할것없이 불미스러운 일이였다.

그러나 양영복과 손관식은 박치영의 연구시험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인정했기때문에 초소성가공법에 대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다그쳐오고있었다. …

갑자기 양영복이 신음소리를 냈다. 서재를 둘러보며 자기 생각에 잠겼던 손관식은 놀랐다. 심장에 진통이 오는가? 당황한 눈길로 양영복을 돌아보았다. 양영복은 커다란 확대경으로 여전히 도면을 훑어보고있었다. 마음이 놓이였다. 몸이 말째서 터치는 신음소리가 아니였다. 양영복은 고도로 사색이 승화될 때면 앓는 사람처럼 끙끙 신음소리를 냈다. 의자밑으로 드리운 다리를 떨기도 하였다.

손관식은 오래동안 함께 연구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경우를 여러번 목격했다. 신음과 경련이 오리만큼 무서운 사색의 앙양속에서 새로운 발견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군 하였다. 그것은 마치도 새생명을 탄생시키는 산모의 진통과 비슷했다. 손관식은 마른침을 삼키며 양영복을 주시했다.

이 순간에도 양영복의 한껏 승화된 령감적인 사색이 무엇인가를 산생시킬것이다. 신음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부릅뜬 두눈의 동공이 굳어지는듯 했다. 관자노리의 정맥이 두드러졌다. 입귀가 실룩거렸다. 그렇게 몇분이 흘렀다.

《됐어! 그렇지!》

마침내 양영복은 주먹으로 책상을 울리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에는 땀발이 흥건했다.

밖으로 달려나갈듯이 흥분하여 두리번거리던 양영복은 손관식을 보자 손을 덥석 잡았다. 완전히 넋을 잃은 사람같았다. 주위의 정황은 망각해버렸다. 어떻게 왔느냐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소장선생,　우리 연구집단 성원들을 모두 모여주시오!》
손관식이 자기 집에 찾아온것이 아니라 연구소에 함께 있는것으로 착각하고있었다.
《왜 모여달라고 합니까?》
《티탄합금립자의 미세성을 보장할수 있는 방도가 떠올랐소! 함께 토론해봅시다.》
《그래 어떤 방도가 떠올랐습니까?》
손관식은 기쁨에 넘쳐 반문했다.
《지금의 티탄합금생산공정에서 무엇을 개조해야 하는가 하면…》
양영복은 잡고있던 손관식의 손을 책상쪽으로 이끌었다. 도면을 짚어보이던 그는 문득 생각난듯이 들레며 말했다.
《소장선생뿐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연구소가 아니라 선생님 서잽니다.》
손관식이 빙그레 웃으며 깨우쳤다.
양영복은 사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비로소 꿈속에서 깬듯이 두눈을 껌벅거렸다. 자기딴에도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어색한 미소를 그리였다.
《마침 소장선생이라도 집에 왔구만. 자,　내가 찾아낸 방도를 좀 들어보시오.》
양영복은 연필끝으로 도면을 짚어가며 자기의 구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손관식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양영복이 착상한대로 지금의 생산공정에서 몇가지를 개조하면 티탄합금립자의 미세성을 보장할수 있었다. 이것은 초소성가공법의 중요한 매듭의 하나를 해결하는것으로 된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첫출발은 확실히 성공적이다.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제 소견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단 말이지요. 래일 내 연구소에 나가서 다른 동무들과도 좀 더 토론해보겠습니다.》
《불편한 몸에 선생이 뭐 직접 걸음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선생

의 의도를 리해했으니 내 다른 동무들과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오.》
손관식은 여적 방바닥에 놓고 까맣게 잊고있던 책보자기를 들여왔다.
《일전에 선생이 부탁했던 특허문헌들을 인민대학습당에서 빌려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양영복은 서둘러 보자기를 풀고 특허문헌들을 뒤적여보았다.
영문으로 된 문헌들을 몇장 번져보던 그는 손관식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치영이가 있었으면 이 문헌들의 조사를 맡기겠는데…》
무척 아쉬운 낯빛으로 말했다.
《선생이 바쁘다면 문헌조사를 다른 동무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이들은 치영이만큼 마음들게 문헌조사를 못합니다. 그를 다시 데려올수 없을가요?》
《제 이름을 내보자고 연구소를 떠나간 그를 다시 데려온단 말입니까? 아무리 재간이 좋아도…》
손관식은 박치영을 생각만 해도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젊은 혈기에 명예심이나 허영심은 흔히 있는 일이지요. 그 아까운 재능이 성공하지 못할 일에 허비되는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매 양영복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박치영을 생각하고있는것 같았다. 하긴 그만한 연구조수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늘 말해오던 그였다.
《양선생, 우리가 너그럽게 치영동무를 데려오자고 해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 그는 그저께 실험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양영복은 뜻밖이였다. 박치영의 발기가 실험적으로 가능할수도 있다고 여겼댔지만 그렇게 빠른 기간에 성공하였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다.
《제련소에서는 치영동무의 방법을 인차 생산에 도입할것이라고 합니다. 당비서를 비롯해서 제련소에서는 지금 큰 경사가 났다

고 들끓고있습니다.》
양영복은 갑자기 낯빛이 달라졌다. 엄청난 소식을 들은것처럼 긴장해졌다.
《소장선생, 당장 비서동무를 찾아가서 그게 공업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것을 납득시키시오!》
《제련소사람들의 미움을 사면서 반대의견을 들고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보수주의감투를 쓰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질투심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뒤소리가 돌고있습니다.》
《그런 비난이 두려워서 주저한다면 내가 당비서를 찾아가겠습니다!》
양영복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며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순간적으로 치미는 흥분을 걷잡지 못하고 격하기를 잘하는 그의 성미를 손관식은 알고있었다. 그의 심장탈은 때때로 드러나는 예민한 반사와 격한 성미때문에 쉽게 낫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냥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것 같았다.
손관식은 따라일어서며 양영복의 손을 잡았다.
《고정하십시오. 선생이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걸음을 하겠습니까. 내가 당비서를 찾아가겠습니다.》
《정말 찾아가주겠습니까?》
《찾아가겠습니다.》
양영복은 다짐을 받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간곡히 말했다.
《실험적인 성공에 현혹되여서 중간공정을 뛰여넘어 생산에 도입할 공사를 벌렸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일을 저지를수 있습니다. 아까운 당일군인데 빗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관식은 양영복의 집을 나섰다. 당위원회를 찾아가는 그는 걸음이 무거웠다. 과연 황석태를 설득시킬수 있을가?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자신이 없었다. 설사 양영복이 찾아간다 하여도 사정은 마찬가지일것이다. 좀처럼 자기 결심을 굽힐줄 모르는 황석태를 납득시키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 한사람만이 아니다. 제련소의 기술자들과 행정일군들, 지어는 연구소의 적지 않은 학자들까지 박

치영의 발기를 지지하고있는데 있었다. 로동자들도 성공의 희열에 들떠있다. 누구나 애타게 기다리던 티탄합금가공법이 실험적으로 해결되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공연히 양영복에게 박치영네 연구소식을 전했다가 난처한 부담을 지게 되였다.

손관식은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당위원회 접수실에 이르렀다.

《당비서동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비서동지는 평양에 갔습니다.》

접수실의 녀인은 미안한 낯빛으로 말했다.

모처럼 시간을 내여 찾아온 연구소 소장의 공걸음이 미안한 모양이다. 하지만 손관식은 다행 딱한 처지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으로 막혔던 숨을 길게 내불었다.

## 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후 제련소당위원회는 지체없이 말씀관철을 위한 대책안을 세우고 금속공학연구소와 제련소의 기술력량을 티탄합금가공설비개발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황석태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시였다. 연단에 나선 황석태의 얼굴에는 긍지와 신심이 넘쳐흘렀다.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생산에서 첨단기술도입을 토의하는 국방공업부문일군협의회 연단이였다. 협의회는 당중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리고있었다. 민수공업부문에서도 국방공업과 밀접한 련관을 가진 기업소의 지배인과 당비서들이 참가했다.

황석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같은 기세와 열정을 소개하고 이렇게 계속했다.

《…그리하여 재능있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처럼 어렵다던 티탄합금가공기술을 자체로 개발하는데 돌파구를 열어제꼈습니다. 고심어린 연구를 거듭하던 끝에 얼마전에는 실험실적인 성공을 보았습니다. 우리 제련소에서는 이제 두달안으로 티탄합금가

공설비를 갖추고 티탄합금가공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게 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더없이 반갑고 기쁘시였다.

제련소와 금속공학연구소를 다녀오신지 반년도 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가공기술을 개발하였다는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닐수 없었다. 황석태는 그 성과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돌렸지만 그자신이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을것이다. 당이 준 과업앞에서 언제나 주저와 동요를 몰랐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설줄 아는 황석태였다. 불같은 열정과 완강한 전개력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무하면서 성공에로 떠밀어주었을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협의회가 끝난 다음 그를 따로 만나시였다.

《나는 동무의 토론을 듣고 어떻게 그처럼 짧은 기간에 티탄합금가공실험에서 성공을 하였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 후 금속공학연구소는 물론 우리 제련소의 기술자들도 한사람같이 분발해나섰습니다. 실상 제련소에는 기술력량이 대단합니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침식을 하면서 불철주야로 고심어린 탐구의 노력끝에 실험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들 못지 않게 동무도 수고가 많았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황석태의 틀진 체구와 이목구비가 어느것이나 큼직큼직한 얼굴을 신뢰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워낙 불그레한 그의 살갗이 적동색으로 빛났다.

《그런데 황동무, 그동안 과학자, 기술자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지나치게 다몰아대지는 않았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빙긋이 웃으며 물으시였다. 과도한 열정에 휩싸여 완강히 돌진하는 황석태의 기질을 잘 알고계시였다.

《아닌게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된 성원들은 무리할 정도로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대신 그들에 대한 후방사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그들에게만은 매일 통닭 한마리씩 공급했습니다.》

《통닭 한마리라… 역시 황동무가 통이 큽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소리내여 유쾌하게 웃으시였다.

황석태는 면도자국이 푸릿한 아래턱을 쓰다듬으며 시뭇이 따라웃었다.

《로인들은 아무리 식사조건이 좋아도 파로하면 몸이 나빠질수 있겠는데 양영복선생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 선생은 돌격대에 망라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고려해서 돌격대에는 망라시키지 않고 고문격으로 연구사업을 지도하게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생은 처음부터 이번에 실험적으로 성공한 가공법을 반대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뭇 놀라시였다. 전혀 뜻밖이였다. 양영복박사의 지도밑에 연구사업이 진행되였으리라고 믿고계셨던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 가공법을 발기하고 연구사업을 주도했습니까?》

《박치영이라는 젊은 연구사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과학적판단이 빠른 재능있는 동무입니다. 그래서 양영복박사도 일본에 갈 때 그 동무를 데리고 갔댔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동무가 가공법을 발기하고 실험적으로 성공하였다니 더구나 반갑습니다. 그런데 양영복선생은 왜 반대를 합니까?》

《박치영동무의 가공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장차 공업적방법이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일부 그의 의견을 따르던 연구사들도 점차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 선생만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는 흔히 상반되는 견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나이탓으로 쓸데없는 고집만 세우는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황석태는 로망스러운 늙은이를 부모로 모신 자식처럼 안타까운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순 양영복을 두고 생각하시였다. 그가 나이탓으로 분별없이 고집을 부린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금

속공학연구소에 가셨을 때에 그에게서 받은 인상이 되새겨지시였다.

공업기술강국이라고 우쭐해서 남을 숙보는 일본놈들의 처사에 의분을 금치 못하던 그의 가슴속에는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떨치려는 강렬한 지향이 끓고있었다. 그 의분과 지향이 그를 새로운 탐구에로 힘있게 추동하리라고 생각하시였다. 그런데 그가 젊은 학자의 성공적인 연구사업을 부정하면서 고집만 부린다고 한다. 참으로 모를 일이였다. 접견당시의 인상이나 지난날의 과학적공적만을 가지고 오늘에 이른 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판단할수는 없을것이다. 한정된 시간을 사는 인간은 생의 말기에 성미가 괴벽해지기도 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해지기도 하는것이다.

《아무튼 양영복선생을 잘 돌보아주시오. 해방후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한생을 충실히 살아오면서 조국앞에 많은 과학적공적을 쌓아올린 학자가 아닙니까. 워낙 열손가락에 꼽을수 있을 정도로 그 수효가 적었던 우리 과학의 1세대들중에서 아직 생존해있는 학자는 몇명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번 과학원에 나갔을 때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참으로 귀중한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오래 생존해있는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양영복선생이 나이탓으로 쓸데없이 고집을 부린다고 하여도 너그럽게 리해하시오.》

《알겠습니다. 그 선생도 실험에서 성공을 본 지금에는 견해를 달리할것입니다. 과학앞에서는 허심하고 정직한분입니다.》

《그 선생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고질병이다보니 심장탈이 아직 깨끗이 낫지 못했습니다. 나이탓으로 나날이 걷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의사 한명을 담당으로 붙여주면서 제정된 일과를 엄격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과에 대한 통제를 부인에게 당조직이 주는 과업으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량주가 아침저녁으로 산보도 합니다.》

《그것 참 잘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부인과 함께 다정히 산보

를 하는 양영복을 그려보시였다. 아마도 부인은 그 산보길에서 전에 없던 생활의 즐거움을 느낄것이다.

불현듯 지난 봄날에 있었던 일이 기억에 떠오르시였다. 그날 《별빛》연구집단에 망라된 학자들이 안해들과 함께 휴식의 하루를 보내도록 하여주시였다. 그 집단의 학자들은 오래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연구사업을 하였다. 그래서 그런 휴식을 마련해주시였다. 봄볕이 무르녹은 외진 산골짜기에서 학자들과 안해들의 산놀이가 벌어졌다. 점심시간 한때에는 자신께서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였다. 마치도 식솔이 많은 대가정이 산놀이를 하는듯 한 화기에 넘친 분위기였다. 학자들의 건강과 연구성과를 위해서, 안해들의 행복을 위해서 축배를 들어주시였다. 그들이 올리는 축원의 잔도 기쁘게 받으시였다. 즐거운 식사가 끝났을 때 거나해진 학자들과 그의 안해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시였다.

《이제부터 오락회를 합시다. 오늘 오락회에는 부부2중창과 부부쌍무로 종목을 제한합시다.》

녀인들이 그 제의에 남자들보다 먼저 우렁찬 박수로 화답했다. 녀인들이 주저하고 쑥스러워하리라고 예견하셨는데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앞을 다투어 과학자부부들의 2중창이 울려가고 쌍무가 펼쳐졌다. 간혹 주밋거리는 남자는 있어도 녀자들은 누구나 선뜻 나섰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런 기회를 얼마 가져보지 못했던 생활의 공백을 비로소 메꾸게 된 기쁨이 그들에게 용기와 활기를 주었을것이다. 뒤를 내미는 남편의 팔굽을 잡아일으키며 한 녀인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음치라는거야 세상이 다 아는데 뭘 그래요. 그래도 결혼식날에는 우리가 2중창을 해보지 않았나요.》

그러자 남편은 하는수없이 일어섰다. 안해는 음색도 곱고 성량도 괜치 않았지만 물리학자인 남편은 그야말로 노래에 솜씨가 없었다. 멋들어지게 뽑아넘기는 안해의 고운 목청에 이끌리여 남편은 석쉼한 탁성으로 따라불렀다. 행복과 사랑에 겨워 붉게 물든 그들부부의 얼굴에는 결혼식날의 추억이 비끼는듯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자부부들의 출연이 끝날 때마다 남먼저 박

수를 보내주시였다. 그들의 행복과 즐거운 기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부드럽고 훈훈한 정서에 잠기시였다. 시간이 어지간히 흘렀을 때 한 녀인이 앞으로 달려오더니 무랍없이 청을 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한마디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무가 내 마음을 알아주누만. 동무들앞에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돌아가면 오늘 밤잠이 오지 않을거요. 소원을 풀 기회를 주어서 고맙소.》

**김정일**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며 일어서시였다. 특별히 음악을 사랑하시고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그이이시였다. 목청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이 순간 자신의 가슴에 넘치는 감정을 《동지애의 노래》에 담아 거침없이 부르시였다.

숨을 죽이고 듣고있던 과학자들과 그의 안해들은 저도 모르게 모두 일어서서 어깨를 겯고 따라불렀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황석태의 조심스러운 부름소리에 그날의 회상에서 깨여나시였다.

그는 진작 품고있는 심정을 터놓지 못할가봐 겁내듯이 저으기 초조하고 긴장한 낯빛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없이 시선으로 그의 말을 재촉하시였다.

《저희들은 이번에 성공한 방법을 곧 생산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탄합금가공설비를 즉시 갖추겠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고 잠시 침묵하시였다.

황석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말씀드렸다.

《가공설비에 필요한 프레스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기계와 부속품들은 제련소에 있는것을 리용할수 있습니다. 새로 필요한것은 수자형자동로보트와 몇가지 고정밀측정기구들입니다. 그것도 구성공작기계공장과 측정기구공장에서 해결해올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공사는 진공가열로와 진공작업공정을 꾸리는것인데 우리에게는 티탄합금을 생산하면서 개발한 진공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국가적으로 필요한 건설자금과 자재만 보장해주면 우리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낼수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깊은 표정으로 말씀하시였다.

《말대로 성공적이라면 자재와 자금은 얼마든지 보장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문제란 언제나 심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실험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공업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적담보가 충분히 토론된 다음에 공사를 벌리도록 하시오. 이제 과학원동무들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원에 있습니다.》

《과학원동무들을 언제쯤 내려보내주시겠습니까?》

《인차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탄합금가공문제는 국방공업은 물론 전자공학을 비롯한 여러 첨단과학발전을 위해 시간을 다투며 성공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동무들이 개발한 기술이 공업적으로 가능하다면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금속공학연구소의 많은 연구사들과 제련소기술자들은 공업적으로도 십분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있습니다!》

황석태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이날 오후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을 부르시였다. 새로 지은 회색남방샤쯔를 단정히 입고 나타난 그는 언제나와 같이 침착하고 리지적인 인상을 풍겨주었다.

《티탄합금가공기술연구에서 실험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있습니다.》

고중환은 모르고있다는것이 자기 사업의 빈구석을 드러내는것처럼 생각되는지 가볍게 낯을 붉히였다. 그가 모르는것을 보면 주로 제련소가 주도해온 사업이여서 금속공학연구소에서는 아직 과학원에 보고하지 않은 모양이다.

《나는 오늘 오전에 9월제련소 당비서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실험실적인 성공에 확신을 가지면서 티탄합금가공설비를 갖추기 위한 공사를 지체없이 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중환은 두눈을 커다랗게 뜨며 부지중 가볍게 부르짖었다. 그에게도 역시 반갑고 놀라운 소식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티탄합금가공기술때문에 얼마나 심려하시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양영복선생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반대를 한답니다. 상반되는 견해는 과학계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과학원의 유능한 동무들을 내려보내서 실태를 정확히 알아보고 공업적으로도 가능한가를 결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흥분된 표정으로 대답을 올린 고중환은 머리속에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따르며 인차 뒤를 이었다.

《림수봉부원장을 직접 내려보내겠습니다.》

티탄합금가공설비는 많은 점에서 기계공학의 기술이 적용되였을것이다. 그런것만큼 기계공학의 권위자인 림수봉이 적임자였다. 대상의 중요성으로 보아도 그가 내려가보는것이 옳았다. 고중환은 그렇게 생각했다.

《좋습니다. 부원장동무가 책임지고 심의하는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도 림수봉이 내려가면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것이라고 여기시였다.

## 7

당위원회 부서책임자들의 아침모임을 끝낸 황석태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루사업을 포치한 다음에는 생산현장을 돌아보는것이 굳어진 생활의 일과였다. 그는 사무실구석에 서있는 옷걸이에서 작업복을 벗겨들었다. 워낙은 회색이던 작업복이 연기와 기름에 절어서 본색을 잃었다. 알뜰한 안해가 하루가 멀다하게 빨아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껏 닯어진 작업복소매에 팔을 꿰는데 금속공학연구소 소장 손관식이 방안으로 들어왔다. 밖에서 아침모임이 끝

나기를 기다렸던 모양이다. 황석태는 작업복단추를 채우며 훤칠한 키에 비해 몸이 실하지 못한 그에게로 돌아섰다. 언제 떨어져나갔는지 작업복단추는 두개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왔습니까?》

《새살림동에 새로 지은 아빠트배정문제때문에 왔습니다. 알아보니 우리 연구소에 배정된 다섯세대는 워낙 제련소 책임일군들이 들기로 배정되였던것이랍니다. 제가 배정받은 집은 비서동지의것으로 후방부에서 지목한것이였는데…》

《그만, 됐습니다!》

황석태는 이마를 찌프리며 상대의 말허리를 잘랐다. 그리고는 그가 더 구구하게 터놓지 못하게 명령조로 말했다.

《그 문제때문이라면 돌아가십시오. 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판식은 늘씬한 허리를 약간 굽힐사 하고 한걸음 다가서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떠올랐다.

《비서동지에게 배정되였던 새집에 제가 입사를 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는 집도 불편이 없습니다.》

《책임일군들에게 배정된 집을 당비서가 학자들에게 돌렸다고 누가 뒤소리를 하는게 아닙니까?》

《…》

《시비군들이 있다는걸 난 모르지 않습니다.》

황석태는 그런 시비군들을 노려보듯 책상 한귀를 쏘아보았다. 세개의 전화기가 주런이 놓인 그옆에 며칠전에 후방부에서 올려보낸 살림집배정안이 있었다. 살림집배정이 당위원회가 직접 간참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대로 해당 일군들에게 맡겨두면 이러저러하게 롱간질이 있거나 부당하게 처리될수 있었다. 후방부에서 작성한 배정안에는 절대다수의 새집이 간부들의 몫으로 되여있었다. 채광이 그중 좋고 칸수가 많은 집은 당비서의것으로 배정되였다. 황석태는 배정안의 첫 순서에 자기 이름이 올라있는것을 보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그 누구에게서 참을수 없는 모욕을 당한듯 한 의분이 치밀었다.

그는 당장 후방부지배인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다.

《왜 살림집배정안을 이 모양으로 작성했습니까? 우리가 간부들용으로 새 아빠트를 지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석태는 살림집배정안을 후방부지배인의 코앞에 내흔들며 따지였다.

《그 집을 짓는데 실상 부직장장이상 간부들이 누구보다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건설장에 나온 날자도 많고 지원물자도 많이 냈습니다. 그걸 고려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제 주머니를 털어서 지원한것이 아니라 직권을 리용해서 직장의 자재를 살림집건설장에 가져갔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일군들은 주택이 차례질것을 내다보면서 로동자들보다 로력동원에 더 많이 참가했습니다. 약삭바른 타산이 있었거던. 다른 사회동원에는 뒤를 내밀다가도 살림집건설장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진작 알면서도 집을 빨리 지어야 하겠기에 모르는척 했습니다. 이번에 지은 살림집은 한세대도 옆으로 새는 일이 없이 오랜 로동자들과 공로있는 학자들에게 주어야 하겠습니다.》

후방부지배인은 말을 못했다. 턱을 번쩍 들며 난색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그를 보자 황석태는 버럭 화가 치밀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간부들이 의견을 가질수 있습니다.》

《나는 내앞으로 배정된 집을 연구소소장동무에게 주겠습니다. 동무는 새집을 티탄합금직장 공훈로장아바이한테 양보하시오. 우리 두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의견이 있어도 속으로 삭일수밖에 없을겁니다!》

이리하여 황석태의 집이 손관식에게 돌려지게 되였던것이다.

손관식은 후방부지배인이 입사증을 들고와서 그런 사연을 말했을 때 고맙다는 생각보다 난감하기가 이를데 없었다. 다른 책임일군들의 집이라면 몰라도 황석태의 집은 차마 자기것으로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그의 직급을 생각해서가 아니였다. 새 아빠트로 말하면 황석태가 발기를 하고 그가 앞장에 서서 지은 집이였다. 지금 황석태가 살고있는 집은 울타리를 둘러친 독립가옥이기는 하지만 전후에

지은것이여서 새로 지은 살림집보다 못하였다. 그런것만큼 황석태가 새집에 드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너무도 응당했다.

《비서동지, 제 립장도 좀 생각해주십시오. 비서동지가 만일 제 립장에 섰다면 이 입사증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손관식은 남방샤쯔주머니에서 입사증을 꺼내들고 간청하듯 말했다.

《내가 소장동무의 립장이라면 응당한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양영복선생에게도 이번에 새집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사는 집이 더 좋기때문에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제련소 책임일군들에게 배정되였던 집을 연구소 학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해서 누가 뒤시비질을 한다면 용서치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정책을 진심으로 받들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황석태는 참말로 그런 사람들을 용서치 않을 생각으로 엄엄한 표정이였다. 그는 이러저러한 의견이 제기된다 하여도 일단 자기가 결심한 문제는 끝까지 내밀었으며 지금의 손관식과 같이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그 결심을 달리하여주기를 바라는 경우에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손관식은 딱한 낯빛으로 그냥 서있었다. 자기의 심정을 구구히 더 펼치다가는 황석태의 성을 터뜨릴것 같았다. 손에 들고있는 입사증을 슬며시 책상우에 놓고 물러서려는데 작업복차림새를 다 갖추고난 황석태가 돌아섰다.

《소장동무를 만난김에 내 한가지 할말이 있습니다. 양영복선생과 소장동무가 박치영동무의 발기를 앞장에서 반대를 해왔는데 이제 공업적으로 성공하면 모든것이 명백해질겁니다. 나는 동무들이 따로 연구하는 초소성방법도 성공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후날의 일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티탄합금가공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것만큼 동무도 옳은 견해를 가져야 할것입니다.》

화제가 바뀌여지자 손관식은 번쩍 고개를 들고 명백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일전

에도 찾아왔댔습니다. 비서동지가 평양에 갔댔기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로서는 아무래도 박치영동무의 방법이 공업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양선생도 저와 같은 견해입니다.》

황석태는 그를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아직까지도 자기의 견해를 굽히지 않는 그의 태도가 뜻밖이였다. 황석태의 머리속에는 박치영의 방법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굳어져있었다. 자기가 커다란 기대를 걸고 뒤받침을 해오던 연구사업이기때문만은 아니였다. 과학적내용을 모르는 자기로서는 그 어떤 견해도 가질수 없었다. 되도록이면 공정한 립장에 서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기술자들이 박치영의 방법을 적극 지지하고있지 않는가. 반대하는것은 몇사람뿐이다. 그는 광범한 대중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하는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반대를 하던 사람들도 이제 와서는 모두 지지를 합니다. 끝까지 반기를 드는 동무들을 리해할수 없습니다. 이제 과학원에서 내려와 최종합평을 하는데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중의 공정한 눈이 동무들의 태도를 주시한다는것을 명심하시오.》

황석태의 세찬 눈빛에 손관식은 가슴이 서늘했다. 눈시울을 내려깔고 더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할말을 다한 황석태는 얼핏 손목시계를 보고나서 사무실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부원이 비준받을 문건을 들고 들어왔다.

그때까지 난처한 기색으로 서있던 손관식은 하는수없이 물러갔다.

《부원동무는 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문건을 들고다니오?》

황석태는 부원에게 머리를 돌리며 꾸짖었다.

《비준시간을 지키지 않는건 제가 아니라 비서동집니다. 비서동지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늘 공손해보이던 부원은 전에없이 항변조로 나왔다. 급한 문건을 비준받으려고 당비서를 찾아 제련소구내를 돌아쳐야 했던 쌓인 원망이 참을수없이 폭발한것 같았다. 피끗 시선을 들어 부원을 쳐다

보았다. 가냘프게 보이도록 몸매가 작고 두눈이 오목한 그 녀자는 외면을 한채 입술을 감쳐물었다. 들어서자바람으로 욕을 먹는것이 어지간히 속에 맺힌 모양이다.

《문건을 이리 주오.》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스러운 생각을 그 어조에 담았다.

문건을 받아들고 제자리로 돌아온 그는 반시간후에야 청사를 나설수 있었다.

현관앞에는 검은색《벤즈》가 서있었다. 젊은 운전사가 차실문을 열며 황석태가 어서 오르기를 기다렸다. 황석태는 그를 띄여보고 명령조로 말했다.

《나는 지금 구내를 돌아보려고 가는 걸음이요. 차를 탈 필요가 없소. 오늘은 동무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으니 오전에는 광석하차장에 나가서 하차작업을 하시오. 오후에는 신랑과 신부를 태워야 하겠소. 압연직장에서 일하다가 얼마전에 년로보장을 받은 강아바이네가 오늘 아들결혼식을 한다오. 그 아바이가 어제 저녁 나에게 부탁을 했소, 승용차를 좀 빌려달라고. 결혼식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겠소.》

《알겠습니다.》

황석태의 엄격한 지시에 습관된 운전사는 군말없이 부동의 자세로 서있었다.

《비서동지!》

어깨를 쭉 펴고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정문을 나서던 황석태는 느닷없는 부름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귀에 익은 목소리에 머리를 돌리였다. 접수실에서 나온 박치영이 반달음으로 달려왔다.

《왜 나를 찾아왔소?》

《어제 저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가공설비공사를 벌릴 자리를 함께 정해보자고.》

《아, 그랬었지.》

어제 저녁에 그런 약속을 했다. 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선 걸음이였으나 연방 제기되는 뜻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쓰다보니 왕청같이 왜 찾아왔는가고 물었다.

황석태는 박치영을 바라보며 두툼한 입술에 대견스런 미소를 그리였다.
《나도 그래서 떠난 걸음이요.》
그들은 당위원회청사앞으로 뻗은 도로를 건너서 제련소구내로 들어갔다.
《치영동무, 나는 며칠전에 열렸던 국방공업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토론을 했소. 티탄합금가공기술개발이 실험적으로 성공했기때문에 이제 곧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공업적인 생산에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회의가 끝난 후 나를 따로 만나주시였소. 그이께서는 큰일을 했다고 치하하시면서 앞으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설비를 갖추라고 가르치셨소.》
《그렇습니까?!》
박치영은 감격하여 부르짖었다. 갑자기 혈조가 번지는 갸름한 그의 얼굴을 얼핏 쳐다본 황석태는 앞에 보이는 제련직장에 시선을 주며 물었다.
《어떻소? 이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토론을 해도 다른것이 없겠지?》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한 과학기술적담보를 가지고있습니다. 저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있습니다.》
《나도 확신하오. 우리는 조만간에 티탄합금가공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게 될거요!》
그들은 압연직장을 에돌아서 자재창고옆에 이르렀다. 황석태는 창고를 가리키며 박치영에게 물었다.
《나는 이 창고건물을 개조해서 그안에 가공설비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동무생각은 어떻소?》
《자재과에서 순순히 내여놓자고 하겠습니까?》
《자재는 다른 건물에도 보관할수 있소. 그러나 가공설비는 여러가지 조건이 보장되는 건물에만 설치할수 있다니 이 창고가 좋을것 같단 말이요. 따로 건물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자면 시간이 걸리오.》

티탄합금가공은 진공속에서 진행되는것만큼 건물조건도 좋아야 했다. 그러한 비생산건물로서는 자재창고만 한것이 없었다.

《제 생각에도 이 창고건물이면 될것 같습니다.》

황석태는 박치영을 이끌고 건물주변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앞에는 미구하여 쏟아져나올 티탄합금가공품들이 방불히 그려졌다.

## 8

림수봉이 네명의 전문가를 데리고 내려왔다. 두명은 금속공학자이고 다른 두명은 기계공학자였다. 티탄합금생산문제라면 금속공학자들만 필요하지만 그 가공설비문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론하는것만큼 기계공학자들도 필요했다. 두 분야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정확한 결론을 내릴수 있었다.

일행은 먼저 당비서실에 들리였다.

《무척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어제쯤 내려오는줄로 알았습니다.》

황석태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들이 자기 소개를 할 사이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례로 손을 잡았다.

림수봉은 첫인상에 풍기는 당비서의 호협한 성품이 마음에 들었다. 어데선가 한두번 스쳐본 기억이 있는것 같기도 했지만 그것이 텔레비죤화면이였던지 아니면 중앙에서 열리는 무슨 집회였던지 잘 생각나지 않았다. 아무튼 직접 상면을 하기는 지금이 처음이였다. 그런데 황석태는 마치 구면의 친구를 맞이하듯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조금도 없이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는 헌헌한 낯빛으로 담배를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부원장동무가 승인해준다면 우리는 지체없이 가공설비를 갖추겠습니다.》

《개인이 승인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지요. 집체적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과학적담보가 확인되면 가공설비를 내밀도록 합시다. 만일 이번에 성공했다는 방법이 공업적으로도 가능하다면 과학원으로

서도 크게 한시름 놓게 됩니다. 정무원에서도 티탄합금가공기술개발문제가 여러번 론의되였는데 그때마다 나는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림수봉의 솔직한 말에 끌리며 황석태가 말했다.

《박치영동무를 제련소시험소로 넘겨오려고 전화할 때 부원장동무가 합의해주어 정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금속공학연구소가 당조직은 우리한테 소속되였으나 어디까지나 과학원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연구소의 한 젊은 연구사를 시험소에 옮겨놓겠다는것을 부원장동무가 선선히 동의해주었거던요. 이제 압착가공만 공업적으로 성공하면 다시 연구소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연구사업을 보장하는것이니 우리로서도 응당한 도리이지요. 충분히 리해했습니다.》

림수봉은 박치영의 발기가 처음부터 상반되는 견해의 대립으로 복잡한 곡선을 그으며 실험실적성공에 이르렀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그 실태를 보고할 때마다 손관식은 황석태에 대한 불만을 은근히 비치였다. 하지만 그를 좋게 설득시켰다. 황석태를 직접 만나본 일이 없으니 그가 어떤 일군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불만이 섞인 손관식의 말에서조차 부인할수 없는것은 황석태가 누구보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과학자들의 생활에 관심이 큰 당일군이라는 사실이였다.

《부원장동무가 그렇게 리해해주니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박치영동무를 공업시험소로 옮겨놓자 독단을 부리며 월권행위를 한다고도 하였고 앞으로 연구사업의 성과를 연구소가 아니라 제련소의것으로 만들기 위한 속심이 숨어있다고도 했습니다. 전자는 어느 정도 접수가 되는것이였지만 후자는 억울한 비난이였습니다. 그 무슨 명예심으로 가공설비개발을 추진시켜왔다면 나는 오래전에 당비서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는 길에서 그런 불순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당일군은 고사하고 당원의 자격도 없을것입니다.》

황석태는 즐겁게 웃으며 자기 심정을 숨김없이 헤쳐보이였다. 성공을 믿어의심치 않는 그에게는 지나간 모든 일들, 지어 비난을 받

던 일까지도 즐거운 추억으로 돌이켜졌다. 그는 성공의 회고담을 나누는듯 한 심정으로 다시 말했다.

《이번에 지내보니 과학기술사업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은 없는것 같습니다.》

《당비서동무가 이번에 참으로 수고를 많이 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황석태는 림수봉의 말에 약간 면구스러운듯 한 기색을 지어보이더니 화제를 돌리였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삼사일간 우리 동무들이 료해를 하고 광범한 토론에 붙여서 결론을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날도 저물었는데 인제는 려관에 가서 푹 쉬도록 합시다.》

사흘후에 예견했던대로 과학기술합평회가 제련소회관에서 열리였다.

림수봉과 황석태가 집행석에 앉았다. 객석에는 그 연구사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물론 연구소와 제련소의 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참가했다.

장내가 정돈되자 림수봉이 일어서서 모임의 취지를 간단히 말한 다음 먼저 가공설비의 개발을 책임진 동무의 설명이 있겠다고 하였다.

앞에 앉았던 박치영이 종이두루마리와 원고를 들고 연단으로 나갔다. 종이두루마리는 자기의 설명에 생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직관물이였다. 그는 변론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다 아시는바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봄에 우리들을 찾아오시여 티탄합금가공기술을 자체로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당위원회는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이 영예로운 과업을 최단기간내에 수행하도록 일련의 대책을 지체없이 세웠습니다. 당조직의 지도와 고무속에서 우리는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티탄은 그 생산과 가공에 있어서 다른 금속과는 달리 특수한 조건과 첨단기술을 요구하고있습

니다. 그런것만큼 그 가공기술의 개발에는 많은 애로가 제기되였습니다. 우리 연구집단은 앞선 나라들의 압착가공원리를 널리 체득한 기초우에서 무수한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가 자체로 만들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실험실적인 성공을 보았습니다.》

청중을 향하여 변론의 첫머리를 이같이 뗀 박치영의 얼굴에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흘렀다. 그는 연탁옆의 받침대에 직관물을 걸어놓고 한장씩 번지면서 설계의 기술공정과 작용원리를 류창하게 설명했다.

림수봉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재능있고 똑똑한 청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자기가 심혼을 바쳐 연구한것이라 하더라도 대중앞에서 저렇듯 조리있게 설명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박치영은 론술을 끝내면서 한음조 높아진 흥분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우리 연구성과를 공업화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충분한 과학적근거를 가지고있습니다. 질이 좀 낮을뿐 공업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것은 앞으로의 실천이 증명해줄겁니다.》

그는 직관물을 걷어가지고 물러갔다. 서로 다른 감정을 담은 시선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를 주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보냈지만 연구소의 몇사람은 힐난의 눈길을 던지였다.

림수봉은 두손을 포개여 앞탁에 얹으며 객석을 둘러보았다.

《다른 동무들은 선자리에서 질문을 하든가 자기의 견해를 토론하든가 합시다.》

왼쪽좌석에서 키가 늘씬하고 주먹코가 덩실한 중년의 남자가 일어섰다. 공업시험소 부소장이라고 하였다. 그는 박치영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것을 몇가지 보충하면서 기술적담보를 열렬히 주장했다. 그의 뒤를 따라 여러 사람이 겨끔내기로 일어섰다. 그들은 별로 새로운 견해도 없이 전자의 설명을 되풀이하며 지체없이 공업화

해야 한다고 하였다. 궁정의 의견은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양영복선생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림수봉이 옆에 앉은 황석태에게 건늬는 말이였다.

《연구소소장동무가 대체로 그와 견해가 같습니다.》황석태는 견해를 같이하는 연구소소장이 참가했으니 이 모임에 양영복이 참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응대했다.

《그럼 연구소소장동무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림수봉은 의자등받이에 몸을 젖히고 앞자리에 앉은 손관식을 주시했다. 손관식은 선뜻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껏 흘러온 모임의 분위기로 보아 이 장소에서까지 반기를 들기가 주저되는 모양이다.

《동무도 공업화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는데 그럴만한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서슴없이 말하시오.》

바재이던 손관식이 마침내 일어섰다. 장내에 엄숙한 긴장이 서리였다. 그의 발언을 도화점으로 박치영이 개발한 가공기술을 부정하던 일부 연구사들의 견해가 폭발할것이 예견되였다. 숨죽은 시선들이 그에게 쏠리였다. 손관식은 시선을 떨구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박치영동무의 발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유는…》

그는 알수 없는 내심의 괴로움으로 얼굴을 붉히며 뒤를 잇지 못했다. 황석태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티탄합금가공기술을 자체로 개발할데 대하여 그처럼 절절히 호소하시였으나 양영복선생이나 소장동무는 아무런 발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치영동무가 발기를 하자 의혹을 가졌댔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서는 양영복선생이 앞선 다른 나라들에서 현재 널리 리용하고있는 압착가공기술과 전혀 다른 월등한 기술을 개발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남의것보다 월등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그것은 먼 후날에나 가능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동무들은 완강하게 박치영동무의 발기를 반대해나섰습니다.》

황석태는 자기 말에 대한 반응을 가늠해보는듯 림수봉을 쳐다보았다. 림수봉은 시선이 마주치자 조용히 눈시울을 내리깔았다. 한순간 침묵을 지키던 그가 손관식을 향해 입을 열었다.

《동무들이 전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할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방금 비서동무가 말한것처럼 언제 실현될지 모를 먼 장래의 일입니다. 그런것만큼 당장 실현할수 있는 방법이 나온 이상에는 적극 찬성하고 지지했어야 했습니다. 내 생각에도 동무들의 립장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박치영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이 모임에서 판결의 결정권이 있다고 할수 있는 림수봉이 은연중에 자기의 견해를 비쳤던것이다. 손관식은 고개를 숙인채 자리에 앉았다.

황석태는 웃음진 얼굴을 림수봉에게 돌리였다.

《연구소와 제련소동무들의 의견은 더 들어볼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젠 과학원에서 온 동무들의 견해를 들어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수긍의 뜻으로 그와 시선을 마주쳤던 림수봉은 과학원의 전문가들을 한사람씩 불렀다. 그들은 앞줄 맨 복판에 앉아있었다. 먼저 지명을 받은 중년의 금속공학자가 일어섰다. 때이르게 이마가 훌렁 벗어진 그는 돋보기를 벗어들고 박치영네의 학술적성과를 지적하면서 충분히 공업화할수 있다고 하였다. 뒤따라 일어선 두 학자도 제나름의 론거를 들어가며 지지했다. 그러나 마지막사람은 혈색이 도는 얼굴을 수긋하고 얼른 일어서지 않았다. 자기의 결심을 표명하기가 어려운듯 하였다. 그는 림수봉의 집요한 시선을 의식하며 잠시후에야 무겁게 일어섰다.

《저는 자기의 견해를 말하기에 앞서 최첨단기술제품으로 꼽히는 티탄합금가공설비의 기술개발에서 실험실적인 성공에 도달한 연구집단동무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고싶습니다.》

이렇게 허두를 뗀 그의 발언은 모임의 흐름에서 빗나갈듯 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과학원에서 온 전문가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심정의 실토가 리해되였다. 힘겹게 번지는 어조와 진지한 표정이 진실하게 안겨오기도 하는것이여서 청중은 그 누구의 견

해보다도 주의깊게 들었다. 그는 특별히 말마디에 힘을 주며 《그러나…》하고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했다.

《저는 지난 사흘동안 깊이 료해하는 과정에 점차 몇가지 점에서 불만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연구한 가공설비가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그 제작에 필요한 자동조종부분제품들과 정밀수감계기의 결핍으로 설비의 성능은 본보기로 하였던 외국설비의 몇분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나라것보다 그 능률에 있어서 뒤떨어지는것이라도 개발하는것이 지금 형편에서 절실하다는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티탄합금가공은 시간을 다투리만큼 절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 설비에서 자동적으로 조종되는 공정을 사람의 판단과 로동으로 보충하려고 한 부분간의 련관인데 그것이 실험실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지 생산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기계공학자는 그 점을 두고 자세히 설명을 한 다음 이렇게 계속했다.

《많은 동무들이 공업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기때문에 자신의 견해에 잘못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설사 빗나간 생각이라 하더라도 제 견해 그대로를 말씀드렸으니 리해해주기 바랍니다.》

객석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불만의 시선을 보냈다. 박치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방금 말한 동무가 우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한다면…》

《앉으시오.》

림수봉이 앞으로 팔을 내뻗치며 박치영을 제지시켰다.

《또 다른 견해가 없습니까?》

더는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다. 드디여 림수봉이 연단으로 나섰다.

《오늘 절대다수의 동무들이 이번에 개발한 티탄합금가공기술을 공업화할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미 대량생산에 들어간 티탄합금을 임의의 형태로 가공까지 한다면 우리의 티탄공업은 완성단계에 이를것입니다. 압착가공이 실험적으로 성공한 이상 여기 모인

모든 동무들이 지혜와 열정을 합친다면 능히 공업화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이번에 개발한 가공기술을 공업화할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올랐다. 그러나 몇사람은 잠자코 있었다. 손관식은 점점 머리를 깊이 숙이였다.

## 9

《…나는 이 신청서를 승인할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적담보가 인정되였다 하더라도 티탄합금가공설비를 갖추는 문제는 올해계획에 물려있지 않습니다. 계획외 공사를 벌리고 필요한 부분품들을 구입해들인다면 어차피 현행생산에 지장을 가져올것입니다. 진공가열로와 진공압착가공공정을 꾸리는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앞탁에 팔굽을 짚고 앉은 강서원은 폭넓은 어깨를 솟구며 황석태와 지배인 류명식을 번갈아보았다. 그의 팔굽사이에는 금속공업부의 비준에 제기한 자재와 자금, 로력신청서가 놓여있었다. 강서원은 제련소가 올려보낸 그 문건들을 검토하고 내려왔던것이다. 다몰린 피로가 엉켜서 눈에 가는 피발이 선 지배인은 눈시울을 내리깔고 침묵했다. 가공설비개발은 처음부터 당비서가 주관해온 사업이여서 그에게 전적으로 발언권을 떠맡기고있는것 같았다. 황석태가 큼직한 주먹으로 턱밑을 문지르더니 완강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 우리가 티탄합금가공설비를 갖추는 공사를 벌리면 현행생산에 지장을 가져오는것도 사실일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체없이 티탄합금가공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는 부부장동무의 립장을 도무지 리해할수 없습니다.》

잠자코 있던 지배인은 론쟁이 격렬해지자 비로소 시선을 들고 두 사람을 번갈아보았다. 황석태는 성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으나 강서원은 어디까지나 랭담한 표정이였다.

《비서동무는 당일군이다보니 정책적요구만을 알고 경제관리의 실무적내용은 리해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만일 9월제련소에서

신청한 내용을 보장해주자면 이미 세워진 계획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말하자면 다른데 써야 할 자재와 자금, 제품과 로력을 빼돌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단위의 경영활동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권고하는데 연구사업을 더 무르익혀서 명년도계획에 맞물리시오. 우리에게는 기술개발을 시도하면서 막대한 나라의 재부를 넣어 공업화를 하려다가 실패한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전례를 따르지 않을것입니다!》

단호히 부르짖은 황석태는 코날개가 벌름거리도록 막혔던 날숨을 길게 내불더니 그 무엇을 압착해버릴듯이 주먹으로 앞상을 힘있게 눌렀다. 그는 비장한 결심을 다진듯 눈을 번쩍이며 계속했다.

《좋습니다. 부에서 보장해주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티탄합금가공설비를 기어이 갖추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소의 현행생산에 지출되는 자재와 자금을 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더 뒤돌아볼것 없다고 생각한 황석태는 벗어놓았던 기름때오른 작업모를 찾아들고 지배인실을 나섰다.

그를 지켜보던 강서원은 류명식에게 측은한 눈길을 던졌다.

《지배인이 곁에 앉아있는데 아무런 의논도 없이 제 혼자 기업소의 기술설비문제를 결심하는것과 같은 독단이 어데 있습니까? 지배인동무는 저 사람과 함께 일하기가 헐치 않겠습니다.》

《오히려 일하기가 쉽습니다. 당비서가 기업소의 경제기술사업까지 도맡아주다보니 나는 할일이 별로 없습니다.》

류명식은 강서원이 아니라 방안의 한곳을 응시하며 나직이 뇌이였다. 그는 여지없이 무시를 당한 자기의 존재를 눈길이 닿는 곳에서 새삼스레 발견하고 서글피 바라보는것 같았다.

《당일군이 행정을 대행하는데는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행정일군의 잘못도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당과 국가가 맡겨준 직권과 직능을 행사하지 못합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능하기때문이지요.》

강서원도 알고있지만 지배인은 결코 무능한 일군이 아니였다. 그에게는 오래동안 쌓은 경제관리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이 있으며 모든 일을 침착하게 처리할줄 아는 지도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황석태의 드셴 손탁밑에서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었다.

《당비서동무는 자기가 말아나설 일도 아닌데 과도한 열정에 떠서 덤비고있습니다. 만일 가공설비가 실패하는 경우 법적책임은 그가 아니라 지배인동무가 지게 될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앞에서 기업소의 경제기술사업을 책임진 사람은 지배인이 아닙니까?》

《나를 비롯한 우리의 일부 경제관리일군들이 바로 그 책임이 두려워서 새 기술도입을 주저하고있기때문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이 피탈, 저 피탈하면서 새 기술도입을 외면하는것은 애국심보다 보신주의와 리기주의가 앞서기때문입니다. 말로는 과학기술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 그것을 홀시하거나 도외시하는 립장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에게 애국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천만번 정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원은 놀랐다. 류명식이 이렇게 나올줄은 몰랐다. 회심에 잠긴듯 지그시 내려뜬 그의 시선은 앞상을 겨누고있었으나 자기 강서원의 내부를 들여다 보는듯도 했다. 그의 조용한 말마디들은 아픈 곳을 헤집으며 자기 가슴에 예리하게 박히는것만 같았다. 그는 은연중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것을 의식하며 얼없이 물었다.

《그래, 지배인동무도 당비서의 장단에 맞추어 가공설비공사에 나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의 사업방법과 작풍에 대한 불만과 가공설비를 기어이 갖추려는 그의 립장에 대한 공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류명식은 말마디에 그루를 박았다. 마치 생소한 사람을 대하듯 그를 멍하니 바라보던 강서원은 쓴입을 다시며 말했다.

《내가 들은바에 의하면 이번에 개발한 가공기술은 승산이 없습

니다. 티탄공학의 권위자인 양영복박사는 처음부터 반대를 하였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누구의 말을 듣고서가 아니라 자기 주견을 가지고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최종합평에서 승인이 되였다 하더라도 첨단기술문제인것만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비록 남이 이미 개발한 기술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고도기술제품과 재료들을 우리가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인동무나 나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다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금속공학전문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의 판단으로 기술문제에 대한 결심을 내려야 합니다.》

류명식은 침묵했다. 그 침묵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다. 잠시 그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던 강서원은 눈시울을 내리깔며 한탄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가 티탄합금가공설비를 다른 나라에서 사올수만 있었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것입니다. 참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기술봉쇄가 우리에게 많은 난관을 조성하고있습니다. 금속공업부문의 다른 기업소들에서도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시도했댔는데 그 저주로운 코콤에 걸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자체로 개발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과학자들의 자질과 공업기술수준은 앞선 나라들에 비해 뒤떨어져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뒤떨어졌기때문에 남보다 몇배로 분발해야지요.》

《옳습니다. 분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무모하게 국가의 재부를 헛되이 쓴다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일것입니다.》

《그래, 부부장동무는 광범한 합평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발한 가공기술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류명식은 긴장한 표정으로 따지듯 물었다.

《내가 판단한데 의하면 그렇습니다.》

맺고 끊는듯이 대답한 강서원은 명백한 어조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라고 할수는 있지만 과학연구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나의 견해는 일면적인 편견일수도 있습니다. 동무들이 올려보낸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는것은 과학기술적담보를 우려하는 나 개인의 견해때문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부문의 전반적인 계획을 조절할수 없기때문입니다.》

두사람의 대화는 또다시 격렬하게 번지였다.

《나는 누구보다도 기술갱신에 관심이 커야 할 부부장동무를 비롯한 부의 책임일군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리해할수 없습니다.》

강서원은 대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류명식을 쏘아보는 두 눈에는 노기가 빛발쳤다.

《여보 지배인동무, 산하기업소들의 기술갱신에 관심이 크기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신중하게 대하는겁니다. 흔히 있을수 있는 기술혁신안이라면 쉽게 승인할수도 있습니다. 이건 첨단기술개발문제인것만큼 최대한으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도기술이 집약된 설비를 그처럼 빠른 시일내에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놀랐습니다. 그것도 경험이나 학위가 없는 젊은 동무가… 명예심이나 공명심에 들떠서 그 무슨 요란스러운것을 만들어내겠다고 분별없이 날뛰다가 실패한 젊은 과학자들을 우리는 어디서나 흔히 보게 됩니다.》

강서원은 이 순간에 초고압유압프레스를 개발하려다가 실패하고 연구집단이 해산되는 결과를 빚어낸 자기 사위에 대한 생각이 피끗 떠올랐다.

《우리는 우리 과학자들을 믿어야 합니다. 최신과학기술로 무장한 젊은 과학자들을 더욱 믿어야 합니다. 부부장동무처럼 우리의 공업수준에 빙자할뿐아니라 과학자들의 능력조차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가도 앞선 기술을 개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것입니다!》

류명식은 안타까운 울분으로 목이 메는듯 울대뼈를 살구며 치미

는 그 무엇을 꿀꺽 삼키였다.

《아무튼 나는 동무네 제련소의 신청서를 승인할수 없습니다. 당비서가 자체의 힘으로 설비공사를 벌리겠다고 했으니 지배인동무도 그의 자력갱생립장을 따르시오.》

강서원은 비양조로 오금을 박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 제 3 장

## 1

보통교육부 최부부장실은 랭풍기를 돌리지 않았지만 북쪽방이여서 불볕이 쏟아지는 이즈막에도 서늘했다.

《내가 오늘 여기에 나온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을 국제수학올림픽에 출전시키는 문제를 동무들과 의논하려고 왔습니다.》

고중환은 좌중을 둘러보았다. 길다란 앞상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최부부장과 1중학교들의 사업을 맡아보는 박국장 그리고 대외교육을 담당한 국장이 마주앉았다. 그들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심중한 표정들이였다. 모임의 취지를 이미 짐작하고있었던것이다. 고중환은 10여일전에 그들에게 정식 경연에 참가할것인가 아니면 방청으로 참가할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라고 했었다. 박국장에게는 지방의 1중학교들에 나가 시험을 쳐보라는 과업을 주었었다.

《그동안 생각들이 많았겠는데 기탄없이 견해들을 말씀하십시오.》

고중환이 이렇게 말했으나 누구도 선뜻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박국장동무, 지방의 1중학교들에 나가 시험을 쳐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이 아니였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픽에 출제되였던 문제들은 수준이 높아서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고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있었습니다.》

힘겹게 대답하는 박국장의 표정은 시험지를 들고 나타났던 정금화의 실망어린 기색을 련상시켰다. 박국장 역시 자기가 지도하는 학교들에서 나타난 그러한 실태에 실망을 느끼는것 같았다.

한동안의 침묵끝에 최부부장이 이마에 드리운 머리칼을 쓸어올리

며 말했다.
《처음 당하는 일이고 조국의 명예와 관련되는 문제인것만큼 그동안 저도 심중히 생각했습니다. 여기 앉은 두 국장동무들뿐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널리 의논해봤습니다. 저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정식 경연에 참가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의견들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학생들을 경연에 준비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체육올림픽에도 선수들을 출전시키자면 여러해씩 준비를 시킵니다. 수학올림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니 교육이 매우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이미 여러번 참가한 경험이 있지만 매번 수학올림픽출전을 위해서 선발된 학생들로 여러해씩 준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경험도 없는 우리가 그나마 준비도 없이 당장 참가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부부장은 그 결과를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뜩해오는듯 눈시울을 내리깔았다.
고중환은 대외교육을 담당한 국장에게 시선을 주었다. 국제수학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그가 깊은 리해를 가지고있었다.
《동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 최부부장동지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방청으로밖에 참가할수 없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성 대답을 하는 국장은 명백한것을 가지고 더 론의할 필요도 없다는듯 한 표정이였다. 깊이 생각지도 않고 상급의 의견을 따르는듯 한 그 태도가 불쾌했다.
고중환은 힘주어 말했다.
《문제는 국장동무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모인 교육일군들이 이미전부터 국제수학올림픽에 참가할 생각을 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여러해전부터 여기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올해쯤은 정식 경연에 당당히 참가해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을것입니다. 올해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직접 말씀이 계셔서야 비로소 이 문제를 론의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응당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국장이 붉어진 얼굴을 들었다.

《아다싶이 수학올림픽은 교육과 과학이 발전된 나라들의 경연무대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참가하는 체육올림픽과는 다릅니다. 체육올림픽은 수많은 종목을 가지고 겨루기때문에 그중 한두개 종목에만 신심이 있어도 참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올림픽은 한 과목의 경연이기때문에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결과를 뻔히 내다보면서 누가 거기에 참가하자고 제기하겠습니까?》

《그래, 동무는 우리가 여러해전부터 관심을 돌려왔다 하더라도 승산이 없다는겁니까?》

《경험을 쌓아왔다면 꼴찌는 면할수 있겠지만 우승메달을 따기는 어려울겁니다.》

《그건 지나친 허무주의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그렇게 뒤떨어진것은 아닙니다!》

《…》

고중환은 세사람을 일별하며 명백한 어조로 강조했다.

《우리는 때늦게, 그나마 방청으로나 국제수학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사실을 두고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무대를 내다볼줄 모르는 비좁은 시야를 가지고 지금껏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인 실력경쟁에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마주앉은 세 일군을 지적하고있었지만 실상 자신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여서 누구에게라없이 화가 치밀었다. 국제수학올림픽이 열리기 시작한지도 수십년이 되여온다. 그런데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일군들은 여적 거기에 참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었다. 만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기하지 않으셨다면 언제까지나 그럴것이다. 생각할수록 한심한 일이였다. 고중환은 가슴속에 넘치는 의분을 교육일군들에게 숨김없이 헤쳐보이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승산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이께서는 기왕이면 우리 학생들을 정식 경연에 참가시켰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품고계시였다. 그것은 물론 좋은

결과를 전제로 하신것이다. 그이께 하는수없이 방청으로 참가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할 자신을 생각하니 한없이 괴롭고 안타까왔다. 하지만 달리 말씀드릴수 없었다. 언제나 그이께는 진정과 진실만을 말씀드려야 했다. 고중환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정식 경연에 참가한다면 부끄러운 결과가 빚어지리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한 생각은 오늘의 모임을 통해 확신으로 굳어졌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온 그가 방금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책상우에 놓인 전화종이 울리였다. 들고온 서류가방을 놓지도 못한채 송수화기를 들었다.

《접수실입니다. 평양1중학교 정금화교원이 찾아왔습니다.》

《정금화?…》

고중환은 그제서야 생각났다. 엊그제 그 학교의 당비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금화교원이 직접 만나서 제기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보내여도 좋겠는가고 하였다. 그래서 아무때고 보내라고 하였더니 찾아온 모양이다.

《오늘 기어이 부부장동지를 만나야 한다면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있습니다.》

잠시 기억을 되새기며 인차 응답을 하지 않았더니 접수원은 정금화의 심정을 대변하며 다시 말했다.

《들여보내시오.》

얼마후에 출입문이 열리면서 정금화가 방안에 들어섰다. 자리에서 일어선 고중환은 그를 향해 걸어갔다. 찾아온 손님이 누구이건 그는 앉은 자리에서 맞이하는 법이 없었다.

《바쁘실텐데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가볍게 머리숙여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드는 정금화의 얼굴에는 알수 없는 간절한 기대가 흘렀다. 절박한 사정을 안고 찾아온것이 분명했다.

《자, 어서 앉으시오.》

고중환은 앞상옆에 놓인 의자를 권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국제수학올림픽참가문제때문에 왔습니다.》

정금화는 단정한 자세로 앉아서 정중히 말했다.

《그렇습니까?》

고중환은 의혹을 가지고 반문했다. 정금화에게도 그것은 이미 명백해진 문제가 아닌가? 그자신이 직접 학생들의 시험을 쳐보지 않았는가? 그를 유심히 지켜보며 말없이 뒤를 재촉했다. 정금화는 그 무슨 반가운 일이라도 있었는지 활기를 띠고 말했다.

《저는 부부장동지가 다녀가신 다음에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제출되였던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세번이나 시험을 다시 쳐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시험에서는 네명의 학생이 세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런가요?》

느릿한 어조로 말꼬리를 길게 끌며 반문했다. 두주일사이에 학생들의 실력이 그렇게 높아졌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두 문제를 푼 학생은 열명이나 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청이 아니라 정식으로 참가했으면 합니다. 여러번 시험을 쳐보는 과정에 저는 신심을 얻었습니다. 저뿐아니라 우리 수학강좌의 모든 교원들은 정식 경연에 참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 수학교원들의 일치한 견해를 대표해서 왔단 말이지요.》

고중환은 빙긋이 웃었으나 내심으로는 정금화를 두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그사이 학교에서는 론의가 많았을것이다. 자기가 배워준 학생들의 실력을 사실보다 높이 인정하는것은 교원들의 어쩔수 없는 감정이다. 수학교원들이 일치하게 정식 경연에 참가하자고 주장했다는것은 어느 정도 리해할만 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자적량심이 없지 않다고 보았던 정금화가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견해를 달리하는것은 서운한 일이였다.

《부부장동지, 어떻게 하나 정식 경연에 참가하도록 해주십시오. 수학소조의 학생들도 모두 신심을 가지고있습니다.》

《교장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장선생은 여전히 방청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금화선생,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인 실력경쟁에 나서는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제수학올림픽에 참가하는것은 우리 나라 교육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사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이 문제를 심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정식 경연에 참가한다면 우리는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교육부의 책임일군들과도 의논해봤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방청으로 참가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응당 그렇게 나올겁니다.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정금화의 눈에 의분의 빛이 떠올랐다. 방금전과는 달리 가슴속에서 참을수 없는 불만이 끓고있는듯 한 낯빛이였다. 고중환은 그의 표정의 변화에 놀라며 반문했다.

《선생도 이미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보통교육부 일군들에게 제기해봤습니까?》

《저는 3년전에 보통교육부의 한 책임일군에게 우리도 수학올림픽에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했댔습니다. 그런데 그 일군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면서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댔는가? 정금화의 의견대로 3년전부터 방청으로 참가해서 경험을 쌓았다면 올해는 당당히 정식 성원으로 참가할것이다. 듣고보니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듯이 아쉬웠다.

《도대체 그 일군이 누굽니까?》

《대외교육을 담당한 국장입니다.》

보통교육부 일군들과 의견을 나눌 때 자기 주견도 없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던 국장의 얼굴이 되새겨졌다. 그에 대한 불만이 치밀었지만 정금화앞에서 터놓을수는 없었다.

정금화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것은 한가지 실례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육부문의 일부 일군들은 왜 그리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정금화는 일부 교육일군들에게 적지 않게 의견을 품고있은것이 분명했다.

《어서 기탄없이 말하시오. 이 방에 찾아올 기회도 쉽지 않겠는데 기왕 왔던김에 우리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 하시오.》

고중환은 허심한 표정으로 부추겼다. 수학올림픽문제는 자기로서

이미 확고한 결심을 가졌으니 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지만 교육일군들의 사업과 관련된 의견은 듣고싶었다.

《그렇다면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던 몇가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발전의 추세에 맞게 과정안이나 교과서들을 갱신하는 사업을 우리 교육일군들은 매우 늦잡고있습니다. 전자공학이나 생물학은 벌써 작년것이 낡은것으로 되고있는데 몇년전의 교과서들을 그대로 쓰고있습니다. 그들은 혁신적인 안목이 없이 시험방법도 도식화된 낡은것을 고집하고있습니다. 지금 학교들에 실험설비나 교구비품도 잘 보장되지 않고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에서는 늘어나는 학생수요에 책걸상수요도 따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을 담당한 교육위원회 일군들은 나라사정에 빙자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습니다. 목재사정이 어려워지자 비생산부문이라고 교구비품생산공장들부터 계획이 잘리웠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누가 앞장에서 투쟁해야 하겠습니까. 당에서는 모든 사업에 교육을 앞세우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해오고있습니다. 전쟁시기에도 이 방침은 견지되여왔습니다. 그때는 교과서도 군수렬차로 나르지 않았습니까. 당의 교육선행의 방침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투쟁하지 못하겠습니까?》

고중환은 그의 말마디들이 창끝처럼 날아와서 자기의 가슴에 박히는듯 했다. 정금화는 교육부문의 행정일군들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있지만 그것이 자기에 대한 비판처럼 느껴졌다. 당적으로 행정일군들을 옳게 지도하지 못했다는 자책뿐아니라 그가 말하는 적지 않은 점들은 자기에게도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평범한 녀교원으로부터 이렇듯 숨김없고 신랄한 의견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였다. 어데서나 자기를 확고히 주장할줄 아는 녀자였다. 그 학교 교장의 말대로 홀로 사는 녀인이기때문일가? 아니, 그렇지 않을것이다. 홀로 사는 녀인들이 자존심이 높거나 성미가 이그러졌다고 보는것은 편견이다. 고독하게 사는 녀인일수록 생각이 깊고 자신을 통제하는데 습관되는 법이다. 정금화는 워낙 정의감이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것을 끝까지 지킬줄 아는 그런 녀성이다. 그의 말에서는 자기 개인을 초월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교육사업을 두고 안타까

와하는 절절한 심정이 울리고있었다.

《부부장동지.》

방금전과는 달리 녀성의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울리였다. 정금화는 미안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그리였다.

《제가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처음 올 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국제수학올림픽참가문제를 두고 보통교육부 일군들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만 평소에 생각하던바를 주제넘게 말했나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중환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녀인이 앉아있는듯이 느껴졌다. 하나는 자존심이 높은 도고한 녀인이였고 다른 하나는 례절과 도덕이 밝은 현숙한 녀인이였다.

《나는 선생의 의견을 듣고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봅니다.》

《제 말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말 죄스럽습니다. 저는 부부장동지가 과학교육부문 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하면서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랬을뿐입니다.》

정금화는 커다란 실수라도 저지른듯이 당황해했다.

고중환은 싱긋이 웃어보이였다.

《선생의 그 심정을 리해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해두어야 할것이 있나봅니다.》

《그게 뭡니까?》

정금화는 공연히 옷섶을 여미며 낯빛이 긴장해졌다.

고중환은 웃는 얼굴로 말했다.

《밑에 사람들의 정당한 비판이나 충고를 진심으로 고맙게 여길만 한 자기반성능력이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일것입니다.》

정금화는 눈을 빛내이며 긴장했던 표정을 풀었다.

《아무튼 저는 부부장동지를 념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였습니다.》

《누구를 념두에 두었던간에 선생의 의견에서 자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일이 아닙니까. 나는 우리 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선생의 안타까운 심정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소어린 눈을 깜박이던 정금화는 뜻하지 않게 화제가 빗나갔다

는것을 깨닫고 말머리를 돌리였다.

《제가 여기에 온것은 국제수학올림픽에 어떤 자격으로 참가할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그만…》

고중환은 웃음을 가시고 정중한 표정을 되살렸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미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있습니다.》

《부부장동지는 정식 성원으로 참가시키자는 생각이겠지요?》

정금화는 한껏 기대를 가지고 초조히 물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흘러온 분위기를 보아 그럴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고중환은 명백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올해에는 어차피 방청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장동지까지도?…》

얼결에 그렇게 말하고는 올롱해진 눈동자로 마주보았다.

《조국의 명예와 관련된 사업에 요행수를 바라거나 줄타기를 할수는 없습니다.》 하고 고중환은 타이르듯이 말했다. 《올해에는 학생들을 데리고가서 경험을 쌓으시오. 그랬다가 명년이나 래후년에는 정식 경연에 참가합시다. 한두해 미루더라도 훌륭한 성적을 거두는것이 좋은 일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뿔리 정식으로 참가했다가 실패를 한다면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게 됩니다.》

정금화는 자기의 기대가 여지없이 허물어지는것을 느끼며 터지는 한숨을 삼켰다. 머리를 숙이는 그의 얼굴은 금시 감빛으로 물들었다.

고중환은 부드러운 어조로 계속했다.

《정금화선생, 이제부터 한두해 잘 준비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금메달을 따올것입니다. 선생은 3년전부터 국제수학올림픽에 참가하자고 제기했다는데 잃어버린 3년을 보충할수 있도록 앞으로 학생들을 잘 준비시키리라고 믿습니다.》

정금화는 얼굴을 숙인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중환은 갈린 어조로 인사를 남기는 그의 얼굴에 형언 못할 실망과 원망이 짙게 뒤엉키는것을 보았다.

## 2

당중앙위원회구내를 벗어난 두대의 승용차가 보통문쪽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달리고있었다. **김정일**동지를 모신 차가 앞에서 달리고 고중환의 차가 그뒤를 따랐다. 평양제1중학교를 향해 떠나신 걸음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창가에 사색깊은 시선을 주시였다. 박두해오는 국제수학올림픽출전문제를 두고 생각에 잠기시였다.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첨단과학의 높은 목표앞에서 주저하거나 동요하고있었다. 남달리 어렵고 뒤떨어진 처지에 있는 우리가 과연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거나 앞설수 있을가? 과학발전의 기존관념과 상식을 초월한 목표였으니 그럴만도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우리 민족의 월등한 창조적지혜를 믿지 못하는 사상관점이 깔려있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창조할수 없으며 그러한 민족은 언제까지나 뒤떨어진 처지에 있기마련이다. 오늘은 비록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래일에는 남을 따라앞설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는것이 중요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의 창조적지혜가 얼마나 월등한가를 현실로 보여주려고 우리 학생들을 국제수학올림픽에 내보내려고 하셨던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문 일군들은 방청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견해들이라고 했다. 고중환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 평양제1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한 교원은 신심을 가지고 정식 경연에 참가할것을 주장해왔다고 한다. 고중환의 말에 의하면 자기 학생들의 실력을 정도이상으로 높이 여기는 교원의 눈무딘 감정때문이라는것이다. 과연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아직 세계적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을가? 학생들의 실력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교원의 자질과 교육설비,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을 포괄하는 객관적요인들을 두고 말한다면 1중학교는 나무랄데없이 우월하다. 하다

면 주관적요인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지적능력이 남들보다 뒤떨어진단 말인가? 절대로 그럴수는 없었다. 우리 민족의 재능이 월등하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증명하고있다. 우리 민족은 태고적부터 자기의 지혜와 슬기를 과시하여왔다. 남들처럼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에 토대하여 문명의 첫걸음을 내디딘것도 아니다.

최근년간 우리의 고고학자들은 대동강류역의 여러 지방에서 류인원으로부터 인간이 진화한 시기의 고인과 그후 신인의 뼈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인류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자랑스럽게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사람은 다른 대륙이나 다른 섬에서 시원하여 맛나는 나무열매와 짐승무리를 찾아서 정처없이 헤매던 끝에 산좋고 물맑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생존의 터전을 마련한것이 결코 아니다. 세면을 둘러싼 장쾌하고 드넓은 바다, 기름진 들판과 수림이 무성한 산발들이 조화를 이룬 대지, 꽃피는 봄에 뒤이어 록음질은 여름이 오고 풍요한 가을과 눈덮인 겨울이 차례로 뒤따르며 계절의 변화를 뚜렷이 하여주는 기후, 눈비를 알맞추 뿌려주면서 년중 거의 모든 나날에 맑고 푸르게 열리는 하늘, 이러한 자연이 부여해준 독특한 정기를 타고난 조선사람은 처음부터 단일한 혈통을 지켜오면서 자기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여왔다. 출토된 우리의 구석기들은 다른 나라의 구석기들과 많은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점은 희미하게 나타나고있다. 비록 각이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일한 출발선에서 떠난 달리기선수들의 간격이 첫 순간에는 쉽게 눈에 뜨이지 않는것처럼 류인원에서 갓 진화한 우리 선조들의 지적능력은 다른 인종들의 그것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이 발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차이가 뚜렷해지고있다. 토기들에 새겨진 무늬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기하학적 사고와 조형능력에 있어서 신석기시대 다른 인종들보다 훨씬 앞서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더욱 놀라운것은 원시시대의 고인돌무덤이다. 수십톤씩 되는 돌로 네기둥을 세우고 역시 그만한 크기의 돌로 뚜껑을 덮은 고인돌무덤은 당시 인간들의 석축술과 력학지식이 어떤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말해주고있다.

웬만한 현대의 기중기들도 들어올리기가 불가능한 몇십톤짜리 돌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바이 알기가 어렵다. 세상사람들은 고대의 대표적인 석축물로 에짚트의 피라미트를 꼽고있다. 물론 피라미트는 웅장함과 정교함에 있어서 력사의 기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고인돌무덤의 년대는 피라미트보다 몇십세기 앞섰다. 에짚트사람들처럼 수십년세월을 거쳐 수십만의 노예들을 희생시키면서 피라미트와 같은 웅장한 석축물을 쌓아올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니 말이지 고인돌무덤이 보여주는 놀라운 솜씨를 미루어보아 만일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것을 시도하였다면 훨씬 앞선 시대에 보다 훌륭히 창조하였을것이다.

최근에 개발된 최신형년대측정기구로 우리의 청동기유물들을 검증한데 의하면 우리의 선조들은 야만의 시대가 끝나고 문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청동기시대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였다. 력사박물관에 진렬된 청동기들의 그 신묘한 연마술과 가공술에는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한다. 무슨 수로 뽑아내였는지 알길이 없는 머리카락같은 금실과 구시실, 왕관에 장식된 화려한 문양, 유리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치는 청동거울… 겉보기에도 놀랍지만 그 유물들의 재질을 알고보면 더욱 그러하다. 같은 시기 다른 나라 청동기들은 단일 유색금속제품들이였다. 금이면 금, 구리면 구리 한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청동기들중에는 합금으로 된것이 많다. 우리의 선조들은 청동기시대에 여러 유색금속을 합리적인 비률로 함께 녹여서 보다 질좋은 재료를 만들어냈다. 청동기를 쓰면서 그들의 생활은 새로운 면모를 띠게 되였다. 굶주림을 면하는데 모든것을 집중하던 처지에서 벗어나 공상과 환상을 가지며 주위세계를 보다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 학문과 과학을 탐구하기 시작한 우리의 선조들은 문명에로의 진군을 다그치기 위해 문자를 창제하였다. 문자의 창제는 인류가 이룩한 가장 획기적인 업적이다. 고대문화의 본보기를 창조한 동서방의 앞선 민족들이 자기의 문자를 가지게 된 문명기 초기에 우리 선조들은 뒤떨어짐이 없이 《신지글자》로 불리우는 문자를 만들어냈다. 신지글자가 정확히 어느때 만들어졌는지는 딱히 알수가 없다. 풍파많은 력사의 동란속에서 신지

글자로 기록된 책들은 물론이고 그 글자자체가 아득한 옛시절에 인몰되여버렸다. 다행 토기에 새겨진 신지글자의 몇자만이 후세에 전하여졌다. 토기를 검증한데 의하면 고대 발달된 민족들이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년대와 비슷하다. 실상 신지글자가 창제된것은 그 글자를 새긴 토기가 구워진 때보다 훨씬 이전일수 있었다. 몇백년 지어는 몇천년전일수도 있다. 감정된 토기의 년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도 우리 선조들은 당당히 인류최초의 문자들을 가진 선각자대렬속에 들어선것으로 된다.

우리의 선조들은 주위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에 얻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신지글자로 기록했을것이다. 고대의 유물들과 유적들을 보면 당시 우리 나라에도 탈레스나 피다고라스와 같은 인류과학의 첫 개척자들이 있었으리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당시의 유적과 유물들이 그에 해당한 기초과학의 리론에 토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신지글자와 그 기록이 력사의 재난속에 일찌기 묻혀버린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우리 민족사의 비극이다.

그때로부터 멀리 후세에 이른 15세기에 《훈민정음》으로 불리우는 우리의 문자가 다시 창제되였다. 발음을 할 때의 입모양을 따서 글자획을 만든 훈민정음은 어음학적인 과학성과 표기능력의 우수성으로 하여 세계에 자랑할만 한 글자이다. 가장 우수한 이 글자가 만들어진것은 빈터우에서가 아니라 고대시기에 신지글자를 만들었던 전통에 토대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신지글자는 인멸되였어도 그 글자를 만들 때 발휘되였던 우리 민족의 슬기만은 끊어지지 않고 후대들에게 계승되였을것이다.

고려의 도자기 또한 세계의 자랑이다. 보면 볼수록 더더욱 아름다움과 깊이가 느껴지는 부드러운 색갈, 완벽하달만치 조형미를 갖춘 형태, 다양하고 기묘한 무늬,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재질… 실로 고려청자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고결한 심혼과 신비할 정도의 도자기제조기술이 깃들었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 도자기들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그러니 고려사람들은 거의 10세기나 앞질러 세계도자기기술의 상상봉에 올랐던것이다.

13세기 후반기로부터 14세기 전반기에 생존했던 고려의 학자 강보는 수학, 천문학, 력학 등 광범한 분야의 학문을 탐구하였다. 그는 특히 수학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학자로서 4차방정식풀이법을 발견하였다. 유럽에서는 그때로부터 500년이상 흐른 19세기에 영국의 수학자 오네에 의하여 4차방정식풀이법을 알게 되였다. 그러고보면 고려의 수학자 강보는 유럽수학자들보다 얼마나 멀리 앞섰던가. 부인할수없이 강보는 인류의 지혜를 뛰여넘었다. 하지만 강보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세계과학발전사는 유럽중심주의의 편견에서 서술되여왔다. 만일 공정한 평가가 주어진다면 강보는 중세기 세계수학계의 거물들로 꼽히는 페르마, 파스칼, 데카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것이다.

고려시기의 재능있는 화학자였던 최무선은 효능높은 화약을 발명하였다. 1380년 500여척으로 왜구가 남해로 침범했을 때 최무선의 화약은 무적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가 만든 화약으로 장약된 화전과 화포, 화통의 불길속에서 적들은 별로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전멸되였다. 력사에 진포해전으로 불리우는 대전승은 최무선의 과학적지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진포해전에서 사용한 화전(불화살)은 로케트원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헹기웠던 활시위의 탄력으로 화살이 날아가는것이 아니였다. 화살의 뒤에 화약을 장약한 화통을 달고 거기에 불을 달아서 폭발하는 화약의 반충력으로 적진에 화살을 날렸다. 꼬리에서 거세찬 불길을 뿜으며 먼거리탄도를 긋는 화전의 위력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것이였다. 세계는 로케트기술의 시원이 서방이 아니라 동방 조선에서 열리였다는것을 공인하고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중세시기에 오늘의 인류가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만들고 우주비행까지를 실현할수 있게 한 로케트기술의 첫 개발자였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그후에는 무지와 몽매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배신적인 음모와 정변으로 고려왕조를 멸망시키고 집권의 야망을 실현한 리성계는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과학기술을 참혹하게 묵살해버렸다. 과학기술에 대한 수치스러운 배제와 홀시는 리성계의 후손들로 26대에 걸쳐 왕위가 계승되여온 장

구한 력사적기간에 변함없이 계속되였다. 물론 세종대왕시기와 같이 과학기술발전에 관심을 돌린 례외적인 시기도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리조 500년간은 전반적으로 볼 때 봉건지배계급이 유교교리만을 숭상하면서 음풍영월로 헛되이 세월을 보낸 시기였다. 거기에 일제식민지통치의 40여년이 뒤따랐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지닌 특출한 지혜마저 그 시기에 사라져버린것은 아니였다. 다만 암흑통치하에서 빛을 보지 못하였을뿐이다.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오랜 력사의 질곡에서 마침내 벗어난 우리 민족의 지적능력은 광휘로운 해빛속에 활짝 꽃피기 시작했다. 오늘에 이른 우리의 교육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 1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조건도 나무랄데없이 훌륭하다. 그러고보면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남에게 뒤질 아무런 까닭도 없는것이다. 우수한 지능에 훌륭한 제도와 조건이 주어지고있는것만큼 우리 시대에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무수히 자라나야 할것이다. 우리의 과학발전은 너무도 길었던 력사의 공백을 메꾸자고보니 세계적수준에 비해 아직 일정한 거리를 남겨두고있지만 교육은 그렇지 않다.

교육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던 력사의 공백을 과학보다 빨리 메꿀수가 있다. 개별적인간들의 교육년한이 15～20년밖에 걸리지 않기때문이다.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온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정책으로 오늘 우리 교육은 세계적인 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수학실력이 최강자들과 겨룰수 없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어느덧 승용차는 평양제1중학교 정문에 이르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앞에 앉은 운전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였다.

《여기에 차를 세우시오.》

운전사는 까닭을 묻지 않고 말없이 차를 세웠다. 운동장을 꿰질러 현관앞까지 차를 몰고가면 한창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수 있다고 여기시는 그이의 심정을 진작 알고있었다. 학교나 유치원을 찾으실 때에는 항상 울타리밖에서 차를 멈추게 하시는 그이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과 나란히 운동장으로 들어가시였다.
현관앞에 이르셨을 때 낯익은 교장이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정말 뜻밖입니다. 이렇게 오실줄은 몰랐습니다.》
《미리 알리고 나오면 학생들이 공부도 안하고 모두 운동장에 나올것 같아서 소문없이 나왔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교장의 안내로 그의 사무실에 들어와 쏘파에 앉으시였다. 무심히 둘러보시니 눈익은 방안의 전경이였다. 학교의 청사를 준공할 때 마지막으로 이 사무실에도 들려보시였었다. 그날 동행했던 림춘추부주석은 방안에 갖추어진 최상급의 비품들에 황홀해하면서 교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보, 동무의 사무실이 내 사무실보다 훨씬 더 요란하오. 부럽소. 그럴수만 있다면 부주석자리를 내놓고 여기 와서 교장사업을 하고싶소.》
롱담이였지만 해방직후 중국 동북지방에서 사업할 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변대학창립에 관여했던 그로서는 노상 빈말이 아니였을것이다. 교장은 아무런 응대도 없이 히뭇이 웃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림춘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교장자리가 그렇게 탐이 난다면 이 학교의 사업을 책임진 심정으로 한가지 맡아주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저더러 무엇을 하라는겁니까?》
림춘추는 무슨 일이건 기꺼이 맡아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길쑴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반문했다.
《학교를 돌아보니 교육설비는 나무랄데없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학생들을 잘 먹이는 문제입니다. 귀중한 학생들인것만큼 영양관리도 잘해야 하겠는데 중앙인민위원회가 후방사업을 직접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후방부교장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소리내여 크게 웃던 그는 교장에게 말했다.
《내 후방부교장으로 소임을 다할테니 교장선생은 그 일은 조금도 걱정말고 학생들을 우리 과학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주시오.》

여전히 롱조였으나 마지막부탁에는 절절한 호소가 울리고있었다. 항일전의 나날에 총칼로써만이 아니라 지식과 의술로써 원쑤격멸의 성전에 2중으로 기여하였던 로투사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그러기에 이날의 경사를 그토록 기뻐했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로부터 여러해후에 병석에 누운 그를 찾으셨던 일을 다시 상기하시였다. 그때 림춘추는 **김정일**동지의 손을 잡고 쇠잔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었다.

《달포전에 1중학교에 나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견스러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시대에 우리 나라는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용약 세계적수준에 오를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투사의 병세가 위급해진데 마음이 쓰이여서 그때는 무심히 들으시였다. 그러나 며칠후 그의 령전에 서시였을 때 그 말이 심중한 의미를 가지고 되새겨지셨다. 우리 과학기술의 선진수준에로의 도약이 혁명의 전세대가 자신의 어깨우에 짊어주는 력사적과제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

《림춘추부주석이 돌아간 다음에도 중앙인민위원회에서 학교의 후방사업을 잘해줍니까?》

상념에서 깨여나신 **김정일**동지께서 교장에게 물으시였다.

《잘해주고있습니다. 고기와 물고기는 물론 과일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습니다.》

《그러니 보장해줄것은 다 보장해주는셈인데 학생들의 성적이 왜 높지 못합니까? 국제수학올림픽에 제출되였던 문제를 가지고 처음 시험을 쳐봤을 때에는 태반의 학생들이 손도 대여보지 못했다더군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교장은 죄송스러운 어조로 대답올렸다.

《교장선생도 우리 학생들이 정식경연에는 참가할수 없다고 생각한다지요?》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제출되는 시험문제는 우리 학교들에서

치는 시험문제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수준이 높을뿐더러 기발하게 실머리를 찾지 않고서는 전혀 손을 댈수 없는 묘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한 수학교원은 신심을 가진다더군요.》

《그후 몇번 다시 시험을 쳐보고 신심을 가지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나친 욕망입니다.》

《그 교원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교장이 수학강좌에 전화를 걸었다.

녀교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교장에게 물으시였다.

《그 교원의 자질은 어떻습니까?》

교원의 자질이 학생들의 실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그것부터 알고싶으시였다.

《교원년한도 오래고 자질도 높은편입니다.》

잠시후에 정금화가 방안에 들어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반가움과 기쁨에 넘쳐 인사를 올리는 그에게 의자를 권하시였다.

《앉으시오. 수학올림픽참가문제와 관련해서 수학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학생들이 수학공부를 어떻게 하고있는가도 보고싶어서 나왔습니다. 선생은 정식경연에 참가해도 승산이 있다고 한다는데 기탄없이 의견을 말하시오.》

정금화는 고중환의 눈치를 얼핏 살피고나서 여러번 시험을 다시 쳐보는 과정에 성적이 점차 높아지는것을 보고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매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친다면 몰라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그렇게 갑자기 성적이 높아질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 물으심을 기다린듯 정금화는 다소 흥분된 어조로 대답올렸다.

《수학올림픽에 제출되는 문제들은 단순히 배운 지식의 소화정도를 검열하는 문제들이 아니였습니다. 배운 지식에 토대해서 학생들의 창조적사고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는 방향에서 제시된 문제들이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의 소화정도를 검열하는 시험문제에만 습관되여있었습니다. 창조적사고를 계발하는 시험문제들은 생소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성적이 예상외로 나빴던것은 그 풀이방법때문이였습니다. 교원들이 수학올림픽문제들에 대한 풀이방법을 가르쳐주자 그후 시험들에서는 학생들이 자체로 문제풀이의 실머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창조적인 사고력과 추리력을 문제풀이에 지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아졌던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충분히 리해가 가시였다. 고중환도 그제야 저으기 공감하는듯 한 낯빛이였다.

《부부장동무, 우리 학생들의 시험방법을 결정적으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배워준것을 받아내는 식의 시험방법을 더는 지속시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중환은 우리 교육일군들이 낡은 시험방법을 고집한다고 안타깝게 호소하던 정금화를 생각했다. 그 호소가 무엇을 의미했던가를 깨달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자신있습니다. 정식경연에 참가하도록 해주십시오.》

정금화의 눈에는 간절한 열망이 불타고있었다.

《나는 선생의 그 신심을 믿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수학선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학생들의 수학공부정형도 알아본 다음에 결정합시다.》

## 3

《6학년 2반의 다음시간이 수학입니다.》

손목시계를 본 정금화가 교장에게 귀띔하였다.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 학급의 수업을 다른 교원이 대신하도록 조직해주었으면 하는 뜻이였다. **김정일**동지의 접견을 받고있는 이 영광스러운 좌석을 뜨

고싶지 않았다. 교장은 못 들은듯이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모처럼 마련된 이 뜻깊은 좌석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을 상기시키는 정금화를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였다.

《수업시간이 되였으면 가봐야지요. 렬차시간처럼 절대로 어길수 없는것이 학교의 수업시간이 아닙니까?》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수업을 오후에 보충하면 됩니다.》

교장이 황황히 말씀드리며 정금화에게 힐책의 눈길을 보냈다.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에게 말씀하시였다.

《그럼 다른 수학선생들을 만나기 전에 저 선생의 수학수업을 참관합시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보잔 말입니다.》

고중환이 어리둥절해하는 정금화에게 깨우쳤다.

《어서 수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오.》

자리에서 일어선 정금화는 교수준비를 하려고 강좌실로 갔다.

이윽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과 함께 4층에 있는 교실로 가시였다.

한걸음 먼저 도착한 정금화가 교수안과 교편물을 들고 복도에서 기다리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교실 앞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니, 우리는 조용히 뒤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교실에 오신다는것을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올리는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정금화는 간절히 애원했다.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올리는 인사는 교원이 교단에 서서 받아야 합니다. 수업을 구경하러 온 내가 왜 선생 먼저 인사를 받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용히 뒤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서시였다.

교탁을 마주하고 선 정금화를 향하여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인사를 표했다.

수업의 시작과 함께 교원과 학생들사이에 오가는 이 례절은 교육의 신성함을 말해주고있었다. 학교의 수업을 내놓고는 그 어디에서도 일이 시작되거나 끝날 때마다 이러한 례절을 갖추는데가 없는것이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김정일**동지께서도 빈 학생용걸상에 앉으시였다. 량옆에 놓인 걸상에 고중환과 교장이 앉았다.

교실안은 흥분되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조심히 책장들을 번지는 소리와 학생들의 높아진 숨결소리가 들리였다. 그들을 둘러보는 정금화의 상기된 얼굴은 전에없이 빛나고있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과 련립1차방정식을 취급하는 장에서 세번째 절에 속하는 1차변환을 학습하겠습니다.》

흥분으로 목소리가 더듬어졌다. 그는 칠판을 향해 돌아서더니 마지크로 장, 절제목을 썼다.

칠판에서 돌아선 정금화의 얼굴에는 수업이 시작될 때 떠올랐던 흥분이 어느새 가셔졌다. 그는 벌써 주위상황에는 개의치 않고 교단에 오른 교원의 자감상태에 빠져버린듯 열띤 어조로 설명을 했다.

《우리는 이미 전 시간들에서 축대칭변환, 정대칭변환, 회전변환, 평행이동, 중심닮음변환과 같은 공간변환형식들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변환들을 수의 행렬로써 어떻게 표시할수 있겠는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는 교탁우에 놓인 종이 한장을 집어들어 학생들에게 보이며 계속했다.

《가령 이 종이를 알루미늄박판이라고 여기고 이것으로 어떤 모양의 접시를 만든다고 가상합시다. 프레스에 눌리우며 모양을 바꾸게 될 때 이 종이우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변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매개 점들의 변환을 수의 행렬로 표시할수 있다면 아무리 모양이 복잡한 접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식으로 도해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품들을 이렇게 수식으로 도해하고 모형화할 때 가장 좋은 방안을 찾을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같이 표상을 그려준 정금화는 수업의 기본내용을 배

워주기 시작했다. 간단한 도형이나 수식은 칠판에 직접 그리기도 하고 쓰기도 했지만 복잡한것은 텔레비죤화면으로 보여주며 설명을 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사고를 계발시키면서 능숙하게 수업을 이끌어 갔다. 수학의 세계에 다같이 심취되여버린 교원과 학생들은 호흡이 일치하고 감정과 정서까지도 하나로 통하는듯싶었다. 알고보면 수학은 추상적인 사유만을 동반하는 메마른 학문이 아니였다. 수식과 도형으로 증명되는 진리가 특이한 정서적흥분을 야기시켰다.

이 시간에 취급해야 할 내용을 다 배워준 정금화는 두개의 련습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을 불러냈다. 몸이 다부지고 얼굴이 둥실한 녀학생과 때이르게 안경을 낀 남학생이 지명되였다. 칠판에 나간 그들은 주어진 문제에 따라 도형을 그리고 수식을 전개했다. 먼저 풀이를 끝낸 녀학생은 지시봉으로 수식을 짚어가며 설명을 했다. 자신심에 넘치는 명랑한 목소리였다. 정금화는 만족해하였다.

《문제풀이의 실머리도 새롭게 착상했고 수식도 정확히 전개했습니다.》

녀학생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 남학생이 칠판에서 돌아섰다. 체소한탓인지 다른 학생들보다도 나이가 한두살 더 어려보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남학생도 문제를 솜씨있게 풀었으리라고 기대하며 미소어린 안색으로 바라보시였다. 그런데 마주보는 그 학생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입귀가 떨리였다. 하더니만 허턱 고개를 접었다.

《박상수학생, 어서 설명을 하세요.》

정금화가 알수 없는 흥분으로 자신을 걷잡지 못하는 학생을 깨우쳤다. 그랬으나 학생은 굳어진채 움직일줄 몰랐다.

《학생, 왜 그래요?》

정금화는 가까이 다가가서 안타까이 귀속말로 물었다.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하는 학생의 두눈에서 소리없이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들어가세요.》

박상수학생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교탁앞에 있는 자기 자리로 들어갔다. 교실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른 학생들의 원망어린 시선들이 그에게 쏠리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더없는 행복과 환희에 넘치던 수업시간의 마감을 그 학생이 흐려놓은것이다. 마침 종이 울리였다. 수업이 끝났다.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총총히 따라서는 정금화에게 물으시였다.

《아까 그 학생이 왜 울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학생을 두고 생각이 깊어지시였다. 다른 때도 아닌 수업시간에 흐느낄 때에는 도저히 억제할수 없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기때문일것이다. 사무치는듯 한 눈빛으로 마주보며 그 무엇을 절절히 호소하고싶어하던 학생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가 눈물로 호소하고싶은 마음은 어떤것일가? 혹시 가정적으로 그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던것은 아닌지…

《그 학생을 좀 만나보고싶습니다.》

《그럼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교장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정금화가 교실로 되돌아갔다.

고중환과 함께 교장실로 되돌아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학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였다. 정금화가 곧 학생을 데리고왔다. 학생은 눈물을 보였던 자신이 부끄러워서인지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학생, 왜 울었나?》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주시려고 부드러운 어조로 물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 정말 억울합니다.》

학생은 번쩍 고개를 들더니 물으시는 말씀에는 대답하지 않고 아무런 전제도 없이 불쑥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이를 우러르는 학생의 두눈에 다시 눈물이 어리였다. 사고가 혼란되리만큼 학생은 뜻모를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그 감정이 어떤것인가를 알아보자면 생활적인 이야기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생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서 옆자리에 앉히시였다.

《너 지금 몇살이냐?》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려보여서 그렇게 물으시였다.

《열네살입니다.》

아직은 철부지소년시절이라고 할수 있었다.

《소년단원인가?》

《한달전에 사로청에 가맹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한달전까지 아래학년 학생들과 같이 소년단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전에 사로청에 가맹했는데 이 학생만이 소년단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정금화가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열네살인데 어떻게 벌써 6학년생이 되였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의혹을 느끼며 정금화에게 물으시였다. 보통이면 열여섯이나 열일곱살이 되여야 중학교 6학년에 진급할수 있었다.

《박상수학생은 머리가 비상해서 소학교에서 한해 월반을 했고 중학교에 와서도 3학년에서 대뜸 5학년에 진급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견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학생의 잔등을 두드려주시였다. 박상수는 소녀처럼 수집어하면서도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눈에 자랑스러운 웃음을 담았다.

《고향은 어데냐?》

《평성입니다.》

《과학도시에서 자랐구나. 부모들이 과학자냐?》

《아닙니다. 교외의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장원의 아들이 수재학교에서 미래의 과학자로 자라고있구나. 참 좋은 일이다. … 그런데 무엇이 억울해서 울었니?》

《우린 국제수학올림픽에 방청으로밖에 참가하지 못한답니다.》

《그것이 억울해서 울었니?》

《그것도 그렇지만 저같은 학생은 참가할수도 없답니다.》

《어째서?》

《다른 학생들보다 키도 작고 나이가 어리기때문이랍니다.》

《누가 그랬니?》

《수학소조의 다른 동무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른 학생들의 말이나 듣고 이처럼 억울해하는것이 이상스러워서 사실을 알아보시였다. 요사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속에서도 수학올림픽참가문제가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었다. 어데서나 모여서면 그 이야기였다. 국제수학올림픽에는 매개 나라에서 여섯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여있었다. 어떤 학생들이 선발될것인가? 한번도 나가본 일이 없는 학생들은 어데서 얻어들은 소리를 번지기도 하였고 제나름대로 기준을 말하기도 하였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적은 인원을 뽑아야 하는것만큼 그 기준이 이만저만 아닐것이라고 학생들은 생각했다. 우선 수학공부를 잘해야 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외국에 나가는것만큼 인물도 멀끔하고 체격도 름름해야 할것이라고들 했다. 한 학생은 어데서 들은 소리인지 나이도 16살이나 17살로 제한되여있다고 하였다. 박상수는 워낙 순진한데다가 나이가 두살이나 어리다보니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따르는데 습관되여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단지 수학공부를 잘한달뿐이지 다른 기준에는 축에 빠진다고 인정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정금화선생은 수업시간에 수학공부를 잘하는 자기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앞에 내세우려고 지명을 했지만 수학올림픽에는 나갈수 없다고 생각하니 설음이 북받쳤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순진한 감정이 리해되기도 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시였다.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그리시며 고중환에게 물으시였다.

《수학올림픽에 년령제한이 있습니까?》

《대학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의 실력경쟁이기때문에 우로는 제한되여있지만 아래로는 제한되여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16살과 17살나이의 학생들이 참가하는것은 사실입니다. 14살짜리가 참가한다면 례외적일것입니다.》

《그러니 이 학생이 참가할수 없다고 한 다른 학생들의 말이 노상 허망한 소리는 아니였구만.》 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상수에게 머리를 돌리시였다.

《걱정말아라. 네가 진짜로 공부를 잘한다면 14살이지만 참가할 수 있단다.》

《박상수학생은 첫 시험때부터 매번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풀이방법이 기발했습니다.》

정금화가 말씀올렸다.

《그사이 세번이나 시험을 쳐봤는데 그 시험지들을 보여줄수 있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금화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둘러 강좌에서 시험지들을 가져왔다.

《자, 부부장동무도 함께 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을 자신의 옆으로 부르시였다. 자리를 옮겨앉은 고중환은 그이께서 번지시는 시험지에 시선을 주었다. 박상수학생의 시험지가 나타나자 정금화가 설명을 했다.

《저도 채점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박상수학생은 첫 시험때부터 배워준 일이 없는 새로운 풀이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선을 들어 옆에 서있는 박상수학생에게 대견스러운 미소를 보내시고 다음장을 펼치시였다. 고중환은 그이를 따라 한장한장 유심히 보면서 시험을 칠 때마다 성적이 높아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몸소 학생들의 시험지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그이를 두고 생각했다. 지금 그이의 모습은 자식들의 숙제를 검열하는 다심한 아버지를 방불케 했다. 틀린 곳을 발견하고는 무척 아쉬워하시였고 기발하게 문제를 푼것을 보시고는 《우리 학생들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하고 경탄하시였다. 어느 시험지 한장 소홀히 번지지 않으면서 시간가는줄 모르시였다. 정녕 자신의 미래를 의탁할 자식들의 학습정형을 두고 마음을 쓰는 친부모의 심정그대로이시였다. 흔히 사람들은 비범한 안목으로 온 우주를 내다보시며 통이 큰 용단과 결단을 내리시는데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그이의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면적인 리해이다. 때로는 지금과 같이 생활의 세부까지를 미세하게 투시해보시며 깊은 사려와 섬세한 감정에 사로잡히시기도 하는것이다. 고중환은 그

러한 그이의 풍모를 새삼스레 확인하는듯 한 매혹감에 사로잡혔다. 동시에 여러번 다시 친 시험지를 나와보지도 않고 며칠사이에 그렇게 성적이 높아질수 있느냐고 의심을 가졌던 자신을 두고 심한 자책을 느끼였다.

이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른 수학교원들과도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의견도 들으시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정식경연에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정금화와 함께 여러번 시험을 쳐보는 과정에 그들도 신심을 얻었던것이다.

《부부장동무, 어떻습니까? 이 선생들과 학생들의 신심을 믿어봅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고중환은 마침내 흔연히 대답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학교를 떠나시기에 앞서 박상수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나는 네가 좋은 성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리라고 믿는다. 나이가 어리다고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조선사람은 너처럼 조숙하다는것을 세상에 보여줄수 있기때문에 더욱 좋다. 세계적으로 과학과 교육이 앞선 나라 학생들과 겨루는것만큼 무엇보다도 민족적자부심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직 경제기술적으로는 남들보다 앞섰다고 할수 없지만 두뇌경쟁에서는 우리를 당할 적수가 없을것이다. 나는 네가 이런 배심을 가지고 경연에 참가하기를 바란다!》

박상수학생은 빛나는 눈으로 그이를 우러르며 마음속의 다짐을 말해주듯 아래입술을 감쳐물었다.

## 4

9월제련소에서는 티탄합금가공설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필요한 부분품들을 자체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기업소에 그 제작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국가계획에 없었던 일이여

서 여러가지로 난관이 많았다. 황석태는 생산에 지출되여야 할 자재와 자금을 적지 않게 가공설비제작에 돌리는 용단을 내리였다. 행정실무일군들이 그것을 주저할 때마다 그는 확신에 넘친 어조로 단호히 말했다.

《책임은 내가 지겠소!》

그는 다소 제정된 법규나 규정을 어기더라도 티탄합금가공설비를 하루빨리 갖추는것이 종국적으로는 국가에 리로운것이며 당의 의도를 받드는 길이라고 확신하고있었다.

그가 박치영을 데리고 돌아보았던 자재창고주변에는 공사에 떨쳐나선 사람들로 한벌 덮이였다. 자그마한 퇴창 몇개가 있던 창고건물은 품을 들여서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황석태는 많은 시간을 공사장에 나와있었다. 남들이 기술을 뽐내며 팔아주지도 않는 설비를 우리자체로 만든다는 긍지가 가슴에 넘치였다. 비록 남의것을 모방했고 그 성능이 뒤떨어진다고 하여도 우리의 공업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그것은 더없이 대견스러운 일이였다. 그는 설비가 갖추어질 건물과 주변을 어느 직장보다 번듯하게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건물공사와 지대정리작업에는 건설직장은 물론 제련소안의 지원로력도 동원되였다.

박치영은 행복과 영예의 절정에 오른듯싶었다. 제련소전투속보에는 큼직한 사진과 함께 그에 대한 소개기사가 옹근 한면에 실리였다. 정문에 들어서면서 첫눈에 뜨이는 영예게시판의 복판에도 그의 사진이 나붙었다. 신문과 방송은 여러차례에 걸쳐 그의 탐구과정을 전하였다. 제련소의 그 어데서나 그의 재능과 경력이 화제에 올랐다. 그 과정에 많은 사실들이 과장되고 윤색되였다. 어려서도 공부밖에 몰랐고 자라서는 그 어느 처녀한테도 헛눈 한번 팔지 않고 과학탐구를 위해 전심을 다한다는것… 박치영에 대한 소개는 이런 이야기들로 현란하게 채색되였다. 박치영은 처녀들의 호기심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였다. 별다른 감정을 품고있지 않는 처녀들도 박치영의 곁을 지나고는 선망의 눈길로 되돌아보았다. 한번도 만나본 일이 없지만 정문옆의 영예게시판과 기업소전투속보에 실린 사진을 통해 박치영의 얼굴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연구성과를 축하합니다.》

《최후의 성공을 바랍니다.》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정중히 인사를 하는 대담한 처녀들도 있었다.

박치영에게는 하루하루가 꿈같이 흘렀다. 형언 못할 행복감으로 가슴은 터질듯이 부풀어올랐다. 이러한 오늘을 위해 연구소를 뛰쳐나와 독자적으로 연구사업을 한것은 얼마나 잘한 일이였는가! 양영복박사의 휘하에 그냥 있었다면 그의 완고한 고집에 눌리워 뜻을 이루지 못했을것이다. 로세대 과학자로서 양영복박사의 연구사업은 티탄합금생산기술의 개발로 절정을 이루고 이미 끝나버렸다. 그에게서 더 무엇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티탄합금생산기술이 양영복박사의 몫이라면 그 가공기술은 나의 몫으로 되였다. 선배의 지식이 끝나고 후배의 지식이 새롭게 시작되는데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양영복박사는 그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인간의 생애에 한계가 있는것처럼 과학자의 학술적권위에도 한계가 있다. 지나간 몇해동안에 나는 피타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가 도달한 지식의 높이에 이르렀다. 그다음부터는 나의 연구사업이 그 지점에서 새롭게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을 진작 각오하고있었다. 그 뜻을 실현할수 있는 계기는 오고야말았다. 만일 외국에서 가공설비를 사왔다면 사정은 달라졌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코콤》의 방해가 오히려 나를 분발시키였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연구사업을 할수 있는 계기를 지어주었다. 이를테면 화가 복으로 되였다고 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악랄하게 과학기술봉쇄를 하여오지만 우리는 자체로 필요한것을 개발하고있다. 놈들의 봉쇄를 뚫고나아가는 우리 과학자들의 전렬에 나는 서있다. 자부심과 긍지가 가슴에 넘치였다. 이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곳에 다시 오신다면 그처럼 마음쓰시던 티탄합금가공설비를 만들어낸 성공의 보고를 올리게 될것이다. 그 영광의 시각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어쩌면 그이께서 나를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연구과정을 물어보실지도 모

른다.

생각만 하여도 심장이 높뛰였다.

양영복박사는 두어달후부터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압착가공방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초소성가공법을 연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과학자로서의 자기 생애가 끝나버린 로학자의 공상에 불과하다. 오늘의 티탄합금가공에서 첨단기술로 알려진 압착가공법을 압도하는 새로운 방법을 지향하는 그자체는 대담한 시도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과학 역시 현실에 토대한 자기 발전의 로정이 있는것이다. 우리의 공업수준은 아직 앞선 나라들이 하여놓은 압착가공기술도 도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하물며 그것을 초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분야에서 우리보다 멀리 앞선 다른 나라들에서 진작 개척하였을것이다. 새롭게 분발하여 계속한다고 하지만 양영복박사는 티탄합금가공기술개발에서 이미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 조만간에 나는 우리 나라에서 티탄합금가공기술의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것이다. 아니, 벌써 그렇게 되였다고 자부할수도 있다.

이제 우리의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이 필요한 부분품들을 생산하게 된다면 지금 제작하고있는 설비를 점차 갱신하여 다른 나라의것보다 못하지 않는것으로 발전시킬것이다. 여러가지로 황홀한 미래가 나를 손저어 부르고있다. 당원의 영예, 명예칭호, 남부럽지 않은 가정생활… 그 모든것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과학사업은 류달리 어려운 분야이다. 하지만 재능있는 사람들에게는 남달리 자기 인생을 크게 성공시킬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중학시절에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리치를 터득했다. 그리하여 꿈많던 그 시절에 인생의 장래를 과학과 결합시키였다. 오늘에 이르고보면 일찌기 자기 생활의 좌표를 얼마나 정확히 그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학연구의 첫 성과에 도취된 청춘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자기의 존재가 나래를 활짝 펼치고 아득히 높은 곳으로 떠올라서 꿈속의 화원을 날아가는것만 같았다.

# 5

해별이 내려쪼였지만 불어오는 바람은 벌써 초가을의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드높이 개인 하늘은 티없이 맑고 푸르렀다. 청신한 대기속에는 한창 익어가는 곡식과 나무열매의 향기가 떠도는듯 싶었다.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양영복의 건강은 한결 좋아졌다. 인제는 숨결이 고르로와지고 걷기도 수월하였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도 쉼없이 연구사업을 계속하여왔다. 티탄합금의 초소성가공법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저히 눈을 감을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가 항상 그의 심장을 사로잡았다. 초소성가공법은 과학자로서 한생을 살아온 자기 인생의 마지막과제였다. 그렇다고 무리하지는 않았다. 쓰러지면 최후의 순간까지 과학탐구에 전심을 하였다는 평판은 들을수 있어도 연구과제는 미해결로 남아있게 된다. 그는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제발 연구과제를 완성할 때까지만 지탱했으면…)

점점 로쇠하여가는 자기의 몸을 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남한테 짐이 되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마지막과제를 수행하고 눈을 감는다면 조금도 한이 없을것이다. 흔히 오래 산 학자들에게는 육체적생애와 과학자적생애가 일치하지 않았다. 학자적생애가 먼저 끝나는것이 상례였다. 여차했으면 나도 그 전례를 따를번 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접견을 받기 전까지만 하여도 학자로서 자신의 생애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이께서 안겨주신 소생의 활력속에 나의 학자적생애는 오늘에로 연장되고있다. 이제 나는 숨이 지면서 학자로서의 생애가 동시에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학자로서 가장 행복하고 뜻깊은 인생의 마무리일것이다. 양영복은 남은 생애를 두고 그렇게 생각했다. 진지한 탐구끝에 어제는 티탄합금의 초소성을 보장할수 있는 온도보장방법을 착상했다. 그것을 연구집단과 의논하고싶었다.

《오늘은 내 오래간만에 연구소엘 좀 나가봐야 하겠소.》

아침식사를 하고난 양영복은 떠날 차비를 서두르며 안해에게 말했다.

《아니, 소장선생이 이삼일내로 집으로 올텐데 왜 나가시려우?》

양영복이 출근을 하지 않는 때부터는 손관식이 한주일에 한번씩 집에 찾아와서 그동안의 연구정형을 알아보고 학술론담을 벌리군 하였다.

《인제는 몸도 어지간히 좋아지고 걸을수도 있는데 나가보겠소. 연구한걸 실험실에서 검토해보겠소.》

《정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갑시다.》

박씨는 따라일어서려고 했다.

《그만두오. 인제는 당신의 부축이 없이도 걸을수 있소. 산보길에 나선 우릴 보고도 남들이 웃어댄다는데 당신이 연구소에까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소.》

박씨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기색이였으나 더는 우기지 못했다.

말대로 동부인을 하고 연구소에까지 나타나면 젊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가름옷을 입는 령감을 도와주었다.

양영복은 연한 회색양복에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집을 나섰다. 집에서 연구소까지는 거리가 퍼그나 멀었다. 승용차를 부를수도 있었으나 운동을 위해 걷는것이 필요했다. 오래간만에 연구소로 나가는 걸음이라 가슴이 설레였다. 마치도 떨어져 그립던 고향집으로 가는듯 한 심정이였다. 하지만 반나마 걸었을 때에는 아래다리가 후들거렸다. 역시 생각과는 달랐다. 연구소까지 어렵지 않게 가닿을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정작 걸어보니 힘에 부치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단장을 짚고 오는것이였다. 연구소사람들에게 회복된 건강을 보여주고싶은 마음이 앞서서 손에 잡았던 단장을 놓고 떠났다. 잠시 선자리에서 다리쉼을 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제련소정문앞을 지나 연구소쪽으로 뻗은 언덕길에 올랐을 때였다. 제련소구내에서 나팔소리와 북소리가 요란스레 울리였다. 머리를 돌려보니 그전날의 자재창고였던 건물두리에서 예술선동대원들이 경제선동을 벌리

고있었다. 덩지가 굉장히 큰 설비를 실은 대형화물자동차가 창고쪽으로 달려온다. 이마전에 손을 얹고 눈여겨보니 진공가열로가 분명했다. 끝내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나 손관식이 여적 아무런 말도 없었기에 속단하고싶지는 않았다. 곁을 지나는 젊은이한테 물었다.

《저기서 뭘 하오?》

《티탄합금가공설비를 설치합니다. 이제 그것만 완공되면 우리 제련소는 티탄합금을 쾅쾅 가공하게 되지요.》

젊은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참으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허위적인 성공에 현혹되여 무모한 공사를 벌리고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다.

양영복은 지친 다리를 가누며 황황히 연구소로 향했다.

《소장선생, 방금 오면서 보니 끝내 설비공사를 벌렸더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인사도 나누기 전에 울분에 차서 손관식에게 물었다.

손관식은 난감한 기색으로 이마를 찌프리더니 달포전에 있은 최종합평회경위를 이야기했다. 양영복은 노기어린 눈길로 손관식을 쏘아보며 따지였다.

《그래, 림수봉부원장까지 참가한 장소에서야 왜 바른소리를 못했습니까?》

《황석태비서는 우리 연구소에 여러 세대의 살림집을 주었습니다. 선생도 그 점을 인정하겠지만 황석태비서처럼 우리 과학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려주는 당일군은 드물것입니다. 그래서 최종합평회때 그의 뜻을 거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당일군이기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학연구에서는 완강한 반대자가 사실은 진정한 벗이였다는것을 증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것을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습니까?》

손관식은 눈시울을 내려깔며 한숨을 쉬였다. 양영복을 볼 때마다 최종합평회에서 자기 주장을 세우지 못한것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 사실을 터놓기가 부끄럽고 거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때늦

게 공연한 자극을 주어서 양영복을 흥분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소식을 전했다면 양영복은 불편한 몸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자기의 견해를 완강히 주장했을것이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일이였다. 뜻은 이루지 못하면서 본인은 건강을 해치고 자기는 남들의 비난만을 살수 있었다. 연구소소장이 앞에서는 침묵을 지키다가 뒤에 돌아가서 비렬하게도 병약한 로인을 부추겼다고… 그것은 과학적량심을 굽힌것보다 몇곱절 더 부끄러운 일로 될것이다. 손관식은 그동안에 겪은 자기의 딱하고 복잡한 심정을 리해하여주기를 바라며 시선을 들었다.

《양선생,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일이 그렇게 된걸 어찌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진실을 증명해줄것입니다.》

양영복은 퍼런 정맥이 얼기설기 두드러진 앙상한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부르짖었다.

《시간은 박치영의 발기가 불가능하다는것을 증명할뿐아니라 소장선생이 과학적량심을 저버린 학자였다는것도 증명할것입니다! 나라의 경제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때에 많은 재산이 무모하게 탕진되는것을 어떻게 강건너 불보듯 한단 말입니까?》

손관식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찌프리며 침묵했다.

양영복은 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에 와서 손관식이나 추궁을 한다고 바로 잡힐 일이 아니였다. 참을수 없는 충동에 떠밀리우며 곧바로 공사장으로 향했다. 가까이에 이르러보니 먼 발치에서 볼 때보다 판이 더 크고 요란했다. 창고안에서는 벌써 가열로조립이 시작되였다.

《여러분!》

출입문을 막아선 양영복은 군중을 둘러보며 목이 터지도록 웨쳤다. 느닷없이 울리는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걸음과 일손을 멈추었다. 작업장에 어울리지 않게 넥타이를 단정히 맨 나들이옷차림으로 성성한 백발을 날리는 양영복의 모습은 청높은 웨침이 아니더라도 뭇사람들의 시선을 끌만 하였다. 그는 연신 팔을 들어 허공을 가르며 열렬히 부르짖었다.

《이건 무모한 일입니다. 나는 여러 기회에 그것을 학술적으로 론

증하였기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실패가 명백한 여러분의 수고가 아쉽기때문에, 헛되이 바쳐지는 나라의 재부가 아깝기때문에 호소하는바입니다. 다시 학술적인 토론과 합의를 하고 결론을 얻을 때까지 당분간 중지하시오!》

그의 말을 듣고있던 사람들은 그만 아연했다. 앙양된 분위기에 감히 찬물을 끼얹는 저런 선동을 하다니, 저 령감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로망을 부려도 분수가 있지.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엄청난 일이였다. 처음의 놀라움은 곧 격분으로 변하였다. 여기저기서 양영복을 규탄하는 웨침소리들이 터져올랐다. 양영복은 한순간에 전신의 피가 얼굴로 몰려드는것을 느꼈다. 머리속에서 웅웅소리가 나고 아래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럴수록 비장한 감정이 솟구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중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해졌다. 그는 재가 이는 입술을 혀끝으로 추기고 목청을 가다듬어 다시 웨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성난 얼굴들이 눈앞으로 다가오는통에 기가 질려 입을 열지 못했다. 눈앞에서 무수한 불꽃이 날리였다. 그들이 누구인지 가려볼수 없었다. 자기를 타매하며 부르짖는 소리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그랬으나 두눈을 부릅뜨고 한 젊은이만은 가려보았다. 박치영을 알아보자 분별을 잃을만큼 안타까운 울분이 치밀었다.

《나는 동무에게 진심으로 여러번 충고를 했소. 과학자는 연구과정에 저도 모르게 허위적인 성공에 기만당할수 있소. 그러나 그것이 나라와 대중을 기만하는것으로 이어질 때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으로 되오!》

《나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왜 한사코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온당치 않은 마음이라고, 질투와 시기심으로 그런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뭐 질투? 시기? 그래 내가 질투나 시기를 느낄 정도의 인격밖에 못 가진 사람이란 말인가? 그게 네 말이겠지?… 기가 막혀서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양영복은 경멸의 눈길로 박치영을 쏘아보며 안타까이 머리를 저었다.

박치영은 위협조로 말했다.

《어떤 결정으로 이 공사가 벌어지는지 선생님도 모르지 않을것입니다. 자꾸 그러시면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그러신다 해도 우리가 개발한 가공설비는 성과적으로 갖추어질것입니다!》

박치영을 뒤따라 다른 사람들의 성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올랐다. 과학적리치야 어찌되였든 양영복의 느닷없는 행동은 대중의 분격을 자아냈던것이다.

《조용들 하시오!》

류달리 큰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을 눌러버렸다.

언제 나타났는지 황석태가 곁에 서있었다. 이마에 땀발이 흥건한것으로 보아 어데선가 일을 하다가 달려온듯 하였다. 그는 두사람을 번갈아보고 숨을 몰아쉬더니 양영복에게 눈길을 멈추고 짧게 말했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시퍼렇게 노기가 번진 표정에 비해서는 어조가 높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거역할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였다. 다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양영복을 주시했다. 하지만 양영복은 조금도 기가 눌리지 않았다. 마침 울분과 안타까움을 터칠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듯 더욱 흥분하여 부르짖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로력과 나라의 자재가 탕진되는것을 보고 조용히 돌아갈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당장 공사를 중지시키시오! 당비서동무에게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을 말했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양영복의 거침없는 행동에 사람들은 두번다시 놀랐다. 황석태도 두툼한 입귀를 푸들푸들 떨었다. 이런 일을 당해보기는 처음이였다. 황황히 불길이 이는 눈길로 상대를 쏘아보던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과학적담보를 인정하는데 왜 선생만이 반대합니까?》

흥분할대로 흥분한 양영복은 주위를 가림이 없이 내심을 그대로 터놓았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정했다는 그 담보에는 당신의 직권이 작

용했습니다. 당신은 편견을 가지고 과학기술문제에 개입해나섰습니다.》

《편견이라니? 내가 선생이 연구하는 초소성방법인가 한것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나는 과학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서는 남이 이룩한 첨단기술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월등한것을 개발한다니 그것을 믿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물론 월등한것을 개발하면 좋은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래의 일일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티탄합금가공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나의 연구사업의 성공여부는 자신도 담보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학자의 존엄을 걸고 왜놈의것보다 월등한것을 개발하기 위해 마지막순간까지 노력할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나의 연구사업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박치영동무의 방법이 공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기때문에 진심으로 권고하는것입니다! 당신은…》

《그만하시오! 대중이 다 좋다는데 왜 선생 혼자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럽니까!》

황석태의 목소리가 뢰성처럼 울리였다. 그냥 두면 양영복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여나올지 알수 없었다.

《대중이란 말로 날 위협하지 마시오. 나는 오직 과학적진리앞에서만 머리를 숙일줄 아는 사람이요!》

온넋을 다해 절규하는 양영복의 부르짖음은 비장하게 울리였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끝에 갑자기 얼굴이 해쓱해지면서 주름진 얼굴에 땀발이 돋았다. 격렬한 흥분으로 로쇠한 심장이 경련을 일으켰던것이다. 그는 가슴을 부여안고 비틀거렸다.

당황한 황석태는 금시 쓰러지려는 그의 몸을 덥석 그러안았다.

《빨리 위생차를 부르시오!》

그는 번뜩이는 눈으로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그리고는 갑삭한 로인의 몸을 허궁 들어서 널직한 가슴에 부여안았다. 다른 사람들은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여서 아직 멍하니 그대로 서있었다. 방금전까지 그렇게도 강경하게 대결해오던 양영복을 다름아

닌 황석태가 품에 안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놀라왔던것이다.
《뭘하고있소? 위생차를!》
황석태는 정신없이 로인을 안은채 달리기 시작했다. 위생차가 올때까지 기다릴수 없었다. 순간을 놓치면 양영복의 생명을 잃을것만 같은 초조감에 휩싸였다. 잠시후 양영복은 간신히 눈을 떴다. 그는 흐릿해진 의식속에 당비서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막혔던 날숨을 깊이 내불며 다시 눈을 감았다. 얼마간 안정이 되는듯 해쓱하던 얼굴에 피기가 돌기 시작했다. …

## 6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가? 평성을 떠나오는 양명심은 줄곧 그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할머니가 보낸 전보에는 《조부 병위급. 급래》라고 씌여있었다. 최소한으로 글자를 절약하기 위해 짤막하게 쓴 전보문을 보고는 도무지 전후사연을 알수가 없었다. 과학원에 왔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는 전에없이 활기에 넘쳐있었다. 연구소를 다녀가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후 귀중한 약재를 보내주셨는데 그 약효로 이따금 도지던 심장탈이 깨끗이 나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병세가 위급하게 되였을가? 심장병에는 심한 정신적타격이 병세가 악화되는 중요한 원인이다. 할아버지의 신상에 그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것이 분명하였다. 새롭게 연구사업을 하다가 참담한 실패를 한것이나 아닌지. … 내처 근심에 싸여서 집으로 왔다.
《할머니, 어찌된 일이예요?》
방안에 들어선 양명심은 인사도 없이 대뜸 그렇게 물었다.
《네가 왔구나.》
시름겹게 앉아서 뜨개질을 하던 할머니는 손녀를 알아보고 일손을 멈추었다. 여느때라면 상봉의 기쁨이 너무도 커서 손녀를 얼싸안고 어쩔줄 모르던 할머니였다. 하지만 지금은 눈가에 어설핀 미소를 그리며 앉은채로 맞이했다. 다심한 감정을 표현할 마음의 경

황이 없을것이다. 그래도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한줄기 미소를 바라보니 생각했던것처럼 할아버지의 병세가 시간을 다투리만큼 위급한것 같지는 않았다.

《할아버지는 지금 어데 계셔요?》

양명심은 눈을 허둥거리며 물었다.

《며칠간 제련소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어저께 평양 적십자병원으로 실려갔다. 네가 한발 늦었구나.》

《심장탈이 도졌나요?》

《앉아라. 처음은 졸도를 했었는데 며칠간 치료를 받더니 좀 나아졌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손녀의 손목을 잡아 자리에 앉히였다.

《왜 졸도를 했어요?》

《다 제탓이지. 글쎄 무슨 망녕이 들어서 공사장에 나가 당장 중지하라고 호통을 뽑았겠니?》

맥락없는 할머니의 푸념을 듣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두눈을 깜박거리며 다그쳐물었다.

《무슨 공사장이였나요?》

《연구소에 있는 박치영이라는 젊은 사람을 너도 잘 알지?》

느닷없이 가슴이 설레였다. 멀리 떨어져서 그리움에 시달려온 처녀의 가슴은 애인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한 감정이 스스로 죄스럽고 부끄러웠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양명심은 할머니가 자기의 감정을 꿰뚫어볼가봐 겁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여적 할아버지와 할머니앞에서 박치영과의 관계를 실토한 일이 없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다가도 모르겠다. 너의 할아버지는 그 사람을 기특하게 여겨왔다. 그런데 무슨 쪼간이 들었는지 둘사이가 버그러졌단다. 박치영이가 너의 할아버지밑에서 훌 뛰쳐나서 제련소에 나가 따로 연구사업을 하였다더구나. 공사판이라는게 다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연구한것을 설치하는 공사였지. 그런데 너의 할아버지가 하루는 연구소에 나갔다가 때늦게 그 소식을 듣고 공사판에 나갔단다. 거기서 박치영이와 다툼이 컸던 모양인데 그쯤만 해도 모

르겠는데 당비서어른과도 대두리로 엇섰다더구나. 그러다가 쓰러졌지. 다 늙어빠진 령감이 가만히 있을 일이지. 제련소에서 하는 일에 삿대질을 할건 뭐겠니.》

양명심은 할머니의 그늘덮인 얼굴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사건의 전모를 리해할수 없었다. 그러나 갈피를 잡기 어려운 할머니의 말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것은 할아버지와 박치영사이에 심한 모순과 대립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양명심에게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안타까왔다. 차마 그래서는 안되고 그럴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게 분명했다.

손녀의 내심을 알바없는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마음쓰지 말아라. 큰 병원에 갔으니까 할아버지 병세야 나아지겠지. 내가 전보를 쳤다니까 너의 할아버지는 펄쩍 뛰더구나. 연구사업에 바쁜 너를 불렀다고. 그러나 내 그 령감속을 몰라서? 병석에 누운 몸이여서 너를 무척 보고싶어했단다. 평성으로 돌아가던 걸음에 평양에 들려서 꼭 할아버지를 찾아가봐라.》

《알겠어요, 할머니.》

《지금 쉬쉬하는 뒤소리들이 돌아가는데 너의 할아버지는 탈도 탈이지만 뒤가 무사치 못할것이라고들 한단다.》

《어째서요?》

《만장앞에서 당비서어른에게 탕탕 큰소리를 쳤으니 그게 어디 보통일이냐. 그래서 하는 말들이지.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런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옥맺힌 마음을 가질 당비서가 아닌것 같더라. 너의 할아버지가 현장에서 쓰러졌을 때 선손을 써준것도 그 사람이고 적십자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주선을 한것도 그 사람이다. 나는 령감이 집에 들어온 후로 여러번 당비서를 상종해보았는데 사내답고 인정깊은 사람이더라. 그런 당비서에게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쳤다는 령감을 진심으로 나무라고싶었다. 그런데 괘씸한것은 박치영이 그녀석이다. 우리 집에 와서 밥축도 내리만큼 냈고 너의 할아버지한테서 배우리만큼 배우기도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쩌면 그럴수가 있느냐 말이다.》

《그 동무가 어떻게 했나요?》

양명심은 그런 물음이 불쑥 치밀어오르는것을 꿀꺽 삼켰다. 그렇게 묻기가 두려웠다. 아니, 두려운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듣고싶지 않았다. 형언 못할 수치감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무작정 박치영을 비호하고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할머니, 그 동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예요!》

그렇게 부르짖고싶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입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했다. 누구에게 향한것인지 딱히 설명할수 없는 울분의 혼란속에서 왕청같은 말을 하였다.

《할머니, 나 배고파.》

《너 아직 점심을 못 먹었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은 렬차칸에서 점심을 먹고 왔다. 박치영에 대한 할머니의 비난을 더 듣고싶지 않던 나머지 얼결에 배가 고프다고 했었다. 부엌에 나갔던 할머니가 인차 밥상을 챙겨왔다.

《내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만두를 빚어줄라. 지금은 찬밥으로 간단히 요기를 해라.》

소반에는 할머니가 점심에 먹다남긴 골숨한 밥사발과 호박장에 풋고추가 올랐다. 할아버지도 안계시다보니 할머니는 혼자서 대충 끼니를 에우며 지내는것 같았다.

양명심은 별로 먹고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배가 고프다고 했으니 밥상에 마주앉을수밖에 없었다.

《합숙밥에 늘 배가 고프지?》

수저를 잡는 손녀를 지켜보던 할머니는 측은한 음성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너도 이젠 나이가 차리만큼 찼는데 어서 시집을 가야지. 언제까지나 합숙밥을 먹을수야 없지 않니.》

할머니는 근심스레 중얼거렸다. 여느때라면 그 다심한 권고에 응석기어린 목소리로 《할머니, 걱정말아요. 내 일은 내가 처리할테니.》하고 응대했을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권고가 명치끝에 짜릿한 자극을 주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내 일은 내가 알아 처리할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던 박치영이 바로 할머니의 비난과 불만

을 사는 대상이였기때문이였다.
《네가 한다는 연구사업은 어떻게 돼가느냐?》
외롭게 지내던 할머니는 손녀가 밥상에 마주앉았다는것도 생각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싶어했다.
《잘돼가고있어요.》
양명심은 밥술을 멈추고 상긋이 웃어보이였다. 사실 그의 연구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전진을 보고있었다.
《너의 할아버지는 저 꼴이 되였는데 너라도 연구사업이 잘된다니 반갑구나.》
할머니는 주름진 눈가에 느슨한 웃음을 그리였다. 과학자의 안해로 한생을 살아온 할머니는 과학적성과를 무엇보다 기뻐할줄 알았다. 그러나 그에게 최근에 이룩한 과학적성과를 말해줄수는 없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지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정한 부부로 평생을 살아왔다는것이 어찌면 이상한 일이기도 했다.
《그래 네 연구사업은 거의 끝을 보느냐?》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요.》
《뭐 잘돼간다면서?…》
할머니는 의문스레 바라보며 미간에 주름을 모았다. 손녀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상싶었다. 어떻게 말해주어야 할가? 양명심은 지나온 나날을 더듬으며 생각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받은 후에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초고압유압프레스 본체부분을 맡았다. 적어도 15 000t의 힘이 실리는 본체의 안정성을 강철기둥만으로 보장하자면 그 부피와 중량이 굉장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특수한 강철띠로 본체에 예비장력을 보강해주고있었다. 한때 연구사업을 포기하게 된것은 바킹재료와 함께 그 특수재질의 철띠를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기때문이였다. 양명심은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어느 하루 깊은 모색에 포로된채 건설장옆을 지날 때였다. 굉장한 무게의 블로크를 들어올리는 기중기의 쇠바줄을 무심히 쳐다보는 순간 무엇인가 머리

속에서 번쩍 섬광이 이는듯 한 느낌을 받았다. 같은 굵기의 철봉이나 철띠라면 기중기의 쇠바줄이 감당하는 장력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것이 아닌가. 가는 쇠줄묶음은 같은 체적의 철봉이나 철띠보다 몇배의 큰 장력을 가진다. 가는 쇠줄로 프레스의 본체를 여러번 감는다면?… 그런 착상이 떠오르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연구실로 급히 돌아와서 력학계산을 하여보았다. 가능하다는것을 확인했을 때 막 환성이라도 터치고싶었다. 그길로 기계공학연구소장을 찾았다. 설명을 듣고난 소장은 좋은 착상을 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과학자에게는 그처럼 날카로운 직감력이 중요하오. 뉴톤이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법칙을 발견한것이나 플레밍이 접시우에 낀 곰팽이에서 포도알균이 죽는것을 보고 페니실린을 발견한것도 모두 그렇다고 할수 있소.》

《아이참, 소장선생님, 나를 뉴톤이나 플레밍의 발견에 비교하다니요?》

《발견의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경위의 류사성이야 부인할수 없지 않소.》

석홍범은 그 사실을 듣더니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누구에게나 양명심의 착상에 깔린 물리학적리치는 쉽게 리해되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는 기초원리로부터 포착된 단순한 방법이 첨단기술제품의 제작에서조차 가장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난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기초원리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할줄 아는 과학자의 독창적인 구상력과 예민한 직감력에 있는것이다. 양명심은 석홍범에게 감회깊이 말했다.

《지난날처럼 앞선 나라들의 기술에 포로되여있었다면 기중기 쇠바줄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거예요.》

《옳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남의것을 굽어보는 담력과 주체적인 방법론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셨기때문에 동무도 그런 착상을 할수 있었을겁니다.》

석홍범자신도 그 담력과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사업에 매진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그의 말이 공통된 체험속에 생활적진실감을 가지고 가슴에 안겨왔다.

연구소에서는 그 착상을 실현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의 전보를 받고도 인차 올수가 없었다. 이틀이나 늦어지다보니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밥상을 물리고난 양명심은 금속공학연구소를 찾아갔다. 손관식소장을 만나서 구체적인 사연을 들었다. 손관식은 박치영을 두고 할머니보다도 더 격분해하였다. 공명심과 허영에 들떠서 의리도 도덕도 저버린 사람으로 규탄했다. 이야기도중에 박치영에 대한 그의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얼굴에 모닥불을 들쓰는듯 하였다. 자신이 그 누구에게서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것보다도 몇배로 더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다. 그만큼 박치영의 존재는 여태 양명심의 순결한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손관식의 말처럼 박치영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라고 할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박치영은 티탄합금가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헌신했으며 그가 개발한 기술을 공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설비공사를 하고있지 않는가? 하지만 랭철히 판단해보면 부인할수 없는 잘못이 박치영에게 있다는것을 속일수 없었다.

양명심은 그를 조용히 만나기 위해 저녁에 합숙호실을 찾아갔다. 박치영의 호실문앞에 이른 양명심은 잠시 서있었다. 흥분이 앞서는 가슴을 진정해야 했다.

잠시후에 출입문을 두드렸다.

《아니, 동무가 어떻게?》

문을 열고 나타난 박치영은 반가움과 놀라움이 엇갈린 표정이였다.

《할아버지 병세가 위급하다는 전보를 받고 왔어요.》

순간 박치영의 얼굴에 난처한 빛이 스쳤다. 할아버지의 병세를 두고 스스로도 마음에 켕기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그들은 방안으로 들어갔다. 드물게 이루어지는 상봉때마다 그리움을 터치며 달려가고 달려오며 두손을 맞잡군 했으나 지금은 어색한 공기가 둘사이에 떠돌았다. 박치영은 책상앞의 의자에 앉고 양명심은 침대에 걸터앉았다.

《와보니까 그사이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군요.》
대각으로 서로 마주보던 끝에 명심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건 무얼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요?》
《지난 봄에 왔을 때 나는 동무가 할아버지와 지혜를 합쳐서 새롭게 연구사업을 하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동무는 할아버지를 등지고 연구소를 뛰쳐났더군요. 여지없이 신의를 저버리면서…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명심동무, 나는 신의를 저버린것이 아니요. 자신이 무르익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런 용단을 내렸던거요. 과학원의 동의를 받고… 달리는 할수 없었소!》
박치영은 재빨리 말을 이었다.
《나는 동무가 할아버지의 립장에서 그 일을 가지고 원망하는것이 섭섭하오. 연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관계를 무시할줄도 알아야 하지 않소? 그런 용단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의 성공을 보지 못했을거요.》
《나는 모든걸 깊이 알아봤어요. 동무의 그 성공은 두고봐야 알거예요. 동무는 우리 할아버지가 질투나 시기심을 가지고 부정한다고 하였다는데 어쩌면 그런 억측을 들고다닐수가 있어요?》
《그래 말하자는게 뭐요?》
《숱한 사람앞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비난하며 돌아다니는 동무를 나는 도무지 리해할수가 없어요. 동무때문에 할아버지의 병세도 악화되였어요.》
양명심은 맺고 끊듯이 말했다. 박치영은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쓴입을 다시며 삑 돌아앉아버렸다. 그러한 태도에 양명심은 참았던 울분이 치밀어올랐다. 오래간만에 만난 이 기회에 정다운 감정을 나눌 대신 이런 마찰을 가져온것이 그지없이 안타깝기도 하였다. 가슴속에서는 모순된 감정이 뒤엉키며 회오리쳤다. 몇번 숨을 몰아쉬던 그는 박치영을 노려보며 부르짖었다.
《동무가 과학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으나 도덕적으로는 의리를 지킬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동무를 믿고 동무의 재능을 대견스레 여겼기때문에 외국에 갈 때에도 동무를 데리고 갔댔어

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의리를 저버리는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소. 다만 흘러온 생활이 어쩔수없이 양선생과 학술적인 대립을 가져오게 한거요. 나도 그 대립이 괴롭소. 하지만 어찌겠소. 그 대립에서 어느쪽이 정당한가는 이미 현실로 확증되였소. 솔직히 말해서 양선생과 의견상이가 시작될 때부터 나는 늘 명심동무를 생각했댔소. 그런 대립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면 동무가 어떤 태도를 취할것인가 하고 말이요. 나는 동무가 공정한 눈으로 사태의 진실을 꿰뚫어보고 내 립장을 리해할것이라고 믿어왔소. 그런데 정작 만나고보니 섭섭하구만.》
양명심은 섭섭한 기색이 실려오는 박치영의 눈길에 부딪치자 금시 오열이 터져오를듯싶어서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여도 부인할수없이 박치영에게 잘못이 있었다.
《무엇보다 동무에겐 우리 시대 과학자의 옳바른 립장이 서있지 않아요. 동무에겐 자기 이름을 떨쳐보려는 조급한 명예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동무가 처음 학술적발기를 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전과정이 이것을 보여주고있어요.》
《나의 발기와 지향을 함부로 헐뜯지 마시오!》
박치영은 주먹을 떨며 소리쳤다.
《나는 헐뜯는게 아니라 동무가 진심으로 자기를 돌이켜볼것을 원할뿐이예요. 나는 동무가 그런 사람인줄은 몰랐어요.》
《그러니 지금에 와서 드디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였다 그 말이요?》
박치영의 노기어린 표정에 비해서는 말꼬리를 잡고 되묻는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높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서리찬 랭기가 풍기였다. 마주보는 눈길에도 랭혹한 빛이 흘렀다. 양명심은 섬찍한 예감을 느끼며 응대하지 못했다. 박치영이 여전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하긴 동무가 나에게도 사내의 자존심이 있다는것을 여태 모르고있은게 분명하오. 나도 지금에야 동무를 새롭게 알게 되오. 할아버지를 무작정 옹호하기 위해서는 애인조차 함부로 모욕할 용기를 가진 녀자라는걸 비로소 알게 되였단 말이요.》

양명심은 참을수없이 억울하고 분하였다.
《나는 맹목적으로 할아버지를 옹호하는게 아니예요! 동무의 태도가 잘못되였다는것을 명백히 깨닫기때문에 말하는거예요. 그런 충고를 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나 있어요? 동무는 전혀 자신을 돌아볼줄 모르는 사람이예요!》
《나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소. 모든것이 정당하기때문이요. 나의 성공에 축하를 보낼 대신…》
박치영은 억이 막힌듯 코날개를 벌름거리며 씨근거리다가 다시금 랭담한 표정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명심동무, 명백히 알아두시오. 나에게도 용기가 있소. 과학을 위해서는 사랑까지도 단념할 용기가 있단 말이요!》
《뭐라구요?》
양명심은 정수리에 타격을 받는듯 한 아찔한 느낌속에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섰다. 눈앞이 캄캄해왔다. 전신의 피가 혈관에 얼어붙는듯 했다. 몸의 균형을 잃고 지칫거리던 그는 자신을 수습하고 울부짖었다.
《신성한 과학을 명예욕의 리용물로 모독하지 마세요. 차라리 명예를 위해서 사랑도 저버릴수 있다고 고백하는게…》
《무엇이 어째?》
박치영도 벌떡 일어섰다. 아픈 곳을 찔리운듯 얼굴이 해쓱하니 질리였다.
양명심은 도저히 그를 설득시킬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격렬한 다툼이 계속되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듯 싶었다.
《지금은 더 말을 못하겠어요. … 래일 저녁에 떠나겠으니 역전에 나와주세요. 그때 하고싶은 말을…》
정녕 이렇게 쉽사리 헤여질수 없다는 생각으로 눈물이 솟았다. 전등빛에 반짝이는 그의 눈물을 본 박치영은 갈린 목소리로 수긍했다.
《나가겠소.》
그도 마음이 편안치 않은지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양명심은 설음과 격분이 뒤엉키는 가슴을 부여안고 그의 방을 나

셨다. 방금 벌어졌던 모든 일이 꿈을 꾼것처럼 허무하고 맹랑하게 여겨지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 온 박치영의 모습, 얼굴을 싸쥐고 괴로와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도 지나치게 흥분했던 나머지 결김에 그런 가혹한 말을 했던것이 아닐가? 그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리만큼 내가 지나쳤던것은 아니였을가? 그런 사람인줄 몰랐댔다는 자극적인 말을 내가 왜 했을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픈 말을 할수 있다는것을 그는 왜 리해하지 못할가?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인지 여러갈래로 의문이 떠오르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였다.

이튿날 저녁이였다.

양명심은 영림역에 나와 박치영을 오래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얼른 차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승강대에서서 나들문쪽을 휘둘러보았다. 그 무슨 급한 일로 때늦게 그가 달려올것만 같았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박치영은 보이지 않았다. 렬차바퀴에서 제동기 풀리는 소리가 들리였다. 마치도 그 음향이 자신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미련을 토막토막 끊어버리는것처럼 초조한 심장을 아프게 울려주었다. 기적을 울리며 렬차가 속도를 놓기 시작했다. 어느새 서켠에 기울었던 저녁해는 자취를 감추고 대지우에 밝은 빛을 뿌려주던 한낮의 여운인양 잔광만을 하늘가에 남기였다.

×

저녁을 먹고난 박치영은 다시 현장으로 나가려다 말고 합숙호실로 향했다. 잠시라도 침대에 누워서 허리를 펴고싶었다. 요사이 마감단계에 이른 설비조립을 돌보느라고 어지간히 몸이 지쳤다. 하루 두세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낮에 밤을 이어가는 긴장한 나날이 흘렀다. 매일 현장에서 쪽잠을 자며 지내다보니 며칠만에 호실에 들어섰다. 어쩐지 방안의 전경이 서먹하게 느껴졌다. 현장에서 생활한 이 며칠사이에 애용하던 침대며 의자가 낯설어진듯 했다. 침대우에 걸터앉았을 때 그 까닭을 깨달았다. 호실을 비우게 된 마지막

저녁에 이 방안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던것이다. 현실로 믿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격렬한 다툼이 그 저녁에 있었다. 괴로움과 노여움에 이지러진 명심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명심은 바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도 애모쁜 마음으로 나에게 원망과 의분을 터뜨렸지. 나는 책상앞에 놓인 저 의자에 앉아서 항변을 하였고… 시운전의 날을 눈앞에 둔 황홀한 기쁨을 안고 설비조립에 온넋을 기울이다보니 괴롭고 가슴아프던 그때의 일을 지난 며칠간은 머리속에서 어지간히 지워버릴수 있었다. 연구성과가 생산에 도입되는 커다란 경사에 비하면 명심이와의 관계는 하찮은 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현장의 들끓는 분위기에 휩싸여있을 때와는 달리 호실에 돌아온 지금에는 그 저녁의 불쾌하던 기억이 어쩔수없이 되새겨졌다. 그 이튿날 명심을 배웅하려 역에 나가지 않았던것은 지내 매몰스러운 일이 아니였을가? 그는 나에게 더 하고싶은 말이 많다고 하였는데… 그가 더 하고싶은 말은 무엇이였을가? 내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설득시키려고 했을가? 아니면 자기쪽에서 지나쳤다고 용서를 빌려고 했을가? 그것은 알수 없다. 아무튼 그를 배웅하러 역으로 나가는것은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단 말인가? 숱한 사람이 축하를 보내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명심에게서 그처럼 랭혹한 비판을 받을줄은 꿈에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누구보다 나의 연구성과를 기뻐해야 할 명심이가 예상과는 정반대의 립장에 서는것을 보았을 때 아연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떤 경우든지 앞으로도 그에게 그 무슨 용서를 비는 일은 없을것이다. 사랑하는 남자의 놀라운 과학적성과보다도 할아버지의 그릇된 립장을 맹목적으로 옹호해나서리만큼 명심은 어리석은 처녀였을가? 참말이지 그를 새롭게 알게 된듯싶었다. 설사 그와의 관계가 영원한 결렬에 이른다고 하여도 서슴지 않겠다. 내가 지향하는 인생의 목표는 과학탐구이지 사랑이 아니다! 설사 사랑에서 가슴아픈 상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춘시절에 있을수 있는 하찮은것이다. …

박치영은 번거로운 상념을 뿌리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공연히 호실에 들렸던 자신을 후회하며 현장으로 나갔다. 오늘 밤에

는 불활성가스류출장치를 설치하기로 되여있다. 다른 모든 공정들이 그러했지만 그 장치도 기술조작이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기술지도를 하여야 했다. 그는 어둠에 잠긴 구내길로 걸음을 다그쳤다.

며칠후 마침내 시운전의 그날이 왔다.

황석태와 류명식을 비롯한 제련소 책임일군들이 나왔다.

박치영은 한껏 긴장한 마음으로 돌아치며 설비의 공정들을 확인하였다. 시운전을 눈앞에 둔 초조와 흥분이 그를 사로잡고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시운전은 실패했다. 다섯개의 티탄합금소재를 련속 가공해보았으나 어느것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프레스에 눌리우면서 례외없이 균렬이 생기였다. 연구집단성원들과 조작공들은 실망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단번에 성공을 하겠소. 실패한 원인을 찾고 퇴치하면서 앞으로 더 가공해봅시다.》

황석태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버린 박치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무했다. 하지만 박치영은 아무런 응대도 못했다. 실험실적으로는 가능했지만 공업적으로는 참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가 하는 우려가 지울수없이 가슴에 서려들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기술적난점이 있다는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양영복박사의 주장이 되새겨졌다. 그의 목소리가 먼곳에서부터 가까이로 울려오는 뢰성처럼 순간마다 공포감을 더해주며 뇌리를 때렸다. 특별히 머리속을 파고드는것은 우리의 티탄합금조성이 다른 나라들의것과 다르다는 견해였다. 희토류금속이 매우 적은 량으로 포함되여있지만 그것이 가공의 기술적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었다. 고도로 자동화된 공정을 공업적단계에서는 손로동으로 대신할수 없다던 그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시운전을 거듭하면서 그 난점들을 극복할수 있는 묘술을 찾을수 있지 않을가? 아니, 기어이 찾아내야 한다! 첫날의 실패에 이렇게 동요하다니… 박치영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여러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는것을 보았다.

《걱정마시오. 다시 몇번 시운전을 하느라면 성공할거요!》

호기있게 부르짖고는 자기딴에도 그 장담이 의심스러워서 사람들을 외면해버렸다.

## 7

이무렵 고중환은 과학원 함흥분원에 나가있었다. 그곳에서 **김정일**동지의 과학원 현지지도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볼일을 마치고 렬차로 돌아오면서 그는 차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와 마을들을 바라보며 최근의 과학연구성과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이러저러한 난관과 애로가 있지만 우리의 과학은 전례없는 속도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함흥분원에서는 며칠전에 탄산소다와 석고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전자공학연구소에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나라의 집적회로소자들을 부분적으로 쓰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형의 콤퓨터를 개발했다. 아직은 그것이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이르자면 거리가 멀었지만 우리의 수준에서는 커다란 전진이라고 할수 있었다.

과학기술혁명의 봉화는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생산현장에서도 거세차게 타오르고있었다.

**김정일**동지의 발기에 따라 지난 9월명절을 계기로 과학기술축전이 벌어졌다. 거기에는 무려 71 500여건에 달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발명론문들이 제출되였다. 이번 축전에 내놓지는 않았으나 락원기계공장에서 생산중에 있는 산소분리기에 적용된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자랑할만 한것이다. 헌데 이런 지표들은 여러해전부터 추진시켜오던것이다. 새롭게 설정한 지표들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함흥분원에 내려갔던김에 9월제련소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런데 시원치 못한 소식이였다. 첫 시운전에서 실패했다고 하였다. 초기에 제련소에 내려갔던 림수봉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을 놓았었다. 그의 과학적권위를 믿었다. 만일 티탄합금가공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것은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

획에 예견된 고도기술개발에서 첫 돌파구를 여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시운전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다. 앞으로 어찌될는지 알수 없었다.

갑자기 렬차바퀴소리가 쿵쿵 웅글게 울리였다. 무심결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렬차가 금야강다리를 건느고있었다.

바다쪽으로 흐르는 강물을 따라 멀리 보내는 시야에 누렇게 펼쳐진 벌판이 아득히 안겨왔다. 그러자 지금껏 머리속을 맴돌던 상념을 지워버리며 하나의 애틋한 추억이 떠올랐다. 저 벌판의 한끝에 향미의 외가가 있었다.

고중환은 안해와 함께 그 마을을 다녀온적이 있었다. 풍치수려한 마을이였다. 그는 안해에 대한 생각에 잠겨들며 오래도록 차창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특별히 잊을수 없는것은 청춘시절에 첫사랑을 나누던 때의 일이였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첫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생생히 남아있는 법이다. 범상치 않았던 인연으로 사랑이 맺어졌던 고중환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전후 대학교단에 처음 섰을 때 고중환은 미혼의 청년이였다. 학생들과 나이가 비슷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점잖은 풍모에 강의를 잘하는 그를 존경했다. 그런데 졸업반 녀학생들속에서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한 학생이 있었다. 고중환이 강의에 들어가면 내처 책상우에 눈길을 떨구고 한번도 주의깊게 쳐다보지 않았다. 제시해준 숙제도 풀어오지 않았다. 몇번 충고를 주었지만 듣지 않았다. 고중환이 배워주는 과목학습을 일부러 태공하면서 교원에게 엇서보려는 앙심을 품고있는것 같았다. 졸업시험때 그 녀학생은 금속공학과목에서 겨우 락제를 면했다. 그런데 다른 과목들의 성적은 비교적 높은편이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고중환은 조용한 틈을 타서 녀학생을 강좌실로 불렀다. 졸업을 며칠 앞둔 때여서 이때만은 그가 솔직한 심정을 터놓으리라고 생각했다.

《동무는 다른 과목들의 강의를 성실히 받아왔고 성적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금속공학학습은 왜 태공했습니까?》

늘 외면을 하던 녀학생이 이때만은 뚫어지게 마주보았다. 동그랗게 벌려뜬 눈동자에 강렬한 빛발이 어리였다. 갸름한 얼굴의 살갗

도 한껏 붉어졌다. 고중환은 금시 격정을 터칠상싶은 그의 표정에 놀라며 먼저 시선을 떨구었다. 녀학생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결소리만이 들릴뿐이였다. 고중환은 마음을 다잡고 정중히 말했다.

《나는 조금의 편견도 없이 동무를 대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동무는 나에게 그 어떤 원망을 품고있는것이 분명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선생님앞에서… 어째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여 입을 연 녀학생의 목소리가 토막토막 끊어졌다. 다몰아치는 그 무엇에 짓쫓기는 사람처럼 말을 번지기 어려워했다. 무엇때문에 이처럼 흥분하는가? 철부지도 아닌 과년한 녀대학생이 교원앞에서 스스로도 알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리해하여야 하는가? 고중환은 어성을 높였다.

《나는 동무처럼 교원앞에서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학생을 처음보았습니다. 동무의 행동은 도무지 리해할수가 없습니다!》

녀학생은 참기 어려운 모멸을 당한듯이 아래입술을 감쳐물며 눈물을 머금었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무엇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나한테 할말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하시오!》

《할말이 없습니다.》

《동무는 정말 리해할수 없는 학생입니다. 돌아가보시오!》

아무래도 녀학생의 속심을 알아낼수 없을것 같아서 돌려보냈다. 강좌실을 나서는 녀학생의 입에서 애달픈 탄식이 터지는듯 했다.

그로부터 몇달후였다. 대학에서 하루일을 마치고 독신자합숙으로 돌아가는데 합숙정문에 그 녀학생이 서있었다. 아니, 이때는 녀학생이 아니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업출판사에 배치된 녀류기자였다.

《아니, 동무가 어떻게 왔습니까?》

고중환은 주밋거리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네였다. 그가 대학시절

에는 설명할길 없는 태도로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주었지만 그것은 지나간 일이였다.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나를?… 오래 기다렸습니까?》

《한시간쯤 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한시간이나 기다렸다면 꼭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것이 분명했다. 학창시절에 품었던 그 어떤 원망을 터치려고 온것이나 아닌지…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상밖으로 부드럽게 안부를 물어주었다. 자신을 수습한 그의 몸가짐과 언행은 어엿했다. 고중환은 자기앞에 숙제를 하지 못해 당황해하던 녀학생이 아니라 기자라는 사회적직분을 가진 처녀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그러고보니 상대는 지난 몇달사이에 학생티를 가시고 성숙된 처녀의 녀성미를 풍기고있었다.

《보다싶이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그 물음에 처녀의 낯빛이 홀연 달라졌다. 처녀는 머리를 숙이고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의젓하고 당당하게 대하려던 방금전 마음의 다잡음이 뒤흔들린것 같았다.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하는 그의 모습은 졸업을 앞두고 강좌실에 불리워왔던 그날을 련상시켰다. 고중환은 야릇한 느낌을 받으며 대답을 기다렸으나 처녀는 그날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튼 날씨가 찬데 내 방으로 들어갑시다.》

처녀는 망설이는듯 하더니 말없이 따라섰다.

고중환의 호실은 2층 남쪽끝에 있었다. 고중환은 호실에 하나밖에 없는 의자를 손님에게 권하고 자기는 침대에 걸터앉았다.

《혹시 나한테 원고를 청탁할것이 있어서 왔습니까?》

자신없이 어름어름 말문을 열었다.

《학창시절에는 말할수 없었던 심정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뭐 지나간 일을 가지고…》

고중환은 심상한 투로 말하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자연스럽지 못

했다. 자기를 겨누고 뿜겨져오는 처녀의 눈빛이 피부에 스미는듯 했다. 거기에 자극된 심장이 어떤 판단에 앞서 두근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녀는 용기를 가다듬는듯 아래입술을 한번 깨물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선생님이 교실에 나타나면 마음의 안정을 잃군 했습니다.

숙제를 하려고 〈금속공학〉교과서를 펼치면 글줄이 아니라 선생님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을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련정의 대상으로 여기는것은 학생으로 도덕에 어긋나는 태도라고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생님한테 품어서는 안될 감정을 품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오래동안 두고두고 가슴속에 벼르어오던 말마디들을 비로소 터치듯이 어조가 절절했다.

고중환은 처녀의 눈굽에 물기가 어리는것을 보았다. 전등빛이 역광으로 반사되는 그 눈물에서 무지개빛이 부서졌다. 고중환은 자기를 두고 남모르게 애를 태웠던 처녀의 고민이 얼마나 컸던것인가를 한순간에 헤아렸다. 그러자 한번도 폭발해보지 못했던 청춘의 정열이 불타올랐다. 온몸이 화끈한 열기에 휩싸이는듯 한 가운데 이처럼 열렬한 사랑을 거역한다면 다른 녀성에게서는 도저히 그러한 사랑을 찾을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녀학생으로서는 허용하기 어려웠던 그 감정이 기자로 된 지금에는 도덕에 부합되지 않을가요?》

처녀는 눈물이 글썽한 눈을 크게 뜨며 허둥거렸다. 하더니만 숨을 흑 들이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한달음에 달려와 쓸어안길듯 성큼 다가오더니 눈앞에서 자신을 억제하며 멈춰서버렸다. 반사적으로 고중환도 일어섰다. 호실을 나선 그들은 새로 개업을 한 대동강반의 빵집에서 저녁식사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밤이 이슥하도록 유보도를 거닐었다. 꽃도 록음도 다 져버린 초겨울의 유보도는 이를데없이 한산했다. 얼어붙기 시작한 강폭을 스치며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에일듯이 찼다. 하지만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듬해 봄에 그들은 결혼했다. 그후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언제

한번 다투어본 일이 없었다. 다정한 부부, 화목한 가정이였다.…
하지만… 이젠 어차피 재취를 해야 할것이다. 언제까지나 향미에게 가마목을 맡겨둘수는 없다. 그렇다면 첫사랑이 그러했던것처럼 두번째 사랑도 스스로 찾아오지는 않을가?…
평양에 돌아온 고중환은 티탄합금가공설비의 그후 시험생산정형부터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책상 한귀에 양영복박사의 편지가 놓여있었다. 자기가 없는 사이 사무실에 도착한 그 편지가 얼마나 오래동안 주인을 기다렸는지 알수 없었다. 일부인을 눈여겨보니 달포전에 부친것이였다. 고중환은 제때에 만나주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듯 한 미안한 감정을 앞세우며 서둘러 편지를 뜯어보았다.
《…병원의 침상에 누운 몸이지만 한가지 안타까운 일이 무시로 마음을 괴롭혀서 그 누구에게 하소할것인가를 두루 생각을 굴리던 끝에 붓을 들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란 다름이 아니라 지금 9월제련소에서 한창 공사를 벌리는 티탄합금의 압착가공설비문제올시다.》
양영복은 자기 주장의 과학성을 증명해보이려는 의도가 앞선 나머지 상대가 티탄합금전문가가 아니라는것을 고려하지 않고 복잡한 기술적문제들과 우리 나라 티탄합금의 물리화학적성질들을 장황히 설명하였다. 고중환은 긴장감을 느끼며 점점 더 주의깊게 글줄을 더듬었다. 편지는 압착가공설비에 대한 합평회가 있을 때의 진상을 자세히 밝히고 이렇게 썼다.
《…그 누구의 잘못을 캐기에 앞서 중요한것은 그 공사를 당장 중지시키고 과학기술토론을 다시 벌리는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시간마다 나라의 귀중한 재산과 로력이 랑비되고있습니다. 내 비록 병석에 누운 몸이지만 과학기술토론회가 다시 열린다면 기여서라도 찾아가 자기의 주장을 증명해보이겠습니다. 공사가 벌어진것을 보았을 때 진작 부부장동지에게 그 무모성을 알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워낙 궁냥이 트이지 못한데다가 즉흥적인 충동이 앞선 나머지 손판식소장을 꾸짖고 즉시에 공사장으로 달려가 군중앞에서 황석태비서와 대결하였습니다. 뜻은 이루지 못하고 격심한 충돌끝에 심장병만 심해졌습니다. 나는 때늦게야 초소성방법에 의한 티탄

합금가공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하해같은 믿음과 기대를 미처 따르지 못한 나로서는 버젓이 머리를 들고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재산이 탕진되는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처세에 급급하여 입을 봉한다면 두번다시 잘못을 저지르는것으로 될것입니다. 날로 짙어가는 고민속에 이 편지를 보내오니 부부장동지가 지체없이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고중환은 편지를 든 손이 후두두 떨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런 경우를 예견하시고 광범한 토론을 거쳐 정확한 결론을 주라고 하시였다. 그런데 림수봉은 어찌하여 진실을 꿰뚫어보지 못하였는가? 그에 대한 의분과 불만이 끓어올랐다. 그를 부르려고 전화기에 손을 가져갔다. 그러나 다음순간 림수봉이 지금 외국출장중이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였다. 고중환은 잠시 생각을 더듬던 끝에 장거리전화로 금속공학연구소 소장을 찾았다.

전화는 몇분후에야 련결되였다. 그 몇분이 10년맞잡이처럼 느껴졌다. 고중환은 재가 일도록 타드는 입술을 혀끝으로 추기며 황급히 물었다. 좀처럼 침착성을 잃지 않는 그였지만 지금은 가슴을 옥죄이는 초조감을 어찌할수 없었다.

《소장동무, 림수봉부원장이 내려갔던 그 모임에서 말이요, 황석태동무의 압력에 못이겨서 지금 시운전하고있는 가공법을 지지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전류의 흐름만이 고막을 때릴뿐 응대가 없었다.

《왜 대답이 없소?》

어성을 높였으나 여전히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당황한 숨결같기도 하고 한숨같기도 한 불쾌한 음향이 가늘게 전류에 실려왔다.

《소장동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오. 소장동무의 견해대로 과학자의 량심을 걸고 어서 말하시오!》

《부부장동지, 용서하십시오.》

마침내 손관식의 짓눌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더 물을 필요도 없이 사실은 명백했다. 참을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동무도 학자요?》

《저는 그때 학자로서 주견없이 부끄럽게 처신했습니다.》

《첫 시운전에서는 실패했다는데 그후에는 어떻게 되였소?》

《시운전을 거듭했지만 매번 실패하고있습니다.》

고중환은 전화를 끊었다. 격렬했던 흥분이 숙어들면서 전신의 맥이 탁 풀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가? 그이로부터 정확한 결론을 주도록 하라는 과업을 직접 받은것은 자신이였다. 자기가 림수봉을 지나치게 믿었기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것만 같았다. 갑자기 목안이 말라드는것 같았다. 움쭉 의자에서 일어나 맥풀린 다리를 가누며 책상옆에 놓인 크지 않은 원탁으로 다가갔다. 보온병의 물을 따라서 몇모금 마시였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였다. 혹시 압착가공설비가 성공할수도 있지 않을가? 이미 시운전에서 실패를 거듭한다지만 최종적인 실패를 단언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과학연구사업이란 몇천번의 실패끝에 성공할수도 있는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바에는 그날에 가서 **김정일**동지께 저간의 사연을 말씀드리는것이 좋지 않을가? 만일 성공하는 날이면 잘못이 훨씬 가벼워질것 같은 타산이 머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타산이 얼마나 불손한것인가를 곧 깨달았다.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태의 진실을 꿰뚫어보지 못한채 일을 처리한 사업상의 과오는 그대로 남아있을것이다. 그것은 무엇으로써도 보상되지 않을것이다.

그날 오후에 고중환은 마음을 다잡고 **김정일**동지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김정일**동지께서 다른 사람과 담화중이여서 그는 대기실 쏘파에 앉아 무릎우에 서류가방을 올려놓았다. 그 가방속에 양영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이의 집무실에서 목깃이 닫긴 회색양복을 입은 손님이 나왔다. 해볕에 그을린 고동색살결과 소박한 차림으로 보아 어느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장원 같은데 왼쪽다리를 눈에 뜨이게 절었다. 고중환은 그와 어기며 집무실로 들어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금 손님을 바래우신 참이여서 출입문 가까이에 서계시였다. 부드러운 미소를 담으신 그이의 얼굴에는 농민형의 손님과 담화를 나누시던 즐거운 감정의 여운이 비껴있었다.

인사를 올린 고중환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 손님과는 정반대로 그이께 커다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될 자신을 다시금 생각했다.

《마침 잘 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부부장동무에게 한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던 참이였습니다. 저기 가서 앉읍시다.》

고중환은 그이께서 권하시는 자리에 앉았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옆자리에 앉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밝은 표정으로 물으시였다.

《내 방에서 나간 손님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그 동무가 바로 지난 여름 강냉이구이를 하면서 내가 말한 어릴적 벗입니다. 이번에 그 협동농장에서 평양에 견학을 왔답니다. 그래서 반갑게 만났습니다.》

고중환은 강냉이구이를 하던 즐거운 휴식일을 생각했다. 바로 그날에 구운 올강냉이를 육종한 사람인줄 알았더라면 인사라도 나누는것인데 무심히 스쳐보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소어린 안색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그 동무의 기탄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농촌실정과 농민들의 지향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담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무가 매우 난감한 제기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육종한 올강냉이종자를 가지고 학위론문을 써서 제출했는데 몇달이 지나도록 심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 말로는 연구사도 아닌 자기가 제출한 론문이여서 시답지 않게 여긴답니다. 뭐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올종인것만은 사실인데 소출이 적어서 도입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 모양입니다. 빨리 학위를 받도록 나더러 좀 도와달라는데 이거야 딱한 일이 아닙니까?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론문심의위원회에 빨리 가부를 결정해주라는 전화쯤은 할수 있겠지만 내가 그런 전화를 하면 심의자들이 딴 생각을 가지고 본의아니게 행동할수 있을겁니다. 그 동무는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장동무가 알아보고 공정하게 빨리 처리되도록 해주시오.》

고중환은 머리를 떨구고 침묵했다. 여느때라면 《알았습니다.》라는 대답을 올렸을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말마디가 목안에서 감돌며 입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이께서 과학기술문제에 얼마나 심중히 대하시는가를 다시금 절감했다. 그럴수록 공정하게 평가를 하라는

과업을 자신이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티탄합금가공기술문제가 복잡하게 뒤엉킨다는 생각이 가슴을 조이였다.

《부부장동무, 왜 그럽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의 낯색을 유심히 살피시였다.

《9월제련소에 내려갔던 동무들이 그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티탄합금가공설비공사를 승인했습니다.》

《그때 림수봉동무가 책임지고 내려갔지요?》

《그렇습니다. … 제가 림수봉동무의 보고 하나만을 믿고 그의 의견을 절대시하면서…》

《그래, 티탄합금가공설비가 어떻게 되였습니까?》

《오늘 때늦게야 양영복박사가 보내온 편지를 보았습니다.》

고중환은 가방속에서 편지를 꺼내드리였다. 편지를 읽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편지를 보니 티탄합금가공설비와 관련해서 참으로 심중한 문제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 동무부터 일을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양영복선생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은 그 압착가공방법을 반대했다는데 절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해서 림수봉의 의견을 절대시한것도 잘못입니다.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무로서는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에 대한 실무적처리는 과학행정일군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람들의 관계와 그들의 마음속 고충은 이 부문을 지도하는 당일군들이 헤아려보아야 합니다. 특히 연구사업방향이 당의 의도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것을 가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특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무는 그곳에서 벌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알아보아야 했고 서로 다른 두개의 연구집단이 지향하는 연구사업방향을 정책적 안목으로 가려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무는 그 모든것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가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중환은 뼈아픈 자책을 느꼈다. 이번의 사건은 단순한 실책이 아

니라 과학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자기 사업에 내재하던 본질적 결함이 집중적으로 드러난것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도 직권을 가지고 과학기술적문제를 좌지우지하는 폐단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나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보다 심각한 문제성을 띠고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첨단과학과 고도기술의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 남들이 이미 개발한것을 절대적인것으로 올려다보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걸고 독창적인 방법을 지향하는가? 양영복선생의 편지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있지 않지만 몇구절을 유심히 보면 바로 이런 문제가 사건의 바탕에 깔려있는것이 알립니다. 무엇인가 시사해주는것이 큰것만큼 앞으로 깊이 료해해봅시다.》

고중환은 그이의 예리한 통찰력에 놀랐다. 편지를 읽고 괴로움에 시달리며 많은것을 생각하면서도 그이께서 포착하신 그런 심중한 문제가 깔려있다는것을 보지 못했었다. 그이께서는 희미하게 드러난 그 사건의 륜곽에서조차 현상과 본질을 순간에 갈라보시였다. 말씀을 듣고보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무겁게 안겨왔다.

《양영복선생의 병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여온것을 보면 병세가 가볍지 않은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심려어린 안색으로 잠시 방안의 공간을 응시하던 끝에 고중환에게 머리를 돌리시였다.

《지금 당장 나가보았으면 좋겠는데 반시간후에 외국의 당대표단을 만나기로 되여있습니다. 래일 함께 병원에 나가봅시다.》

## 8

아침식사를 하고난 양영복은 다시 자리에 누웠다. 신선한 아침대기를 마시며 병원구내의 정원수밑을 거닐고싶었지만 몸을 움직이기

가 어려웠다. 숙어지는듯 하던 병세가 이즈막에는 또다시 머리를 들었다. 수면장애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번민이 짙어갔기때문이다. 고중환에게 편지를 쓴 며칠후부터 무슨 소식이 있기를 기다렸으나 종무소식이였다. 편지를 쓴것이 두번다시 부질없고 어리석은짓이 아니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이 적지 않게 회복되는가싶던 보름전에는 인편으로 손관식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에게서도 회답이 없었다. 그때에는 어지간히 정신도 맑아서 진작 하여오던 티탄합금의 초소성가공법을 두고 탐구를 계속했다. 필요한 책들을 읽기도 하고 티탄합금의 늘임률이 가장 좋은 리상적인 조건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몇가지 실험테타를 잡으면 티탄합금의 초소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들 호상관계에 대한 학술적결론을 얻어낼것 같았다. 그래서 손관식에게 필요한 실험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했던것이다. 그에게서도 전혀 소식이 없는것을 보면 실험을 할수 없는 난감한 사정이 있는게 분명했다. 양영복은 이즈막에 그 누구에게도 하소할길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몸이 어데론가 고적한 곳으로 멀어져가는듯 한 소외감을 서글피 느끼였다. 늙고 병들면 아무리 의지가 굳세던 사람도 감상적인 기분에 잠겨들기마련인가보다. 이따금 호흡이 가빠지고 손발이 저려드는 심상치 않은 징조가 나타났다. 그럴 때면 자기의 주장과 연구사업을 다같이 실현하지 못하면서 필사적으로 고집을 세우다가 뭇사람들의 미움만을 사고 억울히 한생을 마칠것 같은 절망감에 시달렸다. 담당녀의사는 회진을 할 때마다 되도록 명랑한 감정과 유쾌한 기분을 가져야 한다고 친절히 타일렀다. 다른 모든 병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심장병에는 환자의 감정과 기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간밤에도 번뇌에 시달리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아침식사를 하고 침대에 누우니 눈시울에 졸음이 실려왔다. 창으로 흘러들어 얼굴에 따스하게 와닿는 아침해발이 잠을 실어온것 같았다. 그는 눈언저리를 책으로 가리우고 솔곳이 잠이 들었다. 되도록 깊이 잠들려고 하였지만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생활의 단편들이 맥락없이 허황히 엇갈리면서 어수선하게 떠올랐다. 얼마나 잠들었댔는지 문을 여는 인

기척에 의식을 차렸다. 누운채로 얼굴에서 책을 내리우고 출입문쪽을 바라보았다. 방안에 들어선 일행은 여럿이였다. 의사들이 협의진단을 하러 온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양선생, 몸이 좀 어떻습니까?》

양영복은 그제서야 맨앞에서 침대로 다가오신분이 **김정일**동지이심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설마 하는 생각으로 눈에 총기를 모아 다시 우러러보았다. 잠바우에 위생복을 걸치시고 다정히 물으시는분은 분명 그이이시였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양영복은 황황히 몸을 일으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부축해주시고나서 침대옆의 의자를 끄당겨놓고 마주앉으시였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문안해주시니 감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양영복은 말로써 다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정이 가슴에 넘치여서 눈을 슴벅이였다. 무릎우에 놓인 두손은 내심의 감격을 드러내며 걷잡을수없이 떨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따뜻이 더듬어잡으시였다. 양영복의 부석부석해보이는 얼굴과 조갈이 인 입술은 심장병이 가볍지 않다는것을 말해주었다. 늙어가는것도 안타까운데 거기에 탈까지 만났다는 생각을 하시니 끓어오르는 애달픈 감정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얼마 되지 않던 우리 과학의 1세대들은 이미 대다수가 돌아가고 아직 생존해있는 학자는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새 조국건설에 헌신해온 그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마다 크나큰 상실의 슬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 1세대학자들모두에게는 수령님과 맺어진 깊은 인연이 있으며 그 인연속에 탐구의 로정을 오늘에로 이어온 감격스러운 사연들이 있었다. 해방전 흥남제련소의 기사였던 양영복은 나라가 해방되자 내 겨레를 위하여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바치려고 했지만 진정한 그 길이 분렬된 조국의 어느쪽에 있는지를 몰랐다.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월남해버렸다. 그들을 뒤따라갈 생각도 없지 않았던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것은 그의 머나먼 장래를 옳게 결정지어준 행

운의 계기였다. 여러 학자들과 함께 새 조선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들었을 때 그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그후 남조선에 있는 학자들에게 보내시는 수령님의 친서를 가지고 38도선을 여러번 넘나들었다. 장사군으로 가장을 하고 륙로로 혹은 밀선으로 남행길에 올랐던 그는 적들의 눈에 걸려 아슬아슬한 고비도 겪었다. 남조선에 있는 형제들과 친척, 친우들중에는 유력한 인물들이 많았다. 그들은 양영복이 서울에 나타나자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애원도 하고 권고도 했으며 나중에는 총부리를 내대고 협박도 하였다. 만약 적들편으로 넘어간다면 양영복은 부귀영화를 누릴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령님품으로 돌아왔다.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도 그의 생활에는 곡절이 많았다. 복잡한 가정환경은 색안경을 낀자들의 눈에 늘 의혹의 대상으로 비끼였다. 그런 가위에 처세를 모르고 어데서나 내심을 그대로 드러내며 자기 견해를 주장하는 그의 성미가 때로는 편협한 사람들의 극좌적인 정치적분석에 걸려들수 있는 건덕지를 주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 그를 보증하고 보호해주시였다.

양영복은 갖은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사회주의조국을 떠받들어온 재능있는 학자이고 애국적인 공민의 한사람이였다. 그런데 생의 말년에 그가 자기의 과학적주장을 굽히지 않던 나머지 격심한 충돌로 탈이 심해져서 병석에 누워있다. 그를 지켜보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못 견디게 가슴이 아프시였다.

《나도 양선생이 부부장동무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병원에 계신다는걸 알았다면 미리 와보는건데… 신상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였으면 왜 진작 나한테 알리지 않았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토록 관심하시는 티탄합금가공문제를 저는 한때 연구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댔습니다.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고 때늦게 연구에 달라붙었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성공여부도 기약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편지를 올리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로학자의 푹 꺼져든 눈에 고뇌와 회오가 어리

는것을 보시였다.

《양선생 생각에는 지금 9월제련소에서 하고있는 티탄합금가공방법이 공업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화제가 과학기술문제로 옮겨지자 양영복의 눈이 갑자기 빛을 내는것 같았다.

《안됩니다.》하고 그는 힘주어 단언한 다음 벌써 몇번이고 더 생각해본 근거를 꼽았다.

《선생이 지금 연구하고있는 방법은 어떤것입니까?》

《저는 초소성, 이를테면 일정한 조건에서 티탄합금이 엿가락처럼 잘 늘어나는 특수한 성질을 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있습니다.》

양영복은 환자답지 않게 열기를 띠고 자기의 과학적구상을 자세히 설명해드렸다.

주의깊게 들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양영복의 연구가 성공을 한다면 티탄합금가공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지난 20년대 금속의 초소성성질이 발견된 후 일부 유색금속가공에서는 그 성질이 적용되고있었지만 티탄합금가공에서는 아직 압축가공방법이 통용되고있다는것을 알고계시였다.

《그러니 선생은 모방이 아니라 창조를 시도하고있군요. 나는 선생의 연구자세를 지지하고싶습니다. 내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과학연구사업은 본래의 의미에서 모방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과학원에서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저에게 담력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학기술봉쇄를 가해오는 놈들이 보란듯이 새롭고 효률적인 가공방법을 탐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헌데 뜻대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외국에 갔던 선생이 참을수 없는 민족적의분을 안고 돌아왔을 때 그것들의것을 압도하는 훌륭한 방법을 탐구하리라고 믿었댔습니다.》

빙그레 웃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뒤에 서있는 병원원장을 부르시였다. 도수높은 백테안경을 낀 원장은 거의 양영복의 나이에 이른 오랜 의사였다. 그는 흘러내린 안경을 손끝으로 밀어올리며 옆

으로 조심히 다가왔다.

《양선생의 병치료를 부디 잘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릎우에 놓인 양영복의 손을 다시금 꼭 잡으시였다. 돌아가실 시간이 되였던것이다.

《부디 병치료를 잘하십시오. 선생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꼭 건강을 회복할겁니다. 양선생은 오래 생존해계시는것만으로도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승리를 보여주는것으로 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과 함께 곧 병원을 떠나시였다.

양영복은 침대우에 여전한 자세로 앉아서 까딱 움직이지 않고 그이의 마지막말씀을 되새기고있었다. 새겨볼수록 가슴을 치는 행복감에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나의 한생이 흘러가고있는가! 온 세상의 과학자들을 향하여 소리쳐 자랑하고싶은 충동으로 가슴이 설레였다.

## 9

9월제련소의 티탄합금가공설비는 시운전을 거듭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더는 론의할 여지가 없었다. 불가능하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해졌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과 함께 9월제련소로 나가시였다. 국가적으로 가장 절박한 연구과제인것만큼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했다. 고속으로 달려온 승용차는 한시간도 채 못되여 제련소당위원회청사앞에 이르렀다.

몸매가 다부져보이는 한 일군이 급히 청사에서 달려나왔다. 깊이 머리숙여 인사를 올린 그는 자세를 바로하며 자기를 소개했다.

《제 당위원회 부비서입니다.》

《황석태동무는 어데 갔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새로 꾸린 티탄합금가공설비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현장에 나가봅시다.》
《제가 인차 데려오겠습니다.》
《동무네가 양영복선생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무엇을 해놓았는지 보고싶습니다.》
결연히 말씀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길로 제련소구내를 향해 걸음을 옮기시였다. 제련소의 건물들과 구내길은 어느것이나 눈에 익으시였다. 부비서의 안내로 현장에 나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위를 둘러보시였다. 전날의 창고건물을 번듯하게 개조하고 현관의 앞머리에 《티탄합금가공직장》이라는 새 간판을 걸었다. 건물주변도 지대정리를 깨끗이 하고 보기 좋은 나무들을 심었다. 비록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황석태의 완강한 전개력과 뛰여난 일솜씨만은 부인할수 없었다. 참으로 아까운 일군이 커다란 과오를 저질렀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아프시였다. 황석태는 당에서 준 과업을 최대한으로 앞당겨 수행하려는 불같은 의욕을 안고 연구사업을 고무했으며 설비공사를 다그쳐왔을것이다. 두말할것없이 충실하고 능력있는 당일군이였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여 그처럼 엄청난 탈선을 했는가. 현관으로 들어가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실내를 둘러보시였다. 새로 갖춘 진공가열로와 압착가공설비들이 들어찬 방안에는 괴괴한 정적이 깃들었다. 그 어디에도 인적은 느껴지지 않았다.
《황석태동무가 왜 보이지 않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비서를 돌아보시였다.
《분명 이리로 오겠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부비서는 주변을 두릿거리며 어름어름 대답을 올렸다. 이때 진공가열로안에서 쇠붙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리였다. 뒤이어 사람의 목소리도 두런두런 가늘게 들리였다. 부비서가 급히 달려가 로안을 향해 소리쳤다.
《로안에 누가 있습니까?》
마치질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가 뚝 그쳤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다. 밖에서 느닷없이 들려오는 물음에 일순 어리둥절한 모양이다.
《비서동무가 아닙니까?》

그럴사하게 짐작한 부비서는 다시 물었다.
《그렇소, 나요.》
로체에 공명되여 어음이 똑똑치 않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빨리 나오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셨습니다.》
《뭐요?!》
놀라움에 잠긴 다급한 물음이 뒤따랐다.
《그게 사실이요?》
《지금 그이께서 여기에 와계십니다.》
로안에서 황급히 서두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황석태와 박치영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모자와 작업복에 시꺼멓게 그을음을 들썼다. 얼굴에도 그을음이 게발려서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모자를 벗어들고 얼굴을 문지르며 황황히 걸어오던 황석태는 자기의 몰골을 내려다보고 우뚝 멈춰섰다. 그림자처럼 뒤따르던 박치영도 서버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성큼성큼 그들에게로 다가가시였다. 그제서야 그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인사를 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면목이 없습니다.》
간신히 입을 여는 황석태의 실팍한 목밑에서 정맥관이 꿈틀거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중에서 분이 치밀고있었으나 그을음을 들쓴 그를 보시니 얼마나 안타까왔으면 이러랴싶은 생각도 드시였다.
《그래, 로속에 들어가서 무슨 뾰족한 방도라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서…》
황석태의 얼굴에는 심한 자책의 빛이 흘렀다.
《동무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있습니까?》
준절한 물으심이였다. 황석태는 떠듬거리였다.
《제가 직권을 가지고… 과학기술문제에 개입했던 결과로 오늘과 같은 후과가 빚어졌습니다. 한달째 저는 심각히 자신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당조직들의 관심이 전례없이 높아지면서 일부 당일군들이 과학기술문제에 개입해나서는 현상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동무가 이번에 범한 과오는 성격이 다릅니다. 동무는 아직 자기가 범한 과오의 한 측면만을 깨닫고있습니다. 과오는 단순히 과학기술문제에서 독단을 부린데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벌어진 사건은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티탄합금가공기술개발이라는 하나의 연구과제를 놓구 두개의 연구집단이 서로 다른 방법을 탐구하여왔습니다. 연구사업에서는 실패도 할수 있고 하나의 연구과제를 놓고 서로 다른 방법을 탐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무가 어느 한쪽에 편견을 가지고 다른 한쪽의 연구사업을 외면하여온데 있습니다. 어째서 양영복박사의 연구사업에는 외면을 하였습니까?》

《양영복선생의 연구사업은 전혀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저는 과학기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에서는 앞선 기술을 모방하기도 어려운것만큼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못하는 그런 새로운것을 창조한다는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란 무엇을 념두에 두었습니까?》

황석태는 자기의 사고와 인식에서 커다란 잘못이 있었다는것을 깨달으며 눈앞이 아뜩해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과학자들의 실력이 아직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무가 우리 과학자들의 창조적지혜를 믿지 못하는데 이번에 범한 과오의 본질이 있고 그 엄중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동무가 그런 생각을 품고있었다는것이 뜻밖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속에 넘치던 의분이 서운하고 안타까운 감정으로 뒤바뀌여지는것을 의식하시였다. 그것은 의분보다도 몇배로 더 괴로운 감정이였다. 우리 과학자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것은 결국 당이 내세운 고도기술과 첨단과학목표에 대한 신심이 부족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신께서는 오로지 우리 과학자들의 사상적각오와 실력을 믿고 높은 목표를 세우셨던것이다. 그런데 황석태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적높이에서 뒤떨어져있고 우리

과학자들이 아직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일이 적기때문에 높이 세운 목표앞에서 주저하며 목전의 리익에 급급해서 남의것을 흉내내는 방법으로라도 티탄가공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고 하였다.

림수봉은 또 그나름대로 과학사업에서 행정화의 틀에 빠져 독단으로 문제를 처리하였다.

모든 창조적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에서도 다수가결로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정당할수는 없지 않은가. 비록 한사람이 주장해도 그것이 옳을수 있다. 이것은 과학의 발전력사가 말해준다. 이렇든저렇든 그 모든것은 과학사업을 지도하는 일군들이 그렇듯 빨리 우리 과학을 세계적수준에로 도약시킬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신심을 못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이께서는 무거운 생각끝에 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우리 과학자들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고 분발해나선다면 세계적인 발견과 발명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믿고있기때문에 우리 식의 새로운 창조로 첨단과학과 고도기술의 요새를 점령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과학기술봉쇄를 악랄하게 감행해오는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모방이 창조보다 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당의 의도와 배치되게 사고하고 행동했습니다.

석태동무,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실패한 저 가공설비를 와본다면 우리에게 두번다시 골탕을 먹였다고 쾌재를 올릴것입니다. 조선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술을 모방할 능력조차 못 가졌다고 할것입니다. 이 얼마나 민족적존엄에 손상을 주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이의 서리발같은 시선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듯 하였다. 황석태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비로소 자기가 저지른 과오의 엄중성을 보며 굴러떨어진 심연의 깊이를 깨달았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황석태뒤에 서있는 박치영에게 시선을 보내시였다.

《동무는 젊은 과학자인데 일본의것을 가보고 고작 그것을 모방할 생각을 하다니… 청춘시절에 사는 동무가 왜 놈들의것을 압도할수 있는 월등한것을 창조하려는 포부와 야심을 못 가지느냐 말

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박치영은 간신히 입을 열었으나 목이 메여 뒤를 잇지 못했다. 설비공사가 완공되면 커다란 긍지를 안고 그이를 만나뵈옵게 되리라는 황홀한 꿈을 내처 품어온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처지에 선것이다. 얼굴을 들수 없는 몸으로 그이의 앞에 섰다는 절통한 감정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다.
《나는 동무가 앞으로 자신의 명예보다 우리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치영을 지켜보시다가 그 자리를 떠나시였다. 그이를 고중환과 부비서가 뒤따랐다. 늘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는 고중환조차 지금처럼 격노하신 그이를 처음 보는듯 했다. 누구보다 믿으셨던 황석태가 저지른 잘못이여서 그만큼 분함이 크셨을것이다.
《부부장동무.》
그이께서 조용히 부르시였다. 한걸음 뒤에서 걷던 고중환은 그이의 옆으로 나란히 나섰다. 어느새 그이의 얼굴에는 의분의 빛이 가셔진 대신 심중한 기색이 떠오르고있었다.
《수학올림픽에 나간 우리 학생들한테서 소식이 없습니까?》
고중환은 어찌하여 그이께서 갑자기 수학올림픽소식을 물으시는지 얼른 리해되지 않았다. 그이의 안색을 조심히 살피며 대답올렸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며칠후에야 경연이 끝납니다.》
《그들이 좋은 성과를 안고와야 하겠는데…》
그 어조에는 간절한 기대가 흘렀다. 고도기술의 개발에 신심을 못가지는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지혜가 월등하다는것을 실물로 보여주고싶은 간절한 심정에 잠기시였던것이다. 이번 일을 두고 여러가지로 생각을 깊이 하시던 그이께서는 한동안 침묵끝에 다시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 허풍을 치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타산되지 못한 〈발명〉과 〈기술혁신안〉들은 나라에 물질적손실을 줄뿐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에 대

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생각한것이 없습니까?》

《네, 아직 미처 거기까지는…》

고중환은 얼굴을 붉히며 나직이 대답올렸다. 그러한 폐단을 두고 안타까이 여기면서도 그것을 근원적으로 막을수 있는 결정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하고있었다.

《내 생각에는 전국적인 비상설과학기술심의체계를 부문별로 내오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 성원으로는 해당 부문의 권위자들을 망라시켜야 할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기술자도 망라시킬수 있을것입니다. 한때 문학예술부문에서도 작품선택문제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문 사업을 지도하면서 공정한 작품심의체계를 내오도록 하였습니다. 문학예술작품창작이나 과학기술적발명은 옳고그른것을 판단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부문에서 유능한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도장을 누른것만을 도입하는 엄격한 제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해당 부문 일군들과 토론해보시오. 더 좋은 안이 나올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안을 작성해서 정무원결정으로 법제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중환은 그이께서 밝혀주신 과학기술심의체계의 륜곽을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그는 지금껏 안타까와하면서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던 장벽이 금시 눈앞에서 허물어지는듯 한 느낌을 받았다. 돌이켜보면 과학기술분야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뒤흔들린 탓으로 심중한 후과를 빚어낸 사실이 적지 않았다. 허위적인 《발견》이나 《발명》이 농업생산과 공장건설에로까지 이어져서 경제건설에 큰 손해를 준 일도 없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진정으로 가치있는 과학기술적성과가 개별적인 학자나 일군에 의해 부정되여 아깝게 묻혀버리는 일도 있었다. 과학분야에서는 진리를 주장해도 오유로 되고 오유를 주장해도 진리로 되는 경우가 생활의 다른 분야보다도 많다고 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만이 아니라 인류과학사의 전로정이 보여주고있는, 그래서 어쩔수 없는 일로 여겨

오는 하나의 폐단이다. 과학탐구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발견을 지향한다. 탐구의 그 길은 태고연한 밀림속을 헤쳐가는것 같은 초행길이다. 그 길에서 보고 느끼고 발견한것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초행자만의것으로 되기마련이다. 그렇기때문에 탐구자가 새롭게 발견한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공정하게 내린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판단능력은 자기 인식의 한계를 초월할수가 없는것이다. 가치있는 발견들이 력사의 안개속에 묻혀버리거나 거짓으로 오인되는것은 결코 까닭없는 일이 아니다. 또 과학탐구에 몰두한 사람자체가 본의아니게 허위적인 성공에 쉽게 유혹될수 있다는 사정도 문제의 복잡성을 가져오는 까닭으로 되고있다. 흔히 과학탐구는 환상으로부터 시작되여 가설로 이어지고 그 가설이 현실적인 객관적법칙으로 확인되는 과정을 거친다. 과학자에게 있어서 환상은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과학적환상이 없이는 새로운 발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환상에 포로된 나머지 그것을 법칙으로 확인하지 못한채 진리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그러한 주장에 공명이 깔리고 개별적일군이 개입되면 문제가 복잡하게 번져지군 하였다. 과학기술문제에서는 흔히 지지자가 긍정되고 반대자는 보수주의감투를 쓰기가 쉬웠다. 새로운 발견은 낡은것과의 투쟁을 동반하기마련이라는 변증법의 론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과학적발견에 찬양을 보내고싶어하는 사회적심리가 작용하기때문이다. 광범한 대중은 발견의 진실여부를 모르고 성공의 소식에 무작정 기뻐하는것이다. 고중환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난감했다. 그런것만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방금 발기하신 새로운 과학기술심의체계를 두고 격동되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한없이 안타까와하던 구속감에서 벗어난듯이 몸이 거뜬해오면서 마음이 후련했다. 의심할바없이 새로운 심의체계에 의하여 오래동안 지속되여오던 그 모든 폐단들은 극복되고 우리 과학은 언제나 공정한 평가가 주어지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것이다. 이제 다시는 위조가 진리로 오인되는 허망한 일도 없을것이며 진리가 허위로 부정되는 억울한 일도 없을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패한 티탄합금가공설비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고중환은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가슴이 설레였다.

연구소의 크지 않은 회의실에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우리는 이번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티탄합금가공의 새로운 기술을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 절박성에 대해서는 동무들도 잘 알고있기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자들에게 미더운 시선을 보내시며 담담한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양영복박사를 비롯한 연구소의 일부 학자들이 초소성가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이미전부터 하여왔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일전에 그 선생을 만났을 때 그 연구정형을 구체적으로 묻고싶었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있는 그와 연구사업을 오래동안 론의할수 없었습니다. 연구사업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병치료를 잘하라는 당부만 하고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영복선생의 과학적구상을 잘 알고 적극 조력해온 동무들이 있는것만큼 그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초소성가공방법의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였고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손관식소장이 얼굴을 번쩍 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려온듯싶었다.

《장담할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신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양영복선생이 병환에 계시면서도 한달전에 매우 의의있는 실험지시표를 작성해서 보내왔습니다. 이제 그 실험을 해서 정확한 수치들을 얻어내면 티탄합금의 변형속도감도지수를 나타내는 공식을 유도해낼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제작실험을 할수있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실험설비들은 부족되는것이 없습니까?》

《우리 연구소에는 콤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실험설비들이 이미 갖추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식전자현미경이 한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첩에 《주사식전자현미경》이라고 쓰신 다음 밑줄을 그으시였다.

《주사식전자현미경이 없어서 양영복선생이 시도하는 실험을 못하고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현미경은 다음단계의 실험에 필요합니다. 양영복선생이 시도하는 실험을 못한것은…》

손관식은 뒤를 잇지 못하고 시선을 떨구었다.

《어서 기탄없이 말하시오.》

그러나 여전히 손관식은 침묵했다. 객석에서 젊은 학자가 민망스레 손관식을 바라보더니 불쑥 일어섰다.

《양영복선생이 병석에서 실험지시표를 보내왔을 때 저희들은 생각되는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선생이랑 여럿이 실험에 착수했댔습니다. 실험을 시작한지 이틀만에 저희들은 당장 걷어치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압착가공기술설비가 완공되여가는데 연구소의 한쪽 구석에서는 딴전을 보면서 완공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신심을 잃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것이였습니다. 그렇게 되여 중지되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황석태의 편견이 빚어낸 후과를 다시금 실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서있는 두사람에게 어서 앉으라고 손짓을 하시며 학자들을 둘러보시였다.

《나는 동무들이 연구하는 초소성방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무엇보다 양영복선생과 동무들의 사상적각오와 독창적인 과학적지향이 마음에 듭니다. 나는 최근에 초소성에 대한 책을 몇권 보았습니다. 금속의 초소성질이 발견된지 얼마 안되기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성질을 리용한 가공방법은 극히 제한된 일부 유색금속에 국한되여있습니다. 동무들이 더 잘 알겠지만 지금 금속가공학분야에서는 오래동안 내려오던 압착가공시대가 조만간에 끝나고 초소성가공방법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동무들이 성공하면 티탄합금의 가공에서 압착가공단계를 뛰여넘어 초소성가공방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척한것으로 될것입

니다. 미래의 금속인 티탄을 미래의 가공법인 초소성방법으로 가공하는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순간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은 학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터치였다. 우렁찬 박수는 그칠줄 몰랐다.

**김정일**동지께서도 환히 웃으시며 그들과 함께 박수를 치시였다. 자신의 심장과 그들의 심장이 하나의 맥박으로 고동치는것을 느끼시였다.

담화를 마치신 그이께서는 학자들의 배웅속에 연구소를 떠나시였다. 정문을 나서시던 그이께서는 마당에 나와선 그들을 되돌아보시였다. 헤여지기를 아쉬워하는 그들을 보시자 얼른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으시였다. 불현듯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시였다.

《동무들, 이제 나와 함께 평양으로 갑시다. 얼마전에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오랜 과학자의 운명을 취급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나더러 보아달라고 어저께 보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영화를 나와 함께 봅시다. 오늘은 평양에서 지내시오. 그리고 래일은 일요일이니 대성산이나 만경대유희장에서 휴식을 하고 돌아오시오. 갔던김에 양영복선생의 병문안도 하시오. 누구나 그 선생을 만나보고싶겠지만 거리가 멀다보니 몇동무만 찾아갔던 모양인데 모두가 찾아가면 그 선생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듣자니 영화는 곡절많은 생활의 풍파속에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고 살아온 과학자가 주인공이라는데 양영복선생이 본다면 꼭 자기의 지나온 생활을 보는것 같을것입니다. 그 선생도 오늘저녁 함께 보았으면 좋겠지만 병석에 있으니 하는수 없습니다. 래일 동무들이 면회를 갈 때 록화필림을 보내주겠습니다.》

학자들은 넋을 잃은듯 잠자코 서있었다. 마치 그이의 말씀을 꿈결에서 들은것처럼 어리둥절한 얼굴들이였다. 상상할수 없는 행복과 기쁨에 휩싸이다보니 모두다 현실감각을 상실한것 같았다. 북받치는 감사의 정도 표현하지 못했고 기쁨의 환성도 터치지 못했다.

한시간후에 과학자들을 태운 대형뻐스가 평양을 향해 떠났다. 불시에 벌어진 일이여서 환송을 나온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학자들은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느낌이였다. 이제 소식을 알게

되면 가족과 친지들은 물론 온 도시가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일것이다. 뻐스는 시내를 벗어나 들판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달리였다. 차안에는 발동기의 동음만이 고르롭게 울릴뿐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새 영화를 보게 될 이 저녁과 수도의 유원지에서 휴식으로 즐거울 래일의 하루, 마치 자기 운명을 그린듯 한 영화를 보면서 더없이 감격할 양영복의 모습… 학자들의 머리속에는 그 모든것이 생동하게 떠올랐으나 누구도 말이 없었다. 어쩐지 자기들의 감정을 서뿔리 입밖으로 표현하는것이 경박한 일처럼 느껴졌다. 앞에서는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승용차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달리였다. 학자들은 줄곧 그 승용차를 바라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자기 심장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조선의 과학자로 사는 이 행복을 그 어디에 비기랴! 남들이 거친 순차와 단계가 아니라 비약의 지름길로 우리의 과학기술을 이끄시는 그이의 거인적인 보폭에 발걸음을 맞추리라!

## 10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에서 머리를 드시였다. 심중한 생각에 잠기실 때마다 항용 그러하듯이 두팔을 엇걸어 가슴에 얹고 손끝으로 턱을 쓰다듬으시였다. 문건은 9월제련소에 내려가서 압착가공기술의 공업화를 승인했던 림수봉에 대한 사업료해자료였다. 이미 고중환이 개별적으로 비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신적이 있었다. 좀처럼 성을 낼줄 모르는 고중환이 책상을 치며 격분을 터뜨린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였다. 헌데 문건에 의하면 과학원당위원회에서는 림수봉에 대한 사상투쟁을 벌리던 끝에 당책벌을 적용하였다는것이다. 그의 무책임한 사업태도와 함께 당이 내세운 전망목표앞에서 동요하고 주저한 사실이 비판되였다고 지적되여있었다. 황석태의 편견이 작용한 리면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하여 압착가공기술의 공업화를 승인한 사업태도는 두말할것

없이 무책임하였다고 할수 있었다. 그것은 응당 비판되여야 할것이다. 하지만 당이 내세운 높은 투쟁목표앞에서 동요하고 주저하였다는것은 지나친것이 아닐가? 흔히 날카롭게 비판이 벌어지면 과오의 사상적원인이 사실보다 더 엄중하게 분석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것이다. 제기된 과학기술문제에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뜻하지 않게 실수도 할수 있고 능력의 제한으로 오판을 할수도 있는것이다. 그러한 실수와 오판에 당책벌을 적용한다면 누가 과학심의사업에 나서려고 하겠는가? 이번의 사건으로 나라에 적지 않은 물질적손실을 준것도 가슴아픈 일이지만 믿고 사랑하시던 두 일군, 황석태와 림수봉에게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게 되는 사실이 몇배로 더 가슴이 아프시였다. 황석태는 엄중한 후과의 책임을 지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사상적인 과오나 작풍상의 잘못은 비판으로 시정할수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의도야 어떻든 생산용물자를 제멋대로 설비공사에 람용하여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책임은 피할수 없을것이다. 그렇지만 림수봉의 경우야 그와 다르지 않는가? 그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이 되새겨지시였다. 그가 과학원의 지도일군으로 사업한지도 10여년이 훨씬 넘었다. 유능한 기계공학자인 림수봉자신이 나라의 기계공학발전에 크게 기여한것은 말할것도 없고 과학지도일군으로 우리의 과학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공적도 적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자신께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다가 과학기술적으로 걸린 문제가 있으면 의례히 림수봉을 찾아 의논하시였다. 그때마다 그는 높은 충정심을 가지고 과학자들을 능숙히 동원하여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그가 당이 새롭게 제시한 첨단과학기술과제앞에서 동요하다니… 잘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동안의 침묵끝에 전화로 림수봉을 부르시였다. 한시간이 채 못되여서 림수봉이 집무실에 나타났다. 평성에서부터 고속으로 차를 몰아온것이 분명했다.

《나는 동무에 대한 사상투쟁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무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싶어서 찾았

습니다.》
시선을 들지 못하는 림수봉의 얼굴에는 고뇌와 수치가 짙게 비끼였다. 나이에 비해 윤택해보이던 살갗조차 창백해보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그만…》
그는 갈린 음성으로 입을 열었으나 인차 말끝을 삼키고말았다.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죄스러운 감정을 어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라하는것 같았다.
《동무가 9월제련소에 내려가서 독단으로 결론을 내리고 무책임하게 일을 했기때문에 엄중한 결과가 빚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무가 우리 당이 내세운 첨단과학의 목표앞에서 동요하고 주저하여왔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과학전선의 일선에 선 지휘관인 동무야 그럴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동요하고 주저했습니다.》
림수봉은 머리를 더욱 깊이 숙이였다.
《심각히 잘못을 반성한다고 해서 자기의 사상적결함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림수봉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에 와서조차 자신을 그토록 믿어주시는 그이의 심정을 의식할수록 자책의 아픔이 모질게 뼈속을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이의 앞에서는 진실그대로를 실토해야 한다는 자각이 머리를 들었다.
그는 마음을 진정하려고 애쓰며 입을 열었다.
《저는 지난번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받아안았을 때 며칠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현행생산에 걸린 문제를 푸는 과학기술과제들과 기초과학분야의 문제들은 신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이 세워진 첨단과학과제들을 두고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것을 해낼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무겁게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너무도 아름차고 어려웠기때문에 동요하고 주저했습니다. 그 수행을 당앞에 책임진 저로서는 그 누구에게 마음속의 동요와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수도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과학자라면 몰라도 책임일군인 제가 동요한다는것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그 영향이 크다는것을 자각하고있었습니다. 그랬으나 저의 마음속 동요는 9월제련

소의 이번 사건에서 숨길수없이 표현되였습니다.》
《그래 동무의 마음속 동요가 어떻게 표현되였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녕 믿고싶지 않은 사실이여서 따져물으시였다.
《저는 직권의 압력으로 손관식소장을 비롯한 학자들이 압착가공설비의 공업화를 마지못해 지지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양영복박사가 이미전부터 초소성가공방법을 연구하여왔다는 사실은 알고있었습니다. 료해하여보니 그때는 이미 박치영이라는 젊은 학자가 외국의것을 모방한 압착가공기술개발에서 상당한 전진을 가져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두가지 방법중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것이 박치영동무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지했습니다.
결국 저는 당에서 바라는대로 첨단과학과제들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기에는 우리 과학자들의 실력이 어리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품고있었기때문에 그 과제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했던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선을 떨구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림수봉의 실토가 충격적으로 안겨오면서 심중한 생각이 머리속에 서려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림수봉은 최근년간 과학기술교류를 위해 다른 나라들을 많이 다녀왔다. 그는 앞선 나라들의 과학실태와 과학자들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비한 우리 과학자들의 실력의 차이도 현실적으로 가늠해보았을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생각대로 우리 과학자들의 능력이 첨단과학과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만 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단 말인가?…
전화종이 울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거운 상념에 잠기신채 전화를 받으시였다.
《제… 고중환입니다.》
수화기에서 상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도 다급히 달리던 걸음으로 전화를 거는상싶었다. 숨가쁜 숨결소리에 말마디들이 토막토막 끊어졌다. 그가 이처럼 흥분하는걸 보면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것 같았다.

《무슨 일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음의 긴장을 느끼며 수화기를 귀가에 힘주어 누르시였다.

《국제수학올림픽결과가 발표되였습니다!》

상대는 한마디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뒤를 잇지 못했다. 그 무엇이 목으로 치밀면서 쉽사리 말을 번지지 못하는것 같았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초조감에 휩싸이며 다급히 물으시였다. 마른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가늘게 들리더니 뒤이어 저으기 긴장된 고중환의 목소리가 궁지롭게 수화기의 진동판을 울리였다.

《박상수학생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다른 두 학생은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의 통신들은 이번에 처음 참가한 조선의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픽력사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떠들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형언 못할 환희에 휩싸이며 자리에서 성큼 일어서시였다. 박상수학생의 영특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시였다. 기쁨에 넘쳐 달려오며 성공을 자랑스레 보고하는 그를 한품에 얼싸안는 환영을 느끼며 흥분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박상수학생은 우리 민족의 장한 아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돌아오면 크게 환영합시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수학적지혜를 세계에 과시한 학생들을 꽃수레에 태워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민족의 우수한 지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세운 높은 과학의 요새를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을 굳게 가집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과에 대한 세계적인 반향자료를 곧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한시바삐 전해드리고싶어서 먼저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처럼 기쁨과 자부심에 휩싸여보신 때가 없

는것 같으시였다. 정녕 진정하기 어려우시였다. 세계적인 최강자들과의 두뇌경쟁에서 우리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이 승리했다. 이것은 우리의 과학기술적잠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그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보이고있다. 박상수를 비롯한 우리의 사랑스러운 수재들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싶은 강렬한 심정을 누를길 없으시였다. 오늘 밤은 정녕 가슴설레이는 이 환희에 잠을 이룰것 같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적 그 자리에 서있는 림수봉을 띄여보시였다. 이 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눌수 있는 사람을 비로소 발견하신듯 한 느낌이였다. 줄곧 자책감에 모대기던 림수봉은 곁에 있었지만 불시로 걸려온 전화가 어떤 내용인지 가려듣지 못한듯 여전히 머리를 수긋하고있었다.

《부원장동무, 우리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픽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메달 하나에 동메달 두개!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림수봉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괴로움이 짙게 서렸던 얼굴에 놀라움과 의혹의 표정이 엇갈렸다.

《우리 학생들은 과학과 교육이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의 학생들과 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의 기성세대는 다른 나라 학자들보다 실력이 그렇게 뒤떨어졌단 말입니까? 그럴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과학자들의 지혜가 결코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국제수학올림픽에 우리 학생들을 내보내자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승산이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과는 그들의 우려가 공연한것이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겨루어도 보지 않고 주저하고 동요하는것은 민족적자부심과 긍지가 부족한 표현입니다. 자기 비하는 약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과학이 앞선 나라들보다 뒤떨어졌다고 하여 우리 학자들의 지혜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보는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우리 과학의 기성세대들도 학생들의 수학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실력경쟁에 나선다면 우수한 성과를 거둘것입니다! 과거의 사회력사적조건때문에 우리 과학은 아직 남들을 따라앞서지 못하고있지만 총명한 우리 민족

의 지적능력을 대대로 계승해온 우리 과학자들의 창조적지혜는 남들보다 월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이번 성과가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주는것이 아닙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열띤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림수봉을 비판하신다기보다는 가슴속에서 북받치는 내부적인 감정을 열렬히 호소하고싶은 충동에 휩싸이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국제수학올림픽 우승자들이 돌아오면 굉장한 연도환영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날 과학자들도 나와서 그 학생들을 축하해주어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거둔 성과는 과학자들에게도 커다란 고무로 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림수봉은 그 환영식을 눈앞에 그려보며 힘있게 대답올렸다. 전에 없던 용기와 신심이 북받치면서 우리 과학의 눈부신 미래가 황홀하게 비껴오는듯 하였다.

# 제 4 장

## 1

황석태는 결코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가혹하게 징벌하고싶은 충동에 내처 사로잡혀있었다. 비판이나 추궁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보면서 그 무엇을 감추거나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짧지 않은 생애에서 이번처럼 뼈저린 자책에 몸부림쳐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과거에도 관료주의적사업작풍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일이 없지 않았으나 크게 과오를 범했던 일은 없었다. 당이 맡겨준 과업을 수행 못한적이 없었으며 자신이 설계하고 계획했던 사업을 성공에로 이끌어가지 못한 때도 없었다. 하지만 고도기술을 개발하는 이번 일에서는 참담한 실패와 무서운 후과를 가져왔다.

황석태는 금속공업부 강서원부부장이 내려와서 류용하여 랑비한 로력과 자재를 따질 때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는 직무에서 해임되여 이틀동안 사업인계를 하고 오늘 오전에는 당위원회와 행정의 부서들을 찾아다니며 함께 일해오던 일군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수치감때문에 긴말을 나누지 못했다. 그저 일을 잘못하고 떠나가니 용서해달라는 식으로 한마디씩 건늬고 헤여졌다. 많은 사람들이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박치영이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결코 그런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 이끌어주지 못했기때문에 그 동무도 잘못을 저지르게 되였습니다.》

황석태는 진심을 말했다.

작별인사를 다 하고난 그는 집으로 가려다가 종합식당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책임자녀성을 만나고싶은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공식적인 립장에서 본다면 굳이 작별인사를 나누어야 할 대상이 아

니였다. 종합식당과 같이 작은 단위의 책임자들까지 다 만나자면 끝이 없었다. 그를 꼭 만나고싶은것은 까닭이 있었다. 전날에 손님들을 데리고 가면 언제나 친절히 성의를 다해주던 녀자였다. 그도 그렇지만 압착가공설비공사가 벌어지자 그는 누구보다도 열성껏 지원사업을 하였다. 거의 매일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현장으로 달려왔으며 녀성의 몸으로 목고를 메고 아낌없이 지대정리에 땀을 흘리였다.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연구집단성원들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처럼 지원을 한 그의 성의와 노력이 자기의 잘못으로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은연중 머리에 떠올랐던것이다. 그에게 미안스러운 심정을 헤쳐보이며 작별인사를 나누고싶었다.

점심시간전이여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창 끝내가는 식당주변은 음식냄새가 구수하게 풍기였다. 뒤문을 통해 조용한 방으로 들어간 황석태는 접대원처녀를 시켜서 책임자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어지간히 시간이 흐른 후에야 책임자가 나타났다.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서는 녀인의 얼굴에는 종잡을수 없는 착잡한 표정이 엇갈렸다. 반가움도 아니고 련민도 아닌 그 무엇인가 난감해하는듯 한 낯빛이였다.

《늦어져서 미안해요. 시행정위원회 상업과장동지가 오셨기에…》

황석태는 갑자기 달라진 자기의 처지를 무의식중에 의식했다. 전날이였다면 설사 상업과장과 담화중이라도 량해를 구하고 급히 달려왔을것이다.

《동무와 작별인사도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 식당에서 점심도 먹고싶어서 왔소.》

《해임되였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정말 안되였어요.》

녀인은 선채로 한순간 동정의 시선을 보내주더니 표정을 바꾸며 처음의 난감해하는듯 한 기색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쩔가?》

녀인은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요?》

《이제 곧 상업과장동지를 이 방에 모셔야겠는데…》

황석태는 책임자녀인에게 한숨섞인 목소리로 응대했다.

《그렇다면 돌아가야겠구만.》
그는 성큼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녀인은 만류하지 않았다. 전날의 친절하던 태도는 어데로 갔는가? 그것이 아첨이였다는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가 가공설비공사에 지원을 했던 숨은 목적도 짐작이 갔다. 가공설비가 성공하면 거기에 지원을 했던 자기에게도 무엇인가 차례지는것이 있으리라고 타산했음이 분명했다.
《상업과장동진 저희들이 소홀히 할수 없는 손님입니다. 이거 정말 안됐습니다.》
《됐소.》
황석태는 심한 모욕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안을 나섰다.
《저를 리해해주십시오.》
안타까운 목소리에 애절한 한숨이 뒤따르는듯 하여서 피끗 뒤를 돌아보았다. 녀인은 사방을 살피며 그 누가 황석태를 바래주는 자기를 볼가봐 두려워하는듯싶었다. 그것이 남의 눈에 띄우면 전날의 아첨이 과장되여 사람들의 혀끝에 오르면서 듣기 거북한 비난을 살수 있다고 여기는것이 분명했다. 참으로 처세에 밝은 녀자였다. 그런 녀자를 성실한 봉사일군이라고만 여기고 찾아온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돌이켜보면 나의 관료주의적인 사업작풍때문에 아첨에 밝은 저런 녀자가 생겨난것이 아닐가?…
황석태는 울적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다. 하늘은 찌뿌둥하니 흐리였다. 재빛구름이 낮게 드리운것으로 보아 금시 비가 내릴상싶었다. 투벅투벅 걸어서 집에 이르니 안해가 점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있었다.
《왜 이리 늦었어요?》
흰 보자기를 덮어놓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던 안해가 얼른 일어서며 묻는 말이였다. 황석태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 오전에는 작별인사나 하고 점심시간에 들어올수 있으니 집을 비우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사실을 상기했다. 그런 당부를 남겼댔으니 왜 늦어졌느냐고 묻는것이다. 안해는 전에없이 동정어린 표정으로 모자를 받아서 옷걸이에 걸어주었다.
차려놓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안해는 언제까지나 남편이 나타

나기를 기다린 모양이다.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주려고 특별히 애를 쓰는 안해였다. 웬만한 녀자라면 과오를 범하고 해임된 남편에게 원망을 터뜨리며 상심한 기색을 가시지 못할것이다. 하지만 안해는 그러한 기색이 없이 전보다 오히려 더 남편을 따뜻이 대해주려고 애쓰는상싶다. 해임장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이였다. 식구들의 태도는 각이했다. 기술준비실의 딸애는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두번다시 쳐다보기가 딱한듯이 내처 외면을 하고 한숨을 삼키였다. 아들애는 세찬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거침없이 원망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집안에서도 지금껏 전횡을 부려왔어요!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아버지의 강요가 아니였다면 나는 희망대로 **김일성**종합대학에 가서 핵물리학을 전공했을거예요. 나는 우리 학급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어이 나를 전기로앞에 세우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성을 배우라고 설교했지요. 나 대신에 티탄직장 공훈용해공의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애썼다는걸 나도 후에 알게 되였어요!》

《이 자식이 어따대고 함부로 수작질이냐?》

황석태는 화가 치밀어서 불끈 틀어쥔 주먹을 떨었다. 아들녀석이 홀 자기 방으로 달아나지 않고 한마디만 더 하였다면 사정없이 뺨을 후려쳤을것이다. 그녀석이 사라진 옆방문을 쏘아보는데 안해의 속삭이는듯 한 조용한 목소리가 귀가에 들려왔다.

《여보, 진정하세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일을 하다가 과오를 범할수도 있고 그것이 엄중하면 응당 책임적인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자요. 나는 당신이 어데를 가든 따라가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어요. 지금까지는 잘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나도 귀가 있어서 당신이 행정을 대행한다는 뒤소리를 들었고 양영복박사의 견해를 직권으로 내리눌렀다는것도 진작 알고있었어요. 그랬지만 내 말을 귀등으로 듣는 당신에게 그런 충고를 하였다가 오히려 가정불화만 살것 같아서 입을 봉해왔어요.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내 잘못이 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차분히 울리는 그 목소리에 진정이 넘치였다.

황석태는 서서히 머리를 돌리며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는듯한 의아한 시선으로 안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올줄은 몰랐다. 남들은 나이가 지숙해지면서 부부사이의 금술이 더욱 좋아진다지만 황석태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복잡한 사업들을 붙안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온 황석태에게는 가족들과 아기자기하게 정을 나누어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다가 동갑인 안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보다 퍽 늙어보이였다. 남편은 아직 기가 펄펄한 장정이였지만 안해는 얼굴에 주름이 지고 귀밑머리가 희여져버렸다. 황석태는 가정사에 무관심했고 안해에게 살틀하지 못했다. 안해가 남편의 처사를 두고 조심히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두마디 안팎에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막아버렸다. 그러는 과정에 안해는 점차 침묵을 지키면서 남편의 일에 간참을 하지 않고 공손히 가정일을 돌보는 녀인으로 되여버렸다. 그에게도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었을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불만이 최근년간에 와서가 아니라 결혼한 첫시기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결혼은 서로의 열렬한 사랑끝에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황석태의 요구에 안해가 어쩔수없이 응하였다고 할수 있었다.

전후에 도당학교를 다니던 황석태는 졸업을 한해앞둔 그해 여름에 방학으로 고향인 성천군의 산간마을로 돌아왔다. 그때 그는 24살의 청년이였다. 그의 체내에는 청춘의 정열이 끓고있었다. 세상에 두려운것도 없고 뜻을 이루지 못할것도 없는것 같았다. 이제 도당학교를 졸업하면 나이를 앞당겨 간부로 제발된다는 생각이 만만한 자부심과 용기를 주었다. 고향마을에 돌아온 그는 노상 기분이 들떠있었다. 어른들은 축복의 눈으로, 동년배의 청년들은 부러움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날 그는 마을앞을 흐르는 강물에서 탄력에 넘친 몸을 시원스레 씻었다. 미역을 감고나서 휘파람을 불며 강가를 거닐었다. 그러다가 방금 빨래를 끝내고 돌아가는 처녀를 만났다.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 소년빨찌산으로 함께 싸운 처녀였다. 서로 손을 맞잡고 놓을줄 모르는 그들의 입에서는 반가움에 넘친 말마디들이 튀여나왔다.

《언제 왔어요?》

《며칠전에…》

《그사이 내가 군민청에 갔댔기때문에 이제야 동무를 만나게 되는군요.》

《몰라보게 됐군.》

《동무도 역시…》

그들은 빨찌산투쟁을 하던 소년시절이 멀리 지나가고 서로가 청춘으로 성장했다는것을 깊은 감회속에 되새겼다. 황석태는 처녀의 얼굴에서 순간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방금 머리를 감고 세면을 한듯 한 처녀의 얼굴에는 상상도 못했던 성숙미가 풍기였다.

《우리 저쪽에 가서 얘기를 나눕시다.》

황석태가 물황철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안침진 곳을 가리켰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손에는 빨래감이 든 대야를 들고 다른 손은 황석태의 줌안에 든채로 걸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기쁨이 그를 방심하게 하였다. 황석태는 처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말큰한 감각과 따뜻한 체온에 취하였다. 가슴설레이는 그 느낌에서 영원히 벗어나고싶지 않았다. 만일 이 처녀와 장차 결혼을 한다면… 불시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것을 합리화하는 유력한 근거들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우선 소년빨찌산투쟁을 하던 그 시절에 처녀의 성품도 충분히 리해하였다. 결혼전에 신뢰와 리해를 위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것이라면 우리는 일찌기 어린시절에 투쟁의 불길속에서 그것을 거치였다. 그러니 지금 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애정은 돌발적인것이 결코 아니다.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풀이한 황석태는 주저없이 결판을 보리라는 용기를 가지였다. 그들은 물황철나무들이 서느러운 그늘을 던지며 진을 치고 서있는 정갈한 풀밭에 마주앉았다. 처녀는 도당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학교생활이 재미있는가, 함께 싸우던 아무개의 소식을 아는가… 끝없이 묻고있었지만 황석태는 벌써 그의 말이 귀가에 잘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다른 이야기들은 내 물음에 대답한 다음 나눕시다. 나는 동무를 사랑하겠소. 동무 마음은 어떻소?》

화제를 휙 돌려버린 돌발적인 물음에 처녀는 얼른 반쯤 열린 입가로 손을 가져가며 두눈을 크게 떴다.

《왜, 내가 싫소?》

《뜻밖이군요.》

처녀는 잠시후에 눈시울을 내려깔며 한마디 속삭이듯 입속으로 중얼거리더니 마음을 다잡고 명백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석태동무, 우린 서로 사랑할수 없어요. 나는 동무와 나이가 같지 않나요. 녀잔 저보다 네댓살이상 되는 대상을 맞아야 사랑도 받고 의지가 된대요.》

《체, 그게 무슨 상관이요. 서로 마음만 합치면 그만이지.》

《아무튼 우린 서로 융합할수 없어요.》

처녀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마주보았다. 결연한 눈빛에 부딪친 황석태는 처녀를 굴복시키려는 반발적인 욕망이 더욱 세차게 솟구쳤다. 한껏 몸이 달아올랐다. 앞뒤를 가릴새없이 처녀의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무엇때문에 안된다는건지 말하오. 대답하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겠소.》

황석태의 폭발적인 열정에 질겁한 처녀는 몸부림치며 그의 줌안에서 손을 뽑았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달아나버렸다.

황석태는 얼없이 그 자리에 서있었다. 처녀의 손목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체온의 황홀한 느낌은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가슴이 무너지는듯 한 실망감에 눈앞이 아뜩했다. 잠시후에야 처녀가 빨래대야를 그냥 내버린채 달아났다는것을 알았다. 그 대야를 찾으려고 처녀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황석태는 풀밭에서 어느때든지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저녁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실은 두번이나 그 장소에 찾아왔던 처녀는 곰처럼 웅크리고앉아서 줄담배를 피워대는 황석태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다가 물러가군 했다. 먼 후날에 안해는 그때의 일을 즐겁게 회고했다. 그날 저녁 황석태는 빨래대야를 들고 처녀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처녀는 집에 혼자 있었다. 처녀는 부모들이 나타나기 전에 얼른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황석태는 기어이 언약을 받아내려고 서둘렀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무슨 결판이라도 낼상싶은 기세였다. 처녀는 문초를 당하듯이 땀을 빼고있었다. 그러는데 처녀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황석태는 그에게 넙적 엎드려 절을 하고나서 자기를 사위로 삼아달라고 주저없이 간청했다.

처녀의 아버지는 딸의 말도 들어보더니 황석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하는 꼴을 보니 네녀석이 사내는 사내다. 헌데 소뿔은 단김에 뽑지만 청혼문제는 주근주근 다루어야 하느니라.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잘 아는 사이이지만 그렇게 성급히 다그어대니 우리 애가 당황할수밖에 있느냐. 우리 애가 너와 동갑이지만 그건 상관없다. 우리 로친도 나와 같은 나이이지만 별일없이 지금껏 살아오고있다.》

황석태는 그로부터 사흘후 달밝은 밤에 처녀의 고백을 끝내 받아내고야말았다.

황석태의 불타는 열정과 완강한 의지에 처녀는 굴복하고말았던것이다. 지나치게 표현을 한다면 안해측에서 볼 때 강요된 결혼이였다고 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후날에 그는 후회하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온갖 성의를 다하여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면서 제 혼자 가정살림을 꾸려오다싶이 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정이 식어간다는것을 의식하면서도 말 한마디 없었다. 반면에 황석태는 자기의 의지에 순종하는 존재로 안해를 치부하여왔다. 그러면서도 외딴을 보지 않는 자기를 자랑으로 여겨왔었다.

《뭘 그리 생각하고있어요. 어서 식사를 하자요.》

안해의 다정한 권고에 황석태는 생각에서 깨여났다. 그는 한숨을 앞세우며 밥상머리에 앉았다. 안해가 밥상우에 덮었던 보자기를 젖히였다. 빛다른 반찬도 올랐고 맥주병도 두개나 있었다. 황석태는 안해가 따라주는 맥주를 마시였다. 그리고는 고뿌에 제 손으로 병을 기울여서 안해에게 권하였다.

《당신도 한고뿌 마시오. 나는 결혼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인격을 존중할줄 몰랐소. 당신앞에 용서를 빌고싶은것이 많소.》

《여보, 갑자기 어찌된 일이예요?》
안해는 의혹의 눈길로 남편을 주시할뿐 맥주고뿌를 받지 못했다. 선뜻 생각할수 없는 일이여서 남편의 신상에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겁질린 기색이였다. 황석태는 받쳐든 고뿌를 안해의 턱밑에 멈춘채 생각했다. 어찌된 일인가라는 안해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 그전이였다면 어떤 경우든지 안해앞에서 용서를 빌고싶은 마음이 없었을것이다. 사업상의 과오뿐아니라 자기의 인간됨됨까지를 전면적으로 랭혹히 돌이켜보는 지금에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였다.
《어서 받소. 팔 떨어지겠소.》
황석태는 회오가 짙게 어린 얼굴에 한가닥 어색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다시 권했다. 안해는 드디여 이쪽의 감정을 읽었는지 감심한 표정으로 고뿌를 받아 입술로 가져갔다. 그가 남편이 부어주는 맥주를 마셔보기는 지금이 처음일것이다. 충격이 커서인지 고뿌를 비우고난 그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슴벅였다. 안해의 눈물을 본 황석태는 저릿한 충동을 느끼며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것을 새롭게 시작하겠소!》
가슴속에 넘치는 복잡한 심정을 그 한마디에 담았다. 안해는 모든것을 리해한듯 입술을 벙싯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을 먹고난 황석태는 자기 방으로 건너가 침대에 누웠다. 안해와 마주앉은 뒤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한시간쯤 달게 오침까지 할수 있었다. 제련소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박치영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그에게는 하고싶은 말이 많았다. 그도 해당 조직에서 비판을 받았을것이다. 그렇지만 자기만이 깨우쳐줄 말이 따로 있는것이다.
침대에 걸터앉아 한동안 생각을 굴리던 황석태는 움쭉 일어나 탁자우에 놓인 송수화기를 들었다. 교환수의 챙챙한 목소리가 들리였다.
《어델 찾습니까?》
《공업시험소 분초급당을 찾소.》
황석태는 분초급당비서에게 박치영을 곧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끝낸 그는 박치영을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떠날 준

비를 갖추었다. 가족들은 후에 데려가기로 하고 자기는 오늘 당장 밤차로 떠날 결심이였다. 그는 평남도당에 가서 배치를 받기로 되여있었다. 며칠간 쉬고 가도 무방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배치지로 달려가 새로운 생활에 몸을 잠그고싶었다. 안해와 함께 큼직한 려행가방에 넣을것을 다 갖추어넣었다. 그리고나서 이제나저제나 하며 문밖을 연신 바라보았지만 저녁시간까지 박치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져보니 그를 만난지도 두주일이 넘었다. 상급당에 불리워다니며 비판을 받고 해임의 곡절을 겪다보니 그동안 그를 만나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겨를도 없었다. 그 기간에 치영이도 심각한 정신적번민을 하였을것이다.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찾은 교훈은 무엇일가? 그에게도 작별을 앞두고 나에게 터놓고싶은 심정, 하고싶은 말이 많을것이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는지 알수 없었다.

저녁을 먹고난 황석태는 안해와 함께 영림역으로 향했다. 짧은 가을해는 져버린지 오랬다. 시내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래일 낮에 떠나도 좋겠지만 남들의 눈을 피하여 밤차를 타기로 하였다. 집에 그냥 있으라고 타일렀으나 안해는 말없이 려행용가방을 들고 역까지 따라나섰다. 잘못을 저지르고 떠나가는 걸음이여서 그 누구의 눈에 띄울가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걸었다. 안해는 조금이라도 떨어질세라 곁에 바투 붙어섰다. 걸음을 맞추어 그와 나란히 얼마쯤 걸었을 때 아득히 세월을 거슬러오르며 하나의 옛 기억이 떠올랐다.

소년빨찌산투쟁을 할 때 둘은 지금처럼 밤길을 걸어서 면소재지를 다녀온 일이 있었다. 그곳에 주둔한 적들의 형편을 알아오라는 정찰임무를 받았던 걸음이였다. 만일의 경우를 예상하여 전란에 부모를 잃고 삼촌을 찾아가는 오누이로 약속을 했었다. 면소재지에 안해의 삼촌이 살고있어서 놈들에게 잡힌다 하여도 그럴듯하게 속여넘길수 있었다. 녀자의 나이가 성장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소년소녀시절이였다. 동갑이였지만 그때의 안해는 손우의 누나처럼 무모하게 덤비는 황석태를 꾸짖기도 하고 자기의 목도리를 풀어 사정없이 얼어드는 그의 귀바퀴를 싸주기도 하였다.

《여보, 당신도 기억나오? 우리가 소년빨찌산시절에 함께 정

찰을 나갔던 일 말이요.》
속삭이듯 조용히 물었다.
안해는 느닷없는 물음에 인츰 대답을 못하더니 말했다.
《생각나요.》
《왜 갑자기 그때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구만. …》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모든것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각오가 그 추억을 불러냈겠지요.》
황석태는 휙 머리를 돌려 안해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풀이를 하여주는 안해가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였다. 길가의 아빠트창가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전등빛이 안해의 얼굴에 아롱졌다. 눈귀의 잔주름과 수건밑으로 흘러내린 몇오리의 흰 머리카락이 눈에 보였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자극하였다.
《이제 내가 새 배치지에서 생활을 하느라면 뜻하지 않은 일에 부닥칠수도 있고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되는 일도 있을수 있을거요. 그럴 때마다 자기를 과신하는 덜된 성미가 드러나면 소년빨찌산시절처럼 당신이 나를 잘 깨우쳐주오.》
황석태는 이러나저러나 지금의 자기에게 안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허심히 말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러한 허심성에 스스로 놀랐다. 남다른 의지와 담력을 지녔다고 자부하여온 자기가 감상적인 기분에 젖으며 안해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할수 있다는것을 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다. 그것이 평생에 있어보지 못한 전면적이고도 심각한 자기 반성에서 오는것이였지만 그자신은 방금 안해에게 한 말을 쑥스러워하면서 가볍게 얼굴을 붉히였다. 운명의 락차곡선을 긋다보니 사람이 갑자기 인격과 긍지마저 상실한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의 감정을 오해했던것이다.
그들이 영림역에 이르렀을 때는 한창 차표를 파는중이였다. 안해가 차표를 사서 남편에게 주었다.
《참, 그속에 양영복선생을 면회하는데 들고갈것을 좀 마련해넣었소?》
황석태는 안해의 손에 들려있는 가방에 시선을 주며 물었다. 래일 아침 적십자병원을 찾아갈 생각이여서 저녁밥을 짓는 안해한테

귀띔을 했던것이다.

《가방속에 들어있는 비닐구럭이 그 선생한테 들고갈거예요. 성의껏 하느라고 했는데 변변치 못해요.》

황석태의 눈앞에는 양영복박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굽힐줄 모르고 도도하게 맞서며 안타까이 터뜨리던 울분의 밑바닥에 숭고한 지향과 과학자의 량심이 그렇게도 순결하게 불타고있는줄 왜 몰랐던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스러운 일이였던가. 래일 그를 찾아가면 엎드려 용서를 빌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과연 너그럽게 대해주겠는가? 나로 하여 그가 당한 곡절이 컸던것만큼 쌓였던 분노를 여지없이 터칠것이다. 워낙 대바르고 고집스러운 성미를 가진 로인이다. 설사 그가 아무리 아픈 말을 하여도 나는 할말이 없다. 다만 그의 건강과 과학적성과를 진심으로 빌뿐이다.

안내원처녀가 이제부터 표를 찍어드린다고 알리였다.

황석태는 안해와 함께 기다림칸을 나섰다.

이때 급히 달려온 승용차 한대가 역사앞마당에 멎었다. 차에서는 제련소 지배인이 내리였다. 등이 약간 굽을사 한 그를 알아본 황석태는 무등 반가왔다. 오전에 작별인사를 할 때에는 그와 한두마디의 말을 나누었을뿐이다. 지난 기간 사업과정에 견해의 대립과 감정의 마찰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다름아닌 지배인이였다. 작별을 하면서 그에게 심심히 사죄하고싶은것이 많았다. 그랬으나 그를 찾아갔을 때에는 행정일군들의 모임중이여서 긴말을 나눌수가 없었다. 헌데 지금 그가 역사앞에 나타난걸 보면 어데론가 출장을 떠난 걸음인것 같았다. 함께 렬차를 타고가면서 허심히 얘기를 나누게 되였으니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배인은 사방을 둘러보며 누구인가를 초조히 찾고있었다.

《지배인동무.》

황석태는 소리쳐부르며 다가갔다. 이쪽을 알아본 류명식은 말없이 마주보더니 원망을 터치였다.

《이렇게 훌 떠나는 법이 어데 있습니까? 이러나저러나 우리는 10여년간 함께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집사람에게 준비를 시켰댔습니다. 그래서 하루일을 마치고

그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애가 하는 말이 방금전에 역으로 나갔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때문에 이렇게…》

황석태는 목이 메여와서 말끝을 삼켰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지배인이 이렇게 나올줄은 몰랐다. 나때문에 그중 많이 속을 썩인 사람, 당회의들에서 나에게 주저없이 비판을 가해오던 지배인이 작별의 지금에 누구보다 뜨거운 정을 보내줄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고맙습니다.》

부지중 갈린 목소리가 입밖으로 튀여나갔다.

《내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미리 알렸어야 하는건데 여러가지 일에 다몰리다나니 깜박 잊었댔습니다. 하는수없이 차렸던것을 좀 꾸려가지고 왔습니다. 도중식사로 잡수시오.》

류명식은 처음의 노여운 기색을 가시고 이렇게 말하더니 돌아서서 운전사에게 눈짓을 하였다. 운전사가 차실에서 큼직한 구럭을 들고 나왔다. 황석태가 그것을 받아들며 감사의 정을 두번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안해가 지배인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며 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배인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해임된 뒤에야 황석태동무를 보다 깊이 리해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자기를 되돌아볼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지내보니 역시 황동무답게 자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람이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히 자기를 반성하기도 쉽지 않는 일이고 해임된 다음에 그렇게 신심과 용기를 잃지 않는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류명식이 두사람을 번갈아보며 헌헌한 표정으로 말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준절하신 비판의 말씀이 아니였다면 나는 그처럼 랭혹히 자신을 반성하지 못했을것입니다.》

황석태는 진심을 말했다. 그 누구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받았다면 어느 정도 자극을 받기는 하였겠지만 전면적으로 자기를 반성하지는 못했을것이다. 즉석에서는 형언할수없이 가슴이 아프고 지어 전률까지 느꼈지만 후에는 심각한 내부투쟁에서 자신을 극복하도록

이끌어주신 그이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에 넘치였다. 장난이 세차고 엉뚱한짓을 곧잘 하였던 황석태는 어린시절에 어머니의 속을 지지리 태워주었고 어머니로부터 종아리에 피가 지도록 매를 맞기도 하였다. 그는 최근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생각할 때마다 나쁜 버릇을 떼여주려고 아픈 매를 들던 아득한 옛 시절의 어머니모습을 련상하군 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나들문을 빠져나갔다.

《우리도 나갑시다.》

류명식이 깨우쳤다.

황석태는 그와 나란히 홈으로 나갔다. 안해가 가방과 구럭을 들고 뒤따랐다.

황석태는 류명식에게 하고싶은 말이 많았으나 시간이 없었다. 이미 홈에 들어와 서있던 렬차는 출발을 재촉하며 기적을 울리였다. 초조감에 휩싸인 황석태는 용서를 빌고싶은 심정은 가슴속에 묻어버리고 가장 긴요한 부탁만을 남기리라고 생각했다.

《지배인동무, 나를 대신해서 앞으로 양영복박사를 잘 도와주십시오. 그가 새로운 티탄합금가공법을 연구하여 성공하면 나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해에게서 가방과 구럭을 넘겨받은 황석태는 렬차의 승강대에 올랐다. 차실안으로 들어가다말고 돌아섰다. 그는 멀리 밤하늘을 불태우는 화광에 눈길을 주었다. 제련소의 여러 로들에서 솟구쳐오르는 화광이였다. 제련소는 잠들줄 모르고 창조의 불길을 거세차게 피워올리고있었다. 해놓은 일보다 하지 못한 일이 더 많은듯싶지만 아무튼 정들었던 제련소였다. 무엇보다 티탄직장에 정이 켕기였다. 제련소에 티탄합금생산설비가 갖추어진것은 최근의 일이였다. 그것은 9월제련소의 특별한 자랑이였다. 그 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티탄합금이 여러가지 형태로 가공되여 경제와 국방의 현대화에 긴요하게 쓰이는것을 보지 못하고 제련소를 떠나간다고 생각하니 발길이 선뜻 돌아서지 않았다.

## 2

황석태는 차표를 사들고 역사밖으로 나왔다. 오늘 새벽에 평양에 도착한 그는 시내에서 볼 일을 보고 오후에 평성쪽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려고 다시 평양역으로 나왔던것이다. 역사의 시계탑을 쳐다보니 차가 떠날 때까지는 한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그는 역전광장끝에 잇달린 공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공원변두리의 장의자 한귀에 자리를 잡고 담배를 피워무는데 느닷없이 호각소리가 길게 울리였다. 가볍게 놀라며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였다. 거리복판에 서있는 교통안전원처녀가 입에 호각을 물고 지휘봉을 높이 쳐든채 움직일줄 몰랐다. 달려오던 차들이 일제히 멎어섰다. 긴장한 시선으로 거리의 이쪽저쪽을 살폈다. 사방으로 뻗은 도로로 학생들이 붉은넥타이를 날리며 행진해왔다. 손마다 꽃다발을 들었다. 백화점쪽의 통로에는 학생취주악대가 나팔을 불며 나타났다. 학생들은 모두 광장으로 들어서고있었다.

황석태는 눈을 슴벅이며 곁에 앉은 웬 중년사나이에게 물었다.

《무슨 행사가 있는가요?》

《국제수학올림픽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환영식이 있답니다.》

《그렇구만!》

이런 경사를 보게 될줄이야. 우리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은 며칠전의 신문에서 읽었다. 황석태는 그 성과가 얼마나 크게 세계를 경탄시켰는가를 알고있었다.

《조선학생의 첫 금메달》

《민족의 재능을 꽃피우는 조선의 정치리념》

《예상을 뒤집은 경이적인 사변》

세계의 보도계는 각이한 제목을 달고 뛰여난 인재를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여기시는 현대의 정치가로 **김정일**동지를 칭송했으며 조선의 과학후비가 믿음직하게 자란다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신

문에 실린 세계의 반향을 읽으면서 가슴속에 차오르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누를길 없었는데 다행히도 조국으로 돌아온 그 학생들을 직접 보게 된것이다. 무엇인가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리번거리던 그는 급히 꽃방으로 가서 소담스러운 꽃 한송이를 사들고 돌아왔다. 그사이 광장에는 학생들이 빼곡이 들어섰다. 그들의 좌측에는 어른들이 렬을 맞추어 진을 쳤다. 맨앞에 림수봉이 서있는것으로 보아 과학자대렬이 분명했다. 잠시후 환영곡이 높이 울리면서 역사의 정문이 열리였다. 단정한 차림에 자그마한 트렁크를 든 여섯명의 학생과 녀교원이 나왔다. 저들이 바로 그 학생들이고 그들을 키워낸 교원이구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꽃보라가 날리였다. 뒤전에서 목을 뽑아들고 키돋움을 하던 황석태는 또 한번 놀랐다. 어데서 나타났는지 양영복박사가 맨앞에 선 학생에게 꽃다발을 안기고있었다. 우리 과학의 로세대를 대표하여 보내는 축하의 꽃다발일것이다. 황석태는 오전에 적십자병원을 찾아갔었다. 양영복을 만나서 용서도 빌고 병문안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헛걸음이였다. 접수실에 들리니 양영복은 어저께 퇴원을 하였다고 하였다. 오늘의 행사가 있기때문에 서둘러 퇴원한것이 아니였을가? 여기서 그를 보게 되니 그런 생각이 피끗 떠올랐다. 거리가 멀어서 학생의 잔등을 쓰다듬으며 무슨 말인가를 하는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표정도 가려볼수 없었다. 하지만 남다른 감격에 휩싸여있을 그의 심정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새로운 발명으로 세계과학을 압도하려는 그의 지향과 세상을 놀래운 학생들의 성과는 그 의미가 하나로 통하고있다. 양영복박사는 이 시각 자기의 연구사업에 신심을 가지는 동시에 우리 과학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며 흥분할것이다.

환영식이 선포되자 과학원 림수봉부원장이 마이크앞에 나섰다. 그는 원고도 없이 목메인 목소리로 축하연설을 하였다.

《…우리 과학의 자랑스러운 후비들은 국제수학올림픽에 처음 참가했지만 전례를 깨뜨리고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방청으로 참가해서 경험을 쌓고서야 정식 경연에 참가하며 정식 경연에 처음 참가해서는 례외없이 뒤떨어진 순위를 차지하는것이 국제수학올림픽의 전례였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남들이 걸어간 그 순차와

단계를 뛰여넘었습니다. 이들의 성과는 우리 기성세대 과학자들로 하여금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순차와 단계를 비약할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가 가까운 앞날에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수준에 오를수 있다는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인민의 창조적지혜가 찬란히 꽃피고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과학자, 기술자 여러분!

과학으로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칠것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대들앞에 맹세합시다!》

과학자대렬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올랐다. 황석태도 저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 박수를 쳤다. 불현듯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찌하여 우리 민족의 뛰여난 재능, 우리 과학자들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가고 준절히 깨우쳐주시던 말씀이 귀가에 쟁쟁히 되살아났다. 오늘 눈앞에서 보게 된 경사로운 사실이 그 말씀의 정당성을 증명해보이고있다. 민족의 영예를 세계에 떨치고 돌아왔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게 하였다는 의미에서 금메달을 받은 학생을 마음속으로 뜨겁게 포옹해주고싶었다. 행사가 끝나자 황석태는 뒤설레는 사람들의 사품속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때늦게나마 그 학생에게 꽃송이를 안겨주어야 했다. 하지만 도중에서 멈춰섰다. 금메달을 받은 학생과 녀교원은 무개차에 오르고있었다. 황석태는 환영식에 이어 연도환영이 계속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촬영가들은 역사옆에 서있던 승용차들에 올랐다. 무개차를 앞세우고 승용차행렬이 떠났다. 역전백화점 뒤길 량옆에 늘어선 학생들과 스스로 떨쳐나선 군중들이 꽃다발을 흔들며 환호했다. 그러한 연도환영이 어디까지 펼쳐지는지 알수 없었다.

황석태는 혹시 양영복과 림수봉이라도 만날가 하여 사위를 살피였다. 서로 다른 사죄의 심정을 터놓고싶은 두사람이다. 하지만 어느새 사라졌는지 그들도 보이지 않았다.

황석태는 역사앞 화강석층계에 올라서 환호성이 점점 멀어져가는 천리마거리쪽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손에는 뜻을 이루지 못한 꽃송

이가 그대로 쥐여져있었다. 그사이 렬차시간도 놓쳐버렸다.
그랬으나 환영식에서 받아안은 감동의 여운에 그의 가슴은 여전히 높뛰고있었다.

×

어데서나 국제수학올림픽에서 돌아온 학생들의 이야기가 벌어졌다. 뻐스정류소와 리발소들에서도 연도환영의 전경과 박상수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중환은 집을 향해 천리마거리를 걷고있었다. 바로 이 거리로 국제수학올림픽에서 돌아온 학생들과 그들을 데리고 갔던 정금화가 꽃물결을 누비며 지나갔다. 공식석상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오전에 벌어진 그 행사를 고중환이 직접 조직했다. 그는 뻐스정류소와 식당들에서 울려나오는 기쁨과 찬양에 넘친 목소리들을 들으며 오늘의 행사가 사람들에게 준 감동의 크기를 현실로 보는듯싶었다. 동시에 심한 자책감을 느끼였다. 여차했으면 자기로 하여 사람들에게 그처럼 충격을 안겨준 오늘의 경사가 없을번 하였다. 우리 학생들을 정식 경연에 참가시키면 어차피 실패를 가져올것이라고 주장했던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수 없었다. 방청으로 참가해서 경험을 쌓기 전에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흥성거리는 사람들앞에서 버젓이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저 사람들이 만일 그 사연을 안다면 나를 얼마나 비난할것인가? 오늘의 경사는 지난날의 나의 관점과 일본새가 얼마나 잘못된것인가를 증명해보이고있다. 엄연한 현실이 나의 얄팍한 심장과 비좁은 시야를 거울로 비쳐내듯이 선명히 드러냈다. 현실적인 결과로 증명되는 사실앞에서는 자신을 합리화할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 나의 그릇된 견해대로 되였다면 민족의 영예를 떨칠수 있는 오늘의 기회를 잃어버렸을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였다면 그것이 우리 인민과 청소년들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였을가? 아찔하게 내려다보이는 낭끝에 섰던 자신을 되돌아보는듯 한 공포와 전률이 전신을 줄달음쳤다. 친히 1중학교에 나가시여 학생들의 실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국제수학올림픽에 그들을 출전시킬 결심

을 내리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오늘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이의 그 결심이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에게는 오늘의 경사를 가져다주었지만 나 개인으로 보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번 하였던 이 몸을 바로세워준셈이다. 언제면 그이의 위대한 심장과 정확한 안목을 따라배울수 있을가? 언제면 그이의 높으신 뜻을 유감없이 따르는 일군이 될수 있을가?…

《아버지!》

리발소옆의 보도를 걷는데 딸애의 부름소리가 들리였다. 머리를 들어보니 향미가 네거리교차점의 공중전화소옆에 서있었다. 점심시간이면 전에도 이 장소에서 딸애와 종종 만나군 하였다. 그 애의 학교가 길건너에 있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칠가봐 겁났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나요?》

향미는 눈을 깜박이며 사뭇 근심스레 물었다. 먼발치에서부터 이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본 모양이다. 고중환은 어설피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너도 연도환영에 나왔댔느냐?》

향미의 손에 빨간 꽃다발이 쥐여져있었다.

《나왔댔어요. 정말 굉장했어요.》

잠시 서있던 고중환은 딸애를 데리고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였다.

《나도 1중학교에 다닌다면 앞으로 국제수학올림픽에 나갈는지도 몰라. …》

향미가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고중환은 두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바라보는 딸애의 얼굴에 아쉬운 그늘이 어리는것을 보았다. 순간 그 애의 순진한 가슴에 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상처를 남긴듯 한 괴로움이 명치끝을 아릿하게 자극해왔다.

향미는 응당 1중학교에 다닐수 있었던것을 그만 예상치 않았던 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입학시험이 한창 벌어지던무렵이였다. 향미는 구역과 시

에서 조직하는 선발시험들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은 소학교 졸업생들중에서 선발하기도 하고 중등반 3학년에서 선발하기도 하였다. 향미는 중등반 3학년에서 선발시험에 응시하였다. 두 단계의 시험을 거치고 마지막 최종시험을 앞둔 며칠전에 고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형님이 집에 들리였다. 형님에게는 향미와 동갑인 막내아들이 있었다. 그 애도 군적인 선발시험을 통과했는데 도적인 선발시험에서 딱 한점이 모자라서 락선되였다고 했다. 저녁상을 물리고났을 때 형님은 간절히 부탁했다.

《우리 녀석이 합격이 되도록 자네가 도당에 말을 좀 해주게. 자네의 전화 한통이면 알아볼걸세. 그렇게 되면 그들이 모르쇠를 하지 못할걸세.》

고중환은 얼른 대답을 못했다. 거절하기도 딱하였고 그렇다고 들어줄수도 없었다. 자신이 늘 해당 일군들에게 높은 당적원칙을 가지고 학생선발에서 불순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여왔다. 그런데 시험에서 락선된 조카를 입학시키려고 뒤골목공작을 할수야 없지 않는가? 학생선발에서 표현되는 부정은 다른 사업의 부정적현상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것이다. 학생선발에서 원칙과 공정성이 뒤흔들린다면 조국의 장래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되는것이다. 고중환은 한껏 미안한 표정으로 그 부탁만은 들어줄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형님은 어성을 높였다.

《이제 이 집 향미는 1중학교에 보낼테지. 한발 먼 조카애는 외면하겠지만 제 딸이야 무관심할턱이 없겠지. 내 두고보겠네.》

《두고보십시오. 나는 제 자식의 일이라도 절대로 직권을 람용하지 않습니다!》

고중환은 처음으로 말마디에 힘을 주었다.

《자네야 딸때문에 직접 나서서 춤을 출 필요도 없겠지. 아무개 딸이라는걸 알면 밑에 사람들이 어련히 입학을 시켜줄테니까.》

돌아앉은채로 비웃듯이 내뱉는 형님의 말이 자극적으로 안겨왔다. 만일 향미가 1중학교에 입학을 한다면 자기가 어떤 모습으

로 남들의 눈에 비낄것인가를 비로소 깨닫는듯 하였다. 고중환은 예견치 않았던 무거운 도덕적감정에 짓눌리며 결연히 말했다.

《향미가 시적인 선발시험에서 합격되였지만 1중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만 똑똑하면 일반중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대학에 갈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향미는 일반중학교에 그냥 남아있게 되였다.

1중학교를 그리도 동경했던 향미는 그후 그 학교의 교재들을 빌려다가 틈틈이 공부를 했다. 같은 학년이라도 1중학교는 일반중학교보다 교재내용의 수준이 한계단 높았던것이다. …

《난 오늘 무개차에 서있는 학생들보다 수학선생님에게 더 열렬한 축하를 보냈어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학실력이 높은건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기때문이예요.》

향미는 명랑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따금 그 학교를 찾아가면 너에게도 수학문제풀이를 친절히 가르치군 한다던 교원이 바로 그 선생이였느냐?》

고중환은 피끗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따르며 물었다. 향미는 다른 학교의 학생인 자기에게도 친절히 가르쳐주는 녀교원을 두고 이야기한적이 있었다.

《그래요!》

향미는 기쁨에 넘쳐 대답했다. 국제수학올림픽우승자를 키워낸 교원에게서 자기도 이따금 개별지도를 받는다는것이 무등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그 선생이 네가 누구의 딸이라는것을 알고있느냐?》

《몰라요. 언젠가 아버지가 뭘 하느냐고 묻기에 로동자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니?》

짐작이 가는 일이였지만 그렇게 물었다.

《아버지가 높은 간부라고 선생님앞에서 은근히 우쭐대는 학생들을 난 미워해요.》

고중환은 눈앞에 정금화의 모습이 떠올랐다. 국제수학올림픽참가문제를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왔다가 실망과 원망을 안고 돌아

가던 모습이였다. 향미와의 관계를 진작 알았다면 그날에 달리 대하여줄수 있지 않았을가? 정식 경연에 참가할것을 간절히 바라던 심정을 따르지는 않는다 하여도 보다 친절히 대해주었을것이다. 이제 그 학교에 나가 정금화를 다시 만나면 그의 청원을 무참히 거절했던 사실을 사과하고 때늦게나마 학부형으로서의 인사도 차릴것이다.

고중환은 보통문너머 평양제1중학교쪽을 바라보며 향미에게 말했다.

《정금화선생은 참으로 훌륭한 교육자이다!》

## 3

《9월제련소에서 요란스레 떠들며 설치했던 티탄합금압축가공설비가 무용지물로 되였다는 소식을 들었나?》

저녁상을 물리고난 강서원은 담배를 붙이며 사위에게 넌지시 물었다.

《들었습니다.》

석홍범은 장인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였다.

오늘 낮에 장인은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서 평성에서 저녁차로 왔다. 물론 장인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9월제련소의 일과 관련하여 부르지는 않았을것이다. 한데 그 이야기부터 꼭지를 떼는것이 자못 의아스러웠다.

《압착가공설비문제가 론의될 때 나는 완강히 반대를 하였네. 그때 만일 허위적인 성공에 유혹되였던 제련소일군들의 장단에 나도 춤을 추었다면 이번에 어쩔번 했겠나? 숱한 자재와 자금을 결재해서 내려보내주었다면 큰 과오를 범하였을거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곳 당비서는 해임되고 지배인은 행정처벌을 받았네. 당비서는 그렇다치고 지배인은 과학기술도 모르지 않고 사리에도 밝은 사람인데 휘말려들었거던. 내 그만큼 타일렀는데도 압착가공설비를 지지하더니 지배인까지 재미없이 되였네. 9월제련소의 이

번 사건은 여러가지로 심각한 교훈을 남겼네.》
장인은 그 교훈을 되새겨보듯 혈색좋은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그리였다. 그는 그 사건에서 일군들이 서뿔리 과학기술사업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찾은것이 분명했다. 물론 비로소 찾은것이 아니고 이미전부터 가지고있던 그러한 견해가 확고해졌을것이다. 하나의 사건에도 매개 사람들이 찾는 교훈이 엄청나게 다르다는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장인은 담배를 깊숙이 한모금 빨아서 천천히 내불더니 이렇게 물었다.
《자네 박치영이라는 젊은이를 알고있나?》
《만나본 일은 없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양명심을 통해 박치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있었다.
《내 그저께 9월제련소에 내려갔댔는데 그가 공업시험소에서 쫓겨나 부업농장으로 갔더군. 이제는 모두들 그 사람을 몹쓸놈으로 몰아붙인다네.》
《실패도 실패지만 개인의 명예를 위해 남의 나라것을 손쉽게 흉내내면서 줄타기를 했다고 그러겠지요.》
《아무튼 그는 헛된 열망에 사로잡혔다가 신세를 망쳤네. 내가 알기엔 그 사람도 자네처럼 머리가 총명한 젊은이였다네. 그가 만일 다른 일에 그렇게 열정을 바쳤다면 성공을 하면 하였지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거네. 과학연구란 성공의 확률이 매우 적은 일종의 투기라고 할수 있네. 나는 그 사람의 경우를 놓고 자네를 생각했네. 장차로 자네 역시 박치영이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겠는지 걱정되더란 말일세.》
《그때문에 저를 불렀습니까?》
석홍범은 박치영이한테 자기를 견주어보는 장인의 말에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공손히 물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처가였다. 만나자바람으로 장인에게 불쾌감을 드러낼수 없었다. 안해는 사흘이 멀다하게 친정을 다녀가지만 석홍범은 좀처럼 발길을 아니했다. 온 집안의 만류를 뿌리치고 과학원으로 떠나버렸기때문에 문턱을 넘어서기가 서슴어졌던것이다. 그래도 전에는 인민

대학습당에 왔다가 가끔 들린적이 있으나 최근 반년동안은 별로 와본적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고 새롭게 연구사업을 시작한 때부터는 다른 이외의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야말로 온넋을 기본작업, 시린다제작에 바쳐왔다. 다른 나라에서처럼 바킹을 쓰는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기밀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갈래로 환상을 펼치고 가설을 세워보았다. 안해와 동료들은 휴식을 권고했다. 석홍범자신도 몇달이 지나자 몸이 쇠약해진다는것을 느꼈다. 그는 이따금 연구실에서 뛰쳐나와 공원을 거닐며 산보를 하였다. 어떤 날에는 잠을 푹 자보려고 저녁 일찌기 잠자리에 눕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것이 허사였다. 산보를 해도 잠을 자도 도저히 사색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무엇인가 좀더 노력을 경주하면 기밀방법의 실머리가 잡힐듯 한 유혹이 또다시 머리속에 스며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접견을 받은 그날부터 지속되여온 앙양된 탐구욕은 그를 창조적환상과 가설의 집요한 추구에로 쉼없이 다몰아갔다. 그것은 자신으로서도 어찌할수 없는 내부적인 충동이였다. 석홍범은 그전에 공부에 전심하며 밤을 밝힌적도 많았고 연구사업에 열중하여 주위세계를 망각해버렸던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사에 자기를 복종시킬수 있었다. 휴식을 하고싶으면 휴식을 할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달동안은 마치 알수 없는 그 어떤 힘에 자신이 지배되는것처럼 스스로도 억제할수 없는 탐구의 열정에 포로되여있었다. 전차를 타고가다가 내려야 할 정류소를 놓쳐버리기도 하였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허공에 멈춘채 생각에 빠져버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반년가까이 지내던 끝에 며칠전에는 마침내 기밀방법의 실머리를 잡았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환희가 온몸을 휩쌌다. 하지만 과학연구과정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의미하지만 주관적인 확신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는 법이다. 석홍범은 연구소의 여러 사람과 토론을 하여보았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착상이라고 환성을 올렸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머리를 저었다. 류체공학의 권위자인 대학시절 강좌장의 의견을 듣고싶었다. 그래서 평양으로 올라오려던차에 장인의 전

화를 받았던것이다. 무슨 일로 장인이 급히 찾았을가? 의혹을 가지고 처가에 들렸는데 장인은 9월제련소에서 벌어진 일을 거들면서 박치영의 경우를 미루어 사위의 장래를 걱정하고있었다.

《박치영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지 말게. 젊은 혈기에 명성을 떨쳐보려고 서뿔리 과학에 발을 잠그었다가 신세를 망친 일은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네.》

강서원은 얼굴을 가리우는 담배연기를 손을 저어 흩날려버렸다. 심심한 우려가 비낀 그의 표정이 선명히 드러났다.

부엌에서 그동안 저녁설겆이를 끝낸 장모가 방안에 올라왔다. 치마폭을 감싸며 자리에 앉은 그는 오가는 대화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남편과 사위를 번갈아보았다.

강서원은 가느스름히 쪼프렸던 눈을 벌려뜨며 말머리를 돌렸다.

《자네를 부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금속공업부 무역회사 해외출장소에 파견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가 제기되였기때문일세. 내 생각엔 그 책임자로 자네이상 적임자가 없다고 보네.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지만 튕겨보면 해외에 나가 활동할수 있는 무역일군으로 갖추어야 할것을 다 갖추지 못했단 말일세. 국제시장의 추세와 전망을 예민하게 판단하고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자면 명민한 두뇌와 능란한 외국어실력은 물론 과학기술지식을 갖추고있어야 하네. 헌데 자네는 그 모든것을 다 갖추고있다고 할수 있네. 그래서 내 민옥이를 통해 의향을 말했던바가 있네. 민옥이의 말을 들으니 처음에는 자네가 들을만 해하더니 후에는 그런 말을 비치지도 못하게 했다더군. 하지만 자네의 소견을 직접 들어보고싶어서 불렀네.》

시선을 떨구고 생각에 잠겼던 석홍범은 나직이 대답했다.

《때가 늦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에서 하는 말인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과학사업을 줴버리고 그 유혹적인 직업을 택해볼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연구사업이 좌절되였을 때 저는 고민과 허탈에 빠져서 평양을 떠나 평성으로 나간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간곡하신 가르치심을 받은 다음부

터는 과학을 가지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에 끝까지 기여하리라는 결심을 확고히 가졌습니다.》

석홍범은 장인이 자기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여주기를 바라며 절절히 말하였다. 되도록이면 감정의 마찰이 없기를 원하였다. 보건대 장인도 여러가지로 깊이 생각던 끝에 무역일군이 되라고 권고를 하는것이 분명했다. 정작 하고싶은 그 권고를 뒤로 미루고 실패한 9월제련소의 가공설비이야기를 꺼낸것만 봐도 그것을 알수 있다. 지금 듣고보니 그 이야기는 사위를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제였다.

《심각한 비판의 말씀을 자네가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네. 한데 생각해보게. 자네가 새로운 방법으로 초고압유압프레스를 만들어보려다가 실패를 한다면 두번다시 그이께 커다란 심려를 드리는게 아니겠나. …

당에 보답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길은 과학연구만이 아니네. 대외무역을 잘해서 한푼의 외화라도 더 벌어들인다면 그것 역시 보답의 길이고 애국의 길이네. 당에서도 지금 무역제일주의구호를 제기하고있지 않나. 대외무역을 발전시켜야 나라의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네.》

《아버님.》

석홍범은 한껏 량해를 구하는 눈길로 장인을 바라보았다. 어느 분야의 사업이 더 중요한가 하는 론의는 하등의 의의가 없었다. 서로 부인할수 없는 제나름의 론리가 있을것이다. 도저히 합의에 도달할수 없는 이야기를 어서 끝장내고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저의 일을 두고 그토록 마음을 쓰시는 아버님의 심정이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과학을 저버릴수 없습니다. 아버님은 방금 제가 연구사업에서 실패를 면치 못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두번다시 걱정을 끼치게 될 경우를 말씀했는데 저 역시 그런 경우를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다. 설사 성공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이께서 밝혀주신 탐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실패는 하였어도 내 조국의 번영을 위해 자기의 지혜를 깡그리 바쳐왔다는 자부심만은 지닐수 있기때문입니다.》

강서원은 사위의 얼굴에 견결한 빛이 어리는것을 보았다.

《자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나는 더 권고하지 않겠네.》
그는 움쭉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아니, 이 사람.》
장모가 사위의 무릎을 치며 실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모두 해외출장소 책임자자리를 타고앉지 못해하는데 자네는 왜 마다하나? 자네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일세. 나이가 나이인것만큼 령감은 한두해안으로 자리를 내놓게 될거네. 늙으면 자식의 신세를 지기마련이지. 자네 일이자 곧 우리 일이야. 그래서 령감도 체면을 무릅쓰고 어떻게 하나 자네를 해외출장소 책임자자리에 앉히자고 하는거야. 제발 생각을 달리하게.》
장모는 간절히 애원했다. 모처럼 차례진 행운의 기회를 놓치는 아쉬움이 너무도 커서 금시 눈물이라도 머금을상싶었다.
석홍범은 응대를 못했다. 장모의 솔직한 리기심을 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최근년간 어떤 일군들은 자식들을 먹을알이 있는 자리에 밀어넣기 위해 자기의 직권을 교묘하게 써먹고있다. 나라야 어찌되든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 제 혼자 잘살기를 꾀하는것은 혹심한 리기주의이다. 그것은 나라와 인민에 대한 배신이고 뜻과 의리에 살줄 알아야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한 리기주의를 다른 사람이 아닌 처부모들에게서 보게 될줄이야. 자식의 눈으로 차마 보아서는 안될 부모의 추한 몰골을 보았을 때처럼 격분보다 수치감이 앞서는 말 못할 심정이였다.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장모에게서 얼른 시선을 돌리였다. 장인은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교하려 했지만 그도 장모처럼 속물적인 리기심에서 출발한것이 아닐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으나 곧 부인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기가 두려웠다. 금속공업부 부부장인 장인은 우리 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을 책임진 일군이다. 그러한 일군까지 나라보다 먼저 제 살 궁냥을 앞세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코 그럴수 없었다. 책임적인 직분도 직분이려니와 그의 인격이 그렇게 속물적으로 형성되여있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침중한 상념에 싸여있는데 장모가 정신을 차리라는듯이 무릎을 흔들었다.
《이 사람, 왜 말이 없나?》

《어머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석홍범은 한숨속에 대답했다. 장모의 얼굴에 노여움과 실망이 짙게 서리였다.
난색을 지어보이던 석홍범은 밤 편히 쉬라는 인사를 남기고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이 집을 떠난지 여러해가 되지만 묵고갈 때마다 과학원으로 나가기 전에 자기네 부부가 살던 방에서 자군 하였다.
방안에 들어선 그는 전등을 켜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한동안 옛 모습그대로인 방안의 전경을 둘러보며 멍하니 앉아있었다. 책상우에는 큼직한 밤색가방이 놓여있었다. 평성에서 들고온것이다. 가방에는 처가에 들고오는 술병과 안해가 꾸려준것이 들어있었다. 저녁식사전에 꺼내놓아야 하는것인데 그만 망각해버렸다는것을 깨달았다. 최근에는 사사로운 일을 망각해버릴 때가 많았다. 이제라도 장모에게 술병과 꾸레미를 내다줄가 하고 생각하다가 그만두었다. 래일 아침 식사전에 내놓아도 무방할것이다.
그는 학습장과 도면을 책상우에 꺼내놓았다. 새로운 기밀장치의 원리를 기록한 학습장과 그 모형을 상상속에 그려본 도면이였다. 래일 옛 스승앞에서 조리있게 설명을 하자면 다시한번 더듬어보는것이 필요했다. 시험을 앞둔 학생과도 같은 심정이였다. 처부모들과 마주앉았을 때의 불쾌하고 딱하던 기분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진지하게 자기의 구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학습장에 기록한 한줄한줄의 설명문과 류체력학의 수식들은 참으로 피나는 탐구의 노력끝에 얻어진것이였다. 시야에 안겨오는 낯익은 글자들은 마치 자기 육체의 세포들처럼 소중하게 여겨졌다.

## 4

석홍범은 이튿날 아침 처가를 나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아갔다.
대학에 이른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청사정면을 바라보았다. 과학과 기술을 배워주고 청춘의 푸른 꿈을 키워준 정다운 모교였다. 유정한 감회가 가슴에 서리였다. 그는 접수실로 갔다. 접수실은 도

로쪽에 바투 나앉은 본청사의 왼쪽울타리와 잇닿아있었다. 접수실에는 낯모를 젊은 교원이 앉아있었다. 그는 류체력학강좌에 전화를 걸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류체력학강좌장선생은 방금 첫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중에 강의가 다 물려있어서 그 선생을 만나자면 오후에 다시 와야 할것 같습니다.》

초조한 기대를 안고 모처럼 찾아왔던 석홍범은 허전한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처가로 가려다가 생각을 달리했다.

《그렇다면 오전에 대학구내도 돌아보고 다른 선생님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8년전에 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석홍범은 대학구내에 들어섰다. 구내길 초입에 가로지른 커다란 구호판들이 눈에 뜨이자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붉은색바탕에 흰색으로 씌여진 커다란 글자들이 가슴에 안겨왔다. 동시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로부터 준절하신 깨우침을 받던 그 순간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석홍범은 평성시 여러 학교들의 정문에서도 그 구호를 보았다. 그 앞을 무심히 지날수가 없었었다. 그러나 지금 모교에서 그 구호를 보게 되니 더욱 생각이 깊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입속으로 조용히 다시 외워보았다. 그럴수만 있다면 멀리 과거로 되돌아가 그 구호를 아침저녁으로 되새겨보며 이 교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싶었다.

등뒤에서 갑자기 자동차경적소리가 울리였다. 그제서야 구내길복판에 서있다는것을 깨달았다. 황황히 옆으로 비껴섰다. 적재함우에 책을 가득 싣고 그물을 씌운 화물자동차가 바람을 끼얹으며 휙 지나갔다.

석홍범은 대형구호앞을 떠나 걸음을 옮겼다. 정문에서 뻗어오던 구내길이 교정의 복판에 이르자 여러갈래로 갈라졌다. 본청사의 후면에 솟아있는 크고작은 건물들로 통하는 길이였다. 대동강쪽으로는 여러동의 새로운 건물들이 일떠서고있었다. 대학의 규모가 커지

면서 한창 건설이 진행되고있었다. 건설장을 제외한 교정의 전경은 낯익은것이였다. 추억깊은 교정의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학창시절과 다시 상봉을 하는듯 했다. 그는 류체력학강좌장실에 들리였다. 낮모를 몇명의 신임교원들을 내여놓고는 모두가 옛 스승들이였다.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추억깊은 회고담들을 나누었다.

그는 오후에 강좌장과 마주앉았다. 강좌장은 체소하고 강말라보이던 로인이여서 그사이 별로 늙은것 같지 않았다. 꼬리가 약간 들릴사 한 작은 눈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정기가 흘렀다. 다만 머리카락이 더 희여졌을뿐이였다.

《어서 앉게. 참 오래간만일세.》

반겨맞는 스승의 미소어린 얼굴을 바라보면서 종종 찾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했다. 그가 첫 강의에서 첨단유압기술의 점령에로 학생들을 호소하던 일이며 졸업론문변론장에서 초고압유압프레스에 대한 석홍범학생의 론문이 매우 훌륭하다고 치하를 하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가 아니였다면 오늘의 자기도 없었을것이다.

《선생님, 때늦게 찾아뵙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다 제일이 바쁘니까 모교에 찾아오기가 쉽지 않지. 그래 어떻게 왔나?》

《선생님의 학술적지도를 받아야 할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석홍범은 어줍게 웃으며 얼굴을 붉히였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찾아온것이 죄스러웠던것이다. 그러나 강좌장은 그 솔직한 말이 더없이 반가운듯 눈을 쪼프리며 대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학술적문제를 가지고 찾아주는건 고마운 일이지.》

그는 역시 교육자였다. 학술적문제를 가지고 찾아준것을 진정으로 고맙게 여기며 교육자의 긍지를 느끼고있었다.

석홍범은 간밤에 다시 검토해본 학습장과 도면을 꺼내놓았다. 그는 자기의 연구사업과정을 간단히 이야기하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기본작업시린다의 기밀방법을 새롭게 시도해봤습니다. 작업압력에 추종하여 바킹에 기밀압을 조성해주는 새로운 기밀구조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강좌장은 어정쩡해하는 낯빛이였다. 류체공학의 권위자이지만 유압기구에서 그런 기밀구조를 생각해본 일이 없었던것이다. 지금까지 알고있는 모든 유압기구들의 기밀은 전적으로 바킹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공인되여왔다.

석홍범은 도면을 짚어가며 설명했다.

《이게 바로 제가 구상해본 유압뽐프의 단면도입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싶이 련속식초고압증압뽐프가 동작할 때 내부의 기름압력은 2 000기압에 이릅니다. 이때 뽐프의 기밀부에 그 압력으로 바킹에 기밀압을 조성해주면 어떤 조건에서도 기름이 슴새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좌장은 여전히 침묵했다. 돋보기를 끼고 도면을 유심히 살필뿐이였다. 최고전문가인 그의 눈으로 볼 때 리해하지 못할것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잠시후에는 도면에서 시선을 들고 석홍범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낯선 사람을 처음 대하는듯 한 의혹질은 눈빛이였다. 한껏 가슴을 조이던 석홍범은 그 눈빛을 감당할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였다.

《제가 엉터리없는 엉뚱한 생각을 했나봅니다.》

맥풀린 어조로 중얼거리던 그는 툭 어깨를 치는 충격에 놀라 번쩍 머리를 들었다. 강좌장이 어깨를 두드린것이였다.

《이 사람, 놀랍네, 놀라워!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대담하고 기발한 착상일세.》

석홍범은 북받치는 기쁨으로 숨이 막혀오면서 가슴이 터질듯 했다.

《선생님, 실지로 가능할가요?》

《십분 가능하다고 생각되네. 물론 필요한 공기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뽐프의 피스톤이나 본체의 구조를 특수하게 설계해야 하고 내압과 외압의 자동조절을 위한 기술공학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큰것이 아니네. 중요한것은 내압에 비한 외압의 증폭으로 기밀을 보장하려는 자네의 그 독창적인 시도이네. 부차적인것들은 이제 연구를 거듭하면 해결될걸세.》

《그렇다면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석홍범은 환희에 넘쳐 응대했다. 강좌장은 일순 석홍범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는 이쪽의 얼굴에서 새삼스레 그 무엇을 찾기라도 하려는것 같았다.

《자네가 대학시절에 공부를 잘한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네. 그러나 그처럼 놀라운 과학적구상을 해내리라고는 생각질 못했네. 오늘의 세계가 도달한 유압기술을 초월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솔직히 말해보게, 어떻게 그런 구상을 하게 되였나?》

의혹과 경탄이 엇갈리는 표정으로 물었다. 석홍범은 얼른 대답을 못했다. 그런 질문을 받고보니 자랑스러운 대답에 앞서 부끄러운 과거를 옛 스승앞에 실토해야 했다.

《선생님, 저도 한때 기밀방법은 전적으로 바킹에 의존하는것외 다른 방법이 있을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하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앞선 나라들의 방법대로 초고압유압프레스를 만들어보려다가 보장되지 않는 특수재료때문에 연구사업이 장벽에 부닥쳤던 일이며 그때문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뒤떨어진 조국의 공업기술을 통탄하던 나머지 다른 나라 과학자들을 부러워했던 일들을 숨김없이 고백했다. 그리고 과학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로부터 준절하신 깨우침을 받던 그 잊을수 없는 사연을 이야기했다.

강좌장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감격을 터치듯 빠른 어조로 말했다.

《자네 말을 듣고보니 그이를 스승으로 모시고있는 우리 과학자들의 신념속에 얼마나 진실한 생활적감정이 깔려있는가를 더욱 실감하게 되네.》

《그렇습니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기밀구조를 대담하게 구상할수 있도록 저의 심장속에 과학의 참된 리념과 담력을 심어주시였습니다.》

《자네는 방금전에 그 리념과 담력을 지니지 못했던탓으로 범하였던 실패와 과오를 실토하면서 면목이 없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내가 오히려 더 부끄러웠네. 내가 자네들을 학창시절에 옳게 이끌어주지 못했네. 나는 대학정문에 나붙은 그 구호를 보면서 생각이 많았지만 거기에 그런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줄은 몰랐네. 진작 알았다면 충격이 더욱 컸을것이네.》

석홍범은 스승의 얼굴에 회오의 빛이 떠오르는것을 보았다. 오래전에 졸업한 제자의 과오에서 그가 자신을 뉘우칠줄은 몰랐다. 교육자의 심정이란 저런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스승이 더 돋보였다. 옛 스승이 이 순간에 깊이 느끼는 자기 반성에 비해볼 때 자기는 과학자로서 아직 너무도 준비되지 못했다.

《자네가 오늘 나를 찾아주길 정말 잘했네.》

강좌장은 어느새 밝은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 조선의 과학자가 서야할 옳바른 립각점에 튼튼히 서서 새롭게 연구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자네의 독창적인 구상은 더욱 뜻이 깊다고 여겨지네. 기어이 성공을 하게. 헌데 내가 보기엔 그 기밀방법에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네.》

《기탄없이 부족점들을 지적해주십시오.》

석홍범은 의자를 옮겨서 강좌장옆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우선 고압상태에서 기름과 공기의 물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네.》

이렇게 꾝지를 뗀 강좌장은 부족점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석홍범은 학습장에 요점들을 적으면서 주의깊게 들었다. 그러다가는 연구과정에 스스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묻기도 하였다. 학술론담이 깊어지자 그들은 다같이 거기에 심취되여버렸다.

강좌장은 전에없이 흥분하며 하나라도 더 깨우쳐주려고 했으며 석홍범은 기회를 놓칠세라 연방 질문을 했다. 활기를 띤 대화에 시간가는줄 몰랐다. 해가 저물고 밤이 왔다. 다른 교원들은 이미 퇴근한지 오랬다. 강좌실에는 그들 두사람만이 남아있었다. 끝날줄 모르는 론담이 또 하나의 단락을 지었을 때 석홍범은 무심결에 시계를 보았다. 밤 11시가 가까왔다. 년로한 강좌장을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론담을 계속하고싶었으나 아쉬운대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합시다. 저때문에 선생님의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오늘과 같은 론담이라면 열밤이라도 지새우고싶네. 정말 기쁘

네.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토론을 계속하세.》
강좌장도 따라일어섰다. 석홍범은 자기의 가방과 함께 강좌장의 가방도 들었다. 실습을 위해 지방으로 떠날 때마다 그 가방을 들어다주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석홍범은 옛 스승을 모시고 대학구내를 벗어났다. 강좌장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다시 권고했으나 사양했다. 가방을 넘겨주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처가로 가겠다고 하였다. 강좌장과 헤여진 그는 대극장쪽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다. 날개라도 돋힌듯 걸음이 가벼웠다. 가슴은 성공의 예감으로 높뛰였다. 어느새 처가가 있는 아빠트에 이르렀다.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보니 처가에는 불이 꺼졌다. 시내의 식당들은 이미 문을 닫았다. 처가에 들리지 않고는 저녁을 먹을데가 없었다. 하지만 어제 밤에 있은 일들이 되새겨지면서 다시 찾아가기가 서슴어졌다. 장인과 장모가 저들의 간절한 권고를 거역한 사위를 반갑게 맞아줄것 같지 않았다. 이밤으로 과학원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침 련못동으로 가는 전차가 가까운 정류소에 멎었다. 한달음에 달려가 차에 올랐다. 련못동에 이르러 알아보니 평성쪽으로 가는 동북리행 뻐스는 얼마전에 막차가 떠나버렸다고 하였다.
석홍범은 주저없이 걷기 시작했다. 련못동에서 평성까지는 60여리길이다. 그렇지만 전에도 몇번 걸어본 낯익은 길이였다. 캄캄한 밤이지만 길을 헛갈릴 념려는 없었다. 빠른 걸음으로는 4시간이면 넉근히 닿을수 있었다. 하루라도 앞당겨 연구사업을 계속하고싶었다. 오늘 터득한 해답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거나 부정을 하던 사람들을 한시라도 빨리 설득시키고싶었다. 누를길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부지런히 걸음을 다그쳤다. 달없는 어두운 밤이였다. 밤하늘에는 얼어붙은듯 까딱 움직이지 않는 뭇별들이 빛났다. 도로에는 인적이 끊어진지 오랬다. 호젓한 밤길은 아무런 장애도 없이 사색의 나래를 펼쳐주었다. 강좌장과 장시간 계속했던 학술토론의 여운에 아직 잠겨있는것이다. 강좌장이 깨우쳐준 하나하나의 문제들은 어두운 지평선에서 비쳐오는 불꽃처럼 눈앞에 번쩍이였다. …
새벽 3시경에 집에 이르렀다.
《여보, 깨여나오. 내가 왔소.》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새벽잠에 깊이 들었던 민옥은 한참만에야 깨여났다. 잠결에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일어나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민옥은 방한모의 귀덮개언저리에 성에가 하얗게 불린 남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반가움보다 불안이 앞섰다. 여간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밤걸음을 할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여보, 내가 구상한 기밀구조를 적극 지지했소, 류체력학강좌장이 말이요!》

남편은 환희에 넘쳐있었다. 민옥은 어정쩡했다. 친정의 아버지가 찾아서 간줄로 알고있었는데 남편은 들뜬 기분으로 왕청같은 말을 하고있는것이다.

《먹을것이 있으면 제꺽 챙겨주오. 배가 고파 죽겠소.》

《아직 저녁도 못 잡수셨어요?》

《못 먹었소.》

남편의 얼굴에는 방금전의 흥분이 가셔지면서 여지없이 지쳐버린 기색이 떠올랐다. 민옥은 그 표정의 변화에서 저녁도 못 먹고 이 추운 밤에 먼길을 걸어온 남편의 수고를 헤아렸다. 사연은 어찌되였든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찬밥밖에 없어요. 내 인차 밥을 지을테니 기다리세요.》

《이제 언제 밥을 짓겠소. 찬밥이라도 올려오우.》

석홍범은 이렇게 말하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한모와 솜저고리를 벗은 다음 안해가 누웠던 따스한 이불밑에 다리를 뻗고 아래목에 앉았다.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물밀듯이 피로가 엄습해왔다. 낮동안의 학술토론과 여러 시간의 밤길에서 내처 흥분되였던 긴장의 탕개가 끊어져버렸다. 눈을 뜨기조차 힘겨웠다.

안해가 밥상을 올려왔다. 때아닌 때에 갑자기 차린 밥상이여서 허술하기가 이를데 없었다. 사발에 골숨히 담긴 찬밥과 김치가 전부였다. 석홍범은 더운물에 찬밥을 말아서 걸탐스레 먹었다. 여적 그 어떤 진수성찬도 지금처럼 달게 먹어본 때가 있어본것 같지 않았다.

안해가 무슨 말인가를 묻고있었으나 가려듣지도 못했고 대답할 겨를도 없었다. 한순간에 밥과 김치를 다 먹어버렸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왜 찾았어요?》

밥상을 물리고나서야 안해가 아까부터 그것을 묻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아버님은 무역회사 해외출장소로 가라는 권고를 했소.》

석홍범은 흥심없이 대답했다. 요기를 하고나니 눈시울이 무겁게 다리우며 못 견디게 잠이 왔다.

《내 그 일때문에 찾은줄로 짐작은 했어요. 그래 어떻게 대답했어요?》

민옥은 남편의 무릎을 흔들며 다그쳐물었다.

《그만두겠다고 했소.》

민옥은 얼굴이 해쓱해졌다.

《그래 당신은 끝내 그 자리를 거절했단 말이예요?》

원망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안타까이 부르짖었다. 하지만 석홍범은 응대없이 밥상머리에 쓰러졌다. 밤길에 지쳐버린 그는 곧 잠들어버렸다. 민옥은 밥상도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실망의 한숨속에 점도록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 5

고중환은 아침 일찌기 과학원을 향해 떠났다. 승용차의 뒤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오늘 하루동안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다. 언제나 사색을 깊이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에게는 출근길이나 출장길에서 그날의 일과 앞으로의 사업을 구상하는것이 굳어진 습관으로 되여있었다. 고르롭게 울리던 승용차의 동음이 높아지는 바람에 상념에서 깨여났다. 어느새 승용차는 동북리고개를 치달아오르고있었다.

단숨에 고개를 넘어 배산벌을 지날 때였다. 전차정류소옆으로 초간히 떨어진 가로수밑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밤색외투를 입고

서있는 나이지숙한 남자는 과학원의 림수봉부원장이였다. 낯모를 젊은 녀인이 그와 마주서있었다. 연자주빛솜옷에 눈부시게 흰 털목도리를 두르고 자그마한 트렁크를 들었다. 헌데 무엇때문인지 울고있었다. 림수봉은 난처한 기색으로 녀인을 타이르고있었다. 그 표정들로 보아 녀인은 림수봉의 타이름을 듣지 않고 그 무엇을 눈물로 하소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고중환은 젊은 녀인이 림수봉의 며느리가 아니면 딸이라고 생각했다. 못 본척 하고 지나버려야 했다. 가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장소에서 만나면 림수봉의 립장이 딱해질수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가 그들의 옆을 지날 때 림수봉이 이쪽을 알아보고 반겨 인사를 했다.

《차를 세우시오.》

운전사에게 말했다. 승용차는 그들을 뒤에 남기고 얼마쯤 지나서야 멎었다. 고중환은 차실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았다. 젊은 녀인과 헤여진 림수봉이 총총히 다가왔다.

《출근길입니까?》

고중환은 선선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타십시오.》

림수봉이 오르자 승용차는 다시 떠났다. 그는 뒤창으로 방금 헤여진 젊은 녀인을 뒤돌아보더니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참, 야단났습니다.》

제쪽에서 먼저 사연을 말하고싶어하는 기색이였다. 고중환은 말없이 그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자 그 녀자는 기계공학연구소 석홍범동무의 처인데 남편과 다투고 친정으로 간답니다.》

고중환은 놀랐다. 림수봉의 며느리나 딸일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기때문이 아니였다. 석홍범의 가정에 불화가 있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전에 만나본 일이 있지만 석홍범은 가정에서 안해의 인격을 무시하는것과 같은 무례한 행동을 할상싶지 않았다.

《무슨 일로 다투었답니까?》

《이번에 다툰 구체적인 동기는 모르겠습니다. 석홍범동무의 처는

전부터 남편이 과학원에 온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왜 그런답니까?》
《외동딸이여서 평양에 있는 늙은 부모들을 모셔야 하기때문이랍니다. 말은 그렇지만 본심이야 머리를 안쓰고 쉽게 일하면서도 먹을알이 있는 직업을 원하기때문이지요.》
《그 녀동무의 아버지는 뭘 합니까?》
《금속공업부 강서원부부장이 바로 그 녀동무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구만.》
《지금 당에서는 과학기술을 그처럼 중시하지만 젊은 세대들, 특히 간부자녀들속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연구소들에서 제기된 자료를 보면 최근년간에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된 연구사들중에서 딴데로 가겠다는 동무들이 어데나 한두명씩 있습니다.》
새삼스레 듣는 이야기가 아니였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어데나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놀라운것은 금속공업부 부부장의 딸에게서 그런 현상을 보는것이다. 사업분야가 다르다보니 강서원이 어떤 일군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그가 우리 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을 책임진 일군들중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근본방도가 과학기술발전에 있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것이다. 그는 자기 딸이 과학연구에 전심을 하는 남편의 지향을 반대해나선다는것을 알고있을가? 딸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두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있을가? 대중앞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정책을 받드는 일군으로 자신을 분식하지만 뒤에서는 자녀들을 과학기술부문에서 딴데로 빼여돌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강서원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과학원에 도착한 고중환은 석홍범을 찾았다. 그가 과학원에 나온것은 오후에 과학기술부문 일군들의 협의회가 있기때문이였다. 회의준비정형도 알아보고 그간 연구사업의 실태를 료해하려고 아침 일찌기 나왔다. 그런데 림수봉의 말을 듣고보니 우선 석홍범을 만나고싶었다.
얼마후에 석홍범이 방안에 들어섰다. 정중히 인사를 하는 그의 얼

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비꼈다. 아침에 있은 안해와의 다툼으로 흐려진 기분을 좀처럼 가시기 어려워하는것 같았다.
《앉소.》
석홍범은 책상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고중환은 수척해진듯 한 그의 얼굴을 측은히 바라보았다.
《전에 만났을 때보다는 얼굴이 축간것 같구만. 어디 아프지 않소?》
친절히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사업에 지내 무리한것 같구만.》하고 고중환은 석홍범의 낯빛을 살피며 말머리를 돌리였다.
《동무는 가정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겠소. 초고압유압프레스를 새롭게 개발하려는 큰 포부를 지닌 동무가 한가정의 화목을 도모하지 못해서 동네의 말밥에 오르다니… 유감스러운 일이요.》
석홍범은 수치감에 상혈된 얼굴을 들며 똑바로 마주보았다. 말없는 눈빛은 가정의 불화를 어떻게 아는가고 묻고있었다.
《내 방금전에 이리로 오다가 친정으로 가는 동무의 안해를 보았소. 듣자니 동무의 안해는 동무가 과학원을 떠날것을 원한다더군. 그렇소?》
《…》
《사실이 그렇다면 동무가 잘 교양을 해야지. 사랑하는 안해 한사람을 교양할 능력이 없다면 미지의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일이야 더욱 불가능할게 아니요.》
그렇게 변죽을 울리자 석홍범은 반발적으로 나왔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해를 설득시키는 일이 새로운 발명을 하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기 생활의 결론을 말하듯이 명백히 말한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가늘게 한숨을 삼켰다. 고중환은 그 한숨에서 석홍범이 겪고있는 가정생활의 고뇌를 엿보았다.
《그래 장인도 동무가 딴데로 옮겨앉을것을 바라고있소?》
석홍범은 침묵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을것이다.

장인때문에 남모르는 고충을 겪고있다 하더라도 남의 면전에서 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을것이다. 결함을 감싸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식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할것이다. 고중환은 공연한 물음이였다는것을 깨달았다. 가정의 리면사를 더 캐여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힘주어 다시 말했다.

《문제는 동무 안해의 립장이요. 동무는 하나의 발명보다 한사람의 안해를 교양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생활에서는 그럴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줄 모르는 사람의 경우요. 다투면서 소란을 피울것이 아니라 열렬한 사랑속에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오. 동무의 지향이 정당한 이상 안해도 조만간에 동무를 리해할거요.》

《알겠습니다.》

석홍범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짓숙인 얼굴은 한껏 붉어졌다. 당중앙위원회 부부장한테까지 가정의 불화를 드러내보인것이 형언할수 없이 부끄러웠던것이다.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어려운 연구과제를 안고 탐구의 고민이 큰 동무한테 가정적인 고충까지 겹친것이 안타까와서 하는 말이였소.》

고중환은 련민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래 그동안 연구사업은 어떻게 되였소?》

서서히 고개를 드는 석홍범의 눈에는 음울한 그늘이 가셔지고 생기어린 빛이 떠올랐다.

《부부장동지, 얼마전에 새로운 기밀방법을 구상했습니다.》

《그렇소?》

고중환은 반가움에 넘쳐 몸을 그에게로 기울이였다.

《뽐프의 작업압력을 추종해서 내압에 비해 기밀부의 공기압을 증폭시키면 기밀을 보장할수 있다는 과학적확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석홍범의 목소리는 벌써 활기에 넘치였다. 안해의 일로 하여 가슴을 짓누르던 수치감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자기의 연구사업을

두고 잠재하던 흥분이 그를 사로잡았다.

《좀 자세히 설명해줄수 없겠소?》

석홍범은 그러한 청을 기다렸다는듯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고중환은 흥미를 가지고 들었다. 전공학문이 다르지만 자연과학기초원리들을 잘 알고있는 그는 석홍범의 륜곽적인 설명에서 성공의 실머리를 엿보았다. 새로운 기밀방법을 착상한 기초원리가 리해되였던것이다. 석홍범은 분주히 웃주머니를 뒤지며 도면을 그려보일 종이를 찾았다.

《가만, 종이는 여기 있소.》

고중환은 서류가방을 열고 사무용지를 여러장 꺼내주었다.

석홍범은 재빨리 종이우에 도면을 그리고 기밀장치의 구조와 작용원리를 상세히 말하였다. 어떤 대목에서는 압력곡선을 그려보이기도 하고 력학의 수식을 써보이기도 하였다.

다 듣고난 고중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발한 착상인것 같았다.

《그래 과학심의에 제기해봤소?》

《처음에는 반대하는 동무들이 있어서 저도 확신을 못 가졌댔습니다. 김책공대 류체력학강좌장선생님을 찾아가 지도를 받은 후에 확신을 가지고 좀더 구상을 무르익혔습니다. 두주일전에 류체력학 과학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모두가 저의 구상을 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집단을 다시 무어서 제작에 착수해야겠구만.》

《림수봉부원장동지가 연구집단을 다시 조직해주었습니다.》

그 연구집단을 해산했던 림수봉이 다시 조직해주었다니 반가운 일이였다.

어쩌면 그 하나의 사실이 림수봉의 사고방식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었다. 첨단과학의 점령에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따뜻한 손길아래 과학자인 석홍범이나 지도일군인 림수봉이 자기 성장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후더웠다.

×

예견했던 협의회는 과학자회관에서 열리였다. 전국의 연구기관들은 물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조선과학기술련맹, 과학기술통보사와 부문별 과학기술협회, 고등교육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여왔다. 수백석을 가진 장내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리가 모자라서 급히 날라온 개별의자들에 앉았다.

주석단복판에 앉은 고중환은 좌중을 둘러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약간 앞으로 끄당겼다.

《이미 알고있는것처럼 오늘 협의회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조치에 따라 새로 조직된 과학기술심의부문 사업정형을 토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동무가 하겠습니다.》

고중환의 옆에 앉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문을 들고 연단으로 나갔다.

환갑에 채 이르지 못한 나이였으나 그의 머리는 검은 오리가 하나도 없는 은발이였다. 때이르게 세여버린 머리카락때문에 장년기의 책임적인 국가행정일군이라기보다 로학자다운 인상을 풍기였다. 그의 보고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날의 성과와 편향이 명백히 지적되였고 적중한 실례들이 그것을 안받침하였다. 보고가 끝나자 열렬한 토론들이 있었다. 부문별 과학심의책임자들은 해당 과학의 높은 권위를 가진 연구소의 소장들과 중앙대학의 강좌장들이 겸임하였다. 그렇기때문에 토론에는 주로 그들이 참가하였다. 과학기술심의체계가 나온지는 반년밖에 안되지만 어느 과학분야에서나 그 기간에 수십건의 심의를 하였다. 연구기관과 대학들에서 제기하여온것도 적지 않았지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심의를 의뢰하여온것이 훨씬 더 많았다. 과학기술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그러나 밑에서는 그 누가 기발하고 신통한 창안이나 발명을 하여도 과학성여부를 자체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드디여 때를 만나 그것들을 심의에 제기해왔던것이다. 능력있

는 학자들이 망라된 심의체계에서는 집체적인 론의를 거쳐 공정한 평가를 주었을뿐아니라 더욱 훌륭히 완성할수 있는 조언과 방조를 주었다. 말하자면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계발하고 연구사업을 옳게 이끌어주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고중환은 토론이 계속될수록 새로운 심의체계의 생활력을 보다 깊이 깨달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로부터 심의체계를 내올데 대한 가르치심을 받고 기구를 조직할 때만 하여도 전자의 기능만을 념두에 두었다. 그러나 생활자체가 후자의 기능까지를 동반했다. 생활은 그이께서 취해주신 조치가 얼마나 정당하고 현명한가를 말해주고있었다. 고중환은 그이를 모시고 9월제련소에 내려갔던 때를 회상했다. 오늘에 와서 돌이켜볼수록 실패한 티탄합금가공설비사건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주신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이 끓어올랐다. 정치를 하나의 과학, 하나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는 과학성과 그로부터 가장 적중한 대책을 세울줄 아는 로숙한 정치실력의 겸비를 의미할것이다. 참으로 **김정일**동지는 그 량자를 겸비하신 철저한 실력가형의 정치가이시였다.

경건한 심정에 사로잡힌 고중환은 그 누구와 그때의 회포를 나누고싶은 충동을 느끼며 장내를 둘러보았다. 왼쪽좌석의 중간쯤에 손관식이 앉아있었다. 그의 얼굴에 남다른 흥분이 흘렀다.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오가는 말은 없었으나 지금 그가 체험하는 감정이 어떤것인지를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공정한 심의제도가 없었던탓으로 마음의 고충을 겪어야 했고 과학자의 량심을 저버리는 행적도 남기였던 그였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격동되여있을것이다. 만일 양영복박사가 오늘의 협의회에 참가하였다면 손관식보다도 더 흥분된 심정일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참가하지 못했다. 시간을 다투며 새로운 티탄합금가공설비개발에 전심을 하는 그는 연구사업에서 하루도 몸을 뺄수가 없었다.

협의회에서는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과학기술심의사업세칙을 더욱 완성했다.

# 6

과학원에서 돌아온 고중환은 **김정일**동지께 협의회정형을 서면으로 보고드리였다. 그런데 그이께서 직접 찾으시였다. 필경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찾으실것이라고 생각했다. 보고내용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굳이 찾지 않으실것이다. 혹시 성과에 도취되여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던가? 그이께서는 자신께 올려보내는 보고에 성과가 과장되거나 결함이 생략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현실을 미화분식하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장하는 일군들을 한두번만 질책하지 않으시였다. 그러한 현상은 충신의 자세가 아닌 일종의 아첨이라고, 나아가서는 당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준절히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첨과 기만을 제일 용서할수 없는 현상으로 간주하시였다. 언제나 현실 그대로의 진실을 요구하시였으며 본심 그대로의 진정을 요구하시였다. 진실과 진정만이 그이를 만족시킬수 있었다. 이것을 잘 아는 고중환은 보고내용을 곰곰히 돌이켜보았다. 과장되거나 분식된것이 있는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알수 없었다. 그는 급히 그이의 집무실로 갔다. 아닌게아니라 집무탁우에는 고중환이 올린 문건이 놓여있었다.

《새로 나온 과학기술심의체계가 그렇게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니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운영에서 나타나는 부족점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정확히 지적되였다고 봅니다. 이번의 과학기술부문 일군협의회가 매우 실속있게 진행된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족한 기색으로 말씀하시였다.

고중환은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였다. 과장이나 분식이 없이 실태를 정확히 보고드렸다는 자부심을 느끼였다.

《동무와 의논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찾았습니다. 나는 며칠전에 동해안지구 어느 한 구분대를 찾아갔던 길에 리승기선생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과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휴식의 한때를 보냈

습니다.》
고중환은 그 사실을 모르고있었다. 로학자와 함께 보내신 휴식의 그때를 되새겨보시는듯 그이의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떠올랐다.
《정치와 과학에 대한 매우 유익한 담화도 나누었고 그의 인생회고담도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자연의 객관적진리를 탐구하는 특성때문인지 학자들은 솔직하고 허심해서 이야기를 나눌 재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서도 들을수 없었던 여러가지 조언을 그 선생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헤여질 때 그가 나에게 부탁한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과학원 함흥분원에 화학부문을 전공하는 리과대학 분교를 내오도록 하여달라고 했습니다. 화학부문에 필요한 과학인재들을 함흥분원이 책임지고 키우겠다는것입니다. …부부장동무의 생각엔 분교를 내오는것이 어떨것 같습니까?》
《좋은 발기라고 생각합니다. 함흥분원에는 유능한 화학공학자들이 많은것만큼 분교가 나오면 교수진행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연구소들의 실험설비와 실습공장을 교육사업에 그대로 리용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교를 내오자면 청사와 기숙사를 비롯한 건물문제가 걸릴것입니다.》
《필요한 건물이나 책걸상을 비롯한 교구비품들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도록 합시다. 말이 분교이지 실은 또 하나의 대학을 내오는것이나 같은데 그만한 밑천도 들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리승기선생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후 배치지가 뚜렷하기때문에 입학초기부터 명백한 학구적지향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것입니다. 분원에서는 장차 자기네가 쓸 인재들이기때문에 학생들을 책임적으로 교육할것입니다. 분교는 우리 나라 고등교육기관들중에서 그중 실속있고 특색있는 인재양성기지로 될수 있습니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협의를 해서 분교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해보시오.》
《알겠습니다.》
《리승기선생은 90객이 다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런 좋은 발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선생이 우리 과학의 래일을 위해 자기로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애국적인 학자입니다. 그는 지난해에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고 돌아온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과학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게 되였으니 여한없이 눈을 감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선생이 생전에 첫 졸업생들을 볼수 있도록 올해안으로 분교개교를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그는 분교가 개교되면 첫 강의는 꼭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자기 인생을 총화하며 후대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을 하루빨리 풀어줍시다.》

《…》

《나는 군부대에 갔다가 돌아가던 길에 함흥에 들려서 그를 만날가 하였는데 군부대가 주둔한 고장의 설경이 하도 아름다와서 그리로 오게 하였습니다. 거의나 사무실과 방안에만 있던 로인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자 어린애처럼 기뻐하였습니다.》

고중환은 다정한 정취에 잠겨 눈웃음을 그리시는 그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훈훈해오는것을 느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조를 바꾸며 다시 말씀하시였다.

《그 선생을 통해 과학원 함흥분원 과학자들의 소식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연구성과를 이룩했다더군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수행에 떨쳐나선 함흥분원 과학자들의 기세가 대단한것 같습니다. 평성지구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최근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까?》

《평성과학지구에서도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고중환은 전자자동화공학, 열공학, 초고압물리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대표적인 성과들을 말씀드린끝에 이렇게 부언했다.

《그리고 기계공학분야에서도 우리의 기술과 자재로 초고압유압프레스를 만들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한 녀성연구사동무가 가느다란 철선을 여러번 감는 방법으로 프레스본체의 예

비장력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했고 석홍범동무는 독특한 기밀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기밀방법이 성공하면 유압공학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석홍범동무가 그런 연구를 해냈단 말이지요.》

**김정일**동지께서는 무등 기뻐하며 다그쳐물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준절히 타일러주신 다음에 그는 그야말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나는 그 동무가 과학에 대한 열망도 크고 사람됨이 진실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만큼 아프게 꾸짖었습니다. 아까운 사람일수록 호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 그 동무가 연구한 기밀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나에게 좀 설명해줄수 없겠습니까?》

고중환은 저으기 당황했다. 이럴줄 알았으면 석홍범으로부터 보다 자세히 듣는것인데…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줍게 웃었다.

《동무가 리해한 범위내에서 설명하시오. 과학기술적발명이란 연구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뿐이지 연구해놓은것은 누구나 쉽게 리해할수 있습니다.》

고중환은 기억을 되살리며 설명을 시작했다. 기밀방법의 원리와 기밀장치의 륜곽만은 머리속에 남아있었다.

《석홍범동무의 착상이 기발하고 구상이 대담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이 설명을 마치자 못내 경탄하시였다.

《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동무가 연구한 방법의 혁신적의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 제작에 착수했습니까?》

《연구집단을 다시 뭇고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석홍범동무를 잘 도와줍시다.》

잠시후에 고중환은 그이의 집무실을 나섰다. 어느새 구내에는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했다. 부서에 들렸다가 퇴근길에 오른 그는 줄곧 집무실에서 받은 감동의 여운에 휩싸여있었다.

# 7

집에 돌아오니 출입문이 잠겨져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비여있는것이 분명했다. 여느날은 늘 먼저 돌아온 딸애가 저녁을 지어놓고 아버지를 기다리군 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학교에 저녁늦게까지 남아있어야 할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고중환은 옷주머니들을 뒤지며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어디에 간수했던지 생각나지 않았다. 딸애보다 먼저 출근을 하고 늦게 돌아오는 고중환은 열쇠를 사용해보는 일이 별로 없었다. 옷주머니를 뒤졌으나 열쇠를 찾을수 없었다. 그는 손맥이 풀려서 한순간 문앞에 서있었다. 무슨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는 딸애가 원망스러웠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딸애를 무작정 기다리며 그냥 서있을수는 없었다. 다시 옷주머니들에 손을 넣어 찬찬히 더듬어보았다. 그러던 끝에 혁띠밑의 작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았다. 회중시계를 넣기 위해 만든 주머니였다. 깊숙이 간수하느라고 거기에 넣어둔것인데 기억을 되살리지 못했던것이다. 잃었던 보물을 찾은것처럼 기뻤다. 방금전까지 딸애한테 품었던 원망도 가셔지고 도리여 그 애가 자기 생활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새삼스레 느꼈다. 집안에 들어가서 딸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어느 가정에서나 저녁이면 직장과 학교에서 돌아온 식구들로 흥성거리기마련이지만 고중환의 집안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저녁마다 반겨맞아주던 딸애마저 없고보니 전에없이 쓸쓸한 기분에 잠겨들었다. 상실의 비애가 남겨놓은 마음의 상처에는 어지간히 딱지가 앉았지만 안해가 차지했던 생활의 공간은 텅 비여버린채 지워질줄 몰랐다. 느닷없이 울리는 출입문소리에 생각에서 깨여났다.

《아버지!》

반가운 부름소리를 앞세우며 향미가 방안으로 들어섰다.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기색은 조금도 없이 어지간히 들뜬 기분이였다.

《어델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오느냐?》
부지중에 이런 꾸짖음이 튀여나갔다. 그러나 곧 후회했다. 어린것에게 가정의 부담을 지워놓고도 좀 늦어 돌아왔다고 성을 낸것이 마음에 걸리였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은게로구나.》
고중환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리였다.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늦어 돌아올 향미가 아니였다.
《지난 한주일동안 푼 수학문제를 가지고 정금화선생님을 찾아갔댔어요. 선생님과 수학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시간가는줄 몰랐어요.》
《그랬댔구나.》
향미는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선생님은 제가 푼 수학문제를 검열해보시더니 칭찬해줬어요. 1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수학공부를 더 잘한다고 했어요.》
고중환은 눈웃음을 그리며 자랑스레 말하는 딸애를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 애가 들뜬 기분으로 방안에 들어서던 까닭을 비로소 알았다.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한다는 교원의 칭찬을 받을 때보다 더 기쁜 때는 없는것이다.
《일반중학교엘 다니면서 1중학교 수학교재를 배우려고 애쓰는 네가 기특한 나머지 정도이상으로 칭찬을 하였겠지.》
《그럴수도 있겠지요. …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서 왜 1중학교 입학시험을 치지 않았는가고 물으셨어요.》
《그래 사실대로 말했니?》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째서?》
향미는 입술을 비죽이 내여물며 눈을 곱게 할기였다. 어떻게 사실대로 말할수 있느냐는 뜻이였다. 고중환은 가슴에 마쳐오는 짜릿한 아픔을 느끼며 시선을 떨구었다. 응당 1중학교에 갈수 있는 딸애의 앞길을 자기의 잘못으로 가로막은듯 한 막연한 죄책감이 치밀

었다. 어머니가 있다면 또 모른다. 어린것이 집안일을 말아하면서 일반중학교 과목공부를 하는것외에 1중학교 수학공부까지 하자니 얼마나 힘에 부치겠는가.

《너 배고프겠구나. 어서 저녁을 지어먹자.》

고중환은 딸애를 도와 저녁을 함께 지을 작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일요일 오후였다.

고중환은 번거로운 사업에서 풀려나 휴식의 한때를 보내였다. 그는 자기 사무실 서가에서 양장을 한 두툼한 책 한권을 찾아들었다. 지금처럼 일정한 시간여유를 얻게 되면 늘 독서를 하는것이 굳어진 버릇이다. 젊어서부터 오락이나 체육에 취미가 없었던 그는 독서를 제일 좋은 휴식으로 알고있었다. 보고싶던 책을 보면서 그 세계에 잠기면 사업에 몰두하던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했다. 책임적인 일군으로 사업한지도 퍽 오래되였지만 전공학문에 대한 미련과 애착은 버릴수 없었다. 금속공학에 접하면 그 학문에 열정을 쏟아붓던 청춘시절로 되돌아가는듯 한 감회에 젖어들었다. 그는 흘러내린 돋보기를 바로잡고 책을 펼치였다. 전부터 틈틈이 보던 책인데로문판으로 최근에 간행된 《21세기의 금속재료》였다. 그 책은 표제가 말해주는것처럼 금속재료의 21세기 발전추세를 서술했다. 그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것은 21세기 금속의 왕좌에 철을 대신하여 티탄이 오르게 되며 모든 금속가공에서 현재의 압착가공이나 분말가공대신 초소성가공방법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티탄합금초소성가공문제가 초미의 연구과제로 나서고있기때문에 특별히 주의깊게 읽어나갔다. 전화종이 울리였다. 고중환은 책에 시선을 준채 수화기를 귀가에 가져갔다.

《접수실입니다. 1중학교에서 정금화라는 녀교원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무슨 일로 찾아왔을가? 일요일에는 보통 특별히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외부손님을 접수하지 않기로 되여있다. 그런데 접수실에서도 거절할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들여보내시오.》

잠시후에 정금화가 방안으로 들어섰다. 산뜻하게 봄철옷차림을 한 그는 전에없이 품위있고 현숙해보이였다.

《부부장동지, 안녕하십니까.》

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였다. 이제는 구면이여서 스스럼없는 표정이였다.

고중환은 친절히 의자를 권하며 그가 이 사무실에 두번째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국제수학올림픽참가문제를 가지고 처음 왔던 그날 자기의 그릇된 견해때문에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커다란 실망을 안고 문밖을 나설 때 그는 금시 울어버릴듯 한 모습이였다. 그 모습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고중환은 우리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며칠후에 평양제1중학교에 나갔다. 그들을 열렬히 축하해주고나서 정금화에게 사무실에서 있었던 그날의 일을 사과했다. 그러자 정금화는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했다.

《십분 그럴수 있었던 일인데 뭘 그러십니까.》

고중환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뜻밖이였다. 국제수학올림픽에 정식성원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때의 그는 당돌하고 지어 도고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이렇게 난처해하다니…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자기를 굽힐줄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겸손하고 모든것을 너그럽게 리해할줄 아는 녀성이 아닐가? 아무튼 그를 만날 때마다 처음의 인상을 뒤집으며 그의 인간됨을 한갈피한갈피 새롭게 헤쳐보는듯 한 느낌이였다.

《오늘은 접수를 하지 않는 날인데 접수원을 용케 설득시켰습니다.》

여적 서있던 고중환은 빙긋이 웃으며 인사를 대신하는 말을 하였다.

《접수원동무는 제 신분증을 보더니 지난해 국제수학올림픽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갔던 교원이 아닌가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때늦게라도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면서 이 방에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아, 그랬댔구만.》

고중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국제수학올림픽에서 돌아온 후 박상수학생과 함께 정금화도 여러 출판물들에 소개되였다. 접수원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학생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것이다. 그들은 앞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향미학생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먼저 집에 들렸댔는데 사무실에 계신다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향미때문에?…》

고중환은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고 정색해졌다. 수학공부를 지도해주기는 하지만 향미는 다른 학교의 학생이다. 그런데 그 애때문에 찾아왔다는것이 선뜻 리해되지 않았다. 정금화도 어느새 정중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내보니 향미는 수학적두뇌가 비상한 학생입니다. 수학실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중에서도 향미만 한 학생은 몇명 안될겁니다.》

《거야 선생이 과외수업으로 잘 가르쳐주었기때문이지요.》

고중환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랬으나 정금화는 그런 치하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아다싶이 요즈음 새 학년도가 시작되고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별지도를 하던 일반중학교의 학생들중에서 두 학생을 우리 학교에 편입시킬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실력을 담보하는 조건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초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점찍은 두 학생중의 하나가 우리 애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한 학생은 어느 학교 학생입니까?》

《평천구역 봉지중학교 남학생입니다. 오전에는 그 학생의 집을 찾아갔댔습니다. 알고보니 그 학생은 우리 학교 입학시험을 칠 때 유감스럽게도 페염을 앓고있었기때문에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향미처럼 뛰여난 학생입니다.》

《부모들은 뭘합니까?》

《아버지는 화력발전소 열관리공으로 일하고 어머니는 편의봉사사업소에서 리발사로 일하고있습니다.》

고중환은 경건한 마음으로 정금화의 얼굴을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자기가 찾아낸 학생들의 재능을 꽃피워주려고 그리도 애를 쓰는 교육자적풍모에 내심 머리가 숙어졌다. 동시에 자기 아들의 장래를 위해 집에까지 찾아온 정금화를 보고 더없이 감격했을 남학생의 부모들이 방불히 련상되였다. 정금화가 말했다.

《다른 학부형과 달리 부부장동지를 찾아오면서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향미와 같은 학생이 우리 학교 입학시험을 치지 않았다는것이 저로서는 리해할수 없었습니다. 그 까닭을 물었지만 향미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은데 우선 그걸 말해줄수 없겠습니까?》

조심히 머리를 드는 그의 시선에는 진실을 캐려는 집요한 기대와 호기심이 어려있었다.

《거기에는 가정적인 사정이 깔려있었습니다.》

고중환은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그리며 쓸쓸히 응대했다.

《혹시 향미의 어머니가 안계시기때문에?…》

얼결에 그렇게 말한 정금화는 말끝을 감추며 두눈을 크게 떴다.

《아닙니다, 우리 애가 1중학교 입학선발시험을 칠 때 지방에 있는 조카애도 도에서 치는 선발시험을 쳤는데 그만 한점이 모자랐습니다.

그때문에 형님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

고중환은 숨김없이 그때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주의깊게 듣고난 정금화는 놀라움에 잠기는듯 하더니 명백한 어조로 말했다.

《제 생각에는 형님이 비난과 원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부부장동지가 향미를 우리 학교에 보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것이 옳았습니다.》

《생활에서는 원칙이나 론리보다 도덕적감정이 전면에 나서는 때가 있는것입니다.》

고중환은 리해를 바라며 빙긋이 웃었다. 그러나 정금화는 정색한 표정으로 말마디에 그루를 박으며 입을 열었다.

《부부장동지의 그 도덕적감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재능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키우는 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미래의 수학자로 자라나야 할 한 학생이 아버지의 도덕적감정때문에 그 성장에 지장을 받는다면 교원인 저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향미를 우리 학교에 편입시키는데 동의하십시오!》

그는 벌써 권고나 의논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에 순응할것을 요구하는 자세였다. 적어도 학생의 전도와 교양문제를 두고는 그가 누구이든 학부형인 이상에는 교원인 자기의 견해를 따라야 한다고 확신하고있는듯싶었다. 오랜 교단생활에서 교육자의 존엄과 교권을 지켜오는 과정에 굳어진 성품일것이다. 고중환은 도고한 빛조차 흐르는듯 한 정금화의 시선을 피하며 생각했다. 그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정당하다. 가슴이 뭉클하도록 고맙기도 하다. 그러나 때늦게 지금에 와서 향미를 1중학교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쉽게 결심하기가 주저되였다. 그것이 형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낄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내심을 엿본 정금화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잘 아시겠지만 수재는 수만명중에서 한명을 선발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귀중합니다. 우리 나라 과학의 미래를 위해서 향미는 꼭 우리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저한테 이따금 와서 지도를 받지만 그것은 제한을 받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애가 그렇게 재능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향미가 만일 우리 학교에서 배운다면 의심할바없이 훌륭한 녀성과학자로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의 의견대로 합시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학생들의 장래는 부모들이 아니라 교원들이 책임지고 이끌어주지요.》

드디여 결심을 내린 고중환은 헌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정금화를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향미문제와 관련해서 부부장동지한테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

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기탄없이.》
《며칠전에 향미는 자기가 누구 딸이라는것을 실토하면서 집안사정도 솔직히 터놓았습니다. 어린 학생이 가정부담을 지다보니 학습에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동정과 련민의 빛이 조심히 실려오는 정금화의 눈빛에 부딪치자 고중환은 가슴이 저릿했다. 그 동정과 련민은 향미를 두고 느끼는 교육자의 감정과 모성의 감정이 한데 어울려진것이다.
《말뜻을 알겠습니다. 사실 그 애한테 몇해째 가정일을 맡기고보니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인차 향미한테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마련해주십시오. 가정주부가 없는 집안에서 향미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정금화의 얼굴에 떠오르는 추연한 빛을 바라보며 고중환은 어두운 목소리로 응대했다.
《그렇지요. … 그래야지요. … 향미한테 괴로운 일이 나보다 더 많을겁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사생활의 감정까지 나누게 되였다는것을 그들은 동시에 깨달았다. 정금화는 그런 이야기가 더 깊어질가봐 겁내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고중환은 돌발적인 그의 행동을 이상스레 여기면서 아쉬운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와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하지만 정금화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을수 없었다.

# 제 5 장

## 1

보시던 문건에서 시선을 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찾으시였다.

《방금 200일전투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승리적으로 전투를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결심이 어린 상대의 목소리가 수화기에 울리였다.

전국영웅대회의 호소에 따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선 새로운 200일전투가 마감단계에로 치닫고있었다. 지난해 공화국창건기념일까지 벌린 200일전투에 이어 올해 4.15까지를 목표로 한 200일전투는 안팎으로 겹쌓이는 난관과 적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였다. 200일전투를 2 000일전투, 20 000일전투로 이어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고 결심이였다.

이 영예롭고 보람찬 전투의 진두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200일전투를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경험은 지도일군들이 혁명성을 발휘하여 지휘를 잘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진격의 돌파구가 열린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최후돌격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

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전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00일전투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게 되리라고 확신하시였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고중환과 림수봉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다망하신 그이의 일과는 빈틈없이 맞물려있었다.

쏘련과 과학기술협동연구를 위해 모스크바에 갔던 림수봉이 어제 귀국했던것이다.

《부원장동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에 만나고싶었으나 어제는 조금도 틈을 낼수가 없었습니다. 자, 앉으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그들에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그들은 집무탁앞으로 길게 놓여있는 앞상옆의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래 쏘련과학원과의 면담이 어떻게 되였습니까?》

림수봉이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전자공학과 열공학, 기계공학분야에서 고도기술에 속하는 몇가지 지표들에 대한 공동연구를 예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쏘련측에서는 응용과학분야보다 수학과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분야의 공동연구에 더 관심을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기초과학발전수준을 인정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것은 앞으로 토론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 그들이 우리의 기초과학발전을 인정하면서 공동연구를 바란단 말이지요? 그럴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자랑할만 한 기초과학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름있는 학자들을 더듬어보시였다.

어느 한 물리학자는 60년대 후반기 어느해에 열린 모스크바물리학토론에서 명성을 떨치였다. 그때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를 갓 졸업한 20대의 청년이였다. 그가 소립자설에 대한 새로운 해명을 제기했을 때 각국에서 모여온 물리학의 거장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 미시세계의 소립자운동을 새로운 수학적안목으로 투시하여 해명한 사실에 놀랐다. 그후 그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거듭 내놓았다. 20대에 세계물리학계에 파문을 던졌던 그는 조만

간에 세상을 또 한번 놀래울것이다. 다차원공간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새로운 법칙의 탐구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그 법칙은 천체물리학과 지구물리학, 우주공학과 로케트공학 등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연구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시였다. 몇해전부터 그는 《별빛》계획의 한 연구집단을 책임지고 있었다.

다른 또 한명의 물리학자도 세계핵물리학계가 알고있는 학자이다. 그는 한때 쏘련의 두브나핵연구소에 가서 몇년동안 연구사업을 하던 끝에 새로운 동위원소를 발견하였다.

귀국한 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다.

최근년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재능있는 기초과학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믿음직하게 수많이 자라나고있다. 한해전에는 리과대학의 한 학생이 수학계를 놀래우는 론문을 썼다. 《미분련상자환에서의 가환관계와 비선형발전형방정식에서 그 응용》이라는 론문은 수학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그것은 수리공학을 비롯한 여러 공학분야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수학적발견이였다. 그때 그에게 박사학위를 주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학위가 없는 대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주는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여서 일군들은 주저하였다.

그 보고를 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깨우쳐주시였다.

《론문의 가치가 크다면 전례에 관계없이 박사학위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젊은 박사들을 많이 키울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대초의 젊은 박사가 나온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후 그 학생뿐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 20대의 박사들이 련이어 나타났다. …

한순간 기억을 더듬으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과 림수봉을 바라보시였다.

《쏘련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기초과학뿐만아니라 응용과학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수행으로 응용과학분야에서도 비약이 일어날것입니

다. 쏘련과학원과 충분히 토론해서 호상리익에 맞게 과학기술교류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도록 합시다. 빠른 시일내에 그 나라 과학원 대표단을 우리 나라에 초청합시다.》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를 활발히 벌리며 가장 앞선 기술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 2

석홍범은 봉화산려관 호실에서 려장을 풀었다. 래일부터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는 과학자, 기술자협의회에 참가할 사람들이 이 려관에 들었다. 그는 책상에 마주앉아 저녁노을이 비낀 수도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점차 알수 없는 자책의 빛이 어리였다.

《석동무는 지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있소?》

맞은편 침대에 걸터앉은 극저온물리학 연구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큰 성과를 안고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여놓은게 없이 참가했습니다. 남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석홍범은 상대를 바라보며 어줍은 미소를 그리였다.

《그런 마음은 나도 마찬가지요.》

《실장선생이야 이미 큰 연구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실장은 극저온상태에서 특수한 변화를 가져오는 금속재료를 발견한 공로있는 학자였다.

《그건 몇년전 일이고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기간에 해야 할 연구과제는 이제 겨우 문헌조사를 끝낸데 불과하오.》

그는 말끝을 맺으며 무겁게 한숨을 토하더니 어조를 바꾸어 이렇게 물었다.

《오래전에 동무네 연구집단이 다시 무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초고압유압프레스제작은 지금 어떻게 되고있소?》

그는 극저온물리학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실험기구를 만들자면 초고압유압프레스가 필요하다면서 전부터 그 연구에 관심을 두어왔다. 석홍범은 그에게 모든것을 터놓고 조언을 듣고싶었다.

《연구집단이 다시 무어졌을 때 우리들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말을 번지고보니 연구집단이 재조직되던 그날이 방불히 눈앞에 그려졌다.

그것은 여섯달전에 있은 일이였다. 여러 연구소로 흩어져갔던 연구사들이 다시 모여왔다. 그들은 그동안 새로운 기밀방법과 철선에 의한 본체의 예비장력조성방법을 연구한 석홍범과 양명심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끝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연구를 거듭한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처럼 연구집단이 다시 조직될수 있었다고 하였다. 연구집단이 해산되던 날 석홍범의 집에서 화술을 마시던 때에는 누구도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실망의 한숨과 울분의 부르짖음이 무겁게 떠돌던 그 저녁이 어리석고 부질없는 옛일처럼 회상되였다.

그날부터 연구집단은 신심에 넘쳐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지체없이 프레스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유압뽐프의 제작에 착수하였다. 두달 남짓한 기간에 그 설계와 기술준비를 끝냈다. 그러자 기계공학연구소의 중간공장에서 부분품들을 가공하기 시작했다. 석홍범은 집단의 연구사업을 이끌면서 틈을 내여 공장에 자주 나가보았다. 로동자들은 기밀장치의 부분품가공을 무척 어려워하였다. 그 형태와 구조가 종전에 깎아본 기계부속품들과는 비슷하지도 않았다. 석홍범은 그들에게 설계를 일일이 설명하여주고 가공에서 주의할 점들을 깨우쳐주었다. 그랬으나 오작이 반복되였다.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부분품들은 수십번씩 다시 깎지 않으면 안되였다. 긴장한 전투끝에 마침내 유압뽐프가 조립되였다. 실험을 앞두고 과학평의회가 열리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 000기압의 초고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중간단계에서 실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밀방법이 학술적인 타당성을 띠지만 초고압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빚어질런지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다르게는 설계와 력학계산, 가공에서도

오차가 있을수 있다고 하였다. 어느 한 고리에서 사소한 오차라도 있다면 무서운 폭발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이 그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석홍범은 반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 아시는것처럼 과학실험에서 모험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과학실험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실험이기때문입니다. 대담성과 헌신성이 없이는 과학실험을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결과를 확신할수 있다면 굳이 실험을 해볼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만일 이번 실험을 중간압력단계에서 그친다면 적어도 반년의 시간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중간압력단계에서 얻어진 결과에 토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승인해주기 바랍니다!》

이같이 부르짖고 좌중을 둘러보는 석홍범의 눈길에는 말로써는 다 표현하지 못한 절절한 호소가 빛발쳤다. 그 눈빛에 부딪친 양명심이 뒤따라 일어섰다.

《뽐프제작에 필요한 력학계산들은 제가 담당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계산에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려하다싶이 뜻하지 않은 일로 폭발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한된 몇사람이 안전대책을 취하는 조건에서 실험을 하도록 하여주십시오!》

양명심의 얼굴에도 비장한 각오가 어려있었다. 그는 승인을 받기 전에는 결코 주저앉을수 없는 자기의 결심을 보여주듯이 그냥 선채로 집행석을 주시했다.

《앉으시오!》

명령조로 입을 연 기계공학연구소 소장이 성긴 은발을 쓸어올리며 집행석에서 일어섰다. 그는 높은 학술적인 권위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어조로 결론을 내렸다.

《나도 여러 동무들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초고압유압프레스완성기일을 반년쯤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뽐프의 실험을 중간압력단계에서 합시다. 그렇게 해야 할 근거들은 다른 동무들이 충분히 설명했기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평의회는 이만합시다.》

그가 먼저 회의장을 나가자 다른 사람들이 뒤따랐다. 맨나중에 출

입문을 나선 석홍범은 맥풀린 걸음으로 중간공장에 들리였다. 거기에 조립을 끝낸 유압뽐프가 있었던것이다. 저절로 걸음이 그리로 옮겨졌다.

《과연 2 000기압의 압력을 견디여내지 못할가?》

유압뽐프를 쓸어보며 속삭이듯 물었다. 유압뽐프는 자신의 지혜와 정열이 깡그리 바쳐진 창조물이였다. 마치도 피와 살을 나누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여난 생명체처럼 여겨졌다. 아직은 뽐프의 본체에 도색을 하지 않았다. 바이트날에 깎이운 자리가 생생하여서 눈부시게 강철빛을 뿜었다. 그 빛발이 망막에 스며들고 쓸어만지는 손끝에 애틋한 감촉이 느껴질 때 초고압에 능히 견딜수 있다는 힘찬 대답소리를 듣는듯 하였다. 석홍범은 자기의 살붙이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팔삭둥이로 치부된듯싶었다. 분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서 며칠동안 유압뽐프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오늘 과학자, 기술자협의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올라왔던것이다.

《실장선생,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이야기를 마친 석홍범은 조언을 바라며 극저온물리연구실장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듣고있던 실장은 대답을 주기가 난처한듯 실눈을 짓고 침묵했다. 하더니만 석홍범의 집요한 시선을 피하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몇해전에 나도 동무와 같은 경우를 당했댔소. 여차하면 사고를 낼수 있는 실험을 하게 되였지.》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선행자의 경험이 좋은 교훈으로 될수 있었다.

《그때 과학평의회에는 림수봉부원장이 참가했는데 그는 한사코 반대했소. 우리 연구소장은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실험을 해야한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부원장의 의견을 따랐소. 그런데 그후 그는 인차 출장을 가게 되였소. 그가 없는 사이에 연구소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소.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없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소.》

《선생의 경우는 저의 경우와 정반대이군요.》

《어떤 뜻에서 하는 말이요?》

《만일 림수봉부원장이 있었다면 우리의 실험을 지지했을것입니다. 그는 연구집단이 재조직된 후부터 우리의 연구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고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될 때라 과학평의회가 있을 때 그는 쏘련에 출장을 갔댔습니다.》

《그가 있었다고 해도 폭발위험을 동반하는 실험을 승인하지 않을거요.》

석홍범은 공감되는바가 없지 않았다. 두해전에 연구집단이 해산될 때만 하여도 연구실장처럼 그도 림수봉에게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었다. 하지만 그후 부원장의 사고방식과 사업방법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는것을 여러모로 감촉하였다.

《과거의 인상을 가지고 오늘의 그를 평가하는것은 편견일수 있습니다. 나는 실험문제를 그와 한번 의논해보고싶습니다.》

《의논해봐야 헛수고일거요. 그가 왜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책임지고 나서겠소.》

《아니, 생각난김에 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석홍범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림수봉을 조용히 만나기에는 이 저녁이 좋은 기회였다. 그가 어떤 립장을 취할는지는 알수 없었다. 실장의 말대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수도 있었다. 그래도 손해볼것이야 없지 않은가.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그의 호실을 찾아갔다. 림수봉은 려관의 5층 5호실에 들어있었다. 공로있는 로학자들을 위해 특별히 배정된 독방중의 하나였다.

석홍범이 방안에 들어섰을 때 림수봉은 전화를 걸고있었다. 곁에서 들으니 과학원의 과학지도부서들에 래일의 사업을 포치하고있었다. 헐치 않은 직무를 담당하고있는 부원장은 이 저녁에도 려관의 다른 연구사들처럼 휴식의 한때를 보낼수가 없는가싶었다. 어지간히 오래동안 계속되던 전화가 끝났다.

《어떻게 왔소?》

림수봉이 석홍범에게 머리를 돌리며 물었다.

《유압뽐프실험문제때문에 왔습니다.》

석홍범이 부원장의 낯빛을 살피며 뒤를 이으려는데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중간압력단계에서 하기로 했다지?》

그는 쏘련에서 돌아오자 곧 과학평의회의 내용을 알아본 모양이다.

《그렇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림수봉이 힘주어 말했다.

《내가 책임지겠소.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면 동무의 의견대로 실험을 합시다. 그러되 최대한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겠소. 만약의 경우를 예견해야 하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휴식일 같은 때를 리용하는것이 좋겠소, 실험에 참가하는 인원도 극히 제한하고.》

석홍범은 북받치는 기쁨에 림수봉의 손을 덥석 잡을번 하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일요일에 양명심동무와 함께 실험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일요일의 어느 시간에 하겠소?》

시간까지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 석홍범은 잠시 생각을 굴리던 끝에 대답했다.

《오후 5시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연구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오후 5시경이면 대체로 집에 돌아가고 경비성원들만이 남군 했다.

《좋소, 그 시간에 나도 나가보겠소.》

《제발 부원장동지는 나오지 마십시오.》

《아니, 나가겠소!》

말마디에 단호히 그루를 박던 림수봉은 이렇게 계속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만간에 우리 과학원에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시였소. 그때 성공한 초고압유압프레스를 보여드립시다.》

석홍범은 가슴이 높뛰였다. 이 기쁜 소식을 양명심에게 알리고싶었다. 그길로 양명심이 들어있는 호실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출입문을 밀어보니 열쇠가 잠그어져있었다.

《그 호실의 녀선생들은 산보를 나갔습니다.》

누구인가가 귀띔을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청소도구를 손에 든 관리원녀인이 복도를 지나가며 하는 말이였다.

석홍범은 아쉬운 기색으로 잠시 그 자리에 서있었다.

## 3

불타던 저녁노을이 사라지고 서켠하늘의 한귀에 불그스름한 흔적만이 남았다. 어디에나 땅거미가 나래를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려관주변은 대낮처럼 밝았다. 무수한 창문들에서 형광등의 휘황한 불빛이 쏟아져내렸다. 은은히 흐르는 둥그스름한 야외등빛은 주차장의 승용차들을 부드러운 색조로 선명히 비쳐주었다.

양명심은 한호실의 녀동무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다. 그 녀동무는 처녀연구사인 송옥희였다. 양명심은 리과대학 전자자동화학부출신인 그를 대학시절부터 알고있었다. 대학에서 조직하는 학생과학토론회에 함께 출연하군 했었다. 려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난 두 처녀는 언제까지나 호실에 그냥 불박혀있을수가 없어 산보길에 나섰다. 려관에서 멀지 않은 보통강유보도를 거닐기로 약속을 했다. 일찌기 과학의 길에 들어선 그들에게는 처녀시절에 누구나 향유하는 산보길이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청춘의 랑만과 사랑을 속삭이며 수많은 처녀들이 애인과 함께 록음속을 거니는 저녁마다 그들은 복잡한 력학계산과 콤퓨터설계에 몰두해야 했다. 그러나 이 저녁에는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즐길수 있었다.

《려관주변부터 한바퀴 돌아보고 유보도로 나가자요.》

옥희가 말했다. 오목한 그의 눈에 다감한 미소가 새물거렸다. 맑은 샘줄기를 련상시키는 미소였다. 모래알을 뿜어올리며 퐁퐁 솟는 샘처럼 그의 미소에는 행복과 희망이 피여올랐다. 철이르게 전자공학계에 나타난 처녀의 가슴에는 이 저녁 남다른 포부와 랑만이 깃들고있을것이다. 명심은 말없이 웃어보이며 그의 청을 따랐다.

옥희는 명상에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때때로 녀성과 과학의 호상관계를 두고 자기딴의 생각에 잠기군 해요.》

《어떻게?》

명심은 흥미를 가지고 눈웃음을 그리며 옥희를 바라보았다. 옥희는 몽롱한 눈길로 아득한 공간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인류과학사를 돌아보면 후세에 이름을 남긴 녀성과학자는 너무도 적어요. 큐리부인이나 쏘피 저맨과 같은 유명한 녀성과학자는 세계적으로도 몇명밖에 안될거예요. 과학은 녀성과 인연이 먼 분야로 인정되여왔지요. 외국의 어떤 책에서는 성별에 따르는 창조활동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썼더군요. 과학이 남성에 가까운 창조령역이라면 예술은 녀성에 가까운 창조령역이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리성적사유능력이 높지만 녀성들은 감성적사유능력이 높다, 그렇기때문에 녀성들은 예술에서 성공률이 높은 반면에 과학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과연 그럴가요?》

《아니.》 명심은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남자와 녀자의 기질차이는 있어도 사유능력의 차이는 있을수가 없어요. 녀자들은 감성적사유가 남자들보다 예민할뿐아니라 지적능력에서도 못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동무의 실례가 그걸 말해주지 않나요.》

《나를 거들면서 그렇게 나오니 말할 재미가 없군요.》

옥희는 눈을 할기였다. 명심은 웃음진 얼굴로 자기의 견해를 말했다.

《지난날의 과학사에서 녀성들의 이름을 찾기 어려운건 사회력사적조건때문이였지요. 오래동안 사회생활에서 밀려났던 녀성들의 불행한 처지가 그들의 과학적재능을 꽃피울수 없게 하였지요. 쏘피 저맨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나요. 뛰여난 수학적재능을 가지고도 녀자인탓에 대학에 갈수가 없어서 남자로 변성명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나요. 그의 연구성과에 의해 에펠탑건축의 수학적기초가 이루어졌지만 오래동안 세계수학계는 그가 녀성이라는것을 모르고있었지요. 후에는 물론 알게 되였지만…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한 프랑스에서 지난 세기 초까지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른 나라야 말해서 뭘하겠나요. 그러한 사회적질곡속에서도 과학보다 예술에 성공

한 녀성들이 많다면 그것은 과학자로 성장하기보다 예술가로 성장하는쪽이 쉽기때문이지요. 아무리 과학적소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과학자로 될수 없지만 음악이나 무용같은 예술분야는 그렇게 높은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자기만 꾸준히 노력하면 소질을 발휘할수 있지요. 우리의 과거력사에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녀성은 많았지만 녀성과학자가 거의나 없었던것은 그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성별에 따라 과학과 예술의 재능을 론하는것자체가 엉터리없는 주장이 아닐가요. 나는 오히려 섬세한 관찰력과 예민한 감수력을 가진 녀성들이 남자들보다 과학적재능을 더 훌륭히 발휘할수 있다고 인정해요.》

《옳아요. 나도 그렇게 주장하고싶어요. 이제 보니 명심동무도 녀성과 과학의 호상관계를 두고 깊이 생각해왔군요.》

《나도 녀자니까.》

두 처녀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난 이제 〈녀성과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론문을 쓰겠어요.》

옥희는 앞을 바라보며 두눈을 반짝였다. 실은 자기가 준비하는 그 론문을 무르익히기 위해 명심에게 말을 걸어온것이 분명했다.

《엉터리주장을 한 외국의 필자를 론박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녀성들을 위해서 쓰겠어요.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남녀간의 온갖 사회적차별이 가셔졌지만 과학을 지망하는 녀성은 많지 못해요. 재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녀성들은 과학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앞세우기때문이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생활을 하는 녀성들의 경우에는 과학연구를 하기가 남달리 어려운것만은 사실이지요. 나는 모든 녀성들에게 호소하고싶어요. 과학전선에서 녀성들은 하루빨리 응당한 위치를 차지하자, 그러자면 사랑과 가정의 행복까지를 과학을 위해 희생할 용기와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것없이는 녀성과학자의 영예를 지닐수가 없다,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진 재능있는 녀성들은 과학전선으로 달려오라!》

옥희는 시구절을 읊듯이 마지막에는 억양을 돋구었다.

《그 호소는 좋은데 녀성과학자가 되려면 사랑이나 가정의 행복

을 희생해야 한다는 론조는 납득되지 않는군요. 옥희동무는 혹시 과학을 위해서 결혼을 단념할 생각을 가지고있는게 아니예요?》

명심은 웃으며 물었다.

《굳이 결혼을 해야 한다면 난 남자가 아니라 과학과 결혼하겠어요.》

《거짓말, 과학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바칠 각오가 되여있다는 뜻이겠지?》

옥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현은 지나쳤지만 그 심정은 공감되였다. 명심은 그를 미더웁게 바라보았다. 그렇다. 남자들보다도 녀성과학자는 자기희생적인 각오가 더욱 높을 때에만 성공에 이를수 있다. 필요하다면 남들이 향유하는 생활의 모든것을 뒤로 미루고 과학탐구에서 인생의 가장 크나큰 행복과 보람을 찾을줄 알아야 할것이다. 바로 그러한 인생관을 지녔기에 사람들은 녀성과학자들을 특별히 존경하는것이다. 다른 기관에 가서 증명서를 내보이면 누구나 이쪽의 얼굴을 선망의 눈길로 다시한번 바라보군 한다.

《옥희동무, 동무의 론문에 이런걸 보충했으면 좋겠어요.》

《어떤걸?》

《남자들에게도 호소하란 말이예요. 진정으로 사랑을 조국의 부강발전과 결합시킬줄 안다면 녀성과학자들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안해의 연구사업을 위해 자신이 도울수 있는것을 다하라고, 그러면 남들이 누릴수 없는 가정의 긍지와 행복을 찾으리라고. 어때요?》

《좋아요!》

옥희는 손벽을 마주쳤다.

나란히 걸음을 옮기던 그들은 려관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홀로 서있는 한 청년을 보았다. 흰 샤쯔에 회색바지를 입은 그 청년은 머리카락이 더부룩했다. 흔히 보아오던 청년들의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과는 달리 어덴가 모르게 초췌한 인상을 주었다. 약간 고개를 젖히고 려관을 줄곧 바라보는것으로 보아 손님들중에서 그 누구인가를 기다리는것 같았다.

무심히 그의 곁을 지나던 명심은 저도 모르게 우뚝 걸음을 멈추

었다. 옥희는 갑자기 창백해지는 그의 얼굴과 커다랗게 뜬 눈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왜 그래요?》
명심은 얼굴을 붉힐뿐 대답하지 못했다. 두번다시 입에서 놀란 소리가 터질가 겁나하듯 얼른 주먹으로 입을 막았다. 그제서야 청년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자기 상념에 깊이 빠졌던 나머지 곁을 지나던 두 처녀의 심상치 않은 행동에 얼른 주의가 가지 못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다음순간에는 그 역시 세찬 타격을 받은듯이 몸을 흠칫했다. 하더니만 인차 고개를 짓숙이고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했다. 명심이와 청년을 번갈아보던 옥희는 두번다시 그 까닭을 묻지 못했다. 함부로 묻기조차 두려울만치 명심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엇갈렸다. 청년은 당황한 낯빛으로 눈길을 허둥거렸다.
《난 저 동무와 아는 사이예요. 그와 좀 조용히 할말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혼자 먼저…》
명심이가 녀동무에게 하는 말이였다.
옥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자리를 피했다.
두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있었다. 서로가 흥분을 진정하려고 애썼다.
《오래간만이요, 명심동무.》
얼마후에 청년이 머리를 들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박치영이였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명심은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박치영을 알아보는 첫 순간에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은 그가 어찌하여 여기에 나타났는가 하는 의혹이였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것은 아니였다. 이렇게 만나고보니 서로가 격렬한 다툼끝에 헤여지던 한해전의 쓰라린 추억이 되살아났다.
가슴속에서는 참을길 없는 의분이 끓어올랐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박치영이 먼저 머리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지금 명심동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할말이… 없소.》

한숨이 엇섞인 갈린 목소리였다. 쓰라린 회오와 수치감으로 그의 얼굴은 한껏 붉어졌다. 그동안 심각한 곡절속에서 많은것을 느끼고 깨달았던 모양이다.

그를 지켜보던 명심은 아픈 말을 하고싶던 용기를 잃었다.

《동무도 이 려관에 들었어요?》

가라앉은 어조로 물었다.

《내가 어떻게 이 려관에 들겠소? 회의때문에 과학자, 기술자들만 드는 려관에 말이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소. 우리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소?》

박치영은 명심의 달라진 낯색을 살피며 간청하듯 말했다.

명심은 망설였다. 하고싶은 말도 많고 그가 지난 한해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싶었지만 어쩐지 주저되였다.

《명심동무, 나는 진정으로 리해를 바라고싶소. 동무앞에서 터놓지 않으면 안될 량심의 가책을 받기때문이요.》

명심은 저도 모르게 측은한 감정에 이끌렸다.

《그럼… 이야기를 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려관옆에서는 이야기를 나눌수 없었다.

그들은 보통강변으로 향했다. 교예극장을 지나서 유보도에 이르렀다. 유보도의 량옆에 펼쳐진 버드나무숲은 조용히 설레였다. 군데군데 가꾸어진 꽃밭들에서 풍기는 향기가 강바람에 실려왔다.

그들은 의자에 사이를 두고 앉았다.

담배를 붙여물던 박치영이 입을 열었다.

《나는 동무가 어떻게 듣던지간에 지난날을 숨김없이 터놓고싶소. 거기에 대한 동무의 판단은 상관하지 않겠소.》

《어서… 말하세요.》

《동무는 믿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선망속에서 사진과 이름이 제련소신문과 속보판에 나붙던 시기에 나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였소. 극도에 달한 허영심과 공명심에 분별을 잃었댔소.》

박치영은 차마 마주볼수 없는듯 외면을 하더니 나직이 뒤를 이

었다.
《압착가공설비가 실패한 후에 나는 조직적인 비판도 받으리만큼 받았고 귀먹은 욕도 들을대로 들었소. 나는 뼈저린 뉘우침과 절망감에 시달렸소. 누구도 몰래 사람들의 면전에서 사라져버리고싶더란 말이요.》
박치영은 목이 메여 말을 끊었다.
명심은 서느러운 눈매로 그를 바라보았다. 생활은 얼마나 공정한 심판관인가. 그는 응당 받아야 할 생활의 심판을 받았다.
박치영은 입술에 주먹을 대고 마른 기침을 톺더니 말을 이었다.
《그 시기에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난과 조소를 묵묵히 새기도록 나를 지탱해준것은 포기할수 없는 과학적지향이였소. 이것은 오늘 내가 동무앞에서 처음 하는 말이요. 새롭게 찾은 옳바른 궤도를 따라 연구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때든지 성실한 노력으로 잃어버린 모든것을 되찾게 되리라고 생각했소. 그러나 공업시험소에는 그냥 눌러있을 면목도 없고 누구도 다시 나의 연구사업을 믿어줄것 같지도 않았소. 여러가지로 생각던 끝에 부업농장으로 나가겠다고 제기했소. 부업농장 책임자가 나에게서 학습방조를 받던 동무였소. 농장으로 나가면 일을 하면서 연구사업을 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을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할수도 있었소. 그런 속심은 숨기고 제련소에는 로동현장에서 자신을 수습하고싶다고만 하였소. 그 말을 곧대로 들은 로동과장은 간부들과 토론을 하고 배치장을 떼주었소. …》
다음날 농장책임자 한석규가 화물차를 끌고 제련소에 왔던김에 박치영을 찾아왔다.
《농장기계화작업반에 적을 두고 연구사업을 계속하오. 전적으로 보장해주겠소.》
한석규는 이미 그런 약속을 했었다.
박치영은 그동안 자작 만들어쓰던 간단한 실험설비들과 책들을 화물차에 걸어싣고 농장으로 나갔다.
한석규가 눈물이 나도록 고마왔다. 그럴수록 농장에서 고장난 농기계들을 책임적으로 수리했다. 기계공학전문가는 아니였지만

압착가공설비를 연구하는 과정에 익힌 그 분야의 지식으로 농기계쯤은 쉽게 수리할수 있었다. 수리할것이 없을 때면 연구사업에 몰두했다. 피를 물고 새롭게 접어든 연구사업이여서 며칠밤을 꼬바기지새우는 때가 많았다. 때로는 자기의 처지에서 그 무엇을 연구하는것이 부질없는 일이 아닐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성공의 여부는 둘째치고 탐구의 사색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생활을 이어갈수가 없었다. 그마저 포기한다면 자기의 생활에 아무런 뜻이 없을것 같았다. 이러나저러나 명민한 두뇌와 불타는 탐구욕을 가진 박치영은 과학과 뗄수 없는 인연을 가진 청년이였다. 한해동안의 고심참담한 노력끝에 티탄합금가공의 새로운 기술적특성을 발견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자신을 구원할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았다. 그는 금속공학연구소를 찾아갔다. 손관식소장에게 다시 연구소에 받아줄것을 간청했다. 자기의 노력이 연구소가 지향하는 초소성가공방법에도 커다란 기여가 되리라고 믿었던것이다. 그러나 손관식은 비웃음을 보냈다.

《우리 연구소에서 떠나가던 때를 잊지야 않았겠지?…》

말끝을 길게 끌며 이쪽의 내심을 꿰뚫어보듯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제가 지난날을 두고 얼마나 심각한 후회와 수치를 느꼈는지 아마 소장선생은 모를겁니다. 지금에 와서 저는 새롭게 연구하고싶습니다. … 일정하게 연구성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연구소의 문전에 코를 들이미는게 참으로 놀랍소.》

그제야 박치영은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여기에 찾아왔다는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원망이 손관식소장의 머리속에 깊이 박혀있으리라는것을 미처 타산하지 못했던것이다. 그가 이렇게 나오는것을 보면 양영복박사는 두번다시 자기의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할것이다. 달아오른 얼굴을 싸쥐는데 손관식의 노기어린 목소리가 다시 머리우에 떨어졌다.

《어서 물러가게. 나는 두번다시 동무가 과학연구에서 줄타기를 하도록 바줄을 잡아주는 어리석은짓을 하지 않겠네.》

박치영은 거멓게 기름때가 묻은 연구기록장을 집어들고 연구소를 나섰다. 여지없이 모멸을 당한 서글픔이 치밀면서 눈물이 나왔다.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손관식의 랭혹한 태도를 탓할것도 없다. 그가 말한대로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연구소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단 말인가? 모든것은 자신의 과거가 빚어낸 후과였다. 새로운 출발선우에서 연구성과를 이룩하면 어느때든지 자기의 존재를 다시 떠올릴수 있다는 희망, 과연 그것이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허망한것이 아니였을가? 절망감에 눈앞이 아뜩해졌다. 과학계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듯 한 자신을 발견했다. 연구소의 울타리옆을 지나 언덕밑의 오물장에 이르렀을 때 걸음을 멈추었다. 오물장에는 탄재와 쓰레기가 무드기 쌓여있었다. 그는 입술을 앙다물고 학습장을 찢기 시작했다. 학습장은 어지간히 두터웠다. 두손에 있는 힘을 다해 량쪽으로 잡아당겼지만 좀처럼 찢기지 않았다. 자신을 찢어발기는 심정으로 손가락이 저리도록 다시 힘을 주었다. 마침내 찢기기 시작하면서 아츠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 음향이 사랑하는 생명체의 비명처럼 귀가로 흘러들며 모질게 심장을 비틀었다. 그 동통에 전률하듯 몸을 흠칫하며 손을 멈추었다. 절반쯤 쭉 갈라진 학습장을 움켜잡은 두손이 떨렸다. 비록 몹쓸놈의 두뇌에서 태여난것이라 하더라도 이 연구기록이야 가치있는것이 아닌가? 때늦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절망과 환멸의 화풀이를 애꿎은 연구기록장에 가했던것이다. 이것 역시 못난 짓이 아닌가. 용서를 빌듯이 학습장의 찢겨진 자리를 쓰다듬었다.

《그게 치영동무가 아닌가?》

길쪽에서 무척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였다. 웅크리고앉은채로 피끗 목을 돌려보니 양영복박사가 서있었다. 시내에 나갔다가 연구소로 돌아오는 걸음인것 같았다. 재빨리 그의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돌리였다. 금시 원한에 사무친 로인의 욕설이 머리에 떨어지는듯 하여서 몸을 한껏 옹송그렸다. 그의 정당한 학술적주장을 질투와 시기심의 표현이라고 만사람앞에서 부르짖던 자신이 되새겨졌다. 땅속으로 금시 잦아들고싶었다. 인차 사라지지 않고 연구소옆

에서 어물거린것은 또 하나의 실책이였다.

《거기서 뭘하고있어?》

엄한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이쪽을 알아보고 다가온 모양이다. 박치영은 하는수없이 일어섰다.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떨리였다.

《못난 녀석같으니, 과학계를 도피해서 농장으로 몸을 사렸다지?》

박치영은 고개를 짓숙인채 오열을 삼켰다. 로인의 성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잔뜩 주접이 들어서 눈물을 쥐여짜며 다니다니! 나는 과학자로 한생을 살면서 너보다 더한 실책도 저질렀고 더한 곡절도 겪었다. 너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댔지만 인제는 개심을 하고 나의 조수로 되돌아오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여태 면전에 나타나지도 않았지, 고현 놈!》

그의 목소리가 쿵쿵 흉벽을 두드렸다. 로학자의 그 너그러움, 육친의 정으로 꾸짖는 그 심정… 이런 선생님을 배신하고 억울히 비난했던 나는 진정 사람이 아니였구나! 《선생님!》 하고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흐느끼던 박치영은 알수 없는 힘에 떠밀리우듯 휘청거리다가 휙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차라리 배척과 규탄을 받았다면 분별을 잃지 않고 용서를 빌었을것이다.

양영복선생의 태도는 너무도 예상밖이였다. 수치와 공포를 예감하며 한껏 위축되였던 몸이 감동의 격랑에 휘몰리웠다. 그래서 그의 면전에서 무작정 달아나고싶은 충동이 불같이 치밀었던것이다. 걷잡을수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며 《선생님! 선생님!》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얼마를 달렸는지… 힘이 진해서 가로수줄기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뒤를 돌아보니 이미 양영복선생은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은 나의 행동을 어떻게 리해했을가? 비겁하게도 수치감을 이기지 못해 달아나버렸다고 단순히 생각하지 않을가?… 연구를 거듭해서 한점의 티도 없는 연구성과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리라!

그날부터 박치영은 전날처럼 곁에서 자기를 친절히 깨우쳐주는 양영복의 존재를 마음속에 의식하며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러다가 그저께 인민대학습당으로 올라왔다. 오늘 저녁에 봉화산려관에 나타난것은 선교려관에 함께 들어있던 해주에서 온 벼재배연구사가 과학자회의참가자로 이리로 옮겨오기때문에 가방 하나를 들어다주려고 따라왔던것이다. 그 연구사는 접수원처녀한테 같이 온 박치영이도 함께 지내도록 하여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려관접수원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려관에는 과학자, 기술자협의회 참가자들만이 류숙할수 있습니다.》

박치영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같이 온 연구사에게 어서 호실에 가보라고 등을 떠밀고는 도망치듯이 려관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그는 선교려관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으나 왜서인지 얼른 걸음을 뗄수 없어 그 자리에 서있었던것이다.

《…그때 뜻밖에도 동무가 나타났던거요.》

이야기를 마치며 박치영은 불빛이 어린 강물을 바라보고있었다. 양명심은 입을 열지 못했다. 안타까운 침묵이 길게 흘렀다. 동강난 화제를 이어보려고 애쓰던 박치영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이렇게 물었다.

《참, 과학지구건설에 황석태동지가 자원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소? 9월제련소 당비서를 하던 사람 말이요.》

《모르겠어요.》

《하긴 수천명의 돌격대원들이 동원되였다니까 모를수 있겠지.》

박치영은 실망조로 중얼거렸다. 황석태가 제련소를 떠나간 다음부터 그의 소식을 딱히 알길이 없었다.

《치영동무의 지나온 얘길 들으니 나도 가슴이 아프군요.》

줄곧 추연한 눈길로 박치영을 지켜보던 명심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여나갔다. 이 순간에는 그가 받은 정신적타격이 애달프게 느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참말이지 동무나 양선생앞에 면목이 없소.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스스로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가 없소.》

박치영의 얼굴에 짙은 고뇌의 빛이 떠올랐다.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자, 그럼 안녕히…》

서둘러 작별인사를 남긴 명심은 그 자리를 떠났다. 그냥 있으면 복잡하게 뒤번지는 자기 마음을 다잡기 어려울것 같았다. 빠른 걸음으로 동뚝에 올라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강쪽으로 돌아선 박치영은 외로이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와 헤여지고보니 가슴 한귀가 허전했다. 과거의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교훈을 찾고 새롭게 살아보려는 그를 지나치게 쌀쌀히 대한것은 아니였을가? 지난날의 원망이 아직 나의 가슴속에 사무쳐있다는것은 회복을 갈망하는 첫사랑의 아픔이 그대로 살아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할아버지는 지금에 와서도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있다. 박치영자신이 눈물로 절규한것처럼 그런 할아버지를 숱한 사람들앞에서 모욕했던 그는 진정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오늘에는 그가 옳바른 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과학자로, 의리와 량심을 지킬줄 아는 참된 인간으로 될수 있지 않을가? 방금전에 만난 그는 전에없이 진지했다. 딴 사람을 보는것 같았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그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수는 없다. 이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서로가 앞으로 성실하게 대한다면 첫사랑의 지난날을 되찾을수 있지 않을가? 여러 갈래로 뻗어가는 의문에 스스로는 그 어떤 결론도 찾을수 없다. 그저 생활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싶을뿐이다.

## 4

석홍범과 양명심은 중간공장의 작업장에 들어섰다. 림수봉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정밀가공을 위한 공작기계들이 서있는 그 한옆에 새로 제작한 초고압유압뽐프가 놓여있었다. 작업장안은 호젓했다. 다른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무겁게 드리운 괴괴한 정적이 세 사람을 맞이했다. 실험과정에 폭발의 위험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이 시간을 택했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오전에 나왔던 연구사들과 로동자들도 오후에는 모두 집

으로 돌아가버렸다.

《부원장동지는 제발 돌아가십시오. 우리끼리 실험을 하겠습니다.》

석홍범은 애원하듯 간절히 말했다.

이미 그런 말을 여러번 들었던 림수봉은 아무런 응대도 없었다. 그는 양명심을 데리고 철판으로 둘러친 안전막으로 들어갔다.

석홍범은 초고압유압뽐프를 향해 그 무엇을 다짐이라도 하는듯 한동안 지켜보더니 스위치를 넣었다. 그는 자기가 제작한 기계의 성능을 확신하기때문인지 불안한 기색이 별로 없었다. 은은한 전동기소리와 실린더의 저력있는 동음이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기 시작했다.

석홍범이도 안전막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긴장하여 앉아있는 두 사람을 안심시키듯 미소를 보냈다. 그리도 기다리던 기계의 동음을 듣게 된 기쁨만이 그를 휩싸고있었다.

림수봉은 유압뽐프에 시선을 박고 그 동음에 한껏 귀를 도사렸다. 양명심은 수첩을 펼쳐들고 각이한 압력에서 나타나는 부분품들의 동작상태와 여러가지 수치들을 기록했다.

작업기름의 압력이 점차 높아졌지만 별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압력계의 바늘이 1 000기압을 가리켰지만 한방울의 기름도 기밀부위로 새지 않았다.

석홍범은 안전막사이로 손을 뻗쳐서 유압뽐프의 조종변을 서서히 돌리였다. 점점 높은 수자를 짚어가는 압력계의 바늘끝이 바르르 떨었다. 1 500, 1 600, 1 700… 기계의 동음이 불안스레 높아졌다.

림수봉은 등골로 진땀이 흘렀다.

《인젠 그만하지. 새로운 기밀장치가 1 700기압을 견디여냈다는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요.》

림수봉은 숨가쁜 어조로 권고하며 석홍범의 팔굽을 잡았다.

《끝까지 올려봅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며칠내에 과학원으로 나오신다는데 그때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드려야 할게 아닙니까!》

석홍범은 결연히 말했다. 림수봉은 그의 얼굴에 떠오른 비장한 결심을 보고 팔굽을 잡았던 손을 놓았다.

석홍범은 조종변을 2 000기압으로 올렸다. 목표로 내세웠던 최후의 압력이였다. 세사람의 눈길이 부딪쳤다. 서로 붙안고 환희를 터치려는 순간이였다. 정신이 아뜩해오면서 온몸을 후려치는 타격에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다음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

느닷없이 울리는 폭발소리에 강민옥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폭발소리는 어지간히 떨어져있는 주택마을에 어렴풋이 들려왔다. 다른 사람들은 가려듣지 못했을것이다. 신경을 도사리고있던 강민옥의 귀에는 분명히 들리였다. 그는 저녁밥을 짓다말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행주치마를 허리에 두른채 정신없이 달리였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서 앞뒤를 가릴수 없었다. 현장에 이른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공장은 창유리가 부서지고 한쪽벽체가 허물어져버렸다. 황황히 남편을 찾아 공장안으로 들어갔다. 기름에 매닥질이 된 작업장에는 몇대의 공작기계가 나자빠져있었다. 그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여럿이였으나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근심어린 목소리로 파괴된 공작기계값이 얼마라고 하였다. 참을수 없는 의분이 치밀었다. 처참한 전경으로 보아 그속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이 무사할리 없었다. 이런 판에 공작기계가 뭐라고 그 값을 따지고 있는가? 그처럼 무정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사나운 눈길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심정을 꿰뚫어본 한사람이 말했다.

《아주머니, 인명피해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민옥은 남편을 찾아서 그 무엇에 걸채이며 다시 밖으로 달려나왔다. 공장 왼쪽모서리에 또 한패의 사람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고있었다. 그들중에서 얼굴과 옷에 온통 기름을 들쓴 사람이 눈에 뜨이였다. 모습은 알아볼수 없었으나 목소리는 귀에 익었다.

《우리는 2 000기압까지 올렸댔소. 새 기밀방법이 성공했소!》

남편은 그런 처참한 모습을 하고도 환희에 넘쳐 웨쳐댔다. 폭발의 순간에 저이가 그만 실성해버린게 아닐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는 결코 저럴수가 없었다.

《여보, 당신 제정신이예요?》

민옥은 와락 달려가서 남편의 팔굽을 붙잡고 애처롭게 부르짖었다. 남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구질어진 옷자락에서 점점이 떨어지는 기름이 문양고운 원피스와 깨끗한 행주치마에 얼룩을 그리였다.

《여보, 당신의 옷에 기름이 게발리오. 물러서오.》

결코 실성한 사람의 입에서는 흘러나올수 없는 다심한 목소리였다. 민옥은 남편의 얼굴에 의혹의 시선을 박았다. 흑인처럼 되여버린 얼굴의 표정은 알아볼수 없었으나 눈동자는 유난히 반짝였다. 남편은 자기의 옷주제를 되돌아보더니 흔연한 어조로 부탁했다.

《마침 당신이 왔구려. 얼른 집에 가서 내 옷을 가져다주오. 목욕을 하고 옷부터 갈아입어야 하겠소.》

민옥은 남편의 사고가 정상이라는것을 알았다. 차후 일이야 어찌되든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경황없이 집으로 달려가서 옷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목욕탕은 중간공장과 잇달려있었다. 목욕탕에 들어간 남편은 좀처럼 나올줄 몰랐다. 기름투성이가 되여버린 몸을 씻다보니 시간이 걸리는가싶었다. 한시간나마 기다려서야 남편이 나왔다.

말끔히 목욕을 하고 새옷을 갈아입은 그는 신색이 전에없이 밝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의 소원을 이룬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환희가 비껴있었다. 하마트면 생명을 잃을번 하였고 건물과 공작기계들을 파괴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는 사람이 어쩌면 저럴수가 있을가?

《여보, 인제는 초고압유압프레스를 성과적으로 만들게 되였소. 여태까지 앙탈을 부려온 당신도 자기의 남편이 무엇을 해냈는가를 알게 되였소!》

넋을 잃은 사람처럼 혼자 벙글거리던 그는 안해의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가슴속에 넘치는 기쁨이 분별을 잃을만큼 그를 들뜨게 하

였다. 확실한 성공을 보게 되는 지금 지지리 속을 태우던 안해에게도 전에없이 너그러워지고 살틀해졌다. 지난날의 불쾌하던 다툼의 기억들도 하찮게 여겨졌으며 어쩌면 그것이 오늘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것이 아니였던가 하는 생각조차 들었던것이다. 강민옥은 남편의 열뜬 감정에 이끌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하던 안전원(당시)들중의 한사람이 그들에게로 왔다. 얼굴이 갱핏한 젊은 대위였다.

《동무가 석홍범연구사이지요?》

《그렇습니다.》

석홍범은 떳떳이 대답했다.

《안전부로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물을것이 있으면 여기서 물어보시오. 내가 안전부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위는 석홍범의 태도가 뜻밖인듯 한동안 말없이 아래우를 훑어보기만 하였다. 하더니만 위압적인 어조로 날카롭게 말하였다.

《동무는 과학평의회결정을 무시하고 무모한 실험을 하다가 국가에 큰 손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응당 조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동무네한테서 조사를 받아야 할 죄를 범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죄이지요.》

《죄?-》 하고 랭소하듯 되받아외운 석홍범은 성난 어조로 반발했다.

《안전원동무는 내가 연구한것이 현대유압공학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알기나 합니까?》

《이 동무가?》

아마도 젊은 대위는 여태껏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 이런 상대를 처음 대하는듯 한 표정이였다.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하듯 뚫어지게 쏘아보더니 명령조로 말했다.

《동무는 나와 함께 안전부로 가야 합니다!》

《정 그렇다면…》

석홍범은 어엿한 자세로 대위를 따라섰다. 그는 몇걸음 걷더

니 머리를 높이 들고 안전원보다 한발 앞섰다. 안전원에게 이끌려 가는것이 아니라 안전원의 호위를 받으며 가는듯 한 그런 몸가짐이였다.
강민옥은 어리둥절하여 선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겁질린 눈으로 멀어져가는 남편을 뚫어지게 주시했다. 남편의 당당한 태도가 더욱 불안했다.
《걱정하지 마오. 안전부에서 몇가지 알아보고 인차 돌려보낼거요.》
어데서 왔는지 곁에 나타난 림수봉이 이렇게 말했다.
민옥은 당황했던 감정을 수습했다. 그처럼 위험한 고비를 겪고나서도 실험에서 성공을 했다고 기쁨에 넘쳐 부르짖던 남편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다.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아온 남편이다.
지금까지 느끼던것과는 전혀 다른 남편에 대한 애정과 긍지가 가슴에 차올랐다. 그에게 원망과 불만을 품어왔던 자신이 죄스럽기도 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남편인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오늘에 그 깨달음이 심장에 사무쳐오는것은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다. 민옥은 지난날의 잘못을 보상하고도 남으리만큼 남편을 열렬히 옹호하고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 5

림수봉은 남편이 별일 없을것이라고 하였지만 강민옥은 좀처럼 불안에서 헤여날수 없었다. 그는 안전부에 불리워간 남편을 두고 속을 썩이던 나머지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고 친정으로 갔다. 아버지는 사회안전부와 중앙검찰소에 아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이 무사하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하려고 했었다. 민옥의 생각에는 남편이 무사할것 같지 않았다.
아버지는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꼭 부탁할게 있어서 왔어요.》

민옥은 저녁상을 물리고난 아버지를 조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입을 열기가 수월치 않았다. 평성에 남편을 따라나간 후로 뻔질나게 찾아오는 친정이지만 부모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이란 있어보지 못했다. 새살림에 필요한 그 무엇을 가져가기 위해 찾아오거나 가정불화로 흐려진 기분을 가시기 위해 찾아오군 했었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그러한 걸음을 거듭하는것이 죄스러웠다. 더구나 이번 걸음은 아버지에게 시끄러운 부담으로 될것이 명백했다.

《무슨 부탁이냐?》

무심히 되묻던 아버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딸의 그늘진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유압뽐프실험이 있었는데 그만…》

《그만 어찌되였다는거냐?》

아버지는 미간을 찌프리며 뒤를 재촉했다. 이때 부엌에서 설겇이를 끝낸 어머니가 방안에 들어와 앉았다. 어머니에게는 여적 저간의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지만 앞질러 어머니의 속을 태워드리고싶지 않았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두사람의 얼굴을 번갈아보던 어머니가 나직이 물었다.

민옥은 아버지의 낯색만을 살피면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전후사연을 설명했다.

말없이 듣고난 아버지는 지그시 두눈을 감고 침묵했다.

《아버지, 과학실험을 하다가 저지른 사고이기때문에 다른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법적인 제재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하나 지금 손을 써서 무사하게 해야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민옥은 간절히 애원했다.

아버지는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다.

《내가 어떻게 무슨 낯으로 법기관에 말을 한단 말이냐. 처부모도 부모인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만 세우더니… 그 사람이 우리 금속공업부 무역회사 해외출장소에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

겠니? 하는수없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명해서 외국에 내보냈다. 그런데 재목이 못되는 사람이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를 하다보니 첫 거래부터 밑지는 장사를 했단 말이다. 국제시장가격보다 우리의 강철을 눅게 팔았거던. 조국에 돌아온 그 사람을 오늘 호되게 추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홍범이를 원망했다. 홍범이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게다. 내 권고를 듣지 않고 제 하고싶은대로만 하더니 젠장…》

아버지는 전에없이 성을 냈다.

민옥은 더 말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그럴만도 하였다. 한쪽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근심스레 한숨을 톺던 어머니가 참견을 했다.

《여보,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사위가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강건너 불보듯 하겠소. 사회안전부에 당신이 잘 아는이들이 있지 않소. 래일이라도 틈을 내서 찾아가보구려.》

《듣기 싫소. 그건 치외법권을 원하는거나 같소.》

《제 딸을 봐서라도 어떻게 그럴수가 있소?》

《내가 나선다고 될일이 아니란 말이요. 나라의 경제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때에 수입제공작기계를 석대나 마사먹었다니 어떻게 무사할수 있소. 사위가 아니라 딸이라도 그렇겐 못해. 응당 교훈을 찾아야지!》

사위에 대한 아버지의 원망과 분노가 그대로 자기에게 퍼부어지는듯 하여서 민옥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수치와 모멸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무참히 깨여지는것을 의식했다.

초인종이 울리였다. 때아닌 때에 누가 찾아왔는가? 세사람은 일시에 마뜩잖은 시선을 복도쪽에 겨누었다. 또다시 초인종이 울리였다. 어머니가 하는수없이 무릎을 짚고 움쭉 일어나서 전실로 나갔다. 출입문 열리는 소리에 남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금속공업부 부부장동지댁이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뉘신지?》

《금속공업부 무역회사 해외출장소에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서로 주고받는 어머니와 손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뒤이어 그들이 나타났다. 민옥에게는 손님이 낯선 사람이였다. 그러나 방금 듣게 된 말을 통하여 그가 누구라는것을 알았다. 언젠가 아버지가 사위에게 그토록 권고하던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다. 자기 또한 한때는 황홀한 꿈을 안고 남편이 해외출장소로 날아가기를 원했었다. 남편이 끝내 거역한탓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그 자리를 차지한 손님을 보는 순간 질투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민옥은 재빠른 시선으로 그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회갈색바지에 같은 색갈의 남방샤쯔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그의 몸에서는 연한 향수내가 풍기였다.

《동무가 어떻게 왔소?》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메마른 어조로 물었다. 사위를 두고 성을 내던 기분을 채 가시지 못했기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불만때문인지 뻣뻣하게 대하였다. 그러나 손님은 그것을 이미 예견하였는지 불쾌감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당황해하지도 않았다. 들고온 외국제려행용가방을 보란듯이 앞으로 돌려서 두손으로 모두어잡고 미안한 기색을 지어보일뿐이였다.

《낮에 부부장동지의 비판을 받고 뉘우치는바가 많았습니다. 조용히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내 방으로 가세.》

아버지는 손님을 데리고 자리를 떴다.

민옥은 옆방으로 건너가는 손님의 뒤모습을 싸늘한 눈길로 주시했다. 뉘우치는바가 많으면 사무실에서 자기비판을 할것이지 무엇때문에 집에까지 찾아오는가? 꺼질듯 한 어머니의 한숨소리에 머리를 돌리였다.

《너희들 일이 참 안되였구나.》

단둘이 남게 되자 어머니는 딸을 측은히 바라보며 한탄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네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가는 한뉘 마음고생만 할것 같구나. …》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한탄하듯 말했다. 민옥은 어머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니 나더러 어찌란 말인가. 헤여지라는 말인가. 어째선지 어머니의 말마디들이 예리하게 가슴에 박히였다. 남편이 과학원으로 진출한 후 다툼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지만 다른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여본 일이 없었다. 자기로서는 남편의 지향을 전혀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자 더는 다투지도 않았다. 공연한 가정불화를 거듭 일으키는것은 부질없는 일이였다. 남편이 새로운 기밀방법을 착상하게 된 다음부터는 점차 그의 연구사업에 관심을 돌리였다. 참말로 그의 착상이 현실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유압공학에서 어떤 전변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알았다. 그것을 위하여 남편은 생명의 위험까지를 무릅쓰고 실험을 단행했다.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남편을 배신하라고 이 딸에게 권고하다니?!…

어머니는 딸의 시선을 피하여 삑 돌아앉아서 자꾸만 한숨을 쉬였다.

민옥은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한때 자기네가 신혼생활을 하던 그 방이였다. 그는 전등도 켜지 않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친정부모들을 생활의 기둥처럼 믿고 사흘이 멀다하게 찾아오던 지난날이 되새겨졌다. 지금에 와서 보니 그 기둥은 좀이 쓸대로 쓸어서 잘못 의지하다가는 여지없이 나자빠질수 있는 그런것이 아닌지… 그런줄을 모르고 남편보다 부모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온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아버지의 말이면 무조건 옳은것으로 여겨왔다. 안일한 생활태도와 남편의 과학적지향에 대한 불만이 나의 머리속에 자라난것이 어느 정도는 부모들의 영향이 아니였을가? 다 자란 자식이 자기의 잘못을 부모의탓으로 밀어붙이는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처사일것이다. 자기로서의 견해와 판단력을 못 가진 부실한 자식의 변명일것이다. 나의 그릇된 사고방식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불찰이다.

민옥은 잠들지 못하고 뒤채다가 새벽에야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늦잠을 깬 그는 세면을 하고 부모들의 방으로 건너갔다. 어머니가 밥상을 챙겨놓고 기다리고있었다.

《아버지는 어데 갔어요?》

《출근을 했다. 무슨 잠을 그렇게 자니?》

무심히 시계를 보니 8시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어머니가 밥상우에 씌웠던 흰 보자기를 벗기였다. 밥상우에는 외국제 고기통졸임들과 음료통졸임이 여러개 올랐다. 민옥은 의아한 눈길로 통졸임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웬거예요?》

《어제 저녁에 왔던 그 사람이 가져왔더구나.》

어머니는 귤물통 하나를 집어들고 뚜껑을 따서 딸에게 주었다.

《난 아까 맛을 보았다. 얼마나 향기롭고 시원한지 모르겠더라.》

민옥은 귤물통을 바라보았다. 해외출장소 책임자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두툼한 려행용가방이 생각났다. 가방속에는 무엇인가 많았었다. 그는 낮에 아버지로부터 비판을 받고 뉘우치는바가 많아서 집에까지 찾아왔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였고 찾아온 속심은 달랐다.

어머니는 느슨한 웃음을 지으며 은근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그 사람이 어제 밤 돌아갈 때 나한테 봉투 하나를 쥐여주더구나. 간 다음에 속을 뽑아보니 외화가 들어있지 않겠니. 인사를 차릴줄 아는 사람이더라.》

《아버지도 그걸 알고있어요?》

《오늘 아침 보여드렸다. 그랬더니 막 욕을 하더라만… 어쩌겠니. 가져온거야 받아야지.》

민옥은 어머니가 받은 그 외화가 어떻게 생긴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추리했다. 해외출장소 책임자는 무엇인가 양보하면서 상대로부터 사례금 아니, 뢰물을 받았을것이다. 그 사례금의 일부가 어머니의 손으로 흘러들었다. 한쪽에서는 나라의 부강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희생시키면서 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를 바칠 각오를 가지고 과학을 탐구하고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의 재부로 부정거래를 하며 제 주머니를 채우는 행위가 벌어지고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대조인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두 극단을 보게 되니 참으로 형용 못할 심정이였다. 밥술을 멈춘채 눈물을 머금었다.

## 6

과학지구는 이 아침도 여느날과 다름없이 긴장한 탐구의 사색이 숙연히 흐르고있었다. 새날의 일과가 시작된지도 이슥하였다. 독서와 실험에 심취된 학자들의 상념은 과학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구내에는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수십개의 연구소들이 밀집되여있는 과학지구는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지만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구내가 조용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구내의 그 정적에 압도되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고도로 집중된 정신적 창조의 세계가 펼쳐지는 과학의 전당에 들어섰다는 엄숙한 느낌을 받게 되는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원청사로 꺾어드는 도로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뒤따르는 수행원들의 차들도 멈추게 하시였다. 승용차행렬이 구내를 달리면서 학자들의 사색을 깨쳐서는 안되였다. 학자들의 사색은 그 순간순간이 다른 분야의 로동시간으로는 계산할수 없는 값높은 가치를 담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속적으로 집중되여야 할 그들의 사색을 방해하는것은 누구도 허용할수 없는 일이라고 간주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허리에 손을 얹고 과학지구를 둘러보시였다. 수행한 일군들이 그이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고중환은 그 누구의 영접도 없이 그이를 과학원에 모시게 된 사실이 그지없이 마음에 걸렸다. 어제 그이께서는 과학원에 함께 나가보자고 하시면서 학자들이 밖에 나와서 요란스레 환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아침 그이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고 과학원일군들에게 지시도 하지 못했던것이다.

과학원 책임일군들이 그이의 앞으로 달려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시다가 누구의 손에나 사업수첩과 만년필이 쥐여져있는것을 띄여보시였다.

《갑자기 찾아와서 동무들의 사업을 방해한게 아닙니까? 뭘하댔

습니까?》
《당위원회 모임을 했습니다.》
키가 훤칠한 책임비서의 말이였다.
《우리때문에 회의를 중단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금 회의를 끝내고 여담을 나누던중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건설장을 돌아봅시다. 내 이미 림수봉동무에게 말한바 있지만 과학지구 건설정형을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그이께서는 오래전부터 과학지구를 훌륭히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품고 개별적건물들의 설계까지 보아주시였다. 전국의 여러곳과 군부대들을 찾으시고 새로 일떠선 건축물들을 보실 때마다 과학지구건설을 생각하시였다. 하지만 지난 한두해동안은 어쩔수 없이 과학지구건설에 건설력량을 집중할수 없었다.
착공을 한지 한해가 넘었는데 축조를 못한 살림집이 여러동이였다. 언덕우에 터를 잡은 몇동은 이제 겨우 기초를 한데 불과했다. 고중환을 통해 시원치 못한 건설실태를 진작 알고계셨지만 현지에 와보니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건설장은 발을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길이 험하였다. 자동차바퀴에 짓이겨진 흙이 비죽비죽 솟았고 파헤쳐진 웅뎅이와 벽돌무지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안으로 들어갈수록 길이 더 험하고 어지럽습니다.》
림수봉이 말씀드렸다.
《일없습니다. 건설자들이 무거운 돌짐을 지고 오가는 길인데 빈몸으로야 왜 못 가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주택지구를 한눈에 부감할수 있는 언덕우에 오르시였다.
《아이들의 놀이터와 공원은 주택지구 어디에 예견하고있습니까?》
《그런것은 아직 예견한것이 없습니다.》
일군들속에 새로 나타난 중년남자가 대답했다. 세멘트물이 군데군데 튕긴 작업복차림새와 볕에 그을린 얼굴색으로 보아 건설현장일군인것 같았다.

《동무는 누굽니까?》

《이곳 건설장 책임잡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겠습니다.》하고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이 주택지구에 놀이터와 공원을 특색있게 꾸려야 하겠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에게 과학적환상을 키워줄수 있는 유희시설들을 갖추어주고 공원은 우리 학자들이 산보를 하면서 사색을 하고 서로 마주앉아 학술론담도 할수 있게 꾸려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제는 연구소건설장들을 돌아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자리를 뜨시였다. 림수봉이 길을 안내해드리였다. 언덕을 내린 일행은 단층주택마을을 꿰지른 골목길을 걸었다.

그이께서는 추녀낮은 단층집들을 둘러보시였다. 이런 집에서 생활하는 학자들과 그 안해들의 불편이 날날이 헤아려지시였다. 그럴수록 하루빨리 그들에게 훌륭한 주택을 마련해주고싶으신 생각이 불같이 치미시였다.

문득 과학자려관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그밤이 되새겨지시였다.

그때의 안타깝던 심정이 지금의 감정과 하나로 겹치였다.

과학자려관건설은 지금 마감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20층에 361개의 손님방을 가진 과학자려관은 내부설비도 그 어느 려관보다 훌륭히 꾸려지고있다. 출장온 과학자들이 려관방에서도 탐구의 사색을 마음껏 펼쳐갈수 있게 될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은 집에 들어와서도 조금의 불편도 없이 생활하고 탐구해야 한다. 그들의 살림집 역시 과학자려관처럼 나무랄데없이 꾸려져야 할것이다.

골목길을 빠져나온 일행은 큰길을 건너 과학지구구내에 들어섰다. 정문을 벗어나자 곧게 뻗은 통로의 량옆으로 길다란 대형게시판이 서있었다. 오른쪽에는 연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과학자들을 소개하는 속보들이 나붙었고 왼쪽에는 과학지구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의 로력적위훈을 소개하는 속보들이 나붙어있었다.

주먹같은 글자에 색조를 맞추어 그림을 그리고 장식을 한 속보제목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량쪽의 속보들을 번갈아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한곳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성천중대 대원 황석태아바이 벽돌축조에서 련일 200%돌파!!》

속보원은 그 짧은 글에 구체적인 사연을 다 전할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듯 글자보다 더 큰 감탄부호를 두개나 쳐놓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뒤따르는 건설장책임자에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저 속보에 소개된 황석태가 9월제련소 당비서를 하던 동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평남도당에서는 그에게 고향인 성천군의 어느 지방산업공장 직맹사업을 맡기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도당일군들을 어떻게 설득시켰는지 돌격대원으로 왔습니다. 돌격대는 새파란 청년들뿐인데 나이가 많은 그가 끼여있는것을 보고 우리는 놀랐습니다. 처음 우리 지휘부에서는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그의 고집을 꺾을수 없었습니다.》

《그는 워낙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더 설명을 듣지 않고도 모든것을 짐작하시였다. 황석태는 과학자들앞에 저지른 잘못을 다소나마 씻어보려는 비장한 각오를 안고 건설장으로 달려왔을것이다.

《그 동무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청년들의 앞장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합니다. 언제 배웠는지 그는 건설물계가 환합니다. 건설로동에서는 막히는데가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한테 가서 막힌 고리를 의논하군 합니다. 우리 건설지휘부 정치분과에서 일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듣지 않고 그냥 돌격대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동무가 지금 어데서 일합니까?》

《전자요소제작소건설장에서 일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걸음을 재촉하시였다. 마침 그곳부터 들려보실 예정이시였다.

전자요소제작소는 과학자회관을 지나 산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많은 건설대상중에서도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곳이였다.

벽체를 쌓아올리던 건설자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이를 우러러 우렁찬 박수를 보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손을 높이 들어 저으시며 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러시면서 황석태의 얼굴을 찾으시였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황석태동무가 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곁에 섰던 건설장책임자가 건설장으로 들어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자리에 서신채 건설장을 부감하시였다. 송림이 우거진 산기슭의 아늑한 곳에 터를 잡은 전자요소제작소는 벽체조립이 거의 끝나가고있었다.

잠시후에 건설장 책임자가 황석태를 데리고 나타났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없이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는 황석태를 반가운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작업복에는 세멘트물이 군데군데 튕기였고 혈색 좋던 얼굴은 눈에 뜨이게 축간듯 했다. 볕에 그을린 피부는 고동색을 띠였고 터갈린 입술에는 적지가 앉았다.

그는 과오를 범했던 자신을 스스로 징벌하고 개조하려는 심정으로 일을 하여왔을것이다. 사람은 성공과 찬양의 계기에서보다 실패와 비판의 계기에서 그의 면모가 더 예리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불현듯 영림에 가셨을 때 무용지물로 되여버린 가공설비옆에서 그를 준절히 비판하신 기억이 머리에 떠오르시였다. 과거와 현실이 교차되면서 뜨거운 정회가 다밀려왔다.

《나는 이리로 오면서 동무가 달려올줄 알았는데 어데 있었기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차마 뵈옵기가 부끄러워서…》

황석태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말끝을 더듬었다.

《그렇다면 황동무, 섭섭합니다. 나는 70년대 중엽부터 함께 일

해오면서 동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아직 내 심정을 잘 모르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소 격하게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황석태는 번쩍 고개를 들고 목메인 음성으로 입을 열었으나 뒤를 잇지 못했다. 자기 감정을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다는것을 깨닫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것을 잠시 지켜보시였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의 감정이 어깨의 파동에서 느껴지시였다. 황석태는 두말할것없이 결함보다 우점이 더 많은 충실한 일군이였으며 청렴하고 성실한 인간이였다. 그에게는 사나이다운 성품도 없지 않았다. 여러모로 아까운 사람이 과오를 범하였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머리속을 스치였다.

《황동무, 환갑이 다된 나이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내 듣자니 건설지휘부에서 일하라는 권고도 뿌리쳤다는데 그러지 마시오. 동무야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조직적수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돌격대원으로 일하는것보다 과학지구건설전반을 돌보는것이 과학자들을 위해 보다 큰 기여를 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

《동무를 보니 티탄합금압착가공설비를 개발하던 젊은 동무가 생각나누만. 그 동무는 지금 뭘하고있습니까?》

《여태껏 소식을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그 동무가 인민대학습당에 왔다가 제가 여기에 와있다는것을 알고 편지를 보내여왔습니다. 박치영동무는 압착가공설비가 실패한 후 제련소 부업농장으로 나갔답니다. 그동안 그 동무도 심각히 자기를 뉘우치면서 잘못을 씻어보려고 노력하는것 같습니다.》

《그가 부업농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답니까?》

《농기계수리공으로 일한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학술적욕망을 버리지 않고 연구사업을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농장에 나갔습니까 아니면 처벌로 내보냈습니까?》

《스스로 나갔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재능있는 금속공학자가 농장에서 일을 하다니… 물론 박치영이라는 청년에게는 개인의 명예를 앞세운 불순한 의도가 없지 않았다. 빗나간 탐구의 자세에 서있었던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을 열렬히 사랑하고 과학으로 사회에 복무하려는 청년이다. 우리의 현실에는 고등교육을 받고도 어려운 과학탐구의 길이 아니라 쉽고 먹을알이 있는 다른 분야에서 살길을 찾는 청년들이 없지 않다. 그들에 비하면 박치영은 이러나저러나간에 생활의 목표가 뚜렷한 청년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도 제련소당위원회가 과학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과오를 범했다고 해서 과학인재를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요구라고 해서 농장에 내보낸것은 잘못되였습니다. 과학연구과정에 범한 과오는 과학연구사업을 통해서 씻도록 해야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되였든 과학자에게 농장일을 시키는것은 잘못되였습니다. 인재를 아낄줄 모르는 처사입니다. 과학자는 어디까지나 과학자이고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인재란 말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황석태를 데리고 수행원들과 함께 전자요소제작소건설장으로 들어가시였다.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전자요소생산은 건물부터가 먼지 한점 없고 온습도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건설되여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잘 갖추어지도록 시공되지 못하고있었다. 전자요소생산의 기술적특성을 잘 알고계신 그이께서는 그 부족점들을 일일이 깨우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련이어 다른 건설장들을 돌아보시였다. 산기슭을 따라 10여동의 덩지가 큰 건물이 동시에 일떠서는 과학지구건설장은 하나의 새 도시를 방불케 하였다. 어느것 하나 빠짐없이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오늘 나와보기를 잘하였다고 생각하시였다. 현장에 나와보니 건설에서 걸린 고리들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시였고 앞으로 더 웅대하게 펼칠 건설구상도 머리에 떠오르시였다. 마지막건물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과학지구건설은 다른 건설대상과 다릅니다. 나라의 강성이 과

학발전에 달려있는것만큼 과학지구건설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재와 로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건설의 질적수준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 진군길에 나선 우리 시대를 상징할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해야 합니다. 나는 과학지구를 우리 당 력사에 길이 남을수 있도록 세계적수준에서 건설할 결심을 품은지 오랩니다. 그런데 나와보니 뜻대로 진척되지 않고있습니다. 이제라도 전당, 전민이 동원되여 과학지구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 7

건설장을 나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전시관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과학전시관에는 최근년간 우리의 과학기술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시품들이 진렬되여있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미 들리셨지만 이번에 동행한 여러 일군들에게 보여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였다.

지금껏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일군들속에 끼여있던 황석태는 아무래도 푼수에 어울리지 않는 걸음을 계속하는것만 같았다. 건설장이라면 몰라도 전시관까지 작업복차림의 돌격대원인 자기가 그이를 뒤따라 돌아볼수는 없었다. 송구한 마음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전시관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용기를 내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전 그만 물러가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리였다.

《전시관을 이미 봤습니까?》

《와보지 못했습니다.》

황석태는 솔직히 대답올렸다. 그는 자원하여 이리로 온 후 평범한 한 돌격대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는데만 관심을 두었을뿐이다. 건강한 육체로 과학지구건설에 자기로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는것외에는 그 무엇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 그런것 같아서 동무를 데리고 다니는것입니다. 과학전시관을 돌아보면 우리 과학자들의 창조적지혜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

르고있는가를 생동한 직관으로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동무에게는 그것을 실감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날에 황석태가 저지른 과오와 결부하여 보다 절절한 말씀을 하여주고싶으시였다. 하지만 여러 일군들앞에서 그럴수가 없으시였다. 끝까지 터놓지 못한 심정을 시선에 담아 그를 바라보시였다. 황석태는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떨구었다. 되살아나는 자책과 더불어 뜨거운 감격이 온몸을 휩쌌다. 그는 일군들의 뒤전에 서서 전시관으로 들어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시품을 가리키시며 친히 설명을 해주시였다. 쌍극성집적회로계산기형 공정조정장치, 연자기원판구동장치, 수자형콤퓨터 조종장치… 그 모든 전시품들의 과학기술적가치와 거기에 깃든 우리 과학자들의 창조적지혜를 말씀하시는 그이의 얼굴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흘렀다. 일군들은 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그이의 해박한 지식과 깊은 조예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두번째 호실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진렬대우에서 손거울만 한 합금원판을 집어드시였다. 다른 전시품에 비하면 쉽게 눈에 띄우지 않는것이였다.

《이것이 얼마전에 나에게 보고한 특수전자재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림수봉이 대답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얼마전에 받으신 과학원의 보고내용을 상기하며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극소형콤퓨터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기억장치를 이 합금원판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금원판은 지금 현대전자공업을 자랑하는 몇개 나라만이 만들고있는데 우리것은 그 기술적성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발명을 녀성과학자가 하였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이께서 높이 들어보이시는 합금원판이 눈부신 빛을 뿜었다. 그 빛발의 한가닥이 눈앞에서 반짝이는것을 느끼는 순간에 림수봉은 흥분을 걷잡지 못하며 입을 열었다.

《그 녀성동무는 재작년에 우리 과학자들앞에서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강령적인 말씀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목표는 조선민족이 제일이라는 당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당에 충실한 녀성과학자입니다. 50이 넘도록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든것을 과학연구에 깡그리 바치고있습니다. 그 동무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육성을 합금원판에 기억시켜 영원히 보존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있습니다.》

《나는 그의 새로운 연구사업도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독신으로 생활한다니 생활에서 불편스러운 점이 많을것입니다. 그 동무의 생활과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해후에 새로운 연구성과들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시대의 영웅 현영라는 이날 그이의 기억속에 이렇게 자리잡게 되였다. …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자회관의 휴계실에서 일군들과 함께 잠시 휴식하시였다. 20여명의 인원이 담소를 하기에 알맞춤한 방이였다. 바닥에 깔린 초물주단과 벽에 걸린 금강산풍경화가 은근한 민족적정서를 풍겨주었다. 밖에서는 어느새 높이 떠오른 태양이 뜨거운 볕을 쏟아붓고있었지만 실내는 서늘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친근하신 눈길로 일군들을 둘러보시였다. 그들모두의 얼굴에는 과학전시관을 돌아본 경탄의 여운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방금 본것처럼 우리 과학자들은 이미 놀라운 성과들을 수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해사이에는 세상을 놀래우는 더 큰 비약이 일어날것입니다. 지금은 그 비약의 준비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림수봉을 바라보시였다.

《참 부원장동무, 석홍범동무가 연구하고있는 새로운 기밀방법을 아직 실험해보지 못했습니까?》

림수봉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흘전에 실험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대어린 낯빛으로 물으시였다.
《실험결과가 어떻게 되였습니까?》
림수봉은 시선을 내려깔며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실험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얼른 결심이 서지 않았다. 복잡한 결과를 빚어낸 실험이였다. 초조히 실험과정을 되새겨본 그는 마침내 머리를 들고 말씀드리였다.
《유압뽐프의 새로운 기밀장치는 2 000기압에서도 동작했습니다. 석홍범동무가 연구한 기밀방법은 학술적으로뿐아니라 실천적으로도 가능하다는것이 확증되였습니다. 실험은 성공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술에 토대한 초고압유압프레스를 훌륭히 만들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렇단 말이지요. 그 실험이 성공했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실험 마지막순간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물으시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폭발을 예견하고 안전대책을 취했기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대신 공장건물이 좀 파괴되고 공작기계가 몇대 파손되였습니다.》
폭발의 파괴력을 가늠해보시는듯 그이께서는 다시금 침묵하시였다. 만족하신 표정이 어느새 가셔지고 안타까운 빛이 얼굴에 떠오르시였다.
《그래 그처럼 위험한 폭발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모험적인 실험을 했습니까?》
《과학평의회에서는 안전하게 중간압력단계에서 실험할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초고압단계에서 실험할것을 희망했고 저는 그들의 요구를 승인했습니다.》
림수봉은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대답올렸다. 자기들의 행동이 여전히 옳았다고 믿기때문이였다.
《석홍범동무는 지금 어데 있습니까?》

《안전부에서 데려갔습니다.》

《안전부에서?…》

《그렇습니다.》하고 림수봉은 의분이 깔린 음성으로 계속했다. 《과학실험을 하다가 공작기계 몇대가 파손된것때문입니다. 국가재산에 피해를 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전부일군들은 법조항만 따지는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부를 찾아가서 그 무엇을 알아보겠으면 저에게 알아보고 죄를 씌우겠으면 저에게 씌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장 석홍범을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셨으면 하는 기대를 품었던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있던 일군들도 안전부의 처사에 불만을 터뜨리며 술렁거렸다. 하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석홍범동무나 림수봉동무는 안전부신세를 좀 져봐야 정신이 들것 같습니다.》

좌중은 놀라운 눈길로 근엄한 빛을 띠신 그이를 바라보았다. 예상밖의 말씀에 누구나 숨을 멈추었다.

《폭발의 위험을 알면서도 실험을 한 동무들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파손된 공작기계를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할수 없는것은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한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말이지 학자들이 잘못되였다면 어쩔번 했습니까? 물론 과학실험에는 뜻밖의 사고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인것만큼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예상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실험을 단행하는 현상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습니다. 안전부에서는 그 실험을 승인한 부원장동무부터 데려다가 버릇을 고쳐주어야 했습니다.》

일군들은 경건한 흥분에 사로잡혔다. 그이께서 우리 과학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더더욱 가슴뜨겁게 깨닫는듯싶었다.

림수봉은 가슴을 움켜쥐며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말씀의 의미를 새겨볼수록 심한 자책과 후더운 감격에 눈굽이 화끈 달아올랐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로 평성시 안전부장을 부르게 하시였다. 얼마후에 안전부장이 방안에 들어섰다. 푹 눌러쓴 군모밑에서 두눈이 빛나고 얼굴이 너부죽한 중년의 사나이였다. 승용차로 급히 달

려온 그의 성큼한 코에는 땀발이 흘렀다.

《석홍범동무를 시안전부에서 데려갔다는데 구체적인 사연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동무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됩니까?》

안전부장은 흥분한 기색이였으나 침착한 어조로 대답올렸다.

《국가에 피해를 끼친 손해액으로 보면 응당 법적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실험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그렇게 된것만큼 저희들은 검찰소일군들과 심중히 토론했습니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좋은 일을 하다가 나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무죄로 인정할수 있다는 조항이 규제되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무를 무죄로 판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쉽사리 무죄로 인정할수 있는 사건인데 왜 그 동무를 안전부에 데려갔습니까? 그냥 두고도 사건의 전말을 알아볼수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 나왔던 우리 동무들이 좀 경솔했습니다. 과학평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고를 일으켜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만을 념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데는 본인의 겸손치 못한 태도도 작용했습니다.》

《그 동무가 사고조사를 하는 안전원들에게 대여들기라도 했습니까?》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새로운 기밀방법의 연구에 성공했다는 기쁨에만 휩싸여있었습니다. 국가에 준 손실은 안중에도 없는듯 했습니다. 안전부에 와서도 자기가 어떤것을 연구했는지 알기나 하는가고 항변했습니다.》

《그래 그 동무가 연구한것이 어떤 의의와 가치를 가지는지 안전부에서 알고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무의 항변이 정당하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빙긋이 웃으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과학원을 대상한 안전일군들이야 법조항만 알고있을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학적발명이 가지는 가치와 의의를 잘 알고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석홍범동무가 사건조사에 불손히 대했다고 하

는데 그럴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연구사업에서 성공을 했을 때 그 기쁨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업에서 성과를 올렸을 때 느끼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과학적성공은 해를 거듭하면서 온넋을 기울여 고심어린 노력끝에 이루어진 값비싼 정신적소산이기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는 학자의 환희는 그 이외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만큼 강렬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고의 성격과 과학자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석홍범동무의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안전기관 사람들은 법만 알고 과학을 전혀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다, 이런 험담이 나돌고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법적으로 다스리려고 했던것은 잘못이였습니다.》

《안전부가 이번 사건에 직접 개입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보려고 한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안전부장의 고백을 부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석홍범동무는 응당 안전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볼만큼 엄중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생명은 나라의 귀중한 재보에 속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그가 잘못되기라도 하였다면 나라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동무네를 비난해도 절대로 겁내지 마시오. 무모하게 모험적인 실험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희생성이나 충실성으로 보려는 과학자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동무네가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문제는 동무네가 이번에 과학자들의 생명과 신변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적손해만을 기준으로 법을 행사하려고 한데 있습니다. 이곳 안전일군들은 나라의 재보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재보인 과학인재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동무네가 그 어느 다른 지역의 안전일군들보다 특별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안전부장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주먹을 바지혼솔에 짝 붙이며 힘있게 다짐했다. 격동된 심정으로 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석홍범동무를 인차 내보낼 생각이라는데 기왕 데려갔던바치고는 한달쯤 잡아두시오. 앞에서 내가 말한 그런 각도에서 버릇을 떼주시오. 그 동무는 오래동안 과학탐구에 전념한 나머지 건강이 나빠졌을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부에서 풀려나오면 즉시로 연구사업에 몰두하면서 자신을 더 혹사할수 있습니다. 그 동무의 건강도 회복시켜주면서 죄를 다스리자면 휴양소가 좋을것 같습니다.》

《가족휴양소가 어떻습니까?》

《가족휴양소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휴양을 보냅시다. 이번일로 이곳 안전부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는데 안전부가 석홍범동무에게 가족휴양까지 보장해준다면 여론이 좋아질것입니다.》

드디여 시름을 놓으신듯 환하게 웃으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림수봉에게 물으시였다.

《그 동무의 안해는 무슨 일을 합니까?》

《몇해전에 평양에서 남편을 따라왔는데 아직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 있습니다.》

림수봉은 말을 더듬었다.

《젊은 녀성이겠는데 왜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혹시 앓고있는게 아닙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림수봉의 서슴는 기색을 유심히 살피며 다시 물으시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녀성은 과학을 열렬히 사랑하는 남편을 리해하지 못하고 단층집살림도 불편해하면서 평양으로 되돌아갈것을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에서 성공을 한 이번 사건으로 생각이 달라진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그 녀동무가 그릇된 생활태도를 가지고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석홍범동무와 같이 재능있는 학자들을 아직 불편스러운 단층집에서 살게 하고 과학실험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해서 안전부에서 취급하는 놀음까지 하고있으니 과학자의 안해들이 어떻게 긍지감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과학지구에 아직 남아있는 단층집들을 보면서 과학자의 안해들에게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는 이미전에 모든 과학자들에게 훌륭한 살림집들을 지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석홍범동무는 과학연구에 전심을 하던 나머지 가정사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을것이고 언제 한번 안해와 극장관람이나 산보도 못해봤을겁니다. 그러다보니 안해가 불만을 가졌을것입니다. 가족휴양을 보냅시다!》

## 8

강민옥은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친정집을 떠났다. 그가 평성에 이르렀을 때는 아침 10시경이였다. 집을 떠난지 사흘밖에 안되였지만 친정에서 심각한 일들을 겪은탓인지 오랜 나날이 흐른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는 과학원근처정류소에 이르자 전차에서 내렸다. 남편에게는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가? 집으로 가려면 과학원앞을 지나야 한다. 그는 과학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텅 비여버린 집에 가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을수가 없을것이다. 집에 가기 전에 림수봉부원장부터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잘 포장된 언덕길을 올라간 그는 본원청사의 2층에 있는 림수봉의 방으로 들어갔다.

무엇인가를 쓰고있던 림수봉은 피끗 머리를 들더니 무척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듯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였다.

《드디여 나타났구만. 오늘 아침 동무의 친정집에 전화를 걸어보니 이미 동무가 떠났다질 않겠소.》

왜 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을가? 그사이 남편의 신상에 그 무슨 법적제재가 내려진것이 아닐가? 불길한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그이가 어떻게 되였나요?》

재빨리 묻고는 림수봉의 얼굴을 뚫어지게 주시했다.

《무엇하러 친정에 갔댔소?》

림수봉의 온화하던 눈빛이 갑자기 노기를 띠였다.

민옥은 시선을 떨구었다. 남편을 위해 아버지의 힘을 빌리러 갔댔다고 사실대로 말할수 없었다.

《친정에는 왜 갔댔소?》

림수봉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따지듯 다시 물었다.
《너무 속이 상해서…》
《하긴 동무야 속이 상할 때마다 친정에 찾아가군 했지.》
비난조로 말한 림수봉은 가슴속의 격정을 삭이며 한동안 말없이 창가를 바라보고있었다. 민옥은 한껏 가슴이 조여들었다. 앞뒤를 가려볼 경황이 없었다. 와락 달려가서 그의 팔굽을 덥석 잡고 애원조로 물었다.
《그이가 어떻게 되였나요? 어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민옥을 돌아본 림수봉은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말보다 먼저 오른팔을 돌려서 자기의 왼쪽팔굽을 움켜쥐고있는 민옥의 손을 더듬어잡았다. 그리고는 가슴속의 흥분을 진정하려는듯 몇번이나 모두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다.
《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과학원에 나오셨댔소. 구체적인 사연은 남편한테서 들으시오. 어서 집에 가서 가족휴양을 떠날 준비를 하시오. 동무가 평양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승용차를 보낼 생각이였소.》
민옥은 꿈속에 잠긴듯 어리멍청한 얼굴이였다.
《모든것을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걸리오. 나는 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과학원당위원회에 참가해야 하오. 석홍범동무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소. 어서 집에 가보오.》
《그이가 지금 집에 있어요?》
《그렇소. 빨리 가보오.》
민옥은 잠시 부원장실 문밖에 서있었다. 종잡을수없이 뒤엉키는 의혹과 혼란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남편을 만나야만 모든 진실을 알수 있다는 판단이 뒤늦게 떠오르자 집을 향해 장달음을 놓았다. 주택건설장의 골목길을 빠져 집에 이르니 과연 부원장의 말대로 남편이 방안에 있었다. 마주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잠시 바라보기만 하였다.
《여보!》
민옥이가 먼저 외마디소리를 터치며 남편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다.

《친정에는 왜 갔댔소?》
부원장처럼 퉁명스레 울리는 남편의 첫 물음이였다.
《당신을 위해 도움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갔댔어요.》
남편앞에서는 진실을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겠소?》
《정말 어리석었어요. 나는 이번에 친정에서 여러가지로 환멸을 느꼈어요.》
《우리의 운명을 지켜주시는분은 이 세상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한분뿐이요! 알겠소?》
머리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격하게 울리였다. 마디마디가 무게를 가지고 심장에 마쳐오는 그 목소리에 놀라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눈굽에 눈물이 어리였다. 민옥은 그 눈물에 자기가 확인하고싶은 모든 사연이 어려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이께서 어제 과학원에 오셨댔다지요?》
《당신도 들었소?》
《부원장선생을 만났댔어요. 그런데 구체적인것은 당신한테서 들으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바빠서…》
그들은 포옹했던 팔을 풀고 마주앉았다.
《안전부에서 나를 데려간 사실을 아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안전부장을 부르시였소. 안전부장이 돌아와서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의 감격이 되살아난 석홍범은 목이 메여 뒤말을 잇지 못했다. 치밀어오르는 뜨거운것을 꿀꺽 삼키고나서 서서히 머리를 돌리였다. 민옥은 그의 시선을 따랐다. 그들의 눈길이 닿는 벽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함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한동안 초상화를 우러르던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목이 메여서 자주 동강이 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숨을 죽이고 듣고난 민옥은 걷잡을수없이 눈물이 흐르는 얼굴을 싸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초상화를 향해 마주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는 가족휴양의 혜택까지 받을만 한 녀자가 못됩니다!》

한껏 격앙된 감정이 뼈아픈 자책으로 급격히 변하면서 그의 심장을 아프게 비틀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은 지난날의 자신을 타매하며 용서를 비는 량심의 몸부림으로 이그러졌다.

《여보, 진정하고 휴양소로 떠날 준비를 갖추오. 오후에 안전부장동무가 우리를 금강산에 있는 가족휴양소까지 데려다주기로 예정되여있소.》

한동안 안해를 지켜보던 석홍범이 깨우치듯 말하였다.

민옥은 풀썩 주저앉더니 남편을 향해 결연히 부르짖었다.

《안돼요! 당신 혼자 떠나세요. 내가 무슨 낯으로 그런 영광을 받아안는단 말이예요!》

석홍범은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뒤트는 안해를 침묵속에 지켜보았다.

오후에 안전부장과 림수봉이 그들부부를 데리러 왔다. 민옥은 그들앞에서도 자기는 가족휴양소로 떠날수 없다고 하였다.

림수봉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동무에게 한가지 진실을 말해야 하겠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석동무에게 가족휴양을 보내자고 하시였을 때 나는 그 동무의 안해는 그런 영광을 누릴만 한 녀자가 못된다고 말씀드리였소.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러나저러나 충실하고 재능있는 과학자의 안해인것만큼 가족휴양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소. 휴양을 가고 안 가고 하는것은 동무 개인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요. 우리 당이 과학자의 가족들에까지 어떤 배려를 돌려주고있는가를 보여주는것이요. 강민옥이라는 녀성이 아니라 과학자의 안해로서 가족휴양을 간단 말이요.》

부원장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던 민옥은 그 뜻을 되새기듯 조용히 부르짖었다.

《과학자의 안해!》

혼자말로 외워보는 나직한 부르짖음이였으나 심장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목소리엔 이 세상 모든 안해들이 누리는 행복의 절정에서 자신을 의식한 녀인의 긍지가 울리고있었다.

# 9

승강대의 손잡이를 잡고오던 장년의 사나이는 렬차가 채 멎기도 전에 홈에 내려섰다. 영림땅을 한시바삐 밟아보고싶은 심정이 간절하여서 이 시각을 무척 기다려온듯싶었다. 틀진 체구에 눈매가 부리부리한 그의 얼굴에는 감회의 빛이 짙었다. 뒤따라 내린 다른 손님들은 나들문으로 빠지려고 역사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는 홈에 멈춰선채 움직일줄을 몰랐다. 추억의 자취를 더듬는듯 사위를 유정한 눈길로 둘러보고있었다.

그는 바로 한해전에 이 역을 떠나갔던 황석태였다. 제련소의 모든 종업원들과 금속공학연구소의 학자들에게 마음의 용서를 빌며 떠나갔던 그밤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던것이다. 뼈저린 자책과 후회속에 남몰래 떠나갔던 그를 이 역두에서 바래준것은 안해와 제련소 지배인뿐이였다. 서글픈 애수와 고독감이 소리없이 스며드는 가슴을 움켜쥐고 전기로의 화광이 하늘을 물들이는 제련소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렬차에 오른 그밤에는 영원한 리별처럼 생각되였다. 그러나 생활의 흐름은 그를 또다시 이 도시에 떠밀어주었다. 그는 작별의 순간에 그러했던것처럼 상봉의 지금에도 제련소 건물들의 지붕이 멀리 보이는 시내복판을 향해 시선을 주었다. 저물어가는 석양이 시내의 상공에 아낌없이 여광을 뿌려주었다. 그 빛에 녹아버린듯 전기로의 화광은 작별의 그밤처럼 선명히 보이지 않았다. 그대신 굴뚝과 로들에서 뿜어올리는 연기와 증기가 구름처럼 창공에 날리였다. 로들에서 울리는 동음도 은은히 들려왔다. 사랑하는 노래의 선률처럼 무척도 귀에 익고 가슴에 정다운 창조의 음향이였다.

《손님, 나오십시오.》

나들문에서 차표를 받던 안내원처녀의 목소리였다. 번쩍 정신이 들어 돌아보니 마지막손님마저 나들문으로 나간 뒤였다. 황석태는 땅우에 놓았던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 그는 처녀에게 차표를

주면서 공손히 사과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그 순간 처녀의 갈쭘한 얼굴에 놀라는듯 한 기색이 얼핏 스치였다. 황석태는 나들문을 지나 층계를 내려섰다.
《그전 당비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옳소.》
등뒤에서 속삭임소리가 들리였다. 묻는것은 처녀의 목소리였고 대답하는것은 청년의 목소리였다. 청년은 손에 기발을 들고 역구내에서 나오던 젊은 철도역원일것이다.
《그런줄 알았으면 인사라도 드릴걸… 오히려.》
《인사는 무슨 인사!》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로동자들을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하셨대. …》
처녀는 무슨 말인가를 이어가는듯 했으나 거리가 멀어져서 더는 들리지 않았다.
황석태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고싶었으나 못 들은척 하고 내처 걸었다. 얼굴을 가리우려고 밀짚모자를 깊숙이 내려썼다. 자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을 모르지만 그들은 여러해동안 제련소 당비서로 일하였던 자기를 알아볼것이다. 그들중에는 처녀의 아버지처럼 옛 당비서에게 좋은 인상을 품은 사람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앞에 얼굴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웠다. 머리를 숙이고 길옆으로 비켜서서 시내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낮동안 쏟아지던 해볕이 설피여지자 선선한 느낌이 들었다. 선기가 내리기 시작한 초가을이였다. 황석태는 눈길을 들어 저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서켠에 기운 해는 지평선끝에 산봉우리처럼 솟아오른 구름장변두리를 감빛으로 물들이며 그속으로 잠겨들고있었다.
제련소에 이른 황석태는 지배인을 찾아갔다. 퇴근시간이 지났으나 류명식은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뒤짐을 지고 무슨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던 지배인은 방안에

들어서는 황석태를 알아보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낮동안 쉴새없이 찾아오는 사람들과 번거로운 일에 시달리던 그가 잠간이나마 숨을 돌리는 때인듯싶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황석태는 밀짚모자를 얼른 벗어들고 마주 걸어오는 지배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언제 왔습니까?》

《지금 오는길입니다. 영림땅에 들어서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굴을 드러내기 무엇해서 직방 지배인동무부터 찾아왔습니다.》

황석태는 진정을 말했다. 함께 일을 할 때에는 류명식과 의견대립도 많았지만 헤여진 후로는 제련소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떠오르던 지배인이였다.

《자, 저기 앉읍시다.》

황석태는 류명식이 이끄는대로 창가옆 쏘파에 앉았다. 그는 옆에 앉은 류명식의 모습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살갗이 윤택한 얼굴에 반가운 미소를 담고있는 류명식은 여전히 건강한듯싶었다. 그는 닫긴깃양복을 입고있었는데 황석태에게는 그 차림도 무척 눈익은것이였다. 여러해전부터 선기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양복을 입군 했었다. 한해전 그대로의 류명식을 보게 되니 정회가 더 깊었다.

《고향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류명식이 물었다.

황석태는 제련소를 떠난 후 자기 생활의 경위를 허심히 이야기했다. 조용히 듣고난 류명식은 저으기 감심한 표정이였다.

《그러니 그 나이에 과학지구건설돌격대 대원이 되였단 말이지요.》

지배인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헌데 제련소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나는 돌격대에서 자기의 전직을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과학원에 나오셨다가 만나주신 후에 내가 무얼 하던 사람이라는것을 과학원에서도 알게 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에게 딱한 부탁이 떨어졌습니다. 9월제련소에 가서 과학연

구용유색금속자재를 해결해오라는것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얼마나 물려있습니까?》
《연구용자재다보니 그 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한번도 제 량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고 황석태는 지표와 수량을 말했다.
류명식은 움쭉 일어서서 책상모서리로 다가가더니 전화로 판매과장을 불렀다. 그리고는 다시 교환수에게 자기 집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그는 황석태쪽을 피끗 쳐다보더니 수화기에서 안해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여보, 전 당비서동무가 왔소. … 한시간후에 집에 함께 가겠소. … 그런 걱정말고 집에 있는걸 가지고 성의껏 차리오. … 그 점에서야 더없이 소탈한 사람이라는걸 당신도 알지 않소.》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류명식에게 황석태는 미안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갑자기 찾아와 부인한테까지 폐를 끼치나봅니다.》
《폐가 아니라 소원을 풀게 되였다고 그 사람도 기뻐합니다.》
《소원이라니요?》
《잊었습니까?… 황동무가 제련소를 떠나던 날 저녁에 뭘 좀 차렸댔지요. 그런데 내가 그만 황동무와 미리 약속을 해두지 못했던 탓에 일이 틔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을 두고 집사람도 두고두고 섭섭해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판매과장이 방안으로 들어왔다. 머리가 정수리까지 벗어지고 하관이 퍼진 얼굴에 안경을 쓴 50대의 일군이였다.
《과장동무, 오래간만입니다.》
황석태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먼저 인사말을 건넸다.
《반갑습니다. … 지금 어데 계십니까?》
두사람의 인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지배인이 판매과장에게 물었다.
《왜 지금껏 과학원에 제 량대로 유색금속자재를 주지 않았소?》
《수출용을 계획보다 더 보장해야 하기때문에 조절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판매과장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확신하며 떳떳이 대답했다.
《심히 잘못되였소. 과학연구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어데 있소. 이달에 들어와서는 원래 계획보다 생산이 높아진것만큼 지금까지 미달된 과학연구자재를 전부 보장해주시오.》
《지배인동지, 그건 안됩니다.》
《어째서?》
《증산된 량은 금속공업부에서 추가수출용으로 벌써 눌러놓았습니다.》
《아무튼 과학연구용은 무조건 보장하시오!》
《오늘 낮에도 강서원부부장동지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출용으로 눌러놓은것은 절대로 다른데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말 말고 사무실에 되돌아가서 판매계산서를 가져와 비준받으시오.》
지배인이 명령조로 말했다.
판매과장은 쭈밋거리였다.
《왜 서있소?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소?》
그제서야 판매과장은 돌아섰다. 출입문을 나서는 그를 성난 시선으로 지켜보던 류명식은 표정을 바꾸며 황석태에게 머리를 돌리였다.
《어떻게나 처세술이 능한지 다루기가 말쨴 사람입니다.》
판매과장이 결재문건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류명식은 책상에 마주앉았다. 판매과장이 펼쳐놓은 문건을 훑어보던 그는 과학원에 보내줄 자재량을 손수 써넣고 수표를 하였다. 그리고는 힘주어 말했다.
《동무가 책임적으로 2～3일내에 과학원에 실어보내시오. 나는 래일 아침 광산에 나가 그곳 일을 며칠간 보고오겠소. 그렇기때문에 퇴근시간이 지났지만 문건결재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였소. 돌아가시오.》
그날 밤 황석태는 지배인의 집에서 환대를 받았다. 갑작스레 찾아가다보니 특별한 음식은 없었다. 그러나 주인내외의 친절한 대접

에 마음이 즐거웠다. 도수높은 술을 몇잔 나누고나서 황석태는 이렇게 고백했다.
《…여기서 해임된 이후에 내가 새롭게 깨달은것의 하나는 인간에 대한 리해를 깊이 가지게 된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진실한 혁명동지이고 벗인가를 알게 되였단 말입니다.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나는 당비서로 있을 때 지배인동무를 좋지 않게 여겼댔습니다. 내앞에서 떳떳이 자기 주장을 세운것은 두사람이였지요. 한사람은 지배인동지였고 다른 사람은 양영복박사였습니다. 함께 있을때에는 의견대립과 감정마찰이 심했지만 철직되여 헤여진 후로는 늘 지배인동무와 양영복박사가 그리워지더란 말입니다.》
그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자리에 누운 후에도 이야기를 계속했다. 황석태는 지배인에게서 궁금하던 제련소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다. 양영복박사가 건강한 몸으로 연구사업에서 크게 전진을 이룩했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기뻤다.

## 10

《박동무, 누가 왔나 보라요!》
고장난 뜨락또르를 수리하던 박치영은 쟁쟁히 울리는 녀인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작업반장아주머니와 나란히 허우대가 큰 웬 남자가 흐려진 시야속에 안겨왔다. 눈가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고 다시 보았다. 이게 누구인가? 반가운 기색으로 말없이 마주오는 사람은 황석태였다. 놀라움에 심장이 멎는듯 했다. 얼결에 들고있던 나사틀개를 떨어뜨렸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름때오른 장갑을 벗으며 자세를 바로 했다.
《그간 잘있었나?》
황석태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손을 덥석 잡았다. 박치영은 목이 메여서 손을 말긴채 고개를 돌리였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잠시후에야 입속말로 나직이 물을수 있었다.

《동무를 만나러 왔지!》
황석태의 목소리는 꾸짖듯이 격하게 울리였다.
《저같은 놈을 잊지 않고 찾아주어서 고맙습니다.》
박치영은 간신히 인사말을 번지였다.
《박동무, 모처럼 찾아왔는데 어서 방으로 모셔가라구.》
반장아주머니가 박치영을 깨우쳐주었다. 그리고는 황석태에게 눈인사를 보내고 그 자리를 피했다.
《제 침실로 갑시다.》
박치영은 황석태를 자기의 침실로 안내했다. 작업반휴계실에 잇달린 골방이였다. 낡기는 했으나 어데서 구해왔는지 단이 여러개인 서가가 서있는데 책이 가득 꽂혀있었다. 대충 두드려 만든듯 한 앉은뱅이책상우에는 실험기구들이 한가득 놓여있었다.
《하, 이거 뭐 연구실에 온것 갈구만.》
황석태는 놀라운 눈길로 방안과 박치영을 번갈아보았다.
《한석규동무가 이 방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랬댔군. 참, 그 동무가 지금 농장에 있소?》
《비료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황석태는 아쉬웠다. 왔던김에 그도 만나보고싶었다. 장차 인민경제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댔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말았던것이다.
박치영은 대충 방안을 거두고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는 작업복을 갈음옷으로 갈아입고 마주앉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담배를 붙여물며 황석태가 물었다.
《이렇게 만나니 먼저 사죄부터 하고싶습니다.》
박치영의 얼굴에 회오의 빛이 떠올랐다.
《사죄는 무슨 사죄!》
황석태는 당치 않은 소리라는듯 퉁명스레 응대하고 담배연기를 길게 내불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당비서동지를 잘못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비난이였습니다. 황석태동지가 떠나갈 때 부끄

럽고 죄스러워서 면전에 나설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도 영림역에 나갔댔습니다. 지배인과 부인의 배웅속에 렬차에 오르는 황석태동지를 저는 역사의 울타리뒤에 숨어서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며 바래웠습니다.》

(옹졸한 녀석, 나는 그때 누구보다도 너에게 하고싶은 말이 많았는데 숨어서 바래우다니.)

황석태는 그런 말이 불쑥 치밀었으나 침묵속에 지켜볼뿐이였다.

박치영은 그후의 생활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조금의 숨김도 가식도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려고 애썼다. 랭대를 보내던 손관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을 터뜨리지 않았다.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인간이였던가를 깨닫게 되였다고 하였다. 양영복박사를 만났던 그 한순간의 이야기는 눈물을 머금고 터놓았다. 주의깊게 듣고있던 황석태의 얼굴에도 감동의 빛이 떠올랐다.

《그래, 그후 양영복박사를 다시 찾아갔댔소?》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양영복선생한테 저지른 잘못이 제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를 너그럽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너그러운 믿음과 아량이 때로는 침을 뱉으며 퍼붓는 욕설보다 더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선생앞에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 차마 얼굴을 들고 나설수가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꾸짖던 양선생의 얼굴이 떠오르면 수치감에 몸부림치며 다시 일어나 책상에 마주앉군 했습니다. 그 선생이 지향하는 초소성가공방법에 참으로 도움이 될 연구자료를 확고히 마련한 다음에 찾아갈 생각입니다.》

황석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치영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역시 사리가 있는 청년이기에 양영복의 태도에서 그리도 뼈저리게 자기를 반성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것처럼 그도 심각한 곡절을 거치며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리해를 가지게 된듯싶었다. 비록 지난번의 연구사업에서는 참담한 실패를 하였지만 그 실패가 박치영 개인으로 보면 많은것을 새롭게 깨닫게 한 더없이 귀중한 계기로 된것이 분명했다. 과학탐구의 먼 미래를 앞에 둔 그에게는 반

드시 거쳐야 할 생활의 대학이였는지도 모른다.
방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조용히 문을 열고 작업반장녀인이 들어섰다.
《비서동지, 점심식사를 합시다.》
방안의 분위기는 아랑곳없이 녀인은 밝은 얼굴이였다. 얼결에 튀여나온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불렀으면 좋을지 몰라서인지 황석태를 비서라고 하였다.
《허, 난 비서가 아니라 황아바이입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황석태는 작업반장녀인에게 미소를 보내였다.
《어서 가보십시오.》
선뜻 일어서지 않는 황석태를 보고 박치영이 말하였다.
《동무도 함께 가세.》
《제 점심은 따로 있습니다.》
《박동무도 어서 일어나요. 내 눈치없이 한분의 식사만 차렸겠소?》
녀인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박치영을 일으켜세웠다. 어지간히 성미가 걸싼 녀인이였다. 그들은 작업반휴계실로 갔다. 두리반에 검소한 식사가 준비되여있었다. 빛 다른것은 없고 밥과 김치와 호박찌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릇마다 성의가 엿보였다. 밥그릇은 안에 담긴것보다 사발언저리우로 솟아오른 밥이 더 많아보이는데 국사발은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을만큼 돼지고기가 무드기 담기였다. 김치와 호박찌개그릇도 듬뿍듬뿍하였다.
《이거 뭐 요란스레 차렸구만.》
먼저 밥상머리에 앉으며 황석태가 하는 말이였다.
《생각같아선 진수성찬을 대접하고싶은데 갑자기 오시다보니 약주도 한병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당비서로 있을 때 우리 부업농장을 추켜세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나요. 버림받던 앞내벌을 사료전으로 개간하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거기서 누구보다 큰 질통을 지고달리면서 사람들을 세관게 다몰아댄 덕에 그해로 개간을 끌냈지요. 그 밭에서 강냉이를 정보당 여섯톤씩 냈답니다.》
《그거 대단합니다.》

《얼마전에 가을을 하면서 모두 거기 얘기를 했답니다. … 어서 드세요.》

반장아주머니는 아무래도 《황아바이》라는 말을 혀끝에 올리기가 어색했던지 《거기》라고 하였다.

《개간할적에 멋없이 욕설만 퍼붓던 내 얘기를 했겠군요.》

《일을 하자니까 큰소리를 친거지요. 로동자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술한 살림집도 짓고 닭공장이랑 크게 세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누구나 알고있답니다. 거기서 제련소를 떠난 다음 간부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로동자들은 모두 섭섭해했지요.》

작업반장녀인은 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얼굴에 엷은 웃음을 그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황석태는 가슴이 뭉클해오는것을 느꼈다. 당비서로 있을 때 로동자들의 생활에 관심이 크다는 평판을 수없이 들었었다. 그때에는 상급당의 책임적인 일군의 입에서 그런 칭찬을 들어도 심상히 여기였다. 그러나 지금 평범한 작업반장이 옛말처럼 뇌이는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덥도록 고맙게 안겨왔다. 똑같은 말이라 하여도 환경과 처지에 따라 느낌의 크기가 전혀 다르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화끈해오는 눈굽에 금시 물기가 어리는듯싶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밥술을 듬뿍 떠서 입에 넣었다.

식사를 마친 황석태는 여러가지 의미를 담아서 작업반장에게 거듭 고맙다고 하였다.

잠시후에 그는 박치영의 방으로 돌아왔다.

《치영동무, 금속공학연구소 손관식소장을 찾아갈 때 가지고 갔던 그 학습장을 좀 보여줄수 없겠나?》

《보여드리지요.》

박치영은 앉은뱅이책상우에 쌓인 책들속에서 두툼한 학습장 한권을 찾아들고 황석태에게 다가왔다.

《왜 이걸 보자고 합니까?》

전문가가 아닌 황석태의 눈으로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리해할수 없을것이기때문이다.

《그걸 손관식소장이나 양영복박사에게 보여주겠소.》

박치영은 의아한 기색으로 학습장을 주었다. 절반가량 찢겨진 자리에 풀로 붙이여서 볼품없이 되여버린 학습장을 몇페지 번져보던 황석태의 숱진 눈섭이 꿈틀거렸다.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손관식소장으로부터 다시 연구소에 얼씬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올 때 그 학습장을 갈가리 찢어버리려고 했댔습니다.》

《음-》

황석태는 꽉 다문 두툼한 입술사이로 가는 신음소리를 냈다. 찢어진 학습장의 흔적에서 찢겨진 박치영의 마음속 상처를 보는듯싶었다. 그는 마디가 굵고 뭉툭한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지듯 학습장을 쓰다듬었다.

《치영동무, 어서 일어서게. 나와 함께 연구소로 가세!》

그들은 시내로 들어왔다. 마침 부식물감들을 싣고 제련소구내식당으로 오는 화물자동차가 있었다. 차에서 내린 황석태는 박치영을 가까운 리발소로 이끌었다. 어리둥절한 박치영은 황석태의 뒤머리를 살피였다. 높이 쳐올린 머리는 깎을 때가 안되였다.

《내가 머리를 깎자는게 아니라 동무가 머리를 깎아야겠소. 먼저번에도 그 모양을 하고 나타났으니까 손관식소장이 쫓아버렸지.》

황석태는 이마를 찌프리고 꾸짖듯이 말했다. 박치영은 자기의 귀밑머리를 만져보았다. 비로소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자랐다는것을 깨닫고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어서 들어가라구. 기다릴테니.》

리발소나들문을 향해 손짓을 하며 명령조로 재촉하는 황석태는 성난듯 한 표정이였다. 주밋거리던 박치영은 리발소안으로 들어갔다. 제때에 머리를 깎지 않아서 이런 권고를 듣는것이 부끄럽기도 하였고 그의 다심한 심정에 가슴이 후더워오기도 하였다. 다행 리발소의 대기실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10분가량 기다렸더니 차례가 되였다. 줄느런히 놓인 세번째 리발의자에 앉았다. 목에 백포를 두르는 처녀리발사의 팔굽너머로 거울을 보았다. 더부룩하게 머리카락이 귀밑을 덮었고 턱수염이 구두솔같이 자란 자기의 모습

이 선명히 거울에 비끼였다. 리발기를 든 처녀는 머리가 그토록 길게 자란 손님을 처음 대하는듯 의아한 눈빛이였다. 거울속에 보이는 그 눈빛은 분명 이렇게 말하는듯 했다.

(젊은 동무가 이게 뭐예요?)

박치영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숙였다. 리발기가 덜미에 닿는 촉감이 오는듯 하더니 머리카락이 뭉치가 되여 백포우에 굴러내렸다. 짓숙인 눈앞으로 연신 떨어져내리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몸과 마음에 주접스레 매달렸던 그 무엇이 가셔지는듯 했다. 리발을 다한 그는 머리를 빤 뒤에 건발을 하려고 다시 리발의자에 앉았다. 거울속을 들여다보니 멀끔하게 제모습이 달라졌다.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순간이였다. 리발소의 넓다란 창유리밖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히뭇이 웃고있는 황석태의 모습이 거울에 나타났다. 방금 느껴지던 상쾌한 기분이 가슴뭉클한 느낌으로 뒤바뀌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불시에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내렸다. 그는 당황했으나 씻을념을 못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이상스레 지켜보던 리발사가 조용히 수건을 내밀어주었다.

얼마후에 그들은 연구소에 이르렀다.

황석태는 연구소소장과 분초급당비서, 양영복박사를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그들 세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분초급당비서실에 모두 모이였다. 길다란 앞탁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세사람은 박치영을 데리고 마주앉은 황석태에게 어정쩡한 시선을 보내였다.

《오늘 만나보니 이 동무가 그동안 짬짬이 티탄합금가공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더군요. 이 책이 바로 그걸 기록한것입니다. 소장동무한테도 한번 들고 왔댔다더군요.》

황석태는 학습장을 탁자우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기록된것이 얼마나 학술적가치를 가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연구를 거듭했다는 사실자체야 찬양할만한것이 아닙니까?》

《그래 치영동무때문에 평성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분초급당비서가 물었다.

《다른 사정도 있었지만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다싶이 치영동무가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은 많은 점에서 나와 직접 관련되여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였다면 치영동무는 여직 연구소에 있었을것이고 허영심과 명예심도 그처럼 자라지 못했을것입니다.》

회오에 젖은 황석태의 목소리는 사무치도록 절절하였다. 그는 크게 숨을 몰아쉬고 계속했다.

《얼마전 과학원에 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재능있는 한 젊은 과학자를 못쓰게 만든 책임을 느낄줄 모르는 저를 준절히 비판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과학연구를 하다가 범한 과오를 다른 과오와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 말하자면 황석태동무의 과오와 그 청년의 과오는 그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대신할수 있는 사람의 과오이고 후자는 대신할수 없는 사람의 과오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일군들이 과오를 범하면 그 정도에 따라 철직도 시키지만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연구사업을 계속하면서 과오를 시정하도록 하고있다, 물론 그 동무에게는 과학연구자세를 잘못 가졌던 심중한 결함이 있다, 남의것을 본따서 쉽게 성공을 하려다가 실패했다, 하지만 이러나저러나간에 당이 바라는 티탄합금가공설비를 개발하려고 애쓴것은 사실이 아닌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과학연구분야가 아닌 쉬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 비하면 그래도 뜻이 높은 동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제련소에서 본인의 요구라고 해서 그 청년을 부업농장으로 내보냈다니 아직도 과학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흐느낌소리가 터졌다. 박치영이였다. 그는 격정의 파도에 떠밀리듯 벌떡 일어서더니 얼굴을 싸쥐고 밖으로 내달렸다. 돌발적인 행동이였으나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박치영의 어제와 오늘을 잘 알고있는 방안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 그가 도저히 자신을 걷잡지 못하리라는것을 리해하였다. 그들은 경건하고 숙연한 표정으로 박치영이 뛰여나간 출입문쪽을 바라보고있었다. 방안에는 그가 터친 흐느낌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 11

이튿날 황석태는 운수직장의 상하차장으로 나갔다. 과학원에 보내는 유색금속자재를 싣기로 되여있었다. 그가 직접 나가보지 않아도 무방한 일이지만 그곳의 낯익은 로동자들과 함께 로동의 기쁨을 나누고싶었다. 상하차장은 당비서로 있을 때 종종 나가서 땀을 흘려본 현장들중의 하나였다. 시간을 다투어 광석을 부리우거나 유색금속강괴를 실어야 하는 때가 많았다. 기업활동의 첫공정과 마감공정이 상하차장에서 교차되였다. 그런것만큼 그 공정이 걸리면 제련소의 전반적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였다. 긴장한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황석태는 팔을 걷고나섰다. 삽질을 하거나 목고를 메는데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로동자들과 담배도 나누고 롱담도 건늬면서 자기의 걸싼 일솜씨를 보여주던 때는 지금도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황석태가 현장에 나타나자 로동자들이 욱 달려와 에워쌌다. 그들도 그전날 당비서와 상하차작업을 하던 때를 회고하는지 인사를 나누는 얼굴들에 반가운 빛을 담았다. 황석태는 그전처럼 담배를 권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다. 그러나 손에는 빈 담배갑이 잡혀 나왔다. 그것을 구겨버리며 모여선 사람들에게 허물없이 청했다.

《담배가 떨어졌구만. 누구 한대 주시오.》

서슴없이 손을 내밀었다. 여러 사람이 일시에 담배를 뽑아들었다. 누구의것을 뽑아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중에서 마라초 한대를 받아 불을 붙여물었다. 페부에 연기가 스미도록 깊숙이 빨았다. 류달리 담배맛이 좋았다. 로동자들도 담배를 피웠다. 여럿이 날리는 연기가 서로 얽히며 그들의 머리우로 날아올랐다.

얼마후에 작업이 시작되였다.

황석태는 창고에서 자동차로 날라온 연구용금속자재를 품종별로 기중기에 걸어주는 일을 하였다.

기중기옆으로 뻗어간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던 승용차가 멎어

섰다. 차에서 틀진 체구의 한 일군이 내리였다. 무심히 바라보니 강서원부부장이였다.

《동무들, 수고합니다. 이 자재를 보관해두라고 했는데 어데로 실어갑니까?》

그가 로동자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과학원으로 실어갑니다.》

그와 제일 가까이에 서있는 로동자가 대답했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강서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로동자들은 황석태에게 눈길을 모았다.

황석태는 일손을 놓고 강서원에게로 다가갔다.

《부부장동지, 안녕하십니까?》

《아니, 동무가 어떻게?…》

이쪽을 알아본 강서원은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이 자재는 제가 지배인동무의 결재를 받아서 과학원으로 실어갑니다.》

《지금 과학원에 가있소?》

《그렇습니다.》 하고 황석태는 자기가 과학원자재를 받아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묵묵히 듣고있던 강서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배인동무가 함께 일하던 옛정을 생각해서 황동무의 립장을 봐준것 같은데… 하지만 어찌겠소. 기왕 왔던김에 여기서 좀 기다리다가 다음차례로 받아가시오.》

황석태는 마치도 지배인과의 안면관계를 빌어서 자재를 가로챈것처럼 여기는 강서원의 말이 불쾌했다. 전날에 그에게 품었던 좋지 못한 인상도 되새겨졌다. 하지만 공손히 말했다.

《부부장동지, 좀 도와주십시오. 과학원사정이 절박합니다.》

《아무튼 안되오. 나는 지금 수출문제때문에 여기에 내려왔소. 실었던걸 당장 부리우시오!》

명령조로 울리는 목소리에 황석태는 마음을 다잡았다. 수출문제때문에 내려왔다면 그의 완강한 립장도 어느 정도 리해되였다. 그

렇다고 순순히 물러설수는 없었다. 말마디에 힘을 주며 응대했다.
《과학부문에는 왜 계획에 예견된것조차 여적 보장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달동안 과학원에서는 계획된 유색금속자재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동무야 건설대 돌격대원이라는데 연구용자재까지 책임질 필요야 없지 않소.》
《내가 이리로 올 때 과학원동무들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유색금속자재가 있어야 새로 개발하는 초고압유압프레스를 비롯한 연구성과를 실현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고압유압프레스도?…》
황석태는 놀라움에 잠기는 그에게 절절히 말했다.
《과학원에 나오셨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프레스를 개발하는 연구사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가족휴양까지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부부장동무, 그이께서는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그처럼 심려하시는데 우리도 그 뜻을 받들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강서원은 얼굴이 해쓱하니 질리였다. 아무 말도 못했다. 갑자기 목대가 꺾인듯 허턱 고개를 숙이였다. 관자노리에 경련과도 같은 파동이 스치였다. 하더니만 도망치듯 획 돌아서서 승용차를 향해갔다.
몸의 균형을 잃은듯 발걸음이 가끔 헛놓이는것이 헨둥하게 알렸다. 황석태는 허둥거리며 멀어져가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그때까지 다는 알수 없었다.

# 제 6 장

## 1

공식적인 틀을 갖추지 않고 아낙네들이 모여앉은 인민반회의처럼 떠들썩한 모임은 없을것이다. 국제국내정세로부터 가정의 항다반사와 식료상점의 된장맛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화제를 입에 올리고 방안이 떠나갈듯이 떠들어댔다. 거기에 보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녀인들의 웃음소리가 엇섞이였다.

향미는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 할머니로 불리우는 녀인들속에 끼우는것이 쑥스러웠지만 하는 수가 없었다. 남의 눈길을 피하여 얌전히 고개를 떨구고 뒤전에 앉아있었다.

인민반회의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으면서 가정과 아빠트 주변을 알뜰히 꾸릴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향미는 모임이 끝나자 남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반장아주머니가 불렀다.

《향미야.》

향미는 방안을 나서려다말고 돌아섰다.

《좀 기다려라. 할말이 있다.》

반장아주머니의 얼굴에 의미있는 웃음이 비꼈다. 무던하고 친절한 녀인이였다.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 제기되면 대체로 향미네를 고려하여주군 했다. 김장을 담그어야 하는 일과 같이 향미가 감당하기 어려운 집안일이 생기면 이웃들에서 도와주도록 하였다. 또 무엇을 도와주려고 나를 찾을가? 향미는 다른 아낙네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반장아주머니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방안이 조용해지자 반장아주머니는 향미에게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집살림을 하기가 힘들지?》

속삭이듯 다정히 물었다.

《일없어요. 곁에서들 모두 도와주시는데…》
향미는 상긋이 웃어보이였다. 그러자 반장아주머니의 얼굴에 떠올랐던 부드러운 웃음이 사라지고 측은한 빛이 비끼였다.
《향미야, 너도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한다.》
향미는 반장아주머니의 련민에 겨운 낯빛을 바라보며 다음말을 기다렸다. 표정과 어조로 보아 뜻깊은 말을 하여주려나싶었다. 얼른 뒤를 잇기가 난처한듯 한순간 주저하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말을 탓하지 말고 명심해들어라. 아버지에게 새 어머니를 모셔오자고 권고해라. 너도 집살림을 그냥 맡아하면서 공부를 하자면 힘든 일이겠지만 너의 손에서 밥을 받아잡수시는 아버지의 불편은 더 말할게 없을게다. 열 자식 한 처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단다. 너의 아버지는 고정한분이여서 그런 일을 제 혼자 성사시키지 못할게다. 네가 언니들과 의논해서 마음후한 새 어머니를 모시도록 하여라.》
《알겠어요.》
《나는 네가 얼마나 령리한지를 안다. 너는 늘 인민반일에 빠지는걸 미안해했지. 그렇다면 방금 한 말은 내가 인민반장으로 너에게 주는 가장 무거운 과업으로 여기거라. 꼭 그대로 하여라.》
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명랑한 어조로 대답하고싶었다. 하지만 다심한 그 타이름이 설명할길 없는 애달픈 감정을 불러왔다. 갑자기 목이 메였다. 얼른 돌아서서 반장네 집을 나섰다.
향미는 아버지의 재취문제를 두고 진작부터 생각해왔었다. 어머니가 돌아간 후 처음은 이제 계모를 맞으면 어쩌랴싶어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였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에 들어오는 어떤 녀성도 좋게 대할수 없을것 같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생각이 달라졌다. 주부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싶기도 하였고 나날이 철이 들기도 하였다. 어차피 아버지를 위해 새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언니들을 찾아가 그런 말을 비쳐보았는데 그들은 펄쩍 뛰였다.
《아버지가 이제는 환갑이 다되였는데 재취는 무슨 재취냐? 아버

지는 그럴 생각이 없는것 같더라. 그런데 너같은 철딱서니없는게 뭘 주제넘게 나서서 아버지일에 간참이냐?》

《향미야, 네가 집살림을 맡아하자니까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두고봐라. 계모한테서 눈치밥을 먹는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단다. 지금처럼 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 살아가는것이 행복한 일이야. 계모를 데려오면 우리도 친정집걸음이 자연 떠질게다.》

향미는 어쩐지 수긍되지 않았다. 계모라고 누구든지 전처자식들을 무작정 구박하지는 않을것이다. 몇해전에 본 어느 영화에는 전처자식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계모의 이야기가 그려져있었다. 사람나름일것이다. 아버지의 의향이 다르다는 큰언니의 말도 믿을수가 없었다. 아무렴 아버지가 자식들앞에서 재취를 하겠다고 할수야 없지 않는가. 언니들은 나이도 들고 나보다 생활체험도 많은데 왜 그걸 리해하지 못할가? 두 언니가 똑같이 반대를 하니 노상 무시할수도 없어서 여직 망설여왔다. 그러나 반장아주머니의 권고를 듣고보니 더는 망설일수 없었다.

총총히 집으로 돌아온 향미는 전실에 불이 켜있는것을 보고 퇴근을 한 아버지가 방안에 있다는것을 알았다.

《아버지!》

신발을 벗으며 소리쳐불렀다. 여적 기다리게 한것이 미안스러워서 순간이 바쁘게 자기가 돌아왔다는것을 아버지에게 알리고싶었다.

《너 어딜 갔댔니?》

그렇게 묻는 소리가 먼저 들리고 뒤따라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타났다.

《인민반회의에 갔댔어요.》

《그런걸 난 또…》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다. 방금전에 과학원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대답하는 아버지는 전에없이 흥분한 기색이였다.

《오늘은 과학원에 가셨댔나요?》

《그렇다. 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에서 드디여 초고압유압프레스를 만들었다. 오늘 시운전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였다.》

향미는 초고압유압프레스가 어떤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금처럼 기뻐하는걸 보면 대단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발명이라고 짐작했다.

《저녁 잡수셨나요?》

《안 먹었다.》

향미는 그 길로 부엌에 가서 저녁상을 차리였다. 아버지와 마주앉아 저녁을 먹고난 다음 용기를 내여 말문을 열었다.

《난 아버지한테 꼭 말씀드릴게 있어요.》

의아한 기색으로 머리를 드는 아버지의 눈길에 부딪치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꼭지를 떼기는 하였으나 어쩐지 그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게 생각되였다.

《그래, 말하고싶은게 뭐냐?》

《아버지, 새 어머니를 모셔오자요.》

벼르고별러서 번지는 말이였으나 힘겹게 입밖으로 새여나왔다. 마른침을 삼키면서 용서라도 비는듯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다. 똑바로 마주보던 아버지의 눈길이 서서히 방바닥을 겨누었다. 외면을 하는 얼굴에는 얼핏 떠올랐던 놀라운 기색이 사라지면서 엷은 혈조가 번지였다.

아무 말도 없었다.

향미는 내친김에 품어오던 속생각을 다 터놓으려고 다시 말했다.

《난 언니들과 생각이 달라요. 새 어머니를 모셔온다고 가정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을거예요. 내가 새 어머니를 친어머니이상으로 따르고 존경한다면 그도 나를 나쁘게 여길리가 없지 않나요. 이 일에 시집을 간 언니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새 어머니를 모셔다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사람은 아버지와 나뿐이예요.》

저절로 목소리가 떨렸다. 어른들만이 할수 있는 말을 철없이 한다는 생각으로 흥분이 앞섰던것이다. 아버지가 머리를 들었다.

《나는 너를 아직 철부지로 여기는데 어른이 다되였구나.》

뜻밖에도 감격한 목소리였다.

향미는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드렸다는것을 알았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더는 미룰수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여

전히 집살림을 할수는 없어요. 나도 집에 와서 공부할 시간을 얻어야 하겠어요.》

그 조건을 들이대는것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할수도 있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수 없는거란다. 나같이 나이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와 다르다.》

아버지는 느슨한 미소를 그리였다.

《뭘 나이가 많다고 하세요. 60청춘, 90환갑이라는데… 아버지는 어느새 그 몹쓸 로쇠병에 걸리셨나봐.》

향미는 곱게 눈을 할기며 탓했다.

《자기 나이를 자각하는것과 로쇠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함부로 이 아버지를 걸고들지 말아라.》

아버지의 입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롱말이 흘러나왔다.

《남들이 그러는데 아버지만 결심하신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려는 녀성들은 줄을 설거라고 해요.》

《웬걸 그렇겠니. 설사 나서는 녀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찾으려는 사람은 흔치 않을수 있다.》

《아버지는 어떤 녀성을 맞았으면 하시나요?》

《무엇보다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줄수 있는 나이지숙한 녀성이여야지. 나에게야 그밖에 더 바랄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버지, 제 생각에는…》

향미는 말끝을 감추고 새물새물 눈웃음을 지으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였다.

《그래, 네 생각에는 어떻단 말이냐?》

《정금화선생님이 있지 않나요?》

《정금화?》

아버지는 그 이름을 급히 받아외웠다. 내처 미소가 흐르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너 혹시 그 선생이 자기를 1중학교에 편입시켜주었다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게 아니냐?》

《아버진 아직 저를 철부지로 아세요?…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감정과 어머니로 모시고싶은 심정은 전혀 다른거예요. 훨씬 그 이전부터였어요. 그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집에 이런 어머니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래요. 그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화목하게 살거예요.》

《허허허…》

아버지는 어이가 없는지 허구픈 웃음을 웃었다. 그러나 눈치를 보니 아버지도 정금화선생님에게 좋은 감정을 품고있는것 같았다. 향미는 활기를 띠고 말했다.

《일전에 정금화선생님이 우리 집에 가정방문을 오셨댔어요. 그날 나는 이불을 꾸미댔는데 선생님은 서툰 내 일손을 도와주면서 홀로 지내는 아버지를 무척 동정하시더군요.》

아버지의 얼굴에 그윽한 빛이 떠올랐다. 그러한 표정을 딸애한테 엿보이는것이 어색했던지 움쭉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향미는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그러나 공부에 정신을 모을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머리속을 맴돌았다. 두손으로 턱을 고이였다. 달아오른 볼편의 따스한 열기를 손끝에 느끼며 물끄러미 시선을 들었다. 책꽂이앞에 세워놓은 자그마한 사진액틀이 눈앞에 안겨왔다. 사진속의 어머니는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자애에 넘치는 눈길로 마주보고있었다.

향미는 어머니와 마음속의 말을 주고받았다.

—어머니, 나는 오늘 저녁 새 어머니를 모셔오자고 아버지에게 졸랐어요.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죄스러운 일로 될가요?

—네 생각이 옳다. 나는 땅속에서도 너의 아버지와 네가 무한히 행복하기를 바란다.

—새 어머니를 모셔오면 나는 가정일에서 풀려나 공부를 더 잘할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래년 국제수학올림픽에 출전할 준비를 다그치고있어요. 어머니, 나는 박상수학생처럼 국제수학올림픽에서 기어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겠어요!

## 2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과 함께 록화필림을 보고계시였다. 오랜 탐구와 곡절끝에 드디여 성공적으로 제작된 초고압유압프레스의 작업모습을 찍은 필림이였다. 그이께서는 손에 드신 설명서와 화면을 번갈아보시였다. 참으로 기쁘고 대견하시였다. 프레스에는 우리 과학자들의 기발하고 독창적인 지혜가 여러모로 깃들어있었다. 본체부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제작되였다. 무게를 종전의 기둥식방법에 비하면 12분의 1내지 15분의 1로 줄일수 있었다. 초고압유압체계도 전반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였다. 무엇보다 의의있는 것은 유압장치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유압뽐프에 기름류출을 완전히 방지하는 특수한 기밀장치가 적용된것이다. 여러시간 시운전을 하여본데 의하면 동력을 차단한 상태에서 힘유지성능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확실히 우리의 초고압유압프레스는 세계유압공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훌륭한 기계였다.

《프레스를 록화할 때 연구사동무들의 모습도 함께 찍었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록화필림을 다 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였다. 자랑스러운 청년과학자들의 얼굴들을 보고싶으셨던것이다. 무수한 곡절과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른 석홍범의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을것이다. 처음 그를 만나셨던 때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다. 준절히 꾸짖고 안타까이 타이르던 그때의 심정도 되살아나시였다. 그때의 아프시던 마음이 크셨던만큼 지금의 대견스러운 마음은 정녕 누를길 없으시였다. 그를 얼싸안고 찬양과 축하를 아낌없이 해주고싶으시였다. 그때 석홍범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한껏 기가 눌린 모습이였다. 그러나 프레스를 조작하는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어엿하고 긍지로울것인가. 그때와 심한 대조를 이룬 모습이 못 견디게 보고싶으시였다. 그와 연구사업을 함께 하여온 다른 연구사들은 한번도 만나신 일이 없었다. 낯모르는 청년과

학자들의 수고도 낱낱이 헤아려지시였다. 초고압유압프레스는 그들모두의 집체적지혜의 산물이였다. 그 훌륭한 창조물을 만드는데 기여한 다른 청년과학자들의 얼굴들도 하나하나 기억에 새기고 싶으시였다.

《제가 그만…》

간절한 심정이 비낀 그이의 얼굴을 바라보던 고중환은 더 말을 못하며 얼굴을 붉혔다.

과학기술보고서에 첨부되는 록화필림인것만큼 프레스외형과 기술적특성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방금 돌린 화면을 록화할 때 거기에는 석홍범을 비롯한 연구집단성원들이 모두 있었다. 그들은 **김정일**동지께 보고드리기 위해 록화한다는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모른다. 기대에 스위치를 넣고 인조금강석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흥분된 모습을 그대로 화면에 담았어야 했다. 과학기술적인 성과보다도 그것을 창조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언제나 더 크신 그이의 심중을 그만 헤아리지 못했었다.

《연구집단을 책임진 석홍범동무는 더 말할것도 없고 다른 동무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강철사로 힘받이능력을 보강하는 방법은 처녀연구사동무가 연구를 하였다지요?》

《그렇습니다. 몇해전에 리과대학을 나온 동무인데 양영복박사의 손녀입니다.》

《뭐라구요? 양영복박사의 손녀란 말이지요? 이름이 뭡니까?》

《양명심이라구 부릅니다.》

《양명심…》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이름을 대견히 부르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양영복박사가 자식들중에 자기 대를 이어갈 과학자후비가 없는것을 늘 한탄했는데 그런 훌륭한 손녀가 있으니 참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아들이면 어떻고 손녀면 어떻습니까. 양영복선생이 이젠 마음을 놓게 됐습니다. 초고압유압프레스를 만든것보다 이 과정에 많은 인재들이 자라났다는 그것이 더 기쁜 일입니다.》

그이께서는 흥분을 누르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훌륭한 시제품을 만든것만큼 대량생산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기계공장에 맡기지 말고 기계공학연구소의 중간공장에서 생산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공장을 좀 확장하고 설비와 기술력량을 보충해주면 인차 대량생산에 넘어갈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생산경험이 있는 중간공장에서 생산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과학지구건설계획에 그 공장확장공사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킵시다. 필요한 설비도 보충해주고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기계대학에서 유압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을 보내줍시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에 연구집단이 개발한 기술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겠습니다.》

《한달내로 전국적인 학술토론회를 조직하고 과학기술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해당 부문의 연구사들과 대학교원들은 물론 현장기술자들도 참가시키려고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진작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고있는 고중환을 미더웁게 바라보시였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 생각에는 국내에서뿐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번 성과를 널리 자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동무도 무슨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이께서 고중환에게 머리를 끄덕여보이시였다.

《있으면 말해보시오.》

고중환은 이미 많이 생각해본듯 침착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라이쁘찌히국제시장에 출품했으면 합니다.》

《부부장동무, 나도 그 생각을 했댔습니다. 동감입니다. … 나는 지난 가을철라이쁘찌히국제시장소식이 실린 통신을 본 일이 있습니다. 동무도 알고있겠지만 그 시장은 상업거래와 함께 국제적인 과학기술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초고압유압프레스를 가지고 그 경쟁에서 우리도 한번 겨루어봅시다.》

《이제 몇달동안 더 연구를 완성해서 명년 봄철시장에 출품한다면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중환은 확신에 넘쳐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국제수학올림픽에 우리 학생들의 진출을 주저하던 때를 상기하시였다. 그는 2년전만 하여도 뒤떨어진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며 세계적인 과학기술경쟁에 나서기를 꺼려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이런 발기를 내놓았다. 고중환의 성장을 눈앞에 뚜렷이 보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동무가 그렇게 락관하는걸 보니 좋은 결과를 가져올것 같습니다. 설사 결과가 시원치 않더라도 일없습니다. 여러해동안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하여오던 석홍범동무네가 외국려행을 하면서 국제시장을 한번 돌아보고오는것만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이께서는 불현듯 하나의 기억이 떠오르시였다. 지난해 여름 과학원에 나가셨을 때 석홍범을 안해와 함께 가족휴양을 하게 하라고 그곳 안전부장에게 당부하셨던 기억이였다. 그후 그들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였다.

《석홍범동무의 안해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족휴양을 다녀온 후에 그 동무는 과학원도서관에 입직하고 일을 잘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책들을 그 녀동무가 관리하면서 학자들에게 보급하고있습니다. 현지에 나간 연구사들한테 필요한 책들을 직접 배낭속에 넣어가지고 찾아다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 가정의 화목도 이루어졌겠구만.》

《그렇습니다.》 고중환은 시뭇이 웃으며 흥겨운 어조로 계속했다. 《지난 당창건기념일에 과학원에서 예술소조경연이 있었는데 그들부부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2중창을 기가 막히게 잘 불렀습니다. 누구나 그들에게 그런 솜씨가 있다는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워낙 그들은 대학시절에 2중창으로 솜씨를 보였고 그 과정에 사랑도 맺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지구에 온 후로는 가정불화가 계속되다보니 그들부부가 무대에 나서본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러해동안 묻어두었던 솜씨를 지난번에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목청도 좋고 화음도 잘되였지만 당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들의 감정이 하도 절절하여서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노래속에 맺어진 사랑을 노래속에 꽃피운다니 매우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생활이나 문화정서생활에 담을 쌓고 오직 학문에만 전심해야 연구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는 누구보다 생활을 사랑해야 합니다. 과학자의 안해들속에는 남편의 연구사업을 잘 리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도 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 부문 일군들이 과학자들에 대한 생활조직을 잘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원에서 예술소조경연에 과학자가족들을 광범히 참가시킨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과학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술이나 체육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보니 과학자들의 생활을 정서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을 두고 생각하시였다. 지금 그의 생활에는 보다 커다란 공백이 남아있었다. 상처를 한 후에 그는 여태까지 재취를 하지 못하고있었다.

《부부장동무.》

친근한 어조로 부르시였다.

《이해도 다 지나가는데 왜 아직 새 부인을 맞아들인다는 소식이 없습니까?》

《어차피 재취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여적 결심을 못 가지고있습니다.》

《혹시 데리고있는 막내딸이 철없이 반대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애는 오히려 새 어머니를 데려오자고 보챕니다. 며칠전 저녁에는 아주 심각해서 대상까지 찍어가며 권고를 했습니다. 엉뚱한 그 애 생각에 저는 놀랐습니다.》

고중환은 저도 모르게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실토했다. 어느새 은근한 이야기도 허물없이 터놓고싶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그 애가 새 어머니로 모셔오자는 녀성은 어떤 녀성입니까?》

《사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만나셨던 녀성인데…》

고중환은 말끝을 못 맺고 어줍은 미소속에 붉어지는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내가 만났던 녀성이라니… 그가 누굽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에게 몸을 기울이며 초조히 물으시였다.
《평양1중학교 정금화교원입니다.》
《그 녀교원도 독신이였습니까?》
고중환은 정금화가 남편을 잃고 오래동안 독신으로 살아온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였다.
《그런데 왜 딸애가 그 녀교원을 데려오자고 합니까?》
《정금화동무한테서 그 애가 개별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동무가 제가 없는 사이에 몇번 우리 집에 가정방문도 왔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나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즐겁게 웃으시였다.
《그래 그 녀교원한테 딸애의 마음을 비쳐봤습니까?》
《뭐 철없는것의 말을 그에게 비쳐보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딸애가 철없는것이 아니라 신통히 새 어머니 대상자를 짚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중환의 기색을 살피시였다. 딸애를 빗대고 여담처럼 말을 하는 그의 내심을 엿보고싶으시였다.
고중환은 응대없이 시뭇이 웃을뿐이다. 그도 정금화에게 은근한 감정을 품고있는게 분명했다.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생활의 행복을 찾는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을상싶으시였다. 홀로사는 고중환을 두고도 마음을 써오셨지만 듣고보니 정금화의 정상도 마음에 걸리시였다. 정금화는 한번밖에 만나보지 못하셨지만 그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였다. 국제수학올림픽우승자를 키워낸 그처럼 훌륭한 녀교원의 사생활에 독신의 외로움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가셔주고싶은 동정의 마음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일순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께서는 장안에서 록화필림 하나를 꺼내시였다.
《다가오는 설날에 정금화동무에게 전해주시오. 소학교 학생들의 속셈경연을 수록한 필림입니다.》
그이께서는 한해전에 뛰여난 학생들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텔레비죤방송을 통한 알아맞추기경연을 발기하시였다. 소학교 학생들의 첫 속셈경기의 시험관은 정금화였다. 그때의 일은 수십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도 특별히 인상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것이다. 고독하게 지내는 정금화가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시였다. 동시에 그 기회를 빌어 고중환과 행복한 인연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시였다.

## 3

창유리로 흘러드는 해발이 얼굴과 어깨에 따스한 감촉을 주었다. 정금화는 그것을 느끼며 하염없이 창문을 바라보았다. 두텁게 얼어붙은 보통강반에는 스케트를 타거나 팽이를 치는 아이들로 한벌 덮였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한적하던 강안유보도에도 어제와 오늘은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명절옷차림을 한 청춘남녀들이 유보도를 거닐며 새해의 희망을 속삭였다.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정에 추위를 모르는듯싶었다.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가?… 정금화는 50대에 접어든 자기의 인생을 생각했다. 여느때는 모르고 지내다가도 명절때이면 녀성의 마지막정열기를 외로이 보내는 자기의 처지가 서글펐다. 유보도에는 자식들을 거느린 중년기나 로년기의 남녀들도 오고갔다. 그들이 부러웠다. 뜻하지 않은 병환으로 남편이 돌아간지도 10년이 넘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전연에서 군사복무를 하고있었다. 그러다보니 명절이면 늘 외로움을 느끼였다. 어제 오전에는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이 준비한 설맞이공연을 보았다. 그리고 오후에는 세배를 하려고 집으로 찾아오는 제자들과 즐겁게 지냈다. 그러나 오늘은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고적한 방안에 홀로 있자니 시간은 지루하게 흘렀다. 쓸쓸한 고독감이 가슴에 젖어들었다. 저절로 한숨이 터졌다. 입밖으로 내불린 하얀 입김이 창유리에 서리면서 눈앞이 뽀얗게 흐려졌다.

《주인님 계십니까?》

복도에서 울리는 남자의 목소리에 번거로운 상념에서 깨여났다. 그랬으나 옆집 주인을 찾는줄로 알고 응대하지 않았다.

《계십니까?》

다시 울리는 그 목소리와 함께 가볍게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홀로 사는 녀자의 집이라 남자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란 흔치 않았는데 분명 자기 집을 찾아오는 손님이였다.

《누구십니까?》

그는 출입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에서 팔에 우편통신원완장을 두른 나이지숙한 남자가 서있었다.

《등기편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받았다는 수표를 하여주십시오.》

정금화는 편지를 받았다. 리과대학 수학학부에서 공부를 하는 박상수학생이 보내온 편지였다. 그는 지난해에 무시험으로 그 대학에 입학했던것이다. 방안으로 돌아온 정금화는 서둘러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쓴 장문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박상수는 정다운 모교와 옛 스승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였다. 글줄우에 때이르게 안경을 낀 그의 갸숨한 얼굴이 떠올랐다. 변성기에 접어든 그의 목소리도 귀가에 다정히 울려오는듯싶었다. 다함없는 정으로 가슴이 후더웠다.

《…모교를 떠날 때 선생님은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당의 은혜를 순간도 잊지 말고 공부를 잘해서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라고… 작별의 순간에 저를 바라보시던 선생님의 기대어린 눈빛을 영원히 잊을수가 없습니다. …

선생님, 모교의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저의 새해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정금화는 편지를 정히 접어서 봉투에 도로 넣었다. 강좌장선생부터 어서 보여주고싶었다. 편지를 본다면 그도 누구만 못지 않게 반가와할것이다. 강좌장은 지난 가을에 환갑을 맞았다. 그때 그는 모여온 교원들에게 두개의 큼직한 지함을 열어보이였다. 그안에는 교단에 서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때까지 제자들에게서 받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2천 5백여통이 넘는다고 하였다.

《교단에서 흘러간 나의 한생이 이 편지들에 비껴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찾은 인생의 보람과 행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강좌장은 환갑상을 대신하는 편지지함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

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누구에게서도 볼수 없는 생의 희열과 행복이 넘쳐흘렀다.

정금화는 강좌장네 집을 찾아가려고 서둘렀다. 박상수를 비롯한 옛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심란해지는 이 저녁을 보내고싶었다. 나들이옷을 갈아입고 경대앞에서 머리를 빗었다.

《계십니까?》

아까처럼 주인을 찾는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리였다. 남자의 부드러운 그 목소리가 귀에 익은듯 한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러나 딱히 누구의 목소리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반복되였다. 옷깃을 여미고 전실로 나가 출입문을 열었다. 순간 정금화는 놀라움에 숨을 훅 들이그었다. 한손에 가방을 든 고중환이 밖에 서있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고중환이 정중한 표정으로 먼저 새해인사를 하였다. 그제서야 정금화는 당황한 나머지 인사가 뒤바뀌였다는것을 깨달았다.

《새해에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머리를 가볍게 숙이며 인사를 보낸 정금화는 어리둥절한 눈길로 상대의 낯빛을 살피였다. 무슨 일로 찾아왔을가? 도무지 그 까닭을 짐작할수 없는 뜻밖의 방문이였다.

《설날이지만 혹 학교에 있을가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집에 있다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워낙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려고 하였는데 하는수없이 집으로 왔다는 뜻이였다. 그 무슨 오해를 피하려는것 같았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정금화는 방석을 권하고나서 부엌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모처럼 명절에 방문한 손님을 위해 상을 차리려 했다. 그러나 그 눈치를 차린 고중환이 한사코 막아나섰다. 정금화는 할수없이 그와 마주앉았다.

고중환이 가방속에서 록화필림을 꺼냈다.

《선생이 시험관으로 나간 소학교학생들의 속셈경연을 수록한 필림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설기념품으로 보내주시는것

입니다. 실은 어제께 전해야 하는건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줄이야! 정금화는 두손으로 정중히 록화필림을 받았다. 감사의 정이 가슴에 끓어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저의 고마운 심정을 전해드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고중환은 한순간 그 무엇을 망설이는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선생이 우리 애도 다음번 국제수학올림픽에 출전시킬 대상자후보로 지목했다는데 과연 그럴만한 실력이 그 애한테 있습니까?》
학부형으로서 자연스러운 물음이였다. 하지만 무엇때문인지 가볍게 붉어지는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힘겹게 물었다. 혹시 아버지의 배경때문에 자격이 없는 학생을 선발했다고 생각하는것이 아닐가? 정금화는 자기의 교육자적공정성이 의심을 받는듯 하여서 다소 불쾌한 생각이 치밀었다.
《향미학생을 대상자후보로 선정한것은 저 혼자의 결심이 아닙니다. 강좌에서 여러차례 시험을 쳐보고 집체적인 토의로 선발했습니다. 향미학생은 수학적두뇌가 비상합니다. 문제는 그 학생에게 가정일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공부에만 전심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는것입니다.》
정금화는 마지막말에 힘을 주었다. 가정일에서만 완전히 벗어나게 한다면 그다음 일은 학교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였다.
《나도 그 어린것에게 몇해동안 부엌일을 맡겨두는것이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좀 생각을 해왔는데…》
고중환은 말끝을 감추며 눈길을 떨구었다. 어찌하여 그렇듯 주저하며 거북해하는것일가? 정금화는 직급상으로 높은 그가 자기앞에서 지금처럼 옹색한 몸가짐을 하는걸 보니 난처한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청중앞에서도 자연스러운 자세로 론리가 명백한 연설을 하던 그가 이름없는 한 녀교원앞에서 말을 번지기 어려워한다는것을 상상할수 없었다. 어색한 그의 태도에 은연중 자기의 마음도 긴장해지는것을 느끼며 응대했다.

《부부장동지의 경우에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인차 재취를 하십시오.》

《정금화동무.》

고중환이 볼을 쓰다듬던 손을 내리우고 눈길을 들었다. 갑자기 《선생》으로 부르던 호칭이 《동무》로 바뀌여졌다. 정금화는 순간 숨이 막히는듯 해서 그를 마주보기만 했다. 스미듯이 안겨오는 상대의 눈빛에 자극된 심장이 그 어떤 예감에 잔잔히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마른침을 삼키며 고중환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나는 재혼문제를 두고 그 누구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도 향미의 의견을 고려했습니다. 동무도 이 점을 충분히 리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는 오래전부터 동무를 새 어머니로 모시고싶다고 하였습니다.》

정금화는 놀라움에 눈을 빛내이였다. 수학문제를 가르쳐줄 때마다 그윽히 바라보던 향미의 눈동자에 교원에 대한 존경심만이 아닌 그런 기대가 숨겨져있을줄이야! 그 나이로서는 보통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정금화는 반응을 기다리는 고중환의 시선을 피하며 입속으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저로서는 너무도 뜻밖입니다.》

《그럴수 있겠지요.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런 말을 하는 나를 리해해주시오. 이미전에 제3자를 내세워서 동무의 심정을 알아볼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문만 웃음거리로 남게 될것입니다.》

어느덧 마음을 진정한 고중환은 말을 순조롭게 번지였다. 하지만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한 정금화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부부장동지, 저같은 녀성에게 련정을 품고 찾아온 사실자체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싶었으나 어찌된셈인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두고 잠들어버렸던 이성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면서 리성이 흐려질 정도로 그의 머리속을 휘저어놓았다. 그는 침묵했다. 녀성과의 교제에 경험이 없는 고중환은 그 침묵을 달리 리해했다.

《동무가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도 나쁘게 생각지 않겠습니다. 결혼이란 어디까지나 평등한 두 인격의 결합이 아니겠습니까. … 어느 한쪽의 요구에 다른쪽이 마지못해 순응하는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있을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게 아니라 갑자기 닥친 일이고보니…》

정금화는 당황한 기색으로 그의 말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후에 조용히 나한테 결심을 전해주십시오.》

두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높아진 숨결소리만이 크지 않은 방안의 공기를 애모쁘게 뒤흔들었다. 정금화는 첫사랑의 고백을 듣던 처녀시절보다도 몇갑절 더 흥분된 감정에 휩싸이는듯 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깊이 숙이였다. 장년기녀인의 마지막정열은 때로 처녀시절보다 훨씬 더 강렬해지는가싶었다.

《그럼 그만 실례하겠습니다.》

고중환은 옆에 벗어놓았던 모자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벌써 가시다니요?》

정금화는 따라일어서며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상대는 할말을 다했다고 일어서지만 자기쪽에서는 이제부터 하고싶은 말이 많은듯이 생각되였다. 그런데 마침 고중환이 이렇게 말했다.

《어데 나가려던 참인것 같은데 함께 나서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동성동에 있는 우리 강좌장선생댁엘 가려던 참이였습니다.》

《그럼 마침 잘됐습니다. 우리 집도 그쪽에 있으니 밖에 나가 기다리겠습니다.》

고중환은 밖으로 나갔다.

정금화는 연황색솜옷을 찾아입고 은백색수건을 머리에 썼다. 박상수의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서니 어느새 밖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어스름속에서 두릿거리던 그는 아이들의 놀이터옆에 서있는 고중환을 발견하고 총총히 다가갔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를 밖에 세워둔 시간이 몇분이나 되였는지 알수 없었으나 무척

오래 기다리게 한것 같이 생각되였다.
《녀성들과 함께 떠나자면 기다릴줄 알아야지요. 녀성들이란 어데를 가나 떠나는 준비가 소홀하지 않지요.》
고중환의 헌헌한 응대에 정금화는 소리없이 웃었다. 그들은 골목길을 에돌아서 보통문쪽으로 뻗은 대통로의 보도에 나섰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고층건물의 옥상들에서는 장식등이 명멸했다. 새해를 축하하는 탑들과 그림판들이 가로등의 휘황한 불빛속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틀동안 계속된 설휴식의 어느때보다도 지금은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적었다. 대체로 이 저녁에는 래일의 새해 첫 출근을 위해 휴식을 하였다.
정금화는 고중환과 나란히 걸으면서 설휴식이 아쉽게 끝나가고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마음은 비로소 설분위기에 잠기는듯싶은데 이미 많은 시간이 고독하게 흘러가버리고 지금은 마지막 몇시간을 남기고있었다.
어느새 보통교를 건너서 보통문을 가까이하고있었다. 그들은 침묵속에 걸었다. 정금화는 자기의 심정을 실토하고싶었지만 여전히 입이 열리지 않았다. 눈이 다져진 보도우에 굽높은 구두가 미끄러졌다. 비틀거리는 몸이 고중환의 어깨에 부딪쳤다. 고중환이 얼른 손을 뻗쳐서 그의 팔굽을 잡아주었다.
《조심하시오. 길이 미끄럽습니다.》
잡았던 팔굽에서 손을 떼며 고중환이 하는 말이였다. 정금화는 웬일인지 심장의 박동이 높아지는것을 의식했다. 얼핏 시선을 들어 고중환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곧바로 앞을 바라보는 그의 낯빛은 덤덤한듯 한 기색이였다.
청혼을 하였던 사실을 영원히 되살릴수 없는 과거로 치부해버리는것이 아닌지… 이제 그의 집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네거리교차점에 이르면 고중환의 집으로 꺾어드는 갈림길이 나타난다. 거기서 헤여져야 하는것이다. 서로의 심정을 숨김없이 나누기 위해 그 거리를 아득히 먼곳까지 연장하고싶었다. 하지만 한본새로 내여짚는 발걸음은 얼마 남지 않은 그 거리를 사정없이 줄여가고있었다.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타률적인 힘에

의하여 헤여지는 순간을 앞당겨오는듯 하였다.

《아버지－》

그들은 동시에 와뜰 놀라며 소리나는쪽으로 머리를 돌리였다. 지하건늠길입구에 향미가 서있었다.

고중환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향미도 아버지곁에 선 정금화를 발견하고는 일순 거북해하는 눈치였다. 빨간 장갑을 낀 손으로 입술언저리를 가리우며 두눈을 올롱하니 떴다. 지하도에서 빠져나오는 걸음으로 아버지만을 띄여보고 반겨 불렀던것이다. 아버지가 정금화와 함께 걷는줄 알았다면 자리를 피하였을것이다.

《너 어데 갔댔느냐?》

홋홋해오는 덜미를 문지르며 다가간 고중환은 애써 범상한 어조로 물었다.

《학급동무들과 함께 연극구경을 갔댔어요.》

건성 대답을 한 향미는 이런 정황에 부딪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깨달은듯 아래입술을 깨물더니 조금 떨어져있는 정금화에게로 달려갔다.

《선생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공손히 머리숙여 설인사를 하고난 그는 무작정 정금화의 팔을 잡았다.

《우리 집으로 가시자요.》

《고마와요. 그러나 난 지금 강좌장선생님네 집으로 가는 걸음이예요.》

《전 선생님을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설날인데 잠시라도 우리 집에 들렸다 가십시오!》

향미는 두손으로 힘껏 정금화의 팔을 이끌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놓아주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얼굴에 비끼였다. 정금화는 고중환의 눈치를 살피였다.

《우리 집에 들렸다 가시지요.》

인사치레로 건늬는 말처럼 억양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마주보는 눈빛에는 은근한 기대가 숨겨져있었다. 정금화는 녀성의 예민한 감각으로 그것을 포착했다.

《선생님, 어서 가시자요!》

향미가 애원했다. 정금화는 마지못해 이끌리듯 몸을 뒤로 약간 젖히고 지칫거리며 첫 자국을 뗴였다. 그러나 다시 내딛는 발걸음은 땅에 닿지 않는듯 한 느낌이였다.

세사람은 중앙당청사쪽으로 뻗은 도로옆 보도를 걸었다. 정금화와 그의 손목을 잡은 향미가 한걸음 앞섰다.

그들은 집에 이르렀다.

향미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더니 저녁상을 들여왔다. 크지 않은 두리반에 설음식들이 올랐다. 향미는 명랑한 기색으로 옆방에 있는 아버지를 불러오고 정금화의 손목을 이끌어 두리반옆에 앉히였다. 그리고는 두개의 유리잔에 빨간 포도주를 따라서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그 술잔이 자기에게로 향해지자 정금화는 당황했다.

《아니, 아버지부터 드려야지.》

《아버지한테는 설축배잔을 어제 아침에 드렸습니다. 선생님, 어서 받으십시오.》

정금화는 하는수없이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선생님, 저는…》

말끝을 감추는 향미의 동실한 얼굴에 애절한 빛이 흘렀다.

똑바로 마주보는 두눈은 물기를 머금고 삼박거렸다. 뒤말을 잇지 못한 입술은 차마 터놓을수 없는 마음속의 애원을 뇌이는듯 연신 방싯거렸다. 정금화는 귀로써가 아니라 심장으로 언어를 초월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설명할길 없는 감정으로 온몸이 후덥게 달아올랐다. 향미의 떨리는 손에 떠받들린 술잔이 턱밑으로 다가왔다. 말없이 받아서 옆으로 목을 돌리고 단숨에 마셔버렸다. 가느다란 손잡이에 원형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 투명한 축배잔은 어지간히 크기도 하였고 거기에 담긴 포도주도 도수가 높았다. 평생 그렇게 많은 술을 처음으로 다 마시였다. 어느덧 머리가 핑 도는 가운데 향미를 쓸어안고 모성의 애무를 퍼붓고싶은 욕망이 가슴에 북받쳐올랐다. 하지만 자신을 억제하며 도로 자리에 앉았다.

세사람은 저녁식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왜서인지 서로 바라보기가 서슴어져서 누구도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수저를 놀

릴뿐이였다. …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일요일 저녁에 고중환과 정금화는 간소한 결혼식을 가지였다.

틈을 내여 참석하신 **김정일**동지께서 그들의 행복을 축하해주시였다. 그러신 다음 향미의 어깨를 두드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오래동안 마음을 써오면서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네가 풀어주었구나. 고맙다.》

## 4

라이쁘찌히국제시장이 열리는 봄철이 눈앞에 다가왔다. 석홍범네 연구집단은 몇달동안 초고압유압프레스에 콤퓨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를 도입했다.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 수자조종식자동선반을 생산한 기술을 자동화연구소의 도움밑에 창조적으로 적용했다. 첨단전자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훌륭히 완성된 프레스를 국제렬차로 라이쁘찌히에 실어보냈다.

그로부터 한주일후였다. 석홍범과 양명심은 도이췰란드로 떠나려고 평양교외의 비행장으로 나갔다. 그들을 배웅하려고 림수봉과 양영복이 한발 먼저 기다림칸에 와있었다. 손녀의 련락을 받은 양영복은 어제 평양으로 왔던것이다. 나란히 쏘파에 앉아서 줄곧 출입문을 지켜보던 림수봉과 양영복은 기다림칸으로 들어서는 두 청춘의 모습에 눈앞이 황홀했다. 그들의 용모와 차림이 몰라보리만큼 우아했던것이다. 흰 샤쯔에 자주빛넥타이를 매고 연회색봄외투를 입은 석홍범은 보기 좋은 용모가 한결 더 준수하게 돋보이였다. 그도 그렇지만 평소에 수수해보이던 양명심은 완전히 딴 처녀처럼 보이였다. 봄철의 정취가 어린듯 한 보라빛양복에 려행용트렁크를 들었다. 솜씨있는 미용사의 손을 빌려 단장을 한 머리와 연하게 화장을 한 얼굴은 옷차림과 조화되여 처녀의 세련된 미를 한껏 자아냈다. 그들은 청춘시절에 살고있었지만 지난 몇해동안 몸을 가꾸거나 화

려한 차림을 하는데 관심을 돌려본 일이 없었다. 게을러서도 아니였고 푸수한 차림을 좋아해서도 아니였다.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매일같이 기름을 다루다보니 자연히 옷에 시커먼 기름이 게발리게 되였다.

네사람은 길다란 쏘파에 자리를 같이하였다. 양영복이 손녀를 자기옆으로 이끄는 통에 석홍범은 림수봉의 옆에 앉았다. 명심의 옆쏘파에 앉은 금발머리외국인청년은 처녀의 아름다운 자태에서 눈길을 뗄줄 몰랐다. 몸을 명심의 곁으로 기울인 그는 기회만 있으면 무슨 말인가를 건늬여보려는 눈치였다.

양영복은 조국을 떠나 멀리로 날아가게 될 손녀가 걱정되여서 다심히 당부를 하였다.

《얘야, 외국려행을 한다고 마음이 들떠서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 나라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정신생활이 건전할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탕개를 풀었다가는 랑패를 볼수 있다. 거기 사회풍조가 나날이 어지러워진다고 하더라.》

《알고있어요.》

명심은 지난 며칠동안 려행준비를 하면서 그 나라의 최근사회정세에 대해 깊은 리해를 가지였다. 굳이 깨우침을 주지 않아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로파심을 가지고 타이름을 계속했다. 그곳의 기후풍토가 우리와 다를테니 탈이 나지 않도록 하여라, 호텔에 들어서 잠을 잘 때에는 안으로 걸쇠를 단단히 걸어라. …

《할아버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명심은 이마를 찌프리며 할아버지의 자심한 타이름을 밀막았다. 그냥 있으면 언제까지나 계속될상싶었다. 옆에서는 림수봉이 석홍범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근년간에 외국려행을 여러번 하였고 라이쁘찌히국제시장에도 다녀온바 있는 그의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였다.

명심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였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며 주의를 자기한테로 이끌었다.

《내가 연구소를 떠나올 때 말이다, 박치영이가 너의 소식을 듣더니 나더러 축하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요?》
명심은 가볍게 놀라며 할아버지의 낯색을 살폈다. 할아버지자신도 까맣게 잊고있던것을 비로소 떠올린듯 한 표정이였다. 아직은 자기들 사이에 얽혀졌던 복잡한 관계를 모르는것 같았다.
《그 동무가 연구소에 돌아온 후 연구사업을 잘하나요?》
어쩔수없이 관심이 가는것이여서 그렇게 물었다. 한때는 영원히 머리속에서 그를 지워버리려고 했으나 그럴수가 없었다.
《연구사업을 잘하지. 그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였다.》
《모르지요. 세월이 흐르면 그 허영심이 또 나타날는지…》
《아니다. 그도 사람인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거다! 연구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댔다. 내앞에서 용서를 빌며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쓰라린 체험을 거쳐 새롭게 느끼고 깨달은바를 고백하는 그 심정이 어찌나 진실하고 절절하였던지 내 눈시울이 다 뜨거워지더라. 워낙 령리하고 사리도 밝은 사람이여서 자기를 돌이켜볼줄 알더구나. 부업농장에 나가서도 연구사업을 계속해서 매우 귀중한 발견을 하였다.》
명심은 더 묻지 않고 차분히 눈시울을 내려깔았다. 박치영이 새로운 출발을 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노여운 감정은 깨끗이 가셔지지 않았다.
기다림칸의 고성기에서 표찍는 시간이 되였다고 알리였다.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서며 실내가 뒤설레였다. 모두가 활짝 열려진 나들문들로 나갔다. 배웅을 하던 사람들은 전송대쪽으로 향했고 석홍범과 양명심은 나들문으로 나갔다.
활주로에 들어선 대형려객기는 사다리가 다가오자 객실문을 열었다. 다른 손님들과 함께 비행기에 오른 석홍범과 양명심은 오른쪽 세번째 좌석에 앉았다. 미구하여 려객기는 동체를 떨며 뢰성같은 동음을 울리더니 활주로를 따라 살같이 내달렸다. 그들은 타원형기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전송대에서 손저어주는 사람들을 가려볼수 없었다. 창공을 향해 솟구쳐오르는 무서운 속도에 땅우의 모든것은

혼잡을 이루며 순식간에 아득히 멀어져버렸다. 고도를 잡은 비행기는 어느결에 조국의 령공을 벗어났다. 눈아래로 동북아시아의 대평원이 흘러갔다. 비행기는 얼마후부터 광활한 씨비리의 천리수해를 횡단했다. 그들은 노보씨비리스크비행장과 모스크바비행장을 거쳐서 이틀만에 라이쁘찌히에 도착했다.

석홍범과 양명심은 도착한 다음날에 시내를 구경했다. 동부베를린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의 한 일군이 그들을 안내하였다. 통역을 겸한 그 일군은 젊은편이였는데 라이쁘찌히의 유구한 력사와 시내의 고적들을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석홍범과 양명심은 조국을 떠날 때 이 도시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를 가지였다. 그러나 정작 현지에 와보니 느낌과 인상이 새로왔다.

라이쁘찌히국제시장이 열리게 된 때로부터 200년의 력사가 흘렀다. 현대에 이른 이 국제시장은 단순한 상품교류의 성격을 벗어나 과학기술의 교류와 보급의 거점으로 되였다. 현대의 상품경쟁은 곧 과학기술경쟁이라고 할수 있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제품에 도입된 과학기술의 높이에 따라 체육경기에서처럼 순위가 결정되고 해당한 상과 증서가 수여되기 시작했다. 국제시장에 부여된 과학기술경쟁의 새로운 성격은 날을 따라 짙어갔다.

워낙 라이쁘찌히는 오래전부터 과학문화가 발달된 도시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 학자들의 행적도 이 도시에 수없이 남아있다. 로씨야의 학자 로모노쏘브도 이 도시를 다녀가면서 후세에 길이 전해오는 하나의 일화를 남기였다. 그는 어느 골목의 맥주집에 들려 맥주를 마셨는데 그 값을 물지 않고 가버렸다. 맥주를 마시면서 과학적 사색에 깊이 빠져버렸기때문이라고도 하고 맥주맛이 하도 좋아서 만취되여버렸기때문이라고도 한다. 어느 설이 진짜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 맥주집에는 어느때 로모노쏘브가 맥주를 마셨다는 간판이 오늘까지도 자랑스럽게 걸려있다. 유명한 명사들의 행적을 말해주는 이러한 간판은 흔히 이 도시의 오랜 건물들의 정면에 나붙어있다. 과학자들뿐이 아니였다. 괴테와 하이네, 슈벨트와 바하… 각이한 력사적시대에 살면서 인간을 아름답고 고상한 세계에로 이끈 유명한 작가, 예술인들의 발자취도 거리와 골목들에 찍혀져있었다. 괴

테가 손님들에게 《파우스트》의 한구절을 읊어주던 다방은 유구한 세월의 비바람속에 석조벽체가 거멓게 그을렸지만 중세기부터 문화의 거점으로 이름높던 도시의 력사를 그대로 말해주고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적판도에서 인류의 지혜를 높이 자랑해온 라이쁘찌히, 과거의 력사와는 대비할수없이 눈부신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오늘에 자기들의 창조적지혜의 산물을 안고 찾아온 조선의 청년과학자들은 이 도시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는지…

## 5

한시간나마 달려온 승용차가 마침내 금속공업부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린 강서원은 유정한 눈길로 청사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주일만에 9월제련소에서 돌아오는길이였다. 그동안 청사의 모습이 달라진듯싶었다. 봄철을 맞으며 건물의 외벽을 다시 칠하였고 울타리를 뒤덮은 담쟁이도 푸른빛을 띠였다. 떠날 때에는 담쟁이잎새들이 방금 망울을 터치고 돋아나는가싶더니 어느새 푸르러졌다.

구내를 둘러보던 그는 갑자기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저게 누구인가? 틀진 체구에 봄철회색양복을 입고 청사주변을 돌아보는듯 한 유연한 걸음으로 차고쪽을 향해가는 사람의 뒤모습이 시야에 박혀왔다. 눈에 익은 모습이였다. 그 사람이 발에 걸채이는 큼직한 나무토막을 성큼 들어 차고옆에 세울 때 얼굴을 알아보았다. 황석태였다.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는가? 혹시 과학연구용금속재료를 해결하려고 온것이 아닐가? 필경 그럴것이다. 오래동안 9월제련소 당비서로 있었던 그는 금속공업부에 아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다는것을 알게 된 과학원사람들이 또다시 그에게 자재를 부탁했을것이다.

강서원은 잠시 제자리에 굳어진채 황석태를 두고 생각했다. 이번에 9월제련소에 내려가보니 아까운 일군이 철직되여갔다는 생각이 새삼스러웠다. 제련소의 생산실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원료와 자재, 기술설비와 생산조직의 여러 고리들에 걸린 문제들이 많았다.

그 매듭들을 풀기 위해 제련소의 행정기술일군들과 여러차례 의논을 했었다. 모임의 휴식시간에 적지 않은 일군들이 안타까이 말했다. 이러니저러니해도 황석태가 있을 때에는 계획을 못해본 일이 없다고… 강서원은 엄연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때는 독단을 부리며 행정을 대행한다고 못마땅하게 여겨왔지만 황석태가 없는 오늘의 제련소를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작풍상의 결함이 있더라도 그는 역시 충실하고 능력있는 일군이였다.

강서원은 지난해 가을 마지막으로 그와 격렬하게 맞섰던 사실도 상기했다. 그러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화차에 실어놓은 연구용자재를 당장 부리우라고 호통을 뽑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후부터 나의 가슴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자기반성의 내부투쟁이 벌어졌는지를 그가 짐작하고있을가. 모를것이다. 다시 만난 이 기회를 빌어 그와 허심히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싶었다.

《황동무!》

목이 잠기여서 부름소리가 입밖으로 가늘게 새여나왔다. 그의 가슴에 원한이 사무쳐있을것이라는 생각이 치밀었기때문이다. 다시 찾을 용기를 잃고 그의 거동을 지켜보았다. 차고옆을 돌아서던 그가 이쪽을 알아보았다.

《출장을 갔다더니 언제 돌아왔습니까?》

손을 털며 성큼성큼 다가오는 황석태는 예상밖으로 반기는 낯빛이였다. 역시 그는 지난날의 다툼을 앙심으로 가슴에 꿍져드는 그런 옹졸한 사나이가 아니였다.

《방금 돌아오는길입니다.》

강서원은 굳어졌던 표정을 풀며 큼직한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웃는 얼굴로 재빨리 계속했다.

《이제 부장동무에게 사업보고를 하고 나올테니 반시간후에 내 방으로 오시오. 연구용자재때문에 왔을텐데 내 다 해결해주겠습니다. 동무에게 하고싶은 얘기도 많습니다.》

강서원은 빙긋이 웃고있는 황석태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부장실로 급히 들어갔다. 출장기간의 사업보고를 구체적으로 듣고난 부장은 수고를 하였다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부부장동무가 출장간 사이에 당비서동무가 새로 임명되여왔습니다. 비서동무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시오.》

금속공업부 당비서는 한달전에 중앙당으로 소환되여가고 그 자리가 비여있었다.

《어데 있던 사람이 새로 왔습니까.》

《과학지구건설 돌격대원으로 있던 동무요. 참, 동무도 잘 알겠구만. 그전에는 9월제련소 당비서로 있던 황석태동무요.》

강서원은 무척 놀라며 부지중 창밖을 내다보았다. 황석태는 이미 마당에 없었다. 그리고보니 아까 그는 새로 부임되여와서 청사를 돌아보던 참이였던 모양이다. 무엇때문인지 돌격대원으로 있던 그가 중앙기관 당비서로 되였다는 사실이 엄청난 도약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응당 그럴수 있다고 여겨졌다. 부장실을 나와 당비서실로 걸음을 옮기는 강서원은 생각이 깊었다. 지난날에 그와 대결했던 일들이 또다시 되새겨졌다. 물론 황석태는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앙갚음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것이다. 문제는 견해의 대립이 첨예했던 그 계기들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나의 그릇된 립장과 관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데 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의 마찰이 아니라 사상과 견해의 충돌이였다. 앞으로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할것인가? 나의 그릇된 사상관점을 잘 알고있는 당비서를 만난것이 앞으로의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가? 황석태가 만일 돌격대원으로 그냥 남아있다면 자연스럽게 회포를 나눌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당비서로 된 그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여야 할지 얼른 결심이 서지 않았다. 잠시 문밖에서 망설이던 끝에 조심스레 당비서실의 출입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방안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가 전에없이 위엄있게 들리는듯싶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황석태의 표정을 조심히 살피며 다가갔다. 황석태는 빙긋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약속대로 내가 부부장동무의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그는 헌헌한 낯빛으로 말을 건늬며 손짓으로 의자를 권하였다. 문밖에서 그의 목소리를 위엄있게 느낀것은 자기의 마음이 긴장했던 탓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강서원은 앞상을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앉았다.

《마당에서는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금속공업부 당비서로 일하게 된것은 나로서도 전혀 뜻밖의 일입니다.》

어느새 웃음을 거둔 황석태의 얼굴에 숙연한 빛이 떠올랐다.

《함께 일하게 되여 반갑습니다.》

그렇게 말한 강서원은 황석태의 서느러운 눈빛이 똑바로 겨누어오는것을 느꼈다. 진정인가를 가늠해보는듯싶었다. 한순간의 침묵끝에 황석태는 진지한 낯빛으로 입을 열었다.

《부부장동무도 잘 아다싶이 나는 작풍상의 결함도 많고 과학기술에도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엄중한 과오를 저질렀댔습니다. 과거에도 나를 비판해주었지만 앞으로도 잘 도와주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그가 하는 이 부탁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비양인가 아니면 진정인가? 지난날에 옳은 립장에서 그를 비판하였다면 아무런 가책도 없이 진정으로 받아들일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돌이켜보면 황석태와 대결했던 거의 모든 계기들에서 내가 더 심한 사상적병집을 드러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티탄합금의 압착가공설비와 관련하여 그것을 완강히 부정하던 때의 일이 더욱 그러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설비의 제작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으니 나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할수 있다. 그 계획을 끝내 승인하지 않았던 나는 후에 금속공업부에서 찬양을 받았다. 그러나 압착가공설비를 완강히 부정해나섰던것은 양영복박사와 같이 정당한 립장에서 출발한것이 아니였다. 그때 황석태와 나사이에 누가 더 옳았는가? 황석태는 그래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하루빨리 앞당겨 수행하려고 한몸바쳐나섰다. 고도기술개발에 대한 우리 당의 뜻을 미처 몰랐으며 과학기술문제에 직권을 개입한것과 같은 심중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

도 그의 주관적의도는 부인할수 없이 옳았다. 그러나 나는 본질적으로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사상과 보신적인 립장에 사로잡혀있었다.

《비서동무,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깊은 회오에 잠겼던 강서원은 붉어지는 얼굴을 들며 간신히 미소를 지어보이였다.

《부부장동무는 내 부탁을 달리 리해하는것 같구만. 마당에서 만났을 때 부부장동무는 내가 당비서로 왔다는것을 모르고 과학연구용자재를 손수 해결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그동안 부부장동무도 자기를 심각히 뉘우쳐왔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일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나 나누었을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동무와 솔직한 심정을 나누고싶습니다. 우리 다같이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의미에서 동무가 진심으로 도와줄것을 바라는것입니다.》

강서원은 자기의 우려와 경계심이 지나친것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마음의 안정을 느낀 그는 간격없이 자기 가슴을 헤쳐보이고싶었다.

《아닌게아니라 나는 그동안 자신을 랭철히 돌이켜보았습니다. 9월제련소 상하차장에서 내가 당황해하던 일이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황석태는 석홍범부부의 말을 듣고 목대가 꺾인듯 고개를 떨구며 물러가던 강서원의 모습이 얼핏 떠올랐다.

《초고압유압프레스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내 사위입니다.》

《그렇습니까?》

황석태는 깜짝 놀라며 강서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과학원을 다녀가시면서 사위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때부터 나는 지난날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전에 들었댔습니다.》

하고 강서원은 사위의 지향을 못마땅해하던 일들을 솔직히 말했다. 사위가 초고압유압프레스개발에 성공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더욱 자책의 모대김에 시달려왔다. 자식들앞에서 부모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수치감이 수시로 골수에 사무쳐왔다. 그는 보다 절

절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누구만 못지 않게 대중앞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을 부르짖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천행동에서는 부끄럽게 처신을 했습니다. 나는 해임되였던 당비서동무와 자기를 대비해보았습니다. 진작 철직되여야 할 사람은 나같은 사람들입니다. 비서동무의 과오는 로출되여 두드러졌기때문에 문제시되였지만 나의 사상적병집은 은페되여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과학발전에 미친 영향은 몇배로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강서원은 괴로운 마음을 헤쳐보이고나니 어느 정도 가슴이 후련해지는것 같았다.

《솔직히 말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진중한 낯빛으로 듣고있던 황석태는 푹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방안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출입문곁에 있는 전등스위치를 누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앉았다.

《부부장동무.》

저력있는 부름소리에 강서원은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마주보는 황석태의 눈에 절절한 빛이 흘렀다.

《나야말로 당과 국가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저께 저를 이리로 보내시면서 감회깊이 말씀하시였습니다. 9월제련소에 내려오셔서 저를 준절히 비판하시고 돌아가신 날 저녁에 잠 못드시고 〈동지애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아픈 가슴을 달래였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제가 잊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앞으로의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헤여지실 때 그이께서는 그 노래가 담긴 록음카세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황석태는 북받쳐오르는 자기의 감정을 걷잡지 못하며 느닷없이 강서원의 손을 꽉 움켜잡았다.

《부부장동무, 우리가 어떤분의 품속에서 일하고있는가를 한시도 잊지 맙시다. 한번 그이의 품에 안긴 이상에는 설사 사업과 생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의 운명이 달리될수 없습니다.》

강서원은 황석태의 감정이 그대로 자기에게로 파도쳐오는것을 느끼였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종이 울리였다.

황석태는 어느새 젖어든 눈시울을 닦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금속공업부 당비서실입니다.》

무심히 응대를 하던 그는 튕겨나듯 자리에서 일어서며 몸가짐을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걸어오신 전화였다.

《황동무, 인젠 새 직무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아직 실태를 료해하는중입니다.》

《지금 사업인계를 받던중입니까?》

황석태는 강서원쪽에 피끗 시선을 주고나서 정중히 대답을 올리였다.

《강서원부부장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던중입니다.》

《한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김정일**동지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황석태는 수화기를 바싹 귀에 눌렀다.

《우리의 초고압유압프레스가 라이쁘찌히국제시장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유압공학분야에서 세계를 따라앞섰습니다!》

《그렇습니까?》

황석태는 기쁨에 넘쳐 가볍게 부르짖었다.

《방금 과학원동무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는데 동무도 그 프레스제작에 필요한 금속자재를 해결해주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나서 전화를 겁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기쁜 소식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석태는 목메여 말씀드리며 생각했다. 그이께서 초고압유압프레스제작에 필요한 유색금속자재를 보장해주었다는 하찮은 사실만을 념두에 두고 친히 전화를 걸어주신것이 결코 아니다. 보다는 깊은 뜻이 있다. 새로운 발명으로 세계를 경탄시킨 라이쁘찌히소식이 누구

보다도 나에게 사상적으로 큰 자극을 주리라고 생각하셨을것이다.
수화기에서 그이의 친근하신 음성이 다시 울리여왔다.
《황동무, 오늘은 유압공학분야에서 세계를 경탄시켰다면 래일은 티탄합금가공분야에서 세계를 압도해야 합니다. 나는 금속공업부가 양영복박사네 연구사업을 잘 도와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속가공분야에서 초소성가공법을 남먼저 실현해야 합니다.》
《말씀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황석태는 힘주어 대답을 올리였다. 신심과 의욕이 가슴속에 강렬히 솟아오르는것을 의식하며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랬을 때 경건한 몸가짐으로 서있는 강서원이 시야에 안겨왔다. 한순간 망각했던 그의 존재를 비로소 발견한듯싶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알고보니 석홍범동무가 우리 강서원부부장의 사위입니다.》
《참 그렇지.》
그이께서는 언젠가 들으신 기억을 되살리는듯 하더니 그를 바꾸어달라고 하시였다.
황석태는 강서원에게 송수화기를 넘겨주었다. 강서원은 어리둥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스레 두손으로 송수화기를 받았다. 걷잡을수없이 손이 떨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강서원이 전화받습니다.》
목소리도 떨렸다.
《동무는 참으로 훌륭한 사위를 두었습니다! 석홍범동무는 이번에 **김일성**민족의 과학적지혜를 세상에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쁘찌히국제시장에서 기계제품은 선진공업국들에서만 입선시킬수 있는것으로 공인되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고압유압프레스가 최우수제품으로 평가되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온 나라의 경사이고 부부장동무네 가정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환희와 열정에 넘치신 그이의 음성이 수화기의 진동판을 울리였다. 강서원은 그이의 목소리가 심장을 쿵쿵 울려주는듯싶었다.
《그 사람을 오늘의 성공에로 이끌어주신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십니다. 저는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 사람의

연구사업을 저는…》
형언 못할 수치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이께 자기반성의 심정을 영원히 터놓지 못할것만 같은 절박감에 휩싸이며 《저는…》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랬으나 북받치는 감정으로 목이 메였다. 과학원으로 진출하는 사위의 앞길을 은근히 막아나섰던 일이며 그에게 무역회사출장소에 갈것을 권고하던 일들이 눈앞에 떠오르며 자책의 모진 아픔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부부장동무, 동무가 지난날에 그릇된 관점에 사로잡혀있었다는것을 나도 알고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새삼스레 자신을 뉘우치며 괴로워하지 마시오. 라이쁘찌히에 있는 사위에게 축하의 전보나 쳐주시오.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초고압유압프레스를 사겠다고 신청해왔답니다. 그 계약때문에 석홍범동무네는 인차 귀국하지 못합니다.》
전화가 끝났다. 그랬으나 전화기옆에 서있는 두사람은 움직일줄 몰랐다. 그이의 음성이 계속되는것만 같은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숙연한 침묵이 흐르는 방안에는 세차게 뛰는 두 일군의 심장의 박동소리만이 높아졌다.
《부부장동무, 전보를 쳐야지요.》
잠시후에 황석태가 깨우쳤다. 강서원은 그제서야 현실적인 생각으로 되돌아왔다.
《전보를 비서동무와 함께 련명으로 칩시다.》
황석태는 기꺼이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둘러 금속공업부청사를 나섰다. 국제통신국은 멀지 않았다. 승용차를 탈것도 없이 나란히 걸었다.
밤거리에 부실부실 봄비가 내리고있었다. 청사를 나설 때에는 비가 온다는것을 몰랐다. 거리를 오가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받고있었지만 그들은 흔연히 비발속에 몸을 내맡기였다. 되돌아가서 우산을 가져오자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곁을 지나는 사람들이 때로 의아한 눈길을 그들에게 보냈다. 엄숙한 낯빛으로 찬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나란히 걷고있는 풍채좋은 두사람이 길손들의 눈에는 이상스레 비꼈을것이다. 그들은 한껏 달아오른 얼굴에 뿌려지

는 비발을 즐기며 머리를 곧추 들었다. 가로등빛에 드러나는 비발속을 응시하며 걸음을 맞추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서로가 공통된 하나의 감정에 휩싸여있다는것을 알았기때문에 어느쪽이나 서뿔리 입을 열지 않았다. 이따금 눈길을 마주칠뿐이였다. 그 시선이 심장의 약속을 나누고있었다. 얼마쯤 걸었을 때 황석태는 옷주머니에 손을 넣어 줌안에 드는 소형록음기의 단추를 눌렀다.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록음카세트가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록음에 맞추어 마음속으로 따라불렀다.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

## 6

석홍범과 양명심은 조국을 떠난지 두달 23일만에 돌아왔다. 이날 평양비행장은 환영일색으로 뒤설레였다. 떠날 때에는 몇사람만이 전송을 하던 비행장에 지금은 수천명의 군중이 모였다. 조국에 남아있던 같은 연구집단의 성원들과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사들, 중간공장의 로동자들이 여러대의 뻐스를 타고 비행장으로 왔다. 평양과 지방의 연구기관사람들도 있었다.

머나먼 유럽에서 하늘을 날아온 대형려객기가 활주로에 내렸다. 대기하고있던 사다리가 비행기의 출입문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기체의 문이 열리면서 주체과학의 위력을 세계에 떨친 두 청년과학자가 나타났다. 꽃보라가 날리고 환성이 터져올랐다. 사다리의 층계를 내려짚으려던 석홍범과 양명심은 어리둥절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이처럼 성대한 환영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였다. 군중의 머리우로 높이 쳐들린 프랑카드에는 이런 글발들이 씌여져있었다.

《라이쁘찌히국제시장에서 금상을 받은 과학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그들은 환호하는 군중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보내였다. 그리고는 거듭 손을 흔들어보이며 땅우에 내려섰다. 어데서 겨누어오는것인지 알수 없는 사진기의 섬광들이 번쩍거렸다. 붉은넥타이를 가슴에 날리는 남녀소년단원이 달려와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그뒤로 고중환이 나타났다. 남방샤쯔에 전이 넓은 초물모자를 쓴 그는 웃음진 얼굴로 석홍범과 양명심의 손을 잡아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무들을 성대히 환영해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지금 최전연에 나가계십니다. 래일 평양에 돌아오시면 동무들을 만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과학원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 밤은 려관에서 쉬시오.》

석홍범과 양명심은 감격했다. 외국려행기간 그들은 내처 그이에 대한 그리움에 휩싸여있었다. 조국에 있을 때와도 다르게 잠 못이루도록 사무쳐오는 그리움이였다. 금상을 받은 날부터는 더구나 어느 한시도 그이에 대한 생각을 잊은적이 없었다. 오늘의 성공에로 자기들을 이끌어주신 지나온 나날이 무시로 되새겨졌기때문이였다. 그런데 래일 만나주시겠다니 넘치는 기쁨으로 금시 가슴이 터질듯했다. 누가 뿌려주는지 알수 없는 꽃보라가 머리와 어깨우에 날려왔다. 그들은 헤여졌던 정다운 사람들을 차례로 만났다. 누구와도 긴 이야기를 나눌수 없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석홍범앞에 나타난 강민옥은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하는것도 아니였다. 웃음속에 울고 눈물속에 웃으면서 남편의 손을 잡은채 얼굴을 바라볼뿐이였다. 헤여져 그립던 남편을 만나는 반가움과 남편의 영예가 자랑스러워서만이 아니였다. 이 순간에 그는 과학의 길에 나선 남편을 리해하지 못하고 불만과 앙탈로 지지리도 속을 태워주었던 과거를 다시금 되새기였다.

《여보, 그만하고 물러나오.》

석홍범은 이 순간 안해의 말없는 웃음과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으나 주변정황을 생각하며 뿌리치지 않을수 없었다.
여러사람과 인사를 나눈 양명심은 군중속에서 할아버지를 찾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저희들이 오늘 귀국한다는걸 모르시나보지요?》
환영군중과 헤여져서 나들문으로 나올 때 양명심은 림수봉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저께 동무의 할아버지한테도 전화를 했소. 양선생은 전화를 받더니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인민대학습당강의가 물려있기때문에 평양으로 떠나겠다고 했소.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타나지 않았구만.》
할아버지의 신상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가? 영립에서 평양까지는 승용차로 한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선물로 받은 고급승용차를 가지고있다. 로인의 몸으로 기차를 타자면 불편스럽겠지만 승용차로는 쉽게 다녀갈수 있을것이다. 꼭 오시겠다던 할아버지가 오지 못한걸 보면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것이다.
과학원에서 왔던 사람들은 모두 평성으로 되돌아갔다.
시내로 들어온 석홍범과 양명심은 려관에서 려장을 풀었다. 려관에서는 그들에게 5층에 있는 특별호실들을 각각 제공해주었다. 몸이 뚱뚱한 관리원녀인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호실에 들어선 석홍범은 들고온 큼직한 트렁크에서 세면도구를 찾아들었다. 무더운 날씨와 마음의 흥분으로 비행장에서부터 흠뻑 땀을 흘리였다. 그는 서둘러 목욕실로 들어갔다. 눈부시게 흰 법랑욕조에는 맑은 물이 넘치게 차있었다. 그는 욕조에 몸을 잠그고 비스듬히 다리를 뻗쳤다. 한껏 달아올랐던 몸이 시원히 식어들면서 감미로운 쾌감이 전신에 퍼졌다. 무심결에 두손으로 물을 움켜서 눈앞에 쳐들었다. 오래간만에 피부에 느껴보는 조국의 물이였다. 손가락짬으로 습새여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자기의 체내에 흐르는 피처럼 소중히 느껴졌다. 전에는 체험해본 일이 없는 느낌이였다.
거뜬히 목욕을 하고난 석홍범은 호실의 창문들을 활짝 열어젖히고 창가에 섰다. 그는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과 꼬리를 물고 질주하는 자동차들을 바라보았다. 눈길이 닿는 그 모든것이 유정하게 안

겨왔다. 나직한 노래소리가 저도 모르게 입밖으로 울려나왔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얼마후에 석홍범과 양명심은 저녁식사를 하려고 맨 아래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식탁을 차지했다. 그들은 빈자리를 찾아 식당복판의 두리기둥옆에 앉았다. 꽃무늬비닐보를 씌운 네모진 식탁에는 네사람이 둘러앉게 되여있었다.

《여기에 앉아도 일없겠습니까?》

앉을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로인이 명심의 옆에 비여있는 자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어서 앉으십시오.》

명심은 공손히 응대했다.

로인은 자리에 앉더니 손에 들고있던 넙적한 초물부채를 부치며 대머리에 내밴 땀을 씻었다. 려관의 호실에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직방 식당으로 온듯싶었다. 명심은 로인을 무심히 바라보며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로인은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은듯싶은데 강마른 얼굴이였다. 낯모를 로인이 아니라 자기의 할아버지가 옆자리에 앉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가.

로인은 어지간히 땀을 들였는지 부채를 멈추고 두사람을 번갈아보았다. 나이탓으로 약해진 시력을 모으려고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유심히 바라보던 로인은 갑자기 탄성을 터쳤다.

《아, 라이쁘찌히국제시장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이구만! 내 다섯시 텔레비죤보도에서 동무들을 보았소. 내가 빗보질 않았겠지?》

《저희들이 옳습니다.》

석홍범은 싱긋이 웃으며 머리를 가볍게 숙이였다.

《동무들의 성공을 축하하오.》

로인은 석홍범과 양명심의 손을 잡아주었다.

《로인님은 어데 계십니까?》

석홍범이 물었다.

《청진광산금속대학에 있소.》

흔연히 응대하던 로교수는 흥분된 어조로 계속했다.

《나는 동무들과 같이 새파랗게 젊은 학자들이 성과를 거두고 온 것이 무엇보다 기쁘오. 교단에서 후대들을 키우는 사람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소.

우리 과학은 창창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소. 오늘 오전에 인민대학습당에서 옛 제자의 강의를 듣고 그것을 더욱 확신했소.》

석홍범과 양명심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다시 눈길을 로인에게 모았다. 백발이 성성한 로교수가 제자의 강의를 듣게 되였다니 사뭇 놀라운 일이였다. 뒤를 재촉하는 젊은이들의 시선을 느낀 로인은 서슴없이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다.

《인민대학습당에서 오늘 금속의 초소성가공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광고는 이미 지난 주에 텔레비죤으로 소개되였댔지. 금속공학전문가인 나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갔소. 전국에서 모여온 청강생들로 그 넓은 강의실이 꽉 찼더랬소. 그런데 연단에 나타난 강사가 글쎄 여러해전에 우리 대학을 졸업한 내 제자가 아니겠소. 나는 대학때에도 그 동무가 훌륭한 과학자로 되리라고 믿어왔지만 정작 강의에 출연한것을 보았을 때 그 놀라움과 반가움은 이루 형언할 길이 없었소. 미래의 금속가공기술로 인정되는 초소성가공법에 대해 그 동무가 참으로 깊은 연구를 하였더구만. 강의내용도 좋았지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티탄합금뿐아니라 다른 모든 금속가공에서 남 먼저 초소성가공기술을 도입해나가자는 열렬한 호소가 청중의 심금을 울렸소. 강의가 끝나자 장내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올랐소.

앞줄에 앉았던 나는 흥분된 나머지 분별을 잃고 연단으로 올라갔소. 그 동무는 나를 알아보더니 〈선생님!〉 하고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품에 안겼소. 그러자 청중은 더욱 우렁찬 박수를 오래 보내주었소. …》

로인은 말을 맺으며 눈을 슴벅이였다.

《그 동무가 지금 어데 있습니까?》

숨을 멈추고 듣고있던 명심이가 물었다.

《이제 식사하러 여기로 올게요.》

명심의 심정을 알바 없는 로인은 건성 대답을 하더니 마저 터놓지 못한 자기의 감정에로 되돌아갔다.

《동무들은 아마도 사랑하던 옛 제자의 강의를 듣게 된 스승의 심정을 리해하지 못할게요. 거꾸로 제자에게서 가르침을 받게 된것이 불쾌하거나 모욕으로 느껴질것 같소? 아니요. 그와는 반대로 한없는 대견스러움과 교육자된 긍지를 체험하게 되는거요.》

《선생님.》

명심은 로교수의 제자에 대하여 캐여묻고싶은 초조한 심정에 사로잡히며 그의 주의를 자기에게로 끌었다. 그러나 정작 묻자고 하니 무엇을 물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도톰한 입술을 방싯거리며 기대어린 눈을 빛내일뿐이였다. 로교수는 혈조가 번지는 처녀의 얼굴이 갑자기 푹 숙어지는것을 보고 영문을 알수 없어 고개를 기웃거렸다. 명심은 옆에 앉은 로교수의 제자가 박치영이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오늘 할아버지가 비행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까닭도 비로소 짐작이 갔다. 할아버지는 인민대학습당에서 자신이 해야 할 강의와 비행장상봉을 박치영에게 맡긴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나와 박치영의 관계를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다시 박치영을 이 려관에서 만나게 된것은 반갑고 기쁜 일이다. 상봉의 기대로 가슴은 잔잔히 설레였다. 한해전에 이 려관밖에서 만났을 때는 그가 비록 자책과 번민에 잠겨있었지만 그에 대한 지난날의 원한은 채 가실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만나면 순탄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이다. 서로의 성과와 전진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게 될것이다. 만일 그가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것이 현실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자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가슴이 설레였다.

## 7

낮동안 그렇게도 활기에 넘쳐 약동하던 거리가 잠들기 시작했다. 밤이 이슥해지자 고층아빠트의 창가들에 휘황히 빛나던 불빛이 하

나, 둘 꺼졌다.  대통로를 메우며 끝없이 달리던 차량들도 뜸해지고 꼬리를 물었던 무궤도전차들도 동안뜨게 나타났다.

전선동부의 최전연고지에서 저녁녘에 떠난 승용차가 수도의 거리에 들어선것은 이무렵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쪽잠에서 깨여나시였다. 련 사흘 높고낮은 산발들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군부대작전지휘소들과 중대들을 돌아보시는 과정에 덧쌓인 피로가 달게 쉬신 차실안의 쪽잠에서 다 풀린것 같으시였다. 손으로 눈시울을 문지르고 시계를 보시였다. 승용차에 달린 전자시계는 명멸하는 파란 문자로 10분전 11시를 가리켰다. 그러니 깜빡 잠드셨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쪽잠이 내처 하루밤을 푹 쉬고난것처럼 생각되시였다. 쉼없이 군부대들과 인민들을 찾으시는 과정에 피할길 없는 시간의 부족으로 잠시 차안에서 눈을 붙이군 하셨는데 인제는 그것이 굳어진 습관으로 되여버렸다. 차체의 부드러운 진동에 몸을 맡기고 쪽잠에 드는것이 침대에서 쉬는것보다 훨씬 편하시였다. 그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수면방법이기도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창유리를 내리우고 확 몰려드는 대기를 한껏 들이키시였다. 낮동안의 열기가 가셔진 밤공기는 신선하고 시원했다. 온몸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것을 느끼시자 한 병사의 모습이 머리속에 되새겨지셨다. 최전연의 어느 령마루에서 보초를 서던 애젊은 병사의 모습이였다. 그로부터 받은 인상이 너무도 강하였기때문에 쪽잠을 깨신 첫 순간에 그에 대한 생각부터 떠오르는가싶으셨다.

351고지를 떠난 승용차가 그 령마루에 이른것은 해질녘이였다. 령밑의 벌판을 달려올 때만 하여도 청청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다. 동서의 기류가 부딪치는 곳이여서 날씨의 변덕이 심한 령마루이고보면 그럴만도 하였다. 차창밖으로 멀리 내려다보이는 골짜기에는 저녁해빛이 찬란히 비치는데 령마루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낙비였다. 칼날같은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이고 뢰성이 울부짖었다. 운전사는 시창닦개에 스위치를 넣고 속도를 죽이였다.

비물이 씻겨지는 시창에 시선을 주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발속에 서있는 보초병을 보시였다. 비옷을 쓰지 못한 병사의 철갑

모에서 비물이 줄지어흐르고 군복어깨가 벌써 화락하니 젖었다. 그러나 병사는 아랑곳없이 그 누구의 구령에 맞추기라도 하듯이 절도있고 맵시있게 영접들어총을 하고 감격에 넘친 얼굴을 승용차쪽으로 돌리였다.

《운전사동무, 차를 세우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산을 찾아 펼쳐들고 멈춰서는 차에서 내리시였다.

보초병은 여전한 모습으로 조각처럼 서있었다. 병사로서 갖출수 있는 최대의 례절인 영접들어총자세를 언제까지나 허물지 않으려는 가십었다.

그이께서는 병사에게 급히 다가가서 우산을 받쳐주시였다.

《왜 보초서러 나오면서 비옷을 가져오지 않았소?》

병사는 역시 절도있는 동작으로 총을 내리우고 활기있게 대답했다.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가 올줄은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보초를 서는지 얼마나 되였소?》

《우리 소대는 한주일전에 왔습니다.》

《그러니 아직 이곳의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르겠구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비오는데 저때문에 이렇게 지체하시니…》

병사가 더 말을 못하며 두눈을 슴벅거렸다.

《괜찮아. 소나기가 멎을 때까지 함께 쌍보초를 서보자구.》

찬비를 맞고 어린 병사가 감기에라도 들릴것 같은 생각에 떠나실수 없었다.

억수로 퍼붓는 비방울이 잦은 가락으로 후둑후둑 우산을 두드렸다.

《고향은 어데요?》

《평양시 평천구역입니다.》

《아버지는 뭘하오?》

《구두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합니다.》

《아버지이름은 뭐요?… 내 동무의 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해주겠소. 아들이 군사복무를 훌륭히 한다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바쁘실텐데…》

상긋이 웃으며 얼굴을 붉히는 병사의 얼굴에는 사려깊은 감사의

정이 떠올랐다.

《일없소. 바쁘더라도 동무의 아버지에게 꼭 소식을 전해주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심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최전연을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처럼 훌륭한 아들딸들을 조국보위의 전초선에 내보낸 부모들에게 마음속의 감사를 보내고싶으시였다. 그 심정을 하나로 모아서 이번 전선길에 마지막으로 만나보신 이 초병의 아버지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려고 생각하시였다. 하지만 병사는 선뜻 응대를 하지 않고 우산밑으로 일순 비발이 자욱한 공간을 바라보더니 몹시 주저하는 기색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저의 아버지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소대 병사들의 심정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김정일**동지께서는 병사의 갸숨한 얼굴을 주시하시였다.

《저는 보초를 교대하기 전에 소대동무들과 함께 다섯시 텔레비죤보도를 보았습니다. 보도에는 라이쁘찌히국제시장에 가서 금상을 받고 귀국한 과학자들이 소개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환성을 올렸습니다. 세계에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위력을 과시한 사실은 국제체육경기나 예술축전에서 성과를 거둔것보다도 그 의의가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기쁨을 나누던 나머지 그 과학자들에게 우리 소대의 이름으로 축하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 편지초안을 쓸데 대한 과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야 소대 전체 병사들의 심정을 정확히 표현할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 과학자들에게 저희들의 심정을 직접 전해주셨으면…》

병사는 외람되게 미안스러운 부탁을 드리는것 같았는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어줍게 웃었다.

《그런데 왜 동무가 편지초안을 쓸 과업을 받았소?》

거기에 무슨 까닭이 있을듯싶으시였다. 이 병사와 그 과학자들사이에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것이 아닌지?…

《제가 소대전투소보원입니다.》

병사의 대답은 뜻밖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뭉클하도록 깊은 감명을 받으시였다.

이 병사를 통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모든 군인들의 심정을 보는듯 하시였다. 병사와 과학기술, 어찌 보면 량자사이에는 거리가 먼것 같이 여겨질수 있다. 그러나 그토록 조국을 사랑하고 목숨으로 사수하는 우리 병사들은 조국의 번영을 누구보다 축원하기때문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두고 그리도 기뻐하는 것이다.

《내 라이쁘찌히에서 돌아온 과학자들에게 초병들의 축하를 꼭 전하겠소!》

그이께서는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약속하시였다.

비발이 갑자기 성기여지면서 갈라지는 구름장사이로 저녁해빛이 쏟아져내리였다. 물안개가 굼실굼실 흘러가는 령마루에 칠색령롱한 무지개가 비끼기 시작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초병과 작별하고 차에 오르시였다.

초병은 다시 작별의 인사로 영접들어총을 하였다. 그이께서는 떠나는 승용차의 뒤창으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부동의 자세로 억세게 틀어잡은 병사의 총창에서 해빛이 눈부시게 부서졌다. 멀어져가는 시야속에 병사의 모습은 사라졌어도 총창에서 발산되는 그 빛발은 여전히 보이는듯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총대와 과학기술!》하고 마음속으로 외우시였다. 총대로 주체위업을 보위하고 과학기술로 부강조국을 건설하시려는 자신의 정치의지를 음미하시며 량자의 련관이 불러내는 철학적명상에 잠기시였다. …

《차가 지금 어데까지 왔소?》

회상에서 깨여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운전사에게 조용히 물으시였다.

《옥류교를 가까이하고있습니다.》

《곧장 봉화산려관으로 갑시다. 그 려관에 오늘 라이쁘찌히에서 돌아온 동무들이 류숙하고있소.》

운전사는 아무말없이 네거리에서 방향을 꺾어 봉화산려관쪽으로 차를 몰았다. 령마루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한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심중을 짐작하고있었다.

승용차는 려관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길가에 멈춰섰다. 그이께서는 운전사를 려관에 보내고 차실에 그냥 앉아계시였다. 려관의 호실에

직접 들리고싶으셨지만 그렇게 되면 잠자리에 들려던 손님들이 뛰쳐일어나 달려나올수 있었다. 운전사는 10분도 못되여 석홍범과 양명심을 데리고 나타났다. 차실에서 나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각각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였다.

《나는 래일 동무들을 만나자고 했었는데 한시바삐 보고싶어서 전연에서 돌아오는 길로 이렇게 찾아왔소.》

가로등빛이 비친 두 청년과학자를 번갈아보시며 감격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석홍범과 양명심은 그이를 우러르며 행복에 겨워 활짝 웃고있었다.

《이번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동무들에게 조국을 지켜선 초병들이 보내는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겠소. …》

그 이야기를 전하시는 **김정일**동지의 미소어린 얼굴에는 그윽한 표정이 떠올랐다. 영접들어총으로 바래워주던 초병의 얼굴을 그려보셨던것이다.

석홍범과 양명심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경건한 감정을 음미하며 숙연히 서있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초병들이 보내는 축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가슴에 안겨왔다.

《비약하는 우리 과학의 면모를 세계에 보여준 동무들을 금방석에 앉히고싶소, 금방석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숙어들줄 모르는 기쁨으로 마냥 가슴이 설레이시였다. 힘껏 대기를 마시며 밤하늘로 시선을 드시였다. 여물어가는 별들이 총총히 빛났다. 그 현란하고 찬란한 빛발이 전에없이 유정하게 안겨왔다. 자랑스러운 청년과학자들과 더불어 이밤을 즐기고싶은 생각이 불쑥 치미시였다. 그래서 승용차옆에 서있는 운전사에게 고개를 돌리시였다.

《동무는 뻐스를 타고 집으로 가오. 나는 이 동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누겠소.》

《제가 차를 몰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차는 내가 몰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벌써 차실문을 열고 운전사좌석에 앉으시였다. 그이의 권고에 따라 젊은 과학자들도 차에 올랐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차를 모시면서 그들과 우리 과학의 래일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계획했던 첨단과학의 중요한 지표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그이께서는 그에 토대하여 21세기를 지향하는 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구상을 품고계시였다. 조만간에 우리의 과학기술대오는 급격히 확대되고 질적으로 강화될것이다. 평양과 각 도소재지들에서 1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과정을 마친 뛰여난 인재들이 대대적으로 과학자대오에 들어서고있다. 그들은 첨단과학과 고도기술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신진력량이다. 말하자면 과학의 요새를 점령해가는 전투대오에 새롭게 투입되는 정예사단들이다. 그이의 눈앞에는 튼튼히 정비된 과학기술의 전투대오가 21세기를 향하여 돌진해가는 장엄한 전경이 하나의 뚜렷한 화폭으로 선명히 그려지셨다. 희망과 열정에 사로잡히신 그이께서는 자동차의 가속기를 힘있게 밟으시였다. 속도계의 바늘이 푸른빛조명속에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60, 80, 100, 120… 잎새가 무성해진 가지들을 펼치고 숙연히 잠들었던 가로수들이 놀라움에 깨여나 맹렬히 달려오다가는 한순간에 뒤로 휙휙 사라져버렸다. 멀리 보이는 검푸른 하늘이 빙글빙글 선회하면서 거기에 가득찼던 별무리가 축포의 잔광처럼 쏟아져내리였다.

젊은 두 과학자는 높은 속도감에 몸과 마음이 별무리 쏟아지는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야공속으로 두둥실 떠오르는듯 하였다.

## 8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던 가을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의 출입문을 나서시였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한대의 승용차가 정문으로 들어오더니 몇걸음앞에서 멈춰섰다. 차에서는 백발의 체소한 로인이 내리였다. 회색양복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로인은 옷깃을 여미며 다가오고있었다. 양영복박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향해 몇걸음 걸어가시였다.

《영복동무, 이게 얼마만이요?!》

수령님께서는 한량없는 반가움에 사로잡혀 그의 손을 잡으시였다. 양영복을 만나신것은 20년전이였다. 금속공학연구소를 찾으시고 티탄합금을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것이 바로 그때였다. **김정일**동지를 통하여 양영복의 그간 연구사업정형을 여러번 듣기는 하셨지만 직접 다시 만나게 된것은 지금이 처음이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양영복의 모습에는 멀리 흘러간 세월이 여러모로 흔적을 남기였다. 검은 머리가 희여지고 혈기가 넘치던 얼굴에는 얼기설기 주름이 잡히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변모된 그의 모습에서 세월의 자취만이 아닌 고심어린 탐구의 오랜 나날을 더듬으시였다. 양영복은 해방직후에 흥남제련소에서 일제가 파괴한 설비들을 복구하여 아연과 동을 비롯한 유색금속을 생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당시 38도선을 넘어 남반부에서 들어온 강영창, 김두삼, 리재업과 함께 그는 흥남인민공장으로 불리우던 그 지구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에 헌신한 귀중한 인재들중의 한사람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편협한자들의 따돌림을 받고 후퇴대렬에서 떨어지게 된 그는 외진 산촌에 은신하였다가 그후 마을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적들의 나팜탄에서 휘발유를 정제해내는 일을 시도했다. 인민군대의 땅크와 자동차에 넣어줄 휘발유였다.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과학자로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후에 강영창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모른다. 전화의 나날이였지만 그를 만나고싶으셔서 즉시 찾으시였다. 그러나 휘발유를 제공받은 어느 인민군부대에서 그를 병사로 입대시켜 데려갔다고 하였다. 연유사정이 긴장했던 그 부대에서는 양영복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것이 커다란 행운이였을것이다. 하기는 그 부대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양영복자신이 총을 잡고 원쑤격멸의 길에 나서기를 원하였을것이다.

1952년, 전쟁의 불길속에서 과학원을 창립하실 때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에 있는 양영복을 포함한 여러 과학자들의 이름을 찍어서 그들을 찾아 소환할데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모든 인민군부대들에 하달하시였다. 력사적인 과학원개원식에 양영복은 병사복차림그대로 참가했었다. 그때 그를 만나시던 기

억은 영원히 잊을수가 없으시였다. 전후에 양영복은 정밀합금연구에서 세계금속학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과학적발명을 하였다. 60년대 후반기부터 티탄연구에 고심어린 노력을 경주하여온 그는 3년전에 그 합금생산기술개발에 성공하였고 오늘은 그 가공법을 완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저께 드디여 성공한 티탄합금의 초소성가공공정을 찍은 록화필림과 기술보고서를 보시였다. 참으로 기쁘고 대견스러운 일이였다. 그리하여 **김정일**동지께 양영복박사를 불러줄것을 부탁하셨던것이다.

《양동무, 수고했소. 대단하오. 티탄합금생산뿐아니라 그 가공까지 우리 식의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한 동무에게 무슨 말로 축하를 주어야 할지 모르겠소!》

**김일성**동지께서는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와 얽혀졌던 가지가지 추억과 그의 놀라운 과학적성공을 두고 가슴에 차오르는 기쁨이 한데 겹치면서 목이 잠기셨던것이다. 양영복은 말없이 마주 바라보기만 하였다. 한말씀 올리려고 입귀를 실룩이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입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했다. 주름진 눈귀와 입술에는 한없이 반가운 웃음이 번지는듯싶은데 늙어서도 정기를 잃지 않은 눈동자에는 뿌잇하니 물기가 어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목메여 말 못하는 그의 심정이 느닷없이 어리는 눈물에 후덥게 실려오는것을 느끼시였다. 그 눈물이 상기시켜주는 또 하나의 추억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지 몇해후 일이였다. 양영복은 성진제강소에 내려가 정밀합금실험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냈다. 오랜 인테리들을 색안경의 검은빛으로 조명해보던 반당종파분자들이 그 사고를 의식적인 파괴행위로 몰아붙이며 양영복을 처벌하려고 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아시게 된 **김일성**동지께서는 격분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양영복동무는 열렬한 애국자이고 재능있는 학자요! 그것을 내가 보증하겠소!》

곤경에서 풀려난 그를 만나셨을 때 그는 지금처럼 아무말없이 물기어린 눈으로 마주보기만 했었다.

《자, 우리 저기 휴식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당뒤쪽을 가리키시며 먼저 걸

음을 옮기시였다. 원형응접탁두리에 접이식의자가 둘러놓인 휴식터는 머리우로 얼기설기 얽혀진 등나무가 서느러운 그늘을 드리우고있었다. 자리에 앉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주앉은 양영복에게서 감회가 어린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양동무, 지금 나이가 몇이던가요?》

《일흔여덟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였구만. … 어디 아픈데는 없습니까?》

《심장이 좀 나빴댔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보약을 먹고 회복되였습니다.》

《나는 **김정일**동지가 해방후부터 나와 함께 일하던 과학자들을 특별히 아끼고 돌봐주기때문에 마음을 놓습니다.》

그윽한 표정을 지으며 한순간 생각에 잠기셨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양영복에게 시선을 주시였다.

《우리가 처음 만나서 나라의 과학발전문제와 교육문제를 의논하던 때가 해방된 그해 가을이였지요.》

《그렇습니다. 개선연설을 하신지 며칠후에 당시 북반부에 있던 과학자, 기술자들을 불러주셨댔습니다. 지금 당창건사적관으로 쓰고있는 청사의 집무실에서 젊으신 수령님을 만나뵈옵던 일이 어제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 나나 양동무는 다같이 30대 전반기였으니까 청춘시절이였다고 할수 있지요. 그때부터 변함없이 당을 따라 충실히 혁명에 복무해왔을뿐아니라 인생말년에 이른 오늘에도 그처럼 귀중한 연구성과를 내놓은 동무를 보게 되니 실로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한한 감개가 가슴에 젖어드시였다. 양영복은 빈터에서 시작되여 오늘에 이른 우리 나라 과학발전의 산 증견자라고 할수 있다. 그가 걸어온 생애의 갈피들은 우리 나라 과학발전사와 깊이 얽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령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과학의 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쳐왔다. 로년기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밑에 최첨단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 진군길에서 여생을 꽃피우고있다.

《수령님, 제 한가지 속에 품고있던 심정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양영복은 심중한 표정으로 조심히 입을 열었다.

거무스레한 로인반점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낯색이 붉어졌다. 이 순간에 실토하지 않고는 못 배기리만큼 간절한 사연을 담고 두눈이 빛났다.

《어서 말하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표정의 변화에 저으기 놀라며 재촉하시였다. 양영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듯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수령님의 과분하신 치하를 거듭 받고보니 저로서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저는 몇해전에 티탄합금생산기술에 성공을 보게 되자 그것으로 자기의 과학적생애가 끝난것으로 여겼습니다. 나이탓으로 로둔해져서 이제 더는 과학연구사업을 할수 없는것으로 자인했댔습니다. 이미 해놓은 과학적공적도 없지 않다는 자족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 물러나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저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민족의 존엄을 걸고 다른 나라들의것을 압도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끄심이 안계셨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참말로 연구과정의 전기간에 저희들에게 세심하신 가르치심을 주시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티탄합금의 가공기술은 실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시였다. 양영복의 고백은 진실했다.

《양동무가 말한것처럼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을뿐아니라 최근년간 우리 과학부문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고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원탁우에 놓인 고뿌에 손수 차를 따르시고는 그 하나를 집어드시고 다른 하나를 양영복에게 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영복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번에 양동무는 우리에게 과학기술봉쇄를 가해오는 제국주의자들을 보기 좋게 후려쳤습니다. 그들에게 조선과학자들의 본때

를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저희들것보다 월등한 티탄합금가공기술을 우리가 개발했다는걸 알면 깜짝 놀랄겁니다. 어저께 **김정일**동지가 양동무네 연구성과를 이야기하면서 초소성가공방법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의 호상관계를 새롭게 반영한 방정식을 정립한것은 세계적인 과학적발명이라고 했습니다. 양동무는 세계금속학계의 거장들대렬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양영복은 들고있던 고뿌를 원탁우에 놓고 사뭇 감개어린 표정으로 말씀드리였다.

《수령님, 제가 그런 과학적발명을 했다는것이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람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경우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연구한것이지만 그것을 되돌아보고는 이것이 과연 내가 이룩한것이 옳기는 옳은가? 나에게 과연 이런 과학적지혜가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인생말년에… 하고 놀라군 합니다. 생각하면 위대한 스승을 모신 덕분이였습니다. 명장의 휘하에는 약졸이 없고 훌륭한 스승의 문하에는 구실 못하는 제자가 없다는 옛 성현들의 말이 옳은것 같습니다. 빗나간 사상을 바로잡아주시고 모르던 방법을 틔겨주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치심을 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하에서 저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여넘었습니다.》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는 우리 과학자들의 신념에는 얼마나 진실한 생활적감정이 깔려있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로학자의 숨김없는 고백에서 그것을 가슴후덥게 느끼며 일순 생각에 잠기시였다.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걸고 우리 과학을 세계적수준에로 이끌어올리시려는 **김정일**동지의 의지와 구상이 과학자들의 심장에 신심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이의 주체적인 탐구의 방법론이 과학자들의 머리에 지혜의 나래를 펼쳐준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이 연설에는 민족의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고 조선을 빛내이는데 삶과 투쟁의 전체 목적을 두신 **김정일**동지의 신념과 의지가 피력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세계에 조선을 빛내이고 조선을 떨칠 웅대한 포부를 안고 성장하신 **김정일**동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계시였다. 룡남산마루에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불멸의 맹세를 한편의 시구에 담아 읊으신것은 30여년전의 일이다. **김정일**동지는 그 포부와 의지로 오늘의 우리 과학을 이끌고있다. 다른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특히 과학분야에서는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떨치려는 자각이 없이는 세계적인 발명과 발견을 이룩할수가 없다. 크나큰 심장에 현명한 두뇌가 결합될 때 위대한 정신적창조가 이룩되는 법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이어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색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양동무가 잘 아다싶이 나는 우리 나라 과학의 토대를 쌓고 발전시켜오면서 일찌기 〈과학자는 과학자로 되기 전에 애국자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이 사상을 발전시켜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우리 과학을 이끌고있습니다. 기성과학과 구별되는 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오늘에는 단순한 애국주의가 아니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그 사상적바탕으로 되여야 합니다. **김정일**동지가 새롭게 내놓은 과학지도사상은 참으로 정당합니다. 오늘 우리 과학자들은 세계를 굽어보는 담력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기때문에 양동무가 이룩한 그러한 발명도 할수 있었을것입니다.》

《수령님, 우리 과학자들이 **김정일**동지를 스승으로 모시는데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과학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고계십니다. 저는 그이와 금속공학을 놓고 학술론담을 나눈 일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분야의 해박하신 지식에 깜짝 놀라군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수학과 물리와 같은 기초과학은 말할것도 없고 전자공학과 열공학, 생물공학과 분자생물학, 로케트공학과 우주공학 같은 첨단과학의 여러 분야에 정통하고계십니다. 최근년간에 그이께서는 여러 연구기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였는데 그곳 학자들도 한결같이 말하는것이 어쩌면 자기들도 미처 모르는 전공분야의 지식과 발전추세를 그이께서 그처럼 폭넓게 알고계실가 하는 경

탄과 의혹입니다. 세상에 이름높은 천재들도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인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한계를 모르시는 **김정일**동지의 무한대한 인식능력은 신비롭다고밖에 달리는 표현할길이 없습니다.》

《양동무의 말을 들으니 얼마전에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 방송에서까지도 **김정일**령도자는 전자공학을 비롯한 현대과학에 정통한 현대형의 정치가라고 했습니다.

내 기억이 생생한데 **김정일**동지는 어려서부터 자연과학에 뛰여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가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 앞으로 그를 자연과학자로 키운다면 크게 성공할것이라고 나에게 권고해온 교원들도 있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멀리 흘러간 옛시절의 추억을 더듬으시며 빙긋이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에도 조예가 깊으신데 과학분야에도 그렇게 해박하시니 과학문화령역의 모든 재능과 예지를 일신에 리상적으로 갖추고계십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그이를 특별히 흠모하고 따르는것은 위대한 정치적령도자로서만이 아니라 그이의 다방면적인 비범하신 지식과 재능에 깊이 머리가 숙어지기때문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지식인들이란 누구보다도 위인의 천재성을 깊이 리해할줄 알며 그앞에서 경건히 머리숙일줄 아는 사람들이다. 사실 령도자와 지식인들사이가 지금 우리 나라에서처럼 사상의지적으로뿐아니라 도덕륜리적감정으로 튼튼히 결합된 전례는 력사에 일찌기 없었다. 지식인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천재적인 스승으로 모시는 반면에 **김정일**동지자신께서는 지식인들을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여기신다.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수령님께서는 화제를 바꾸며 물으시였다.

《양동무는 이제부터 〈별빛〉연구사업에 참가하기로 되였다지요?》

《며칠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그곳 사업을 도와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이의 〈별빛〉계획구상을 듣고 저는 참으

로 놀랐습니다. 우리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는 보이는것보다 보이지 않는것이 더 많다는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건강에 류의하면서 젊은 학자들을 도와주시오. **김정일**동지도 양동무의 건강을 몹시 걱정하며 〈별빛〉 연구집단의 요구를 들어주었답니다. 그곳 동무들이 오래전부터 양동무를 보내달라고 제기한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새것을 해놓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곳 동무들을 힘껏 도와주겠습니다.》

《털어놓고 말합시다. 동무도 들었겠지만 〈별빛〉에 포함된 연구과제들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공지구위성입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머리가 총명하기때문에 필요한 물질적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릴수 있습니다. 인공지구위성의 주요부분에 없어서는 안될 재료의 하나가 티탄합금이였는데 마침내 그 가공기술까지 해결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쓰이는 특수한 물성재료들도 초고압유압프레스가 개발되였기때문에 만들어낼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집단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공지구위성설계와 제작에 착수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애로와 난관은 적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가 직접 그 사업을 지도하고있는것만큼 기어이 쏴올리게 될겁니다. 그날이 오면 내 양동무를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날의 경사를 보도록 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머리를 드시였다. 그날을 그려보시며 가없이 푸르게 열린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 *9*

영림을 떠난 승용차 한대가 북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경쾌하게 달리였다. 운전사곁에는 박치영이 앉아있었다. 양영복을 대신하여 《별빛》연구집단으로 소환되여가는 길이였다.

양영복박사는 로환으로 한달전에 일흔아홉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인공지구위성의 어느 한 부분품의 가공을 위한 공정도를 작성하다가 순직했다. 그에게서만 볼수 있는 고도로 집중된 탐구적사색

이 한껏 승화되는 상태에서 확대경과 연필을 든채 숨을 거두었다. 로쇠한 심장은 마지막피방울까지 과학적탐구를 위해 폭발적으로 연소시키고 고동을 멈추었다. 양영복은 생전에 원하던대로 자신의 육체적생애와 학자로서의 생애를 완전히 일치시키였다.

몇분의 차이도 없었다. 다문 몇시간이라도 자리에 누워서 림종을 맞이한것이 아니였다. 결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병사마냥 마지막순간까지 결사적인 탐구속에 그리도 깨끗이 숨을 거두었다.

박치영은 비보를 들었을 때 슬픔도 컸지만 보다는 엄숙하고 경건한 감정에 휩싸였다. 양선생은 바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셨구나! 신비롭다고 할만치 류다른 최후였다.

양영복선생은 해방직후 청춘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탐구자의 한생을 살아왔으며 말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믿음과 사랑속에 여생을 빛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였고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여주시였다. 더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였다. 그러나 림종의 시각에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했다. 흔히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로인들은 림종을 앞두고 고별의 인사로 유언을 남기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대들에게 꼭 하고싶은 당부가 있는것이다. 하지만 한생을 시간에 짓쫓기며 과학탐구에 열중하여온 양영복선생에게는 최후의 순간에 유언을 남길 시간적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의 최후의식은 유언을 남겨야 한다는 범상한 생각이 아니라 열광적인 탐구의 사색속에 초불마냥 마지막불꽃을 날리고 꺼져버렸다.

그런데 양영복의 장례를 치른 며칠후에 그의 책상빼람에서 한통의 편지가 발견되였다. 박치영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써놓고 미처 부치지 못한것이였다.

후날에 박치영은 《별빛》연구집단의 한 일군이 전해주는 그 편지를 받았다.

내가 연구소를 떠나 이곳에 온것이 어제일같은데 벌써 한해가 흘렀네. 자네가 무척 보고싶네. 이곳에 와서도 자네가 곁에서 조력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

자네도 짐작이 가겠지만 이곳의 연구사업이야말로 세계적수준으로 나래쳐오르는 우리 과학의 실상을 대표할만 한것이고 우리 조국의 위력을 세상에 떨치게 될 그런것이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비약하는 우리 과학의 발전모습을 커다란 경탄속에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있네. 전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즈막에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 자꾸만 아쉽게 생각되네. 우리 과학의 눈부신 미래가 바야흐로 다가오는데 나의 인생은 종착점을 향하고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단 말일세. 몇해만 더 살면 우리 과학사의 위대한 사변을 보게 될것 같네. 하지만 오래 사는것은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뜻대로 할수 있는것은 남은 여생의 한초한초를 더욱 보람있게 사는것뿐이네. 그래서 분발하고있네. 한편 나의 과학적생애의 연장선우에 자네와 같은 재능있는 후대들이 서있다는것을 생각하면 오늘 죽어도 한됨이 없다는 생각도 드네.

내 없는 사이에 제련소에서는 새 가공법을 도입하는 공사가 성과적으로 벌어졌고 거기에서 자네가 큰 몫을 감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오늘에 이른 자네는 나보다 티탄연구에서 훨씬 앞섰네. 나는 그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여기네.

치영이 이 사람, 젊어서는 흔히 성공에 도취되면 허영에 들뜨기가 쉬운 법이네. 몇해전에 저질렀던 자네의 잘못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세. 그때의 자네가 아니라는것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하지만 떨어져있다보니 편지로나마 자네한테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단 말일세.

내가 하는 말을 꼭 명심해주기 바라네. 실상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한생을 살아온 우리 과학의 1세대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네와 같은 후배들에게 평소에 늘 호소하고싶던 말이기도 하네.

자네도 아다싶이 과학자체에는 아무런 리념도 없네. 그리고 과학적성과는 어느 나라의 그 누가 달성하였던간에 인류공동의 재보에 속하네. 바로 이때문에 자고로 많은 과학자들이 정치와 담을 쌓고 상아탑속에서 연구사업을 하여왔네. 그러나 과학자에게는 그를 낳아키워준 어머니조국이 있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던 우리 과

학자들을 접견하신 석상에서 절절히 말씀하시였네.
《동무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대학을 나왔지만 조선사람의 피줄을 타고난 과학자, 기술자라는것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을것입니다. 피줄의 인연은 선택할수도 없고 바꿀수도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할수 없는것처럼 조국을 선택할수는 없습니다.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갓 해방된 우리 나라는 세계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뒤떨어졌다고 하여 자기 조국을 배신한다면 조선사람이기를 부정하는, 다시말하여 자기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일것입니다.
나는 동무들의 민족적량심과 조국애를 믿습니다. 나와 함께 굳게 손잡고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해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바쳐주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부터 자신의 운명을 내 조국, 내 겨레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시키기로 결심하고 이날까지 살아왔네. 그런데 조국과 민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네.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성원들이네. 누구나 잘 아는 리치를 설교한다고 생각지 말아주게. 이 위대한 리치를 터득하는데는 론리적인 인식이 아니라 심장의 체험이 필요하네. 만일 위대한 수령님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결합시키지 않았다면 나의 지나온 한생이 어찌 되였을가 하고 돌이켜보면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뜩해지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네. 두분의 령도를 충심으로 따르는 그 길에 조선과학자의 행복이 있고 과학적성공의 담보가 있네. 이것이 내 한생의 총화이고 후대들에게 넘겨주고싶은 정신적유산의 전부이네.
치영이 이 사람, 내가 보지 못할 우리 과학의 찬란한 미래를 자네는 보게 될걸세.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이끌고계시는 조선의 과학은 반드시 그이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시대에 세계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오를것이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온 우리 과학의 1세대들도 복받은 세대였지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과학

을 세계적수준에로 이끌어올리는 력사적위업의 실현을 보게 될 다음세대의 과학자들은 더욱 행복한 세대일세.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뜻을 받들어가는데 자기 삶의 전체 목적을 두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주게. 그러면 자네의 뛰여난 재능이 놀랍게 꽃필것이네. 나는 최근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정치와 과학의 호상관계를 두고 명상에 잠기는 때가 있네. 자고로 과학은 정치와 인연이 먼것으로 여겨왔지. 그러나 나는 과학이야말로 사회생활의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정치에 의하여 그 성과여부가 가장 민감하고 예리하게 좌우된다고 인정하네. 정치가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라면 사람들의 정신활동분야, 지적창조활동분야에 가장 예리하게 작용하리라는것은 정한 리치라 할것이네. 과연 그렇네. 숭고한 리념에 고무되고 옳바른 방법론을 구현할 때 과학자는 자기의 준비정도를 초월하여 놀라운 창조를 이룩할수 있네. 이것은 론리라기보다 나의 체험일세. 나의 인생경험으로 재삼 호소하고싶은것은 앞으로 자네가 그 무엇을 연구하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과학지도리념과 주체적방법론을 따르라는것일세.

굳이 당부를 하지 않아도 자네가 어련하겠지만 어쩐지 요사이는 자네에게 꼭 이런 말을 하여주고싶네. 스스로도 이상스러운 일이네.

자네와 명심이가 생활의 길동무로, 반려자로 약속이 된것은 나로서는 더없이 기쁜 일이네. 장차 과학자부부로 서로 도우면서 크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네.

편지내용을 보면 양영복선생이 림종을 예감한듯싶었다. 그렇기때문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렇듯 절절한 당부를 보냈을것이다.

박치영은 그 편지의 구절마다를 가슴에 새기였다.

지금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그 편지를 되새겨보는 박치영은 옷깃을 여미며 엄숙한 감정에 사로잡히였다. 양영복선생의 령전에 다시 선듯 한 느낌이였다. 눈앞에 생전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연구소옆의 오물장에서 연구기록을 찢던 자기를 발견하고 엄하게 꾸짖던 그 모습이였다. 그때에는 수치와 자책감에 용서도 빌지 못하고 달아나버렸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 결심

을 터놓을수 있다. 선생님, 선생님의 당부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생전에 선생님이 바라신대로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 《별빛》연구집단에서 선생님이 담당했던 일을 넘겨받고 그리로 갑니다. 선생님당부대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과학으로 잘 받들어모시겠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편지는 언제나 저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을것입니다. 머나먼 인생길에 혹시 빗나감이 있다면 그 편지가 저를 채찍질하여줄것입니다. 제 걱정을 마시고 편히 잠드십시오!

하고싶은 말을 다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승용차는 쾌속으로 달리였다.

## 그후 이야기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흘렀다.

1998년 8월 31일이였다.

평양은 거리마다 명절준비로 흥성거렸다. 9일후이면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이하게 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반세기의 력사를 기록하는 이번 창건절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해 드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위훈으로 올해의 나날을 수놓아왔다. 명절에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군중시위와 다채로운 행사들이 예견되여있었다. 거리의 좌우에는 벌써부터 명절을 장식하는 경축탑들이 솟아오르고 선전화들이 나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절을 앞두고 전혀 상상할수 없는 경이적인 사변이 벌어지게 되리라는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이날 정오무렵이였다.

지난 8월 초순에 부분품들의 조립과 련동시험이 진행되였다. 위성과 로케트의 설계, 체계완성, 다계단로케트의 분리기술, 믿음성분석, 궤도작성과 원격조종, 우주환경의 지상모의시험 등을 담당했던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지에 가있었다. 그들은 발사준비를 위한 모든 준비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워낙은 오늘 저녁에 위성을 발사하기로 예정되여있었다. 위성은 일반적으로 미명의 새벽과

땅거미가 깃드는 저녁시간에 발사하는것이 전례로 되여있었다. 자리길관측에 유리하기때문이였다. 그 시간에 지상은 어둡지만 200키로메터이상의 고공을 나는 위성은 해빛을 받아 반짝이기때문에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였다. 그래서 저녁시간을 예정했는데 기상예보에 의하면 그 시간에 비가 오면서 고공풍이 심하게 분다고 하였다. 현지에서는 결론을 기다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왕 발사준비를 끝낸바에는 저녁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낮 12시에 쏴올리자고 하시였다. 그 시간에도 전파탐지기에 의한 관측은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을것이기때문이였다.

텔레비죤화면에 발사대와 정비탑이 나타났다.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발사장주변에는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정비를 한 사람들도 지금은 대피소나 지령소에 가있을것이다. 정비탑과 잇달린 발사대에는 다계단운반로케트가 위성을 머리에 떠이고 곧추 서있었다. 보기에도 그 위용이 자못 어마어마했다. 무비의 힘으로 창공을 날아오를 태세를 갖추고 천국의 어명을 기다리는 전설속의 신화적생명체를 련상시켰다.

《별빛》연구집단에 망라된 학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모아 《광명성1》호라고 부르게 된 인공지구위성이였다. 텔레비죤화면은 다시 뒤바뀌였다. 운반로케트와 위성의 조종소가 나타났다. 여러명의 학자들이 귀에 레시바를 걸고 콤퓨터앞에 앉아있었다.

《저기에 박상수도 있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자들속에 끼여있는 박상수를 알아보시고 고중환에게 말씀하시였다.

《국제수학올림픽금메달수상자답게 박상수는 이번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더없이 마음이 긴장한 가운데서도 박상수를 보시니 대견스러움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박상수는 몇년전에 대학을 졸업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조종수학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그는 인공위성과 운반로케트의 자리길계산에 참가하였다. 우리의 자리길계산은 례외적으로 복잡한 공정을 거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발사방향을 진동쪽 방위 90도로 정하였다. 그것은 지구의 자전에 해당한 최대속도를 얻을수 있는 방향각이였다.

우리 학자들도 처음에는 그러한 자리길을 예견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중히 생각하시던 끝에 속도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일본의 혹가이도와 혼슈사이의 쯔가루해협상공으로 정하라고 하시였다. 진동쪽으로 발사를 하면 우리의 운반로케트가 일본령토의 상공을 통과하기때문이였다. 물론 운반로케트가 일본령토우를 날게 될 때면 령공의 한계를 훨씬 벗어난 고도를 취하게 될것이다. 그러니 결코 령공침범으로 되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주변나라의 자주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2계단로케트의 잔해가 일본령해 가까운 곳에 떨어질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였던것이다. 그이의 가르치심에 따라 쯔가루해협상공으로 자리길이 다시 수정되였다. 그 해협은 폭이 좁았다. 수만메터의 고공에서 해협중심을 통과하게 계산을 하고 조종을 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상의 자리길을 긋듯이 정확히 확정하였다.

인공지구위성의 개발에는 박상수와 같이 최근년간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과학자들이 수많이 참가했다. 당의 수재교육방침에 의하여 어려서부터 뛰여난 재능을 키워온 그들에 의하여 앞으로 수많은 인공지구위성들이 발사될것이다.

《이번 발사를 준비해온 과학자, 기술자들중에서 제일 년장자가 양영복선생이라면 제일 나어린 사람은 박상수입니다. 인공지구위성에는 우리 과학의 구세대와 신세대의 지혜가 모두 담겨져있습니다.》

그이의 음성에서는 뜻깊은 여운이 울리였다. 고중환은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생각했다. 참말로 인공지구위성은 우리 과학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발전의 일로를 걸어온 지난 반세기의 총화였다. 거기에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 열공학, 새 재료공학, 로케트공학과 우주공학 등 우리가 최첨단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여있었다.

《양영복선생이 오늘의 경사를 보지 못하고 먼저 간것이…》

조용히 혼자말씀을 하시던 그이께서는 말끝을 흐리시였다. 박상수의 모습이 련상작용을 일으키며 양영복박사에 대한 애석한 마음을 불러내였다. 그가 오늘의 이 경사를 안다면 얼마나 기뻐할것인가!

화면은 다시 바뀌였다. 이번에는 지휘소가 나타났다. 로케트공학과 우주공학의 권위자들인 여러 학자들이 보이였다. 한껏 흥분이 어린 얼굴들이였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운반로케트와 인공위성을 직접 설계하고 종합체계를 완성한 그들은 이 순간에 누구보다 가슴을 조일것이다. 여러차례의 부분별 시험과 종합적인 련동시험을 성과적으로 거치기는 하였지만 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알수 없었다. 인공위성을 쏴올린 다른 나라들의 전례는 례외없이 여러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야 성공을 보았다. 단번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 이미 많은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 나라들에서도 새로운 발사에서 참담한 실패를 면치 못하는 때가 종종 있는것이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12개의 통신위성을 적재한 《제니뜨－2》호가 발사장에서 발사되였으나 실패하여 《뺑가드》의 전철을 밟았다.

과연 우리의 첫 발사는 어떻게 될것인가? 화면에 비낀 지휘소의 과학자들 얼굴마다에는 땀발이 돋았다. 발사순간을 눈앞에 둔 집무실에도 한순간 긴장한 침묵이 깃들었다. 고중환은 한껏 가슴을 조이며 **김정일**동지의 표정을 살피였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앞탁에 놓인 탁상시계를 바라보고계시였다. 폭풍전야의 정적을 토막치듯 찍어넘기며 시계의 초침이 돌아갔다.

마침내 예정된 시간이 되였다.

순간 그이의 안광에서는 우주를 압도하는것 같은 결단의 의지가 빛발쳤다. 텔레비죤화면은 다시 발사장으로 옮겨졌다. 점화된 1계단로케트밑으로 거대한 불기둥이 뿜어지면서 천지를 진감하는 뢰성이 뒤따랐다. 발사탑을 떠난 로케트는 점점 속도를 높이며 수직으로 날아오르다가 동쪽방향으로 궤도를 그리였다. 그러더니 미구하여 화면에서 사라져버렸다. 송상카메라의 촬영한계를 벗어난것이다. 그대신 여러 관측소들과 조종실에서 보내오는 자료들이 보고되였다. 발사후 95초만에 1계단로케트가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253키로메터 떨어진 북위 40도 51분, 동경 139도 40분의 조선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2계단은 144초만에 머리부류선체를 활개하고 266초만에 분리되여 발사장으로부터 거리 1 646키로메터, 북위 40도 13분, 동경 149도 07분의 태평양공해상에 떨어졌다.

3계단은 2계단이 분리된 후 27초만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다계단운반로케트는 조금의 편차도 없이 예정된 자리길을 날았다. 우주를 횡단하며 지구주위를 돌기 시작한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선률과 함께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전신부호가 27메가헤르쯔로 지구상에 전송되였다. 자기 궤도에 진입한 위성의 내부압력과 탐측기구들의 동작도 정상이였다. 의심할바없이 성공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이 그대로 위성과 함께 우주를 선회하는듯 한 환영에 사로잡히시였다.

《부부장동무!》

그이께서는 진정할수 없는 충동에 떠밀리우며 자리에서 성큼 일어서시였다. 따라일어선 고중환은 자기의 손을 와락 움켜잡으시는 그이의 눈에 눈물이 어리는것을 보았다. 그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눈시울을 슴벅이며 생각했다. 우리 과학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불철주야로 로고를 바쳐오신 **김정일**동지께서 지금 체험하시는 심정은 어떠하실가. 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오늘의 높이에로 이끌어오신 그이의 격정은 참으로 얼마나 크실가.

**김정일**동지께서는 목메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부부장동무, 오늘의 이 경사를 수령님께서 보셨다면… 수령님 생전에 쏴올리지 못한것이 한스럽습니다!》

고중환은 뭉클해오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그이의 눈에 고이는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그이께서는 이 순간에조차 자신이 이룩하신 위업에 대한 긍지와 환희를 느끼시기에 앞서 수령님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그이의 심정에 이끌린 고중환의 머리속에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수령님의 영상이 떠올랐다.

(수령님, 기뻐해주십시오.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선의 인공지구위성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쏴올리셨습니다!…)

가슴속에는 하고싶은 말이 많았으나 느닷없이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뒤를 이을수가 없었다. …

그때로부터 닷새후인 9월 4일 조선중앙통신사는 우리 나라가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 성공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였다. 당일에 보

도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충분한 관측을 통하여 위성에 설치한 기구들의 성능과 과학적자료들을 확증하기 위해 며칠간 미루어왔다.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는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시간과 자리길을 비롯한 일련의 자료들을 공개하고 다음과 같이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이번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단 한번의 발사로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100프로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것이다.》

그 보도에 접한 온 나라가 환희와 긍지로 들끓었다. 소문없이 준비하여온 일이여서 보도를 듣는 첫 순간은 누구나 깜짝 놀랐다. 충격적인 사변을 목격하는듯 한 심정들이였다. 다음순간에는 우주강국의 공민된 자부심과 긍지가 가슴에 넘치였다.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에서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여러해째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지만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얼마나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는가! 우리의 주체과학은 또 얼마나 높이 나래쳐올랐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두려울것이 없다!

온 세계를 향하여 그렇게 웨치고싶은 심정들이였다. 그에 화답하듯 세계의 통신과 방송, 신문들이 앞을 다투어 이 경이적인 소식을 전하며 격찬을 보내여왔다.

《조선의 위성발사는 과학분야에서 거대한 성과이며 위성분야에서 조선이 당당히 우주렬강대렬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이 위성을 쏴올린 기술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이 나라가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보유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에서 세력균형이 변화될수 있다.》

《조선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의 잠재력은 누구도 예상할수 없다. 이 나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는지는 미래의 력사만이 알수 있을것이다. …》

…

경탄으로 뒤설레이는 세계를 굽어보면서 비약의 나래를 펼치고 높은 봉우리에로 솟구쳐오르는 우리 과학의 위력을 떨치며 《광명성 1》호는 자기의 궤도를 따라 계속 날고있었다.